연구보고 10-R11-2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 Ⅴ
: 발달권·참여권 정량지표

책임연구원 : 모상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김영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김윤나(한국사이버대학교 · 교수)
이중섭(광주대학교 · 겸임교수)
연구보조원 : 노자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보조원)
김현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보조원)

NY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결과 요약

1. 연구목적

- 이 연구는 2006년부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연속사업으로 수행되어온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의 5차년도 과제로서 1차년도에 개발된 청소년인권지표체계에 따라 발달권과 참여권 분야의 중요 정량지표를 선별·분석하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인권환경 수준을 점검해 보고,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1차년도에 개발된 청소년인권지표체계에서는 관심영역을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4개 영역으로 나누고 있음. 이 중 2009년도에 생존권과 보호권 등 2개 영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발달권과 참여권 등 나머지 2개 영역에 대한 연구를 추진함.

- 2010년도 연구결과물 중 기본보고서(Volume Ⅰ)와 실태조사 결과자료집(Volume Ⅱ)은 설문도구를 활용한 정성지표 중심의 실태조사 결과를 담고 있으며, 본 정량지표보고서(Volume Ⅲ)는 행정 및 통계자료에 근거한 정량지표 분석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와 현황을 제시하고자 함.

- 더불어 아동·청소년 인권 수준 연구의 5년차 연구로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연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2. 주요 연구내용

- 발달권 영역에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발달권 관련 주요 정량지표를 선정하고 지표별 의미와 관련 통계 및 현황분석
- 발달권 지표와 관련된 정책방향성 설정을 위한 발전적 대안모색
- 참여권 영역에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참여권 관련 주요 정량지표를 선정하고 지표별 의미와 관련 통계 및 현황분석
- 참여권 지표와 관련한 정책현황을 살펴보고 발전적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대안모색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연구 발전을 위한 방향 모색과 제언

3. 정책제언*

- 아동·청소년 발달권 지표 개선 과제 : 청소년 발달 영역에 따라 구체화하고 범주화, 청소년의 단점과 문제행동보다는 긍정성과 장점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구성, 취약집단 현황파악을 위한 지표 개발, 엄격한 조사와 평가방법을 통한 주관적 지표 생산 필요
- 아동·청소년 참여권 지표 개선 과제 : 아동·청소년 참여권 이론적 틀에 기반한 총체적인 지표항목의 개발 및 조정, 아동·청소년 참여권의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를 고려한 종합적 지표항목 개발, 청소년의 참여권 행사 환경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보완, 참여권 지표의 실천적 활용도 제고, 참여권 지표의 종단적 데이터 구축

* 발달권·참여권 영역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신장을 위한 방향성 제고와 정책제언은 보고서 Volume I과 Volume Ⅲ의 정책제언을 기술한 장(chapter)에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발달권·참여권 영역의 정량지표 연구에서 드러난 제반 문제점과 한계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였다.

-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연구의 향후 발전 과제 : 체계적인 이론적 틀에 기초한 지표체계 개발 및 검토, 지속적 지표개발을 통해 지수화 작업 추진, 심리검사형 설문문항 지양, 청소년 인권지표 영역구분과 지표체계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추진, 지표 조사결과에 대한 다면적 분석, 국제비교연구를 위한 단계적 준비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3
2. 연구방법과 범위 ····· 5

Ⅱ. 아동·청소년 발달권 주요 현황분석 ····· 7
1. 아동·청소년 발달권 정량지표 개관 ····· 9
2. 아동·청소년 발달권 정량지표 현황 ····· 28
1) 인지적 발달 ····· 28
2) 정서적 발달 ····· 66
3) 사회적 발달 ····· 112
4) 직업적 발달 ····· 133
5) 신체적 발달 ····· 144
3. 아동·청소년 발달권 정책제언 ····· 157

Ⅲ. 아동·청소년 참여권 주요 현황분석 ····· 163
1. 아동·청소년 참여권 정량지표 개관 ····· 165
2. 아동·청소년 참여권 정량지표 현황 ····· 172
1)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보호 ····· 172
2) 표현의 자유 ····· 185
3) 집회·결사의 자유 ····· 189
4) 정보접근권 및 정보참여 ····· 192
5) 사회참여 및 참정권 ····· 217
3. 아동·청소년 참여권 정책제언 ····· 238

Ⅳ. 아동·청소년 발달권 및 참여권 지표 연구의 발전과제 ····· 243
1. 아동·청소년 발달권·참여권 지표 검토를 위한 문제인식 ····· 245
2. 아동·청소년 발달권·참여권 지표체계의 의의 및 기능 ····· 247
3. 아동·청소년 발달권 및 참여권 지표체계 개선과제 ····· 253

Ⅴ. 요약 및 제언 ····· 277
1. 아동·청소년의 발달권 및 참여권 정량지표 분석결과 ····· 279
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연구의 향후 과제 ····· 287

참고문헌 ····· 291

부 록 ····· 309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2호 : 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권 ··· 311

표 목 차

<표 Ⅱ-1-1> 긍정적인 청소년발달을 촉진시키는 개인적·사회적 자산 ···· 14
<표 Ⅱ-1-2> 체격 및 체력측정항목(초5-고3) ····· 25
<표 Ⅱ-1-3> 2010 아동·청소년 발달권 지표체계 ····· 26
<표 Ⅱ-2-1> 취학률 현황 ····· 30
<표 Ⅱ-2-2> 학교생활에 대한 즐거움 정도 ····· 35
<표 Ⅱ-2-3> 진학률 ····· 37
<표 Ⅱ-2-4> 사교육비 추이 ····· 39
<표 Ⅱ-2-5> 사교육비 규모 ····· 40
<표 Ⅱ-2-6>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40
<표 Ⅱ-2-7>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교육 종합대책 주요 내용 ····· 41
<표 Ⅱ-2-8> 학교 수업에 대한 이해도 ····· 44
<표 Ⅱ-2-9> 학교생활만족 정도 ····· 46
<표 Ⅱ-2-10> 학교 수업에 대한 만족도 ····· 47
<표 Ⅱ-2-11> 평균학습시간 ····· 50
<표 Ⅱ-2-12> 교원1인당 학생 수(교급별) ····· 52
<표 Ⅱ-2-13> 교원1인당 학생 수(국가별) ····· 52
<표 Ⅱ-2-14> 국가별 GDP 대비 공교육 비중 ····· 53
<표 Ⅱ-2-15>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 56
<표 Ⅱ-2-16> 창의성 지수 ····· 58
<표 Ⅱ-2-17> 문제해결능력 ····· 61
<표 Ⅱ-2-18>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 ····· 63
<표 Ⅱ-2-19> 자기주도학습 실시학교 ····· 65
<표 Ⅱ-2-20>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 ····· 67
<표 Ⅱ-2-21> 부모와의 고민에 대한 대화정도 ····· 68
<표 Ⅱ-2-22>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 71
<표 Ⅱ-2-23> 청소년 여가시설 현황 ····· 73

<표 Ⅱ-2-24> 여가활용 만족도 ····· 76
<표 Ⅱ-2-25>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공모지원 현황 ····· 77
<표 Ⅱ-2-26>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 ····· 77
<표 Ⅱ-2-27> 생활에 대한 만족정도 ····· 79
<표 Ⅱ-2-28>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문제유형별 상담실적 ····· 81
<표 Ⅱ-2-29>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문제유형별 상담실적(계속) ····· 82
<표 Ⅱ-2-30> CYS-Net 서비스 이용인원 ····· 83
<표 Ⅱ-2-31> CYS-Net 서비스 이용건수 ····· 84
<표 Ⅱ-2-32> 부모자녀관계의 만족도 ····· 86
<표 Ⅱ-2-33> 자살생각율 및 자살시도율 ····· 90
<표 Ⅱ-2-34> 연령별 자살률 추이 ····· 91
<표 Ⅱ-2-35> 자살에 대한 충동 및 이유(15-19세) ····· 92
<표 Ⅱ-2-36> 스트레스 인지율 ····· 94
<표 Ⅱ-2-37>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15세-19세) ····· 95
<표 Ⅱ-2-38> 행복감 정도 ····· 97
<표 Ⅱ-2-39> 학년별 행복감 정도 ····· 97
<표 Ⅱ-2-40> 자아존중감 ····· 99
<표 Ⅱ-2-41> 자기효능감 ····· 102
<표 Ⅱ-2-42> 정서적 조절감 ····· 104
<표 Ⅱ-2-43> 정서적 고립감 ····· 106
<표 Ⅱ-2-44> 낙관성 ····· 108
<표 Ⅱ-2-45> 학교생활만족도 ····· 110
<표 Ⅱ-2-46> 학교생활만족도 ····· 111
<표 Ⅱ-2-47>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의 수 ····· 114
<표 Ⅱ-2-48> 청소년활동 유형별 참여현황 ····· 116
<표 Ⅱ-2-49>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공모지원 현황 ····· 117

<표 Ⅱ-2-50>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및 참여형태 ····· 119
<표 Ⅱ-2-51> 동아리 활동 참여 개수 ····· 122
<표 Ⅱ-2-52> 동아리 가입 및 활동여부(초등생 다중응답) ····· 122
<표 Ⅱ-2-53> 동아리 지원 현황 ····· 125
<표 Ⅱ-2-54> 사회적 관계망(15세-19세) ····· 127
<표 Ⅱ-2-55> 갈등해결전략 ····· 129
<표 Ⅱ-2-56> 문화에 대한 가치 ····· 131
<표 Ⅱ-2-57> 외국인 이민허용 정도 ····· 132
<표 Ⅱ-2-58>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여부 ····· 134
<표 Ⅱ-2-59> 진로교육 편성 및 운영현황 ····· 136
<표 Ⅱ-2-60> 학교에서의 진로경험 ····· 138
<표 Ⅱ-2-61>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 ····· 140
<표 Ⅱ-2-62> 진로직업역량 ····· 143
<표 Ⅱ-2-63> 30분 이상 운동빈도 ····· 145
<표 Ⅱ-2-64> 평일 평균수면시간 ····· 147
<표 Ⅱ-2-65>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 ····· 149
<표 Ⅱ-2-66> 성별/연령별 50m 달리기 ····· 151
<표 Ⅱ-2-67> 종목별 신체능력검사 결과('00~'08) ····· 152
<표 Ⅱ-2-68> 윗몸일으키기 ····· 152
<표 Ⅱ-2-69> 제자리 멀리뛰기 ····· 153
<표 Ⅱ-2-70> 오래달리기 ····· 154
<표 Ⅱ-2-71> (현행)학생신체능력검사와 (개정)학생건강체력평가 비교 156
<표 Ⅲ-1-1> 2010 아동·청소년 참여권 지표체계 ····· 169
<표 Ⅲ-2-1> 학교규칙 준수 정도의 집단별 빈도 비교 (단위 %) ····· 187
<표 Ⅲ-2-2> 학교규칙 인권침해 인식의 집단별 비교 ····· 188
<표 Ⅲ-2-3> 총 신간 발행 종수 대비 아동 신간 발행 종수 ····· 194
<표 Ⅲ-2-4> 한 학기 독서율(단위 : %) ····· 194
<표 Ⅲ-2-5> 월간 독서율(단위 : %) ····· 195

<표 Ⅲ-2-6> 한 학기 독서율 변화추이(일반도서)(단위 : %) ····· 195
<표 Ⅲ-2-7> 한 달 일반도서 독서량(단위 : %) ····· 197
<표 Ⅲ-2-8> 한 학기 일반도서 독서량(단위 : %) ····· 197
<표 Ⅲ-2-9> 한 학기 독서량 변화추이 (일반도서)(단위 : 권) ····· 198
<표 Ⅲ-2-10> 한 학기 만화 열독량(단위 : %) ····· 199
<표 Ⅲ-2-11> 한 달 만화열독량 ····· 200
<표 Ⅲ-2-12> 한 학기 잡지 열독량 ····· 201
<표 Ⅲ-2-13> 한 달 잡지열독량 ····· 201
<표 Ⅲ-2-14> 최근 구입도서 분야(초등학생) ····· 203
<표 Ⅲ-2-15> 최근 구입도서 분야(중고생) ····· 204
<표 Ⅲ-2-16> 도서 입수경로 ····· 205
<표 Ⅲ-2-17> 2009년 5월 가구 컴퓨터 보유율(%) ····· 212
<표 Ⅲ-2-18> 인터넷 이용빈도 ····· 213
<표 Ⅲ-2-19> 주평균 인터넷 이용시간 ····· 214
<표 Ⅲ-2-20> 청소년 실업자 수 및 실업률 추이 ····· 220
<표 Ⅲ-2-21> 연령계층별·성별 청소년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 221
<표 Ⅲ-2-22> 전국 시·도별 동아리 지원 현황 ····· 226
<표 Ⅲ-2-23> 인증수련활동 영역별 분류 ····· 227
<표 Ⅲ-2-24>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 227
<표 Ⅲ-2-25> 연도별 해외봉사단 파견지역 및 파견형태 ····· 228
<표 Ⅲ-2-26> 2008년 해외봉사단 파견지역 및 파견형태 ····· 228
<표 Ⅲ-2-27> 청소년자원봉사 활동분야별·활동터전별 활동현황 ····· 229
<표 Ⅲ-2-28> 세계 국가의 선거 연령 ····· 232
<표 Ⅲ-2-29> 유럽지역의 선거 투표 및 입후보 권리 ····· 233
<표 Ⅲ-2-30> 개인변인 및 참여관련변인이 리더십능력수준에
미치는 영향 ····· 235
<표 Ⅲ-2-31> 개인변인 및 참여관련변인이 리더십능력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 236

<표 Ⅳ-3-1> 2010 아동·청소년 발달권 설문항목 ····· 266
<표 Ⅳ-3-2> 우울감 통계표 ····· 269
<표 Ⅳ-3-3> 정서적 조절감 통계표 ····· 270

그 림 목 차

[그림 Ⅱ-2-1] 중퇴율 추이 ····· 32
[그림 Ⅱ-2-2] 국가별 교육예산 ····· 54
[그림 Ⅱ-2-3] 아동· 청소년 우울증 진료건수(10-19세) ····· 87
[그림 Ⅱ-2-4] 연도별 청소년 자원봉사자수 ····· 119
[그림 Ⅲ-2-1] 한 학기 독서량 변화 추이(단위 : 권) ····· 198
[그림 Ⅲ-2-2] 한 학기 만화 열독량 성별 비교(단위 : 권) ····· 199
[그림 Ⅲ-2-3] 연령별 거주지 컴퓨터 보유율(%) ····· 212
[그림 Ⅲ-2-4] 성, 연령별 주평균 인터넷 이용시간 ····· 213
[그림 Ⅲ-2-5] 2008년 청소년(15-24세) 경제활동 참가율 ····· 224
[그림 Ⅲ-2-6] 청소년(15-18세)고용률 ····· 225
[그림 Ⅲ-2-7] 2008년 청소년(15-24세) 실업률 ····· 225
[그림 Ⅲ-2-8] 연령대별 투표율 ····· 230
[그림 Ⅲ-2-9] 연령대별 선거인수/투표자수 비율 비교 ····· 230
[그림 Ⅲ-2-10] 최근 선거의 연령대별 투표율 변화 ····· 231
[그림 Ⅲ-2-11] 성별·연령대별 투표율 ····· 231
[그림 Ⅳ-3-1] 교육지표개발을 위한 교육체제모형 ····· 256
[그림 Ⅳ-3-2] 청소년개발(youth development)의 체제분석적 개념틀 ····· 257
[그림 Ⅳ-3-3] 2004 청소년개발지표 체계모형 ····· 258
[그림 Ⅳ-3-4] 아동・청소년권리지수 개발단계 ····· 263
[그림 Ⅳ-3-5] 청소년참여의식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74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방법과 범위

I.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협약에서 제시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님과 동시에 나아가 실제적으로 그 법을 집행하고, 집행결과를 모니터링하며 협약의 관점에서 국내적 실천과 관행에 대한 검토의 의무를 진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한 두 차례의 심의의견을 통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인권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권 실태자료와 통계수집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해 왔다. 이에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우리 아동·청소년의 인권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태분석과 모니터링 결과를 공표하기 위해서는 이를 정확히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조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연속사업으로 수행되어온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의 5차년도 과제의 세부보고서(Volume Ⅲ)로서 1차년도에 개발된 청소년인권지표체계에 따라 발달권과 참여권 분야의 중요 정량지표를 선별·분석하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인권환경 수준을 점검해 보고,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1)]

2010년도 기본보고서(Volume Ⅰ)와 실태조사 결과자료집(Volume Ⅱ)에는 설문도구를 이용한 발달권과 참여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제기준대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인권환경 수준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그 향상과 보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언하였다. 즉, 발달권과 참여권 영역에서 응답자의 의식, 태도, 의견등과 같은 주관적 판단에 초점을 맞춘 정성지표 중

1) 2006년 연구 1차년도에 개발된 청소년인권지표체계에서는 관심영역을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4개 영역으로 나누고 있다. 이 중 2009년도에 생존권과 보호권 등 2개 영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발달권과 참여권 등 나머지 2개 영역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심의 실태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성지표 중심의 조사방법은 일반적으로 지표항목 및 해당 문항의 조작적 정의를 통한 개념의 구체화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구성을 전제로 한다. 행정통계를 통해 산출된 정량지표와 달리 객관화된 수치로 측정이 어려우며, 응답자의 태도, 의견등과 같은 주관적 판단에 따라 측정되는 주관적 지표이다.

이에 조사의 보다 정확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평가에 근거한 실태조사 결과와 아울러 통계적 자료에 기초한 주요 영역별 정량지표를 추가, 해당 정성지표 중심의 설문조사 결과의 보완이 요구된다. 표준화된 설문도구를 활용한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조사와 연계하여 그 실현여부나 진척정도에 대한 평가와 그 실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 즉 비교단위가 필요하고 이 같은 비교단위에 기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정량적 지표에 의해서 제공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현재 인권실태와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와 아울러 행정지표에 근거한 정량분석을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정책의 성취와 평가하는 지침으로써 중요한 모니터링 도구이기 때문이다. 양적지표의 적절한 활용은 동일한 기준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이행상황을 추적할 수 있고 관련 제도 하에서 법규를 충족하기 위해 국가가 행한 여러 조치들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으며, 정량적 자료들이 신중하게 수집·분석되고 해석된다면, 정량적 지표의 결과들이 정성지표의 실태결과와 더불어 인권신장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수준 연구 Ⅴ' 보고서 Volume Ⅲ의 내용은 발달·참여권 분야에서 정책적 시의성이 있는 중요 정량지표 분석을 토대로 기술되었다. 예외적으로 특정지표에 대한 정량통계자료를 구하기 어려울 경우 정성지표를 자료 산출원으로 하여 해당지표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였다. 특히, 참여권의 경우 다른 권리영역에 비해 지표생산에 필요한 행정자료나 기초통계 자료가 축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해당지표와 관련된 인권사례나 보도자료를 활용한 자료 등 인권백서 성격의 기술을 병행하였음을 밝힌다.

보고서 Volume Ⅲ는 발달·참여권 영역에서 주요 행정지표 및 통계자료를 근거로 정성지표에 의해서 파악된 인권 실태에 대한 정보를 보완하였고 각 영역별 세부 현황과 정책적 제언이 기술되어 있다.

2. 연구방법과 범위

아동·청소년의 발달권과 참여권 정량지표 분석을 위해 문헌연구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정량지표의 경우 광범위한 행정통계와 기초자료 수집·분석이 중요하다. 발달권 및 참여권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자료와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통계청의 각종 사회통계자료와 아동·청소년백서 등 아동·청소년 정책 부처 발간 통계자료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을 비롯한 주요 연구기관에서 발간한 인권실태 조사 자료들을 검토하였다. 관련 행정통계나 기초통계 자료가 거의 없는 참여권의 경우 정량지표로 보기는 어렵지만 언론 보도자료를 통한 관련사례 수집을 병행하여 관련 자료가 부족한 현실을 보완하여 해당 지표관련 실태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정량지표 분석범위를 보면, 먼저 발달권은 청소년인권지표체계 상의 영역 분류에 따라 인지적 발달, 정서적 발달, 사회적 발달, 직업적 발달, 신체적 발달 등 5개 영역의 총 50개 지표항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참여권은 자기결정권과 사생활보호,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보접근권 및 정보참여, 사회참여 및 참정권, 참여관련 인식 등 6개 영역의 총 16개 지표항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참여권의 경우 청소년의 일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참여영역을 개발해야 한다는 전문가 자문결과에 따라, 참여권 신장을 위한 사회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2호의 내용을 참조하여 지표를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 인권 수준 연구의 5년차 연구로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연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선행 및 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Ⅱ. 아동·청소년 발달권 주요 현황분석

1. 아동·청소년 발달권 정량지표 개관
2. 아동·청소년 발달권 정량지표 현황
3. 아동·청소년 발달권 정책제언

Ⅱ. 청소년 발달권 정량지표 개발

1. 아동·청소년 발달권 정량지표 개관

(1) 아동·청소년 발달권 지표의 개념

발달권은 합의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을 만큼 매우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권리이다. 발달권 개념의 복합성은 아동과 청소년 발달의 복합적 요인과도 결부되어 있다. 레너와 갈람버스(Lerner & Galambos, 1998)의 지적처럼, 청소년의 발달에는 어디서든 개인차가 존재하고 그 개인차는 생물학적, 인지적, 심리학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요인의 결합과 관련되어 있다. 청소년기는 신장과 체중 그리고 신체의 각 부분과 같은 특징들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 호르몬의 변화는 발달의 가장 큰 부분이다. 하지만 호르몬은 그 시기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나 사회적 발달의 주요인이 아니다. 사실 호르몬이나 여타의 생물학적 변화는 심리학적,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따라서 발달은 단순한 생물학적 의미의 성장으로만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의 발달은 이들을 둘러싼 정치나 사회 그리고 문화적 배경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사회적 존재로서 청소년이라는 개념은 인간발달을 사회체계의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파악하는 인간발달의 생태학모델의 논리와 연결되어 있다.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의 지적처럼, 인간의 발달은 생물학과 경험간의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된다. 그가 개발한 인간발달의 생태학 모델은 지역사회와 더 큰 사회체계내의 복잡한 관계망의 맥락에서의 아동과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결국, 아동청소년 발달권에 대한 이해는 생물학적 성장과 결부된 다양한 사회적 과정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고 있다. 휴스톤(Huston, 2002:5)에 따르면, 아동이 건강하게 발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음식과 영양을 내용으로 하는 신체적 안정, 따뜻한 양육과 부모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내용으로 하는 적절한 양육환경, 인지능력과 학업성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적능력의 개발, 높은 자존감과 낮은 불안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서적 안정,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과 동료와의 사회기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타인과의 대인관계기술, 사회적 기대와 일치하는 책임성과 도덕성 등이 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들은 이러한 목표가 원활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한다.[1] 특히, 청소년들은 급속한 신체적 성장을 경험할 뿐 만 아니라 인지적, 언어적, 사회적, 행동적, 정서적 기술이 빠른 발달을 경험하게 된다. 때문에 청소년이 자신의 완전한 능력을 성장하고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질병에 대한 사고의 감소와 충분한 영양물의 섭취, 그리고 다양한 질환들로부터의 예방과 치료를 통한 신체적·정신적 발달과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유대와 지원을 통한 정서적 발달 그리고 교육을 포함한 체계적인 사회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발달을 지원해야 한다.

한편, 발달권은 발달이라고 하는 성장의 개념과 권리라고 하는 법적 개념이 결합된 것으로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발달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한 정책적 제거가 요구된다. 그래서 발달권의 정의는 아동청소년의 성장의 개념과 성장의 영역에 대한 분류에서 출발해야 한다. 즉, 발달을 권리의 시각에서 바라볼 경우 생물학적 성장에 더불어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발달하기 위한 제반 여건과 환경의 개선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달권은 개발의 개념도 함께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발달권의 개념은 관점과 시야에 따라 그 개념과 내용에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발달권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제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라는 점에는 일정정도의 합의가 가능하지만 건강한 성장이라는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세부적인 권리가 무엇

1) 이러한 이유 때문에 Huston(2002)은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목표달성의 과제로 특히 복지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복지정책이나 소득지원정책이 경제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면, 많은 아동 정책들은 아동발달이나 교육 그리고 이와 연관된 분야에 기초하고 있다. 즉, 경제적 관점이 아동에 대한 공공지출을 미래의 경제적 생산성을 위한 투자라고 하는 사고하는 반면, 아동의 발달을 강조하는 시각은 아동기 동안의 삶의 질이 본질적이고 정당한 목적으로 간주된다.

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마이어(Myers, 1995:4)도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달권이 생존권이나 보호와 관련된 권리보다는 다소 명확하지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아동권리협약의 발달권과 관련된 조항은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마이어(Myers, 1995:4)에 따르면, 아동권리협약 27조 1항은 발달에 대한 통합적 관점이 규정되었고, 제2항에서는 발달이 직접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생활조건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물질적 원조와 프로그램의 지원, 특히 영양, 의복, 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다 명료하게 범위를 축소되었다.[1] 아동권리협약의 규정만을 놓고 보자면, 청소년의 발달권은 영양과 의복, 주거라고 하는 기초적인 욕구만 해결되면 보장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1986년 유엔에 의해서 채택된 발달권 선언에 따르면, 발달권은 모든 인간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 발달에 참여하고 공헌하며 향유하기 위한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Sengupta, 2000)로 정의된다. 따라서 개인과 모든 사람들은 발달권에 대한 권리의 소유자이다. 이 발달권의 정의에 따르면, 발달권은 기본적인 인권이자 양도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이고,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과정으로 이해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 발달의 과정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 같은 발달권의 정의에 따르면, 청소년의 발달권은 청소년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 발달을 향유할 수 있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기본교육에서부터 우호적인 보건서비스에 이르는 전 영역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발달권의 내용에 보건과 의료, 건강의 과제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국제연합아동기급(UNICEF)는 청소년의 다양한 참여와 평등

1) 특히, 마이어(Myers, 1995:4)는 아동기 초기의 보호와 발달의 시각에서 아동권리협약이 건강한 아동발달에 관한 규정이 비교적 소홀하게 다루어져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아동기초기의 보호와 발달의 시각에서 보자면 협약은 건강한 발달을 증진시키는데 제공되어야 할 심리사회적 조건이나 교육적 조건들에 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기회도 청소년의 발달권을 충족시키는데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는 시각을 견지함으로써 발달권의 실현을 위한 전제로서 참여권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전 세계의 아동과 청소년은 최고로 달성할 수 있는 건강과 발달의 기준을 향유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며 그들이 자신의 모든 능력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WHO, 2004:5)고 지적함으로써 청소년 발달권의 시각을 건강을 포함한 욕구의 충족과 권리의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 2004:8)는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과 관련하여 학생들은 청소년의 특성과 발달의 단계,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자신들의 환경 내에서의 장애와 위협에 관한 정보를 가지도록 교육을 반드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같은 발달권의 개념을 종합해 보면, 우선 발달권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목적으로 성장주기에 따라 각 발달과정의 과업수행에서 요구되는 과제들에 대한 권리라는 점이다. 때문에 청소년의 발달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과업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발달과업의 수행에 장애가 있는 경우 어떠한 정책과 제도들이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이 특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범주화된 인구계층이지만 청소년들 간에는 다양한 특성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청소년들의 능력과 적성 그리고 자질에 따른 세분화된 발달과업을 상정, 그에 따른 적절한 권리의 보장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청소년 중에서도 특히 다양한 혼혈 청소년이나 빈곤한 청소년, 그리고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은 모든 청소년들처럼 동일한 발달과제에 더하여 추가적인 발달과업을 수행에 요구되는 권리의 보장이 요구된다.

한편, 청소년 발달지표의 개발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청소년의 발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전미과학아카데미의 National Research Council and Institute of Medicine이 개최한 청소년지역프로그램위원회(The Committee on Community-level Programs for Youth)에서는 개인적 사회적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청소년 발달의 핵심적 영역에 대한 신뢰할

만한 개요를 제공해왔다. 이 위원회는 신체적, 지적, 심리적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 발달로 이러한 자산들을 범주화했고 헤밀턴과 헤밀턴(Hamilton & Hamilton, 2003:8)은 각각의 자산들이 증진되고 증가될 때, 청소년발달을 위한 목표들이 훌륭하게 달성된다고 지적한다. 했다. 이 연구는 '긍정적인 청소년발달을 촉진시키는 개인적·사회적 자산'은 청소년발달의 세부적 영역과 각 영역별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청소년발달권의 지표개발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발달은 신체적 발달과 함께 정신적·정서적, 사회적 발달의 전 영역을 포괄해야 한다는 점에서 청소년 발달지표는 이같은 청소년의 발달영역이 관계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헤밀턴과 헤밀턴(Hamilton & Hamilton, 2003:7)은 청소년지역프로그램위원회의 긍정적인 청소년 발달을 촉진시키는 개인적사회적 자산(assets)에 관한 도식을 인용하여 청소년의 발달 영역을 신체적·지적·심리적·정서적·사회적 발달로 세분화하고 해당 영역의 자산을(assets) <표Ⅱ-1-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은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발달 등을 통하여 독립된 주체의식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일 뿐 만 아니라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탐색, 성장, 그리고 정체감 등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은 단순한 자연스러운 신체적 발육만을 의미하지 않고, 지적, 정서적, 사회적, 직업적, 그리고 신체적 발달 등의 균형적이고 완전한 발달의 통해서 이루어진다.

다만, 신체적·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의 영역을 논의하면서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점은 이 같은 각각의 발달영역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상호의존적이라는 점이다. 어떤 발달영역의 조건들은 일정정도 모든 다른 영역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은 발달의 영역 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발달영역이 종합적으로 성장할 때 가능하다. 결국, 발달권 지표는 아동청소년의 네 가지 발달영역에 대한 권리 향유정도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의무이행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표 Ⅱ-1-1> 긍정적인 청소년발달을 촉진시키는 개인적·사회적 자산

발달영역	자산(assets)
신체적 발달	· 건전한 건강습관 · 훌륭한 건강위험관리기술
지적발달	· 중요한 삶의 기술에 관한 지식 · 중요한 직업기술에 관한 지식 · 학업성취 · 합리적인 사고습관 -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기술 · 한 가지 이상의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 · 좋은 의사결정기술
심리적· 정서적 발달	· 긍정적인 자애(self-regard)를 포함한 건전한 정신건강 · 훌륭한 정서적 자기규제기술 · 훌륭한 대항기술 · 훌륭한 갈등해결 기술 · 숙련에 대한 동기부여와 긍정적 성취에 대한 동기부여 · 자신의 개인적 효능에 대한 신뢰 · 계획능력-미래와 미래의 일들에 대한 계획 · 개인적 자율성/자신에 대한 책임 · 현실주의에 맞선 낙천주의 · 일관적이고 긍정적인 개인적·사회적 정체성 · 삶의 큰 목적에 대한 정신력이나 느낌 · 강한 도덕성 · 시간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노력
사회적 발달	· 유대감 · 사회연대감 · 학교, 교회, 교외청소년프로그램과 같은 전사회적/관습적 제도와의 연계 · 다양한 문화적 맥락을 고찰하는 능력 · 시민적 참여를 위한 노력

자료 : National Research Council and Institute of Medicine, 2002; Hamilton & Hamilton, The Youth Development Handbook, 2003:7.

(2) 아동·청소년 발달권 탐색을 위한 연구방법

첫째,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청소년의 발달권 현황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발달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발달권은 UN아동권리협약의 아동권리 유형 중 하나라는 것 이외에 발달

권을 설명하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정의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도 이 같은 한계로 인해, 부족하지만 청소년의 권리영역을 발달권을 포함한 생존권과 보호권 그리고 참여권으로 분류한 아동권리협약을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발달권과 관련된 여러 학자들의 선행연구를 탐색하여 발달권 관련 개별지표간의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발달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자료와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고, 발달권 관련 지표들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2010)의 각종 사회통계자료와 아동청소년백서(2009)의 관련 자료 그리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8, 2009, 2010)의 아동청소년 권리실태조사 등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청소년의 발달을 권리의 시각에서 재구성한 국내외 아동청소년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의 발달권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개괄적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발달권 지표의 구성과 현황에 대한 분석이 청소년 발달권 실태를 정확하기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표개발과정에서부터 정책대안의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전문적 식견과 객관적 논의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별지표의 개발과 정책대안의 개발 과정에서 두 번의 전문가회의와 자문을 거쳤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지표개발 선정과정에서의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와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인권지표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과 전문적인 기준들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3) 아동청소년 발달권 주요 정량지표

① 인지적 발달

인지적 영역은 인간의 인식과 이해에 관련된 것이다. 인지적 영역은 정서적 영역과는 대비되는 것으로 인식과 사고, 기억과 이해, 문제해결, 평가, 판단에 관한 정신적 과정이다. 인지발달이란 사고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신과정이 점진적·순차적으로 보다 복잡해지고 세련되어지는 변화를 가리킨다. 지적발달의 개념은 지능의 발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지발달에 포함되는 한정적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Carnegie Council on Adolescent

Development(1989)에서는 지능발달보다는 인지발달을 청소년기의 핵심적인 발달과업으로 설정하고 있다. 즉 성공적인 성인으로서의 삶을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지능발달보다는 지식을 확장시키고, 비판적 사고능력을 향상시키는 인지과정의 발달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김현철·김신영, 2005:27). 따라서 청소년 발달권도 단순한 지능발달을 넘어서는 지식과 비판적 사고력의 향상을 포괄하는 인지발달에 초점을 맞추어 지표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린토울 외(Rintoul et al., 1998:8)에 따르면, 인지는 지식의 획득을 위해 지각, 인식, 사고, 판단, 추론의 과정이다. 그에 따르면, 지식을 획득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언어를 통해서이다. 언어는 수용된 기호와 소리 그리고 몸짓으로 사고와 느낌을 의사소통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린토울 외(Rintoul et al., 1998)는 인지적 능력이 언어습득능력을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점차 의사소통능력이 발달함으로써 언어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결과적으로 학업성취는 듣고 읽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발음과 쓰인 글을 이해함으로서 청소년들은 추상적인 개념들을 이해한다. 청소년기에는 추상적 사고나 다양한 원칙에 따른 다양한 관점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 사고의 가정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등 더욱 복잡한 사고과정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청소년기에는 문제에 내재한 모든 논리적 관계에 대해 체계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습득하게 된다. 이 같은 인지적 발달이 청소년의 발달권 지표를 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인지적 발달이 다른 발달영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인지적 능력은 인지적 영역에만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회적, 행동적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지적 영역을 평가하는 주요 척도로는 지능점수나 학업성취 정도 등이 자주 활용된다. 하지만 청소년은 다양한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은 '평균적(normal)'인 범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지적 능력을 다루는데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은 어느 정도가 지적으로 적합한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인지적 능력은 지능의 모호한 특성 때문에 지능의 특수한 능력을 구체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인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주요 척도로서 IQ(지능지수)는 다소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린토울 외(Rintoul et al., l998)는 인지적 발달의 중요한 영역으로 언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적 능력을 언어능력과 동등한 주제로 아동발달의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인지적 발달을 위한 과제로 언어능력과, 지능 혹은 인지적 기능, 구두조정(verbal mediation)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지적 영역에서 지식습득의 정도를 평가는 학업수행이나 학업성취 등이 주로 개별지표로 활용되었다. Minnesota의 초기아동기지표에서는 인지적 영역의 요소로 '수학적·논리적 사고', '과학적 사고와 문제해결', '사회체계의 이해' 그리고 '점점 복잡한 방식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조직하며 이해하는 능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기의 인지적 측면의 핵심적인 발달과업으로는 주로 지식의 확장, 비판적 사고와 추리능력의 발달, 학업성취를 통한 능력향상, 지식, 추리능력, 창의성을 강조하면서 광범위한 지식습득,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등이 제시된다.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을 지시하고 있다. 휴브너(Huebner, 2003)도 인지적 역량을 "형식 및 비형식교육기관에서 학습하고, 학교졸업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습득하며, 비판적 사고기술, 창의력, 문제해결기술, 자기표현기술 등을 활용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김현철·김신영, 2005:29~30).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발달의 세부관심영역을 인지발달기회와 인지능력으로 분류한다.

② 정서적 영역

청소년은 성장해 감으로써 서로 다른 환경과 서로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 적절한 정서적 행동을 여겨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킨다. 이 같은 정의적 영역은 정서적·심리적 발달과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까지의 지표들은 학대와 방임, 가정 폭력과 소년사범의 비

율 등이 사용되어 왔다. 이외에도 부가적으로 안정감,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가족, 성인과의 관계, 긍정적인 동료관계, 정신건강, 문화적 민감성, 결혼비율, 안정적이고 적절한 주거와 생활조건, 그리고 대중교통의 이용 등이 지표로 활용되어 왔다. 특히 청소년의 정의적 영역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표는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비 외(Bee et al., 1982)도 부모와 아동의 관계의 질은 최상의 아동발달의 가장 강력한 예시 중 하나로 오랫동안 알려져 왔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따뜻함과 책임감 있는 양육은 향후 아동의 언어발달이나 인지적 발달, 학업성취, 행동적 적응과도 연관된다. 반대로 자신의 아이들에게 애정을 주지 못하고 관심을 주지 못한다면 아이들을 성장하면서 다양한 학업상의 문제와 행동상의 문제를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아동과 부모사이의 애착이나 유대에 의해서 그 질이 결정된다. 물론 청소년기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유아기의 안정적인 애착이 인지적·언어적 발달 뿐 만 아니라 향후 동료관계의 질, 지속적인 문제해결 그리고 훌륭한 행동적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미국의 노동부는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가족과 관련된 지표로 '부모와 자녀의 밀접성과 친밀성', '가정일과' 등을 사용했고, 미국의 버몬트 주에서는 '부모가 학교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이나 '높은 수준의 사랑과 지지를 제공하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비율' 등을 지표로 활용했다. 성인과의 관계에 관한 지표로는 '가족 이외의 성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활용되었다. 동료와의 긍정적 관계에 관한 지표로는 타인에 대한 존중(자신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가치나 신념에 대한 존중)나 청소년연맹의 수가 사용되었다. 안정적이고 적절한 주거환경에 관한 지표로는 가족이 일련에 이사하는 횟수, 유치원 이후 전학한 학생의 수, 가정의 주거비용, 노숙청소년이나 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수, 친척과 함께 생활하는 청소년의 비율 등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랜드 외(Land., et al)는 아동복지지표(CWI)에서 정서적/정신적 안정영역에 청소년과 자살률, 종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종교활동의 참여 등으로 지표를 구성했다. 이외에도 가족과의 관계를 평가하는 지표로 '일주일에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서 식사하는 정도(PISA)' 나 '일주일에 부모와 이야기를 하는 정도(PISA)' 등이 활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발달의 세부관심영역을 정서발달환경과 정서적 안정으로 분류한다.

③ 사회적 발달

사회성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성 발달관련 변인들을 논의하기에

앞서 사회성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 간략히 탐색할 필요가 있다. 성격심리학에서는 사회성(sociability)을 기질적 요소로 다룬다. 즉, 사회성은 유전되는 성격적 특질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즉, 사회성은 타인의 관심을 끌고 싶고, 활동을 공유하고 싶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일부인 반응과 자극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 그리고 Buss와 Plomin에 의하면, 사회성은 칭찬, 존경, 동정과 같은 사회적 보상을 갈망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본질적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임성택, 2005).

사회적 발달은 부모와, 형제, 동료, 교사 그리고 다른 성인들과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과 관계된 것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능력은 지능지수나 긍정적인 자존감 그리고 정신건강의 정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그래서 청소년의 낮은 사회적 능력은 이후 반사회적 행동이나 동료의 거절, 학업상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능력은 아동이 주의와 정서, 행동을 조절하고 전반적인 자기통제와 함께 순종,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사회성 발달은 청소년기에 성취해야할 필수적인 과업중의 하나이다. 그동안 사회화이론은 청소년이 사회나 집단의 규범, 관습 및 요구들을 내면화하

여, 적절하게 기능하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밝혀왔는데 사회화의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기능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기능한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지만, 그 핵심은 청소년이 그가 속한 사회의 문화, 가치, 신념체계, 습관 기술 및 동기를 내면화하여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기르는 것을 의미한다(Maccoby, 1994; 임성택, 2005 재인용).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사회적 역량은 청소년기에 성취해야 할 다양한 발달과업 중에서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징이 가장 잘 반영된 과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아동기를 떠나 성인기로의 이행하는 시기로서 청소년들은 가정이라는 제한된 사회적 범주를 벗어나 사회라는 훨씬 더 넓고 복잡한 세계로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사회는 가정과 본질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는 사회적 조직체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사회적 역량은 학교교육과정이나 청소년 관련 정책과 같은 공공의 개입과 노력을 통하여 특별히 육성되어야 할 중요한 성취과제인 것이다(김현철·김신영, 2005:36).

김현철과 김신영(2005)은 사회적 역량을 청소년들이 사회적 신뢰감을 형성하고 친사회적 성향으로 사회적 적응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지향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사회적 역량의 하위영역으로 사회적 기술과 사회적 신뢰, 친사회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린토울 외(Rintoul et al., 1998:4)에게 있어 사회적 발달은 개인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타인과 성공적으로 그리고 협동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은 청소년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필요한 중요한 생활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린토울(Rintoul et al., 1998:5)의 지적처럼, 아동이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면서 행동할 때, 그 행동은 사회적 책임을 이끄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들은 사회적 발달의 핵심적 요소로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시하고 있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하위범주로 '공감(empathy)'과 '사회적 상황에 대한 해석(interpreting

social situations)'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발달에 있어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강조하는 이 같은 논거로 인해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과 관련된 지표들에는 '타인돕기', '공유하기', '봉사' '사회규칙의 준수' 등이 제시되고 있다. Minnesota의 초기아동기지표에서는 사회적 능력을 평가하기위한 지표로 '한 명 이상의 아동과의 상호작용,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인 참여, 사회적 역할에 대한 탐색과 실행 그리고 이해, 타인의 권리와 특권에 대한 이해, 동료와 어른과의 긍정적인 접촉, 관심의 조정, 원조, 공유, 표현을 통한 지속적인 상호작용,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략의 사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무어 외(Moore et al., 2004)는 사회정서적 발달 영역의 관심영역으로 시민적 참여, 리더십, 청소년과 부모, 청소년과 다른 성인, 청소년과 동료의 긍정적인 관계, 문화적 민감성 등을 분류하고 있다. 개별지표로 자원봉사, 학교와 지역사회조직에 한번 이상 참여, 시민적 리더십, 신문·잡지·뉴스 등의 시청,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한 명이상의 친밀한 친구, 부정적인 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감정이입, 동정의 기술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발달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관심영역으로 사회성 발달 기회와 사회성 발달 정도로 분류한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발달은 주로 가정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가정은 아동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회화 기관이며, 이러한 사회화 과정은 청소년기까지 지속된다. 가정에서 청소년들은 다른 가족 구성원과 상호작용하면서 자기이미지와 정체성을 형성하고 발달시키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기르고, 사회적 규범과 관습을 내면화하고, 또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된다(Angenent & DeMan, 1996; 임성택, 2005 재인용).

④ 직업적 발달

국내외적으로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 학령기를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진로는 일생동안 개인이 갖는 경험 또는 지

위의 총체로서 직업 뿐 만 아니라 여가, 사회활동, 가정에서의 일, 봉사활동, 보수 없이 하는 일 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정부와 교육기관은 지역조직이나 국제조직과 협력하여 현재와 미래의 고용조건에 맞는 직업훈련이나 기술훈련을 실시하고 강화해야 한다. 청소년은 직업훈련과 전문훈련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견습 직장에서 성장의 기회를 습득하고 노동수요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제프로그램에 접근할 기회도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요 국가들은 새로운 경제 및 노동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청소년 교육과정에서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고 많은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에게 직업세계로의 이행 'School to Work Transition'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청소년 직업문화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많은 국가들이 청소년 인턴이라는 교육·문화적 기회와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을 미래 국가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청소년의 직업교육과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의 직업교육은 미래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로서의 국가의 이해 뿐 만 아니라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준비라고 하는 청소년 본인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가 직업교육에 지출하고 있는 예산비율을 평가하는 것은 국가의 필요에 더하여 청소년의 교육에 대한 권리의 시각에서 매우 중요한 평가가 된다. 노동시장에 대한 청소년의 기회는 청소년의 사회통합과 청소년의 경제적·사회적 안정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얼마나 잘 이행하는가 하는 것은 교육성취와 교교육의 질 뿐 만 아니라 교육, 훈련, 고용기회와 같은 구조적 요인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다 (Bradshaw et al, 2006).

이처럼, 적극적인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정책은 청소년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발달하는데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실있는 직업교육 프로그램 뿐 만 아니라 직업교육이나 직업훈련의 기회를 모든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편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직업교육과 훈련과정에 표준화된 직무기준을 반영하는 동시에 자격증과 연결되도록 개편하는 것도 중요하

다. 직업교육 및 훈련의 내실있는 운영과 접근의 보편성 이외에도 진로상담, 정보제공, 취업알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취약청소년이나 실직청소년, 그리고 불안정 근로청소년 등의 대상별 특성에 맞게 범주화하여 제공하는 것도 강조 되여야 한다.

한편, 김현철과 김신영(2005:51)은 청소년의 진로·직업역량을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진로탐색이나 준비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개념화해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기에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발달과업인 직업에 대한 바른 가치관과 태도형성(진로의식),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균형있는 이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과 구체적 준비를 위한 노력 등을 얼마나 수행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로 진로·직업역량을 개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직업에 대한 태도와 능력이 포함된 지표들을 예시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직업교육연구를 위한 국가센터에서는 직업교육과 훈련과 관련하여 정부수준별로 관련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연구센터에서는 직업교육과 훈련을 평가하기 위한 영역으로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부분과 공급부분 그리고 수요와 공급에 대한 비교부분으로 분류하고 각 부분에 관련 개별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지표로는 '산출'이나 '생산성', '성장에 대한 예측', '산업훈련 수요', '고용자의 학생의 만족도' 등을 제시하고 있고 공급과 관련된 개별지포에는 훈련제공자의 수나 훈련활동과 경향, 훈련시장의 비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수요와 공급에 대한 비교는 직업훈련의 수요에 대한 공급의 충족여부를 평가하고자 고용수준대비 훈련시간 수준, 고용수준과 고용경향 대비 훈련등록과 계약 수료 등을 개별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센터에서 제시한 직업교육과 훈련의 개별지표들은 청소년의 직업훈련이나 교육은 필연적으로 경기상황이나 고용여건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표의 구성이 이 같은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직업적 발달을 측정하는 진로교육지표는 진로교육의 철학, 가치, 목적이

추구하는 기본방향에 비추어 국가가 지향하는 진로교육 지향점이 어느 상태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규범적 성격과 진로교육이 실현되는 학교교육체제의 결과와 투입 및 과정의 실상을 드러내 주는 기술적 성격을 모두 포함한다(송창용 외, 2009). 본 연구에서는 직업적 발달의 세부관심영역으로 진로준비기회와 직업능력으로 분류한다.

⑤ 신체적 발달

운동적 영역은 청소년의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다. 신체적 건강은 매우 광범위한 영역으로 근력의 강도나 지구력, 힘, 스피드, 유연성, 균형, 조화와 같은 요소들로 분리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근육강도의 측정과 같은 측정기계를 통해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이 얼마나 키가 큰지, 무게는 얼마나 나가는지를 통해서도 평가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하게는 혈압이나 혈류, 소변검사들에 대한 평가로 도출될 수 있다.

오늘날 이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지표들은 10대의 출산이나 약물남용율 그리고 식욕장애나 성행동 그리고 청소년의 출산 등을 포함한 신체적 건강을 위협하는 행동들이 대부분이었다. 바람직하지 못한 문제행동보다는 바람직한 행동에 초점을 둔 지표들도 제시되고 있는데. 이 지표들은 주로 절적한 운동, 건강한 식단, 충분한 수면, 적절한 몸무게, 건강보험의 등록 등으로 구성되었다.

김진호 외(2004)는 청소년개발지표에서 신체적 발달에 정신건강을 포함하여 세부관심영역으로 체격, 체력, 안전, 정신건강, 신체건강, 신체만족도 등으로 구성하고 각 세부관심영역의 개별지표로 신장, 체중, 과체중률, 50m 달리기, 근지구력, 순발력, 우울증 지수, 자실충동지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Minnesota의 초기아동기지표에서는 신체적 영역의 지표를 구성하는 요소로 체력, 힘, 근력, 심폐력, 유연성, 그리고 독립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적합한 체력을 갖추었다는 것은 매일의 학업이나 직업 활동을 피로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을 지녔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레

져나 레크레이션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신체적 활동능력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적합한 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튼튼한 심장과 폐, 그리고 근육을 가지고 있어 매일의 직업 활동과 여가 생활을 영위하고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체력은 또한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 이와 같은 체력은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하는 동안에 길러지며 이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체력측정에서 50m달리기는 건강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 중 순발력을 측정하는 체력검사이다.

<표 Ⅱ-1-2> 체격 및 체력측정항목(초5-고3)

구분	요인		측정항목 및 방법	
체격	길이		신장	
	무게		체중	
체력	근지구력	상완	팔굽혀 펴기(남), 팔굽혀매달리기(여)	
		복부	윗몸일으키기	
	순발력		제자리 멀리뛰기	
	스피드		50미터 달리기	
	유연성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심폐지구력		오래달리기	

자료 : 박세윤(2010). 청소년의 체력과 학업성취,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인지능력의 관계.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청소년의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하위영역으로 충분한 영양, 적절한 주거, 적절한 의복과 위생, 건강보험, 수면과 휴식, 적절한 외부공간, 신체적 운동, 신체적 위험으로부터 보호, 건강에 대한 주관적 지표 등이 주로 제시된다. 주관적 건강 역시 가족관계의 질(엄마와 아빠와의 의사소통)이나 긍정적인 학업환경과도 결부되어 있다. 청소년의 건강과 관련된 주관적 지표로는 자신의 건강을 좋거나 좋지 않다고 느끼는 아동의 비율을 주로 사용한다. 특히, UNICEF(2005)는 청소년 건강과 관련된 영역에서 '자신의 건강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자신의 건강상의 책임에 대한 의견' 등의 주관적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발달의 세부관심영역으로 신체적 발달기회와 신체적 능력을 분류하여 청소년의 체력과 체격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선병기(1980)에 따르면, 체격은 인체의 작업능력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발육과정에서 길이나 무게의 증가로 인한 개체의 변화를 의미한다. 즉 체격은 신체발육상태를 가장 보편적으로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외형적 요인을 말하며, 인체 측정에 있어서 주요한 측정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반해 체력은 신체적 자질에 의해 구성되며 최소한의 소비로 그 자질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4) 발달권 지표의 구성

전술한 바와 같이 발달론적 관점에서 발달이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변화의 과정을 의미하며, 이러한 변화는 한 개인의 인지·신체·심리·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난다(최경숙, 2000; Newcombe, 1996; Shaffer, 2002; 이봉주 외, 2010 재인용). 따라서 인간발달의 구체적 영역은 인지발달, 언어능력 발달, 정서 및 사회성 발달, 의사소통능력 발달, 도덕성 발달, 신체 및 운동발달 등으로 세분화된다. 본 연구도 이 같은 선행연구에 비추어 아동청소년 발달의 영역을 인지적 발달, 정서적 발달, 사회적 발달 그리고 신체적 발달로 범주화하여 관련 정량지표를 개발하고 관련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표 Ⅱ-1-3> 2010 아동·청소년 발달권 지표체계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항목
3-1. 인지적 발달	3-1-1. 인지발달기회	3-1-1-1. 취학률 3-1-1-2A. 중퇴율 3-1-1-2B. 학교등교거부이유 3-1-1-3. 대학진학률

		3-1-1-4.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비율
		3-1-1-5.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도
		3-1-1-6. 학교수업에 대한 만족도
		3-1-1-7. 하루 평균 학습시간
		· 교원1인당 학생수
	3-1-2. 인지능력	· 학습부진아 출현율
		3-1-2-2. 창의성 지수
		3-1-2-3. 문제해결능력 지수
		3-1-2-4.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3-2. 정서적 발달	3-2-1. 정서발달환경	3-2-1-1. 부모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정도
		3-2-1-2. 교사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정도
		3-2-1-5. 청소년 여가시설 수
		· 한달 평균 여가활동시간
		· 여가활동 만족도
		3-2-1-6. 생활영역에서의 만족도
		3-2-1-7. 고민유형과 고민상담
		3-2-1-8. 부모·자녀관계
	3-2-2. 정서적 안정	3-2-2-1. 우울증 지수
		· 청소년 자살률
		3-2-2-2. 스트레스 지수(학업)
		3-2-2-3. 행복(심리적 안정) 지수
		3-2-2-4. 자존감 수준
		3-2-2-5. 자기 효능감
		3-2-2-6. 정서 조절감
		3-2-2-7. 정서적 고립감
		3-2-2-8. 낙관성
		3-2-2-9. 학교생활의 적응
3-3. 사회적 발달	3-3-1. 사회성 발달기회	3-3-1-1. 학생 1인당 평균 단짝 수
		3-3-1-2A. 청소년 1인당 청소년단체/시설 프로그램 참여횟수
		3-3-1-3. 청소년 1인당 월평균 자원봉사활동 시간
		3-3-1-4. 청소년 1인당 평균 가입동아리 수
		3-3-1-5. 사회적 고립감 인식 정도
	3-3-2. 사회성 발달정도	3-3-2-1. 갈등해결능력지수(기존의 갈등이해능력)
		3-3-2-2. 문화감수성 지수
3-4. 직업적 발달	3-4-1. 진로준비기회	3-4-1-1. 월 평균 진로교육 실시 시간 수
		3-4-1-2. 진로탐색기회의 충분성

		3-4-1-3.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
	3-4-2. 직업능력	3-4-2-1. 진로성숙도 지수
3-5 신체적 발달	3-5-1 신체발달 기회	3-5-1-1. 청소년 주당 평균 운동시간 3-5-1-2. 청소년의 1일 평균 수면시간 3-5-1-3. 건강에 대한 관심과 평가
	3-5-2 신체적 능력	3-5-2-1. 50m 달리기 3-5-2-2. 근지구력(팔굽혀펴기/팔 굽혀 매달리기) 3-5-2-3. 근지구력(윗몸일으키기) 3-5-2-4. 순발력(제자리 멀리뛰기) 3-5-2-5. 심폐지구력(오래달리기)

발달권 정량지표의 현황과 과제는 관련 지표의 개념과 의미를 먼저 검토하고, 정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관련정책을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정리한다. 다만, 신체적 발달 중 신체적 능력의 관련 지표들은 각 지표들 간의 상호연관성이 높아 관련 정책과 대안을 개별지표마다 제시하는 것이 어려워 관련정책과 대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2. 아동·청소년 발달권 정량지표 현황

1) 인지적 발달

(1) 인지발달기회

○ 취학률

① 지표의 의미

살아 있는 인간은 아동기 성인기나 할 것 없이 똑같이 내재적 충만함과 절대적 주장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삶을 영위한다. 때문에 교육은 나이에 상관없이 성장 또는 적절한 삶을 보장하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활동이다(Dewey, 1916; Willinsky, 2002 재인용). 교육은 사람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능력을 개발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우리 헌법도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그 권리는 통상 국가에 의한 교육조건의 개선·정비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은 통상 국가에 의한 교육조건의 개선·정비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정재황, 1994:4). 우리 헌법은 교육받을 권리가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조건이자 전제조건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별히 아동권리협약 제 29조에서는 교육의 목적과 관련하여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개발,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내포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개발,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 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개발, 아동이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개발 등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은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인 광범위한 문화적·시민적·직업적 욕구를 위한 지식을 획득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학교와 같은 기관에서 수행된다는 점에서 취학률은 전반적인 발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취학률은 한 국가나 지역사회 그리고 국제사회의 교육기회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되어 왔다.

② 관련통계 및 현황

15세에서 19세 청소년의 취학률 2009년 현재 89%로 OECD평균 82%보다도 7%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0세에서 29세까지의 청소년 취학률 역시 한국은 2009년 현재 28%로 OECD 평균 취학률인 25%보다도 3%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취학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

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Ⅱ-2-1> 취학률 현황

구 분	15~19세 인구대비 15~19세 학생의 취학률										20~29세 인구대비 20~29세 학생의 취학률									
연도	99	00	01	02	03	04	05	05	08	09	99	00	01	02	03	04	05	0	07	08
한 국	75	79	79	80	81	84	86	86	87	89	15	24	25	27	27	28	27	28	28	28
OECD 평균	74	77	78	78	79	80	81	81	81	82	18	22	22	23	24	25	25	25	25	25
호 주	81	82	81	83	82	82	82	83	82	82	23	28	28	33	33	33	33	33	33	33
캐나다	80	81	81	80	80	79	80	81	80	m	22	23	24	25	25	25	26	26	25	m
핀란드	81	85	85	85	86	87	87	88	88	87	28	38	39	40	40	41	43	43	43	43
프랑스	89	87	86	86	87	87	86	86	86	86	19	19	20	20	20	20	20	20	20	19
독 일	88	88	90	89	89	89	89	89	88	89	20	24	24	26	27	28	28	28	29	28
이탈리아	m	72	73	76	78	79	80	81	80	82	m	17	17	18	20	20	20	20	21	21
일 본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영 국2	72	75	75	77	75	79	79	70	71	73	18	24	24	27	26	28	29	17	17	17
미 국	72	73	76	75	76	76	79	78	80	81	19	20	22	23	22	23	23	23	23	23

* m은 자료가 해당국가에서 수집되지 않았거나 무응답 때문에 입수 불가능함을 의미함.
** 연령별 취학률 = (해당 연령계층 학생수/해당 연령대 인구수)*100
자료 : 교육인적자원보(2010). OECD 교육통계.

③ 관련정책과 대안모색

일반 학생들의 취학률은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미혼모, 소년소녀가장이나 북한 이주아동의 취학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실제로 2006년에서 2008년 3월까지의 입학생 대비 중도 탈락생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학생의 중도 탈락률이 1.4%인데 반해 탈북 중학생의 중도 탈락률은 9.0%, 고등학생은 14.2%에 이르고 있다. 평균적으로도 6.1%로 탈북학생의 중도탈락률은 일반학생의 6배에 이르고 있다. 미혼모도 최종학력이 중·고등학교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 77.4%, 2003년 78.4%, 2004년 78%로(허남순・노충래, 2005) 미혼모의 학력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다. 특히 10대의 경우 연령자체가 낮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수준이 낮고 학업을 중단하고 가출을 하는 경우

도 많아 학업지속이 곤란하므로 자연스럽게 저학력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취학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주로 미혼모나 탈북아동, 그리고 빈곤아동 등 취약아동의 낮은 교육지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취약 아동 및 청소년의 취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약 청소년의 학업관련 문제를 연구하고 상담하며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교육지원 및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대부분의 미취학 아동청소년은 학교생활상의 적응문제에 더하여 경제적 빈곤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취약청소년의 다양한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상담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혼모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교육법안처럼, 학교가 임신 또는 임신과 관련하여 학생의 교육적 배제에 대한 금지를 명문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 같은 교육정책은 반드시 아동의 양육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 중퇴율

① 지표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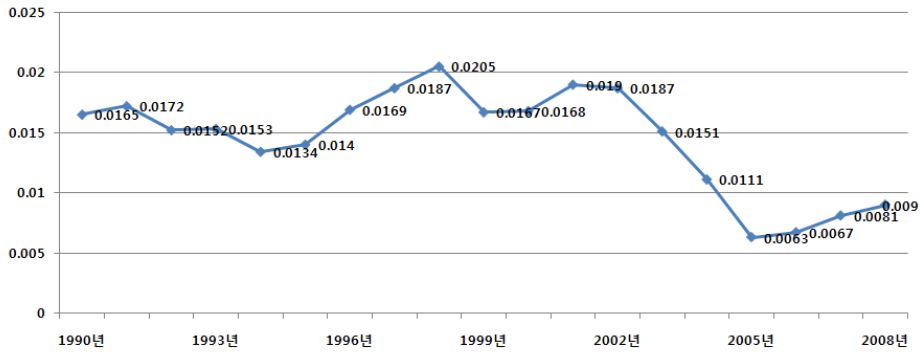
취학률이 교육기회를 평가하는 지표라고 한다면 중퇴율은 다양한 교육환경을 반영한 교육의 결과를 평가하는 중요지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학력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 중퇴는 청소년 당사자 뿐 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기가 된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것을 당연시 하며, 자신들의 높은 학업성취가 그들의 인생을 성공하게 만든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로 학습방법이나 입시문제에 비해 청소년들의 학업중퇴는 큰 관심사가 되지 못하였다 학교중도탈락 현상이 학업중퇴, 학교공포증, 등교거부, 중도포기 등 각 사회에 따라 특수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이는 결국, 청소년 자신, 가정, 학교 그리고 전체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문제이며, 다변적인 현상인

것이다(성윤숙, 2006).

결국, 정규교육과정인 초등학교(6~11세)와 중학교(12~14세), 고등학교(15~17세)에서 사망이나 건강, 가정사정, 부적응, 검정고시, 유학, 이민 등의 이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해당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발달과업의 이행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 될 수밖에 없다.

② 관련 통계와 현황

중고등학교 중퇴비율은 1990년에는 1.6%에서 1998년 2.1%로 상승하였다. 1998년 높은 수준의 중고등학교 중퇴비율은 1998년 IMF 경제위기로 인한 가정의 해체를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 2005년 중고등학교 중퇴비율은 0.006%에서 2008년에는 0.009%로 소폭 증가하였다.



[그림 Ⅱ-2-1] 중퇴율 추이

③ 관련 정책과 대안 모색

중고등학생의 중도탈락을 예방하고 중도탈락자의 학교재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징계절차를 민주화해야 한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들의 징계는 민주적 절차를 통한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 채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퇴학과 같은 징계방식은 학생의 학교생활 지속여

부를 결정하는 계기가 되며 이후 학교에 복교하거나 재입학하는 경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른 가벼운 징계의 경우에도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학생은 학교 및 교사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후 정상적인 학교생활의 지속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성윤숙, 2005).

또한 중도탈락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학교생활의 부적응에 있고, 이 같은 부적응은 주로 교사나 또래관계의 친밀성이 약화된 경우에 나타난다. 따라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상담과 지원체계를 학교 내에서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즉,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퇴를 결정한 청소년은 대학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혼자서 학원을 다니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만 그러한 개인적 노력은 좌절되기 쉽다. 또한 제도적 차원에서 복교에 대한 상담과 복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장민규, 2002; 주금옥, 2002; 한지원, 2002; 성윤숙, 2005 재인용).

○ 학교등교 거부 이유

① 지표의 의미

학교는 아동청소년의 인지발달 기회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공간이지만, 입시위주의 교육이나 교사나 동교관계의 친밀감이나 결속력의 부족으로 아동청소년이 학교등교를 거부하는 사례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인지발달의 중요한 요소인 교육이 권리로 실현되는 곳이 학교라고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은 학교라고 하는 공간을 떠나서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교육권은 훌륭한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도 정의된다.

하지만 최근 학교는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성적과 입시위주의 학교운영으로 많은 학생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개성이 무시된 입시위주의 교육과 성적지상주의에 매몰된 학교교육에 실망하여 학교등교를 거부하는 학생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청소년에게 학교는 가족에서 사회로 확대되는 장이며,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형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가는 장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유안진 외, 2004; 이정은·조미영, 2007 재인용). 더욱이 청소년기의 학교적응이 이후 심리·사회적 적응과 직업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라고 할 수 있다. 학교생활의 부적응은 대표적으로 학교생활에서 저조한 학업성적과 사회적 관계로 나타나고, 종국에는 학교중퇴로 이어질 수 있다.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할 경우, 향후 고등교육을 받고, 직업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사회적, 학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청소년이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회에 위협이 된다(Richman et al., 2004; 이정은·조미영, 2007 재인용).

인지발달과 관련된 유사지표인 중퇴율은 인지발달의 기회충족 정도에 대한 평가가 주된 목적이라는 점에서 실제로 아동청소년의 학교등교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이 실제로 인지발달기회를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는지 그리고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는 학교등교 거부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견해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관련 통계와 현황

등교거부에 대한 관련 현황이 아직까지 조사되지 못해 등교거부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임희진과 김현철(2010)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조사에서 등교거부 현황을 추정할 만한 관련 문항이 조사되었다. 이 조사에서는 고등학생들에게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 혹은 불만족 정도를 확인하고 있고,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아동청소년의 25%가 학교생활이 즐겁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남자보다는 여자의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족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고등학교 청소년의 약 25%정도가 학교생활에 불만족을 느끼고 있어 등교거부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위기청소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Ⅱ-2-2> 학교생활에 대한 즐거움 정도

구분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전체		24.9	48.4	19.9	6.5	0.3
성별	남자	24.8	48.9	18.1	7.7	0.4
	여자	24.9	47.8	22.0	5.2	0.1
교급	고1	27.6	45.0	20.3	6.8	0.3
	고2	24.4	49.7	19.3	6.3	0.3
	고3	22.9	60.1	20.2	6.5	0.3

자료 : 임희진·김현철(2010). 한국고등학생의 학업에 관한 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③ 관련 정책과 대안 모색

학문적으로 학교 등교거부의 주된 원인은 학생변수, 가족요인 변수, 학교요인 변수, 그리고 경제적 영향 변수 등으로 범주화된다. 학생변수는 알코올, 약물남용, 학교출석에 대한 이해결핍, 정신건강의 어려움, 약한 신체적 조건, 그리고 사회적 능력의 결핍 등이 제시된다. 가족요소로는 자녀지도의 결손, 가정폭력, 가정의 경제적 결핍, 가정의 약물남용, 교육에 대한 차이 있는 태도 등이 제시된다. 아울러 학교요소로는 학교의 전반적인 환경, 학교규모, 교사와 다른 학생들의 태도,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와 학습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경제적 영향으로는 학생, 한부모가정, 잦은 이사,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부모 등이 제시된다(한영희, 2009).

물론, 등교거부의 주된 이유는 성적 중심의 학사운영에 따른 거부감과 이로 인한 학업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창의성을 개발하고 재미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의 목적과 학교의 기능에 대한 사회 전반의식변화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대안교육을 제도화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심화되고 있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학교등교거부의 중요한 이유로 제시되고 있어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대안도 요구된다. 등교거부의 의사를 보인 위기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지속적인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 대학진학률

① 지표의 의미

교육은 전통적으로 학교나 대학과 같은 기관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광범위한 문화적, 시민적, 직업적 욕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과 관련되어왔다(Waters et al, 2002:65). 오늘날의 교육은 두 가지 개념 즉, 평생동안 지속적인 학습의 개념으로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인 훈련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학교육은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적인 기술과 교육을 받는 곳으로서 졸업 후에는 보다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고등교육, 특히 학사학위나 그 이상의 학위의 이수는 개인의 고용전망을 점차 밝게 하고 자신의 소득능력을 증가시킴으로서 자신을 포함한 가족의 경제적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대학의 진학이 청소년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대학진학의 결과로 나타나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습득으로 인한 경제적 안정이 향후 성인으로의 전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② 관련 통계와 현황

1995년 50%를 넘어선 대학 진학률은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는 83.8%까지 증가하였다. 특히, 2004년 이후 대학진학률은 약 68%를 상회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0년에는 80%를 초과하게 된다.

특이점은 2000년 35.7%에 불과했던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이 2008년 72.9%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이 2000년 84.6%에서 2007년 87.9%로 소폭 증가한 것과 비교하여 증가의 폭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청소년백서, 2009).

<표 Ⅱ-2-3> 진학률

	초등→중등	중등→고등	고등→대학		
			계	일반계	전문계
1985	99.2	90.7	36.4	53.8	9.9
1990	99.8	95.7	33.2	47.2	6.3
1995	99.9	98.5	51.4	72.8	17.2
2000	99.9	99.6	68	84.6	35.7
2004	99.9	99.7	81.3	89.8	57.3
2005	99.9	99.7	82.1	88.3	62
2006	99.9	99.7	82.1	87.5	68.6
2007	99.9	99.6	82.8	87.1	71.5
2008	99.9	99.7	83.8	87.9	72.9

자료 : 교육통계연보(각연도), 아동청소년백서(2009) 재인용

③ 관련 정책과 대안 모색

대학진학은 고등교육에 대한 청소년의 욕구 해소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대학진학이 향후 직업과 소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중요한 지표이다. 우리나라의 높은 학구열로 인해 대학진학의 진입장벽은 매우 낮아졌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는 빈곤 아동청소년에 대한 대책은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2009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등록금은 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반면, 올해 도입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의 대출금리는 5.7%로 OECD 회원국 중 비슷한 대출제도를 운영하는 일부 국가보다 훨씬 높다. 가령, 영국이나 뉴질랜드는 학자금 대출금리가 전혀 없고, 스웨덴은 2008년을 기준으로 2.1%, 네덜란드도 2.39%에 불과하다.

교육인적자원부(2010)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4년제 일반대학 176개교의 2010학년도 연간 등록금의 평균은 약 684만5000원으로 2009학년도의 675만8000원에 비해 평균 1.29% 증가했다. 설립별로 살펴보면 국·공립대는 약 447만8000원으로 지난해(약 441만6000원) 대비 1.39% 상승하였으며 사립대는 754만원으로 지난해(약 742만1000원)에 비해 1.6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해 가정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학의 높은 등록금에 더하여 높은 학자금 대출금리는 아동청소년 특히, 빈곤한 아동청소년의 대학진학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대학진학률을 높이고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상한제의 도입이나 학자금 대출금리의 인하 등의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

○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비율

① 지표의 의미

가계당 월평균 소비지출에서 월평균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7.8%에서 2007년 12%로 증가했는데, 가계당 월평균 교육비 가운데 월평균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동안 19.3%에서 65.2%로 급증했다. 사교육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나치게 증가한 사교육비가 우리나라 대다수 가계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나아가 경제력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양정호, 2006). 사교육비 지출 상위 20%집단과 하위 20%집단 간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 격차가 2001년에는 7.6배이었으나 2004년에는 8.6배로 증가했다. 이처럼 사교육비는 단순히 교육정책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계층이나 지역간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사회문제로까지 등장하고 있다(성낙일·홍성우, 2009 재인용).

UNCROC는 무상교육의 권리를 제안하고 있지만, 일부 가정은 높은 교육비로 인해 교육에 대한 접근에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교육비가 전체 가구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교육비의 높고 낮음이 학업의 성취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로 인해 교육 불평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한 가구에서 평균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사교육비의 비율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② 관련 통계와 현황

‘09년 초·중·고등학교 학생 사교육비 총액은 21조 6천 억 원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하였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하였다. 사교육 참여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 3천원이고 사교육 참여율은 75.0%로 전년대비 0.1%p 감소하였다.

<표 Ⅱ-2-4> 사교육비 추이

구 분	2007년	2008년	증감률	2009년	증감률
사교육비 총액(억원, %)	200,400	209,095	4.3	216,259	3.4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	22.2	23.3	5.0	24.2	3.9
사교육 참여학생 기준	28.8	31.0	7.6	32.3	4.2
사교육 참여율(%, %p)	77.0	75.1	-1.9	75.0	-0.1
주 평균 사교육 참여시간(시간)	7.8	7.6	-0.2	7.4	-0.2

2009년 전국 초·중·고교 학생의 사교육비 전체규모는 21조 6천 억 원으로 추정되며 2008년(20조 9천 억 원)보다 3.4% 증가하였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10조 2천 억 원, 중학교 6조 3천 억 원, 고등학교 5조 1천 억 원 정도이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 2천원으로 2008년(23만 3천원)보다 3.9% 증가하였고,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24만 5천원, 중학교 26만원, 일반계 고등학교 26만 9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Ⅱ-2-5> 사교육비 규모

구 분	총 사교육비 (억원, %)				
	2007년	2008년	증감률	2009년	증감률
전 체	200,400	209,095	4.3	216,259	3.4
초등학교	102,098	104,307	2.2	102,309	-1.9
중학교	56,120	58,135	3.6	62,656	7.8
고등학교	42,181	46,652	10.6	51,294	10.0
일반고	38,655	42,973	11.2	47,853	11.4
전문고	3,526	3,679	4.3	3,441	-6.5

<표 Ⅱ-2-6>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구 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만원, %)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만원, %)				
	2007년	2008년	증감	2009년	증감	2007년	2008년	증감	2009년	증감
전 체	22.2	23.3	5.0	24.2	3.9	28.8	31.0	7.6	32.3	4.2
초등학교	22.7	24.2	6.6	24.5	1.2	25.6	27.6	7.8	28.1	1.8
중학교	23.4	24.1	3.0	26.0	7.9	31.4	33.2	5.7	35.0	5.4
고등학교	19.7	20.6	4.6	21.7	5.3	35.9	38.6	7.5	40.4	4.7
일반고	24.0	24.9	3.7	26.9	8.0	38.8	41.1	5.9	42.8	4.1
전문고	6.7	6.9	3.0	6.0	-13.0	19.8	22.7	14.6	22.9	0.9

* 주 : 사교육을 받은 학생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월평균 금액

③ 관련 정책과 대안 모색

현 정부의 사교육 종합대책은 공교육 내실화, 선진형 입시제도 정착, 사교육 대체 서비스의 강화 그리고 학원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학교자율화의 확대를 비롯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Ⅱ-2-7>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교육 종합대책 주요 내용

목표	세부방안
공교육 내실화	학교 자율화 확대, 교과교실제 도입, 교원평가 실시,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선진형 입시 제도 정착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중고교 기출문제 공개, 외고 입시에서 수학, 과학 가중치 합리화, 경시대회 실적 반영금지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	사교육없는 학교 1000개 육성, 방과후 학교 강화
학원 운영 효율적 관리	시도 자율로 교습시간 단축 유도, 신고 포상금제 도입, 온라인 수강료 규제

하지만 정부의 사교육 종합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가령 사교육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개인과외가 2년 만에 대폭 증가하였고, 영어 학원이나 입시학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7년 말 등록된 개인과외가 전국에 3만 6986건이었지만 2009년 말 현재 5만 4293건으로 2년 만에 4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학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대전의 경우 같은 기간 912개에서 992개로 8.7%증가하였고, 충남도 1001개에서 1,104개로 10.3%나 증가하였다. 따라서 사교육 해소를 위한 대책은 단기적 처방보다는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실효성있는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교육부담 완화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공교육 의 강화가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제시된다. 공교육 수준과 책무성을 높여 학교교육만으로도 자녀를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불안심리와 지나친 경쟁의식에 사로잡힌 일부 계층의 부모들의 사교육비 지출행태가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미치는 역효과에 대한 사회적 홍보를 강화하고, 학부모의 자녀교육관을 계도할 필요하가 있다. 가령, 김미숙 외(2007b)의 사교육의존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중상층 학부모위주로

구성된 학교에서는 학교의 노력여부와 무관하게 사교육참여율이 높고 진학준비에서 학교 의존도가 낮게 나타난다. 하지만 사교육비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교육의 학력향상 효과는 크지 않으며 과목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령대별로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과 합리적인 교육소비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계몽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사교육 유발효과가 큰 학생선발제도 도입과 교육과정 운영에 신중을 기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내신 성적의 산출방식과 평가문화를 개선하는 것도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된다(강영혜, 2008).

이외에도 수준별 이동수업과 교과 교실제 운영, 방과후 학교 활성화, 교원평가제 실시, EBS교육 강화 등도 사교육절감과 관련된 효과적인 대책이 된다. 특히, 방과후 학교 활성화는 사교육 절감대책으로서 의미있는 대안으로 강조되고 있다. 방과후 학교는 방과 후에 정규교육과정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다양한 교과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교과 보충 및 심화학습을 돕고 특기적성을 개발하며,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아울러 방과후 학교는 학업성취나 특기적성 계발, 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부모 의견조사결과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종단연구에 따르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학업에 대한 내재적 동기와 자기효능감이 더 높았고, 지각이나 결석 등과 같은 문제행동을 덜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학교생활 개선 효과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과후 학교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은 방과후 학교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학생과 간헐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에 비해 사교육비 경감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

○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도

① 지표의 의미

아동청소년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지적능력을 향상시킨다. 만약, 아동청소년이 학교수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인지적 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때문에 학교와 교사는 아동청소년이 관련 교과목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는 교사학습을 익힐 필요가 있고, 국가도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능력 향상을 위한 교사학습 지원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변화를 위한 교사차원의 노력은 교사학습(teacher learning)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교사들은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배울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최근의 사회변화는 교사들에게 점차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교사들이 새로운 종류의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제 교사들은 단순히 교육과정을 다루는 것을 넘어서서 매우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학습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점차 교사 편에서 보다 많은 학습을 요구하고 있다(Borko, 2004; 소경희, 2009).

② 관련 통계와 현황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도는 초등학생의 경우 이해하기에 적당하다는 학생이 4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해하기 쉬운 편이다(29.6%), 이해하기 매우 쉽다(1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도는 초등학생의 경우 경제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대체로 경제수준이 상보다는 하에 가까울수록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고생의 경우에서는 학교수업을 이해하기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57.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해하기 힘든 편이다(22.9%), 이해하기 쉬운 편이다(12.7%) 등의 순으로 나타나 초등학생보다는 중고등학생의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다. 중고생도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2-8> 학교 수업에 대한 이해도

구 분			이해하기가 매우 힘들다	이해하기 힘든 편이다	이해하기에 적당하다	이해하기 쉬운 편이다	이해하기가 매우 쉽다
초등학생	전체		0.4	5.0	47.1	29.6	17.9
	성별	남	0.5	4.6	43.3	31.3	20.2
		여	0.2	5.4	51.1	27.2	15.5
	경제수준	하	2.4	19.0	52.4	19.0	7.1
		중	0.4	5.2	51.8	27.7	14.9
		상	0.1	3.8	34.9	34.9	26.2
중고생	전체		3.1	22.9	57.1	12.7	4.1
	성별	남	3.9	22.8	53.3	14.6	5.4
		여	2.3	23.1	61.0	10.8	2.7
	경제수준	하	8.5	31.7	45.8	9.2	4.8
		중	2.6	22.9	58.8	12.5	3.3
		상	3.1	15.4	51.3	18.5	11.6

자료 : 이봉주 외(2009).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③ 관련 정책과 대안 모색

학교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생의 노력에 더하여 학교와 교사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교사는 학생이 교육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학습에 어려움을 겪거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결석한 학생은 별도 교실에서 보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과학이나 수학 등 등 학생들에게 어려운 과목은 교사가 방과 후에 직접 보충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물론, 학생의 자질과 능력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과다한 행정업무를 해소하고 보충학습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부정적 인식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 학교수업에 대한 만족도

① 지표의 의미

학생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는 교사의 지도력은 학급의 상징, 규범, 놀이, 지위역할, 학습태도 등에 영향을 미치며, 수업만족도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사의 지도력은 수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훌륭한 교사는 학생을 수업에 참여시켜 만족을 느끼게 하지만, 그렇지 못한 교사는 교실 붕괴를 초래하고 방치하기도 한다(차인순, 2006).

따라서 학교수업에 대한 만족은 훌륭한 교육방법과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환경, 그리고 교사의 훌륭한 학습지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결국, 학교수업의 만족도는 학습을 통한 인지능력 향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수업만족은 학생들이 수업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긍정적이고 유쾌한 감정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활동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학습활동이다. 학생들은 등교한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학습활동을 하면서 보내게 된다. 때문에 학습활동에서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지속되는 학교생활을 위한 필수조건이다(최정희, 2000).

아동청소년의 지적능력 향상에 필수적인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교사관계, 교유관계, 학습활동, 교칙이나 준칙, 그리고 학교행사(최상미, 2003),나 학교환경, 학교 행사와 교수학습활동, 인간관계(백희철, 2004)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수업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학교의 학습환경에 대한 적절성, 학교 내에서의 인간관계의 적합성 정도에 대한 평가가 된다.

② 관련 통계와 현황

학교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한 분석결과는 아직까지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정도로 해당 사항을 유추

해 보면, 먼저, 학교의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의견이 50.8%로 가장 높았고, 다음 불만족한다는 의견인 10%에 불과했다. 또한 학교교육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매우 만족'+'약간 만족')고 응답한 비율이 2000년 30.7%에서 2004년에는 35.7%, 2008년에는 50.8%로 상향되었다.

또한 교우관계 만족도도 2000년에 67.7%, 2004년에는 66.6%, 2008년에는 70.0%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와의 관계 만족도도 '만족한다'('매우 만족'+'약간 만족')고 응답한 비율이 2000년에 36.2%이던 것이 2004년에는 42.6%, 2008년에는 46.9%로 상향 되었다.

<표 Ⅱ-2-9> 학교생활만족 정도

구분	2000			2004			2008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전반적 학교생활	414	455	131	465	420	115	510	431	59
교육내용	307	489	204	357	481	162	508	392	100
교우관계	677	286	37	666	293	41	700	273	27
교사와의 관계	362	484	154	426	460	114	469	450	82
학교시설/설비	230	358	412	295	399	306	348	409	243
학교주변환경	234	440	326	276	455	269	307	432	261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2008), 아동청소년백서(2009) 재구성

또한, 학교시설 만족도를 보면, '만족한다'('매우 만족'+'약간 만족')고 응답한 비율이 2000년 23.0%에서 2004년 29.5%, 2008년에는 34.8%로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학교주변 환경 만족도를 보면, '만족한다'('매우 만족'+'약간 만족')고 응답한 비율이 2000년 23.4%에서 2004년 27.6%, 2008년에는 30.7%로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아동청소년백서, 2009).

한편, 모상현· 김영지 외(2010)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수업에 대한 만족정도는 보통이다가 5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만족한다 19.6%, 불만족한

다 18.9%, 매우 불만족이다 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만족한다+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이 21.8%로 불만족한다(매우 불만족이다+불만족이다) 23.1%보다도 약간 낮게 나타났다.

<표 Ⅱ-2-10> 학교 수업에 대한 만족도

구 분		매우 불만족이다	불만족이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전 체		4.2	18.9	54.9	19.6	2.4
성별	남	5.4	17.4	52.5	21.4	3.4
	여	3.1	20.5	57.4	17.6	1.4
교급	중	3.5	15.1	52.9	24.9	3.6
	고	4.9	22.2	56.6	15.0	1.3
학업성적	하	5.6	22.4	57.3	13.4	1.4
	중	3.0	16.9	58.9	19.2	2.0
	상	4.3	17.1	46.0	28.4	4.2
경제수준	하	5.4	26.7	48.1	17.1	2.7
	중	3.9	18.1	56.4	19.5	2.0
	상	6.1	19.2	55.5	19.6	2.4

③ 관련 정책과 대안 모색

많은 선행연구는 학생의 수업만족도는 하위요인으로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 규칙준수, 학교행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업지식이나 수업태도, 수업환경, 그리고 수업효과 등도 학생의 수업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따라서 학생의 수업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업의 질과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수업지식과 수업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내실있는 교사훈련이나 연수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욕구에 맞는 교육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효과인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전통적인 교육방법을 탈피하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방법을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기자재에 대한 투자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충분한 교육기자재는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여 수업에 대한 만

족도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물리적 요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수업능력에 따른 수업방법 및 내용의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의 수업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획일적인 수업은 수업이해도가 낮은 학생들의 수업만족도를 낮추는 주된 요인이 된다. 따라서 학생의 자질과 수업능력에 따라 수업방법을 차별화하고 다양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

○ 하루 평균 학습시간

① 지표의 의미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습시간을 보낼 뿐 아니라 정규수업이 끝난 후,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도 숙제 또는 자율적으로 일정한 학습과제를 하는 등 학습으로 보내는 시간이 많다. 그래서 학교교육에서 교수-학습 고정의 주요 변인인 학습시가는 20세기 내내 교육관계자들이나 현장 교사들의 꾸준한 관심사가 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학업성취도와 관련있는 학습자들이 학습을 위해 사용한 학습시간의 의미를 규정짓고, 이와 관련된 연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려왔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수업과 학업성취도의 매개변인으로서 수업시간을 양적인 개념보다는 질적인 개념으로 파악하여 연구하는 것이 더욱 의미 있음을 많은 이론가와 연구 그리고 실제가들이 밝혀냈다(민동주, 1996).

이처럼, 학습시간이 학교학습을 설명하는 의미있는 측정치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Carroll(1963)이 제안한 학교학습모형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많은 이론가들에 의해서 학습시간의 개념이 확장되어 왔고, 연구자들에 의해서 그러한 이론이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집중적으로 연구되어 왔다(민동주, 1996).

많은 연구들은 학생이 연습에 알맞은 수준과 속도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학습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적절치 못하거나 비성공적인 경우에는 학습성취에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조규열, 2004). 실제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서는 학습된 양이 학습기회 또는 할당된 시간

(opportunity to learn or allocated time)에 달려있다고 보고, 이러한 할당된 시간의 개념을 바탕으로 수업의 양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규명되었다. 따라서 적당한 수준과 속도로 학습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아동청소년의 인지도 그만큼 발달한다.

② 관련 통계와 현황

통계청(2009)의 생활시간 조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학습시간으로는 요일 평균 7.25시간, 평일 평균 8.27시간이었다. 학습시간을 수업의 형태별로 분류해 보면, 정규수업은 요일 평균 6.17시간, 평일 평균 6.29시간이었고, 정규수업 이외의 학습으로는 요일 평균 2.45시간, 평일 평균 2.39시간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습시간이 더 많았고, 대학생은 학습시간이 고등학생보다는 적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도 한국 학생들의 학습시간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특히, 정규학습이오의 방과 후 학습시간의 양이 가장 많은 편이다(이옥연, 2010).

③ 관련 정책과 대안 모색

학생의 학습시간과 학업성취도는 국가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우리나라는 학습시간과 학업성취도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일부 교육선진국에서는 학습시간과 학업성취도간의 관계가 부적 상관을 가진다. 가령, 핀란드는 학교수업시간이나 방과후 수업시간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학생이 학습에 투자하는 시간의 양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학업성취도와 학습 시간량이 매우 적극적인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정규학교 학습 시간이나 방과후 학습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학습방법을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나 학교수준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서 시간 활용의 효율성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조장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실천해가야 한다(이옥연, 2010).

<표 Ⅱ-2-11> 평균학습시간

		요일 평균	요일 평균 (남자)	요일 평균 (여자)	평일	평일 (남자)	평일 (여자)
계	학습	7:25	7:23	7:26	8:27	8:29	8:25
	학생의 정규수업	6:17	6:18	6:16	6:29	6:30	6:27
	학생의 정규수업외 학습	2:45	2:42	2:48	2:39	2:38	2:41
	학습관련 물품구입	0:26	0:25	0:27	0:25	0:24	0:25
초등 학생	학습	6:29	6:29	6:28	7:49	7:50	7:48
	학생의 정규수업	4:36	4:34	4:38	4:43	4:41	4:45
	학생의 정규수업외 학습	2:48	2:50	2:44	3:09	3:13	3:04
	학습관련 물품구입	0:22	0:21	0:23	0:21	0:20	0:21
중학생	학습	7:43	7:36	7:49	9:06	9:02	9:10
	학생의 정규수업	5:53	5:54	5:52	6:07	6:09	6:04
	학생의 정규수업외 학습	3:10	3:04	3:16	3:13	3:09	3:17
	학습관련 물품구입	0:23	0:19	0:25	0:20	0:18	0:21
고등 학생	학습	9:31	9:25	9:37	10:48	10:40	10:56
	학생의 정규수업	8:44	8:42	8:47	9:14	9:10	9:17
	학생의 정규수업외 학습	2:43	2:39	2:48	2:09	2:04	2:13
	학습관련 물품구입	0:32	0:36	0:30	0:34	0:42	0:31
대학생 이상	학습	5:12	5:22	5:02	5:35	5:50	5:21
	학생의 정규수업	5:00	5:11	4:48	5:02	5:12	4:51
	학생의 정규수업외 학습	1:55	1:52	1:58	1:47	1:42	1:51
	학습관련 물품구입	0:30	0:32	0:29	0:29	0:35	0:27

자료 : 통계청(2009). 생활시간조사

아울러 학습시간을 무작정 늘리는 것보다는 학생으로 하여금 학업성취 동기를 향상시키고 교과학습 자체에 대한 관심과 흥미도를 높일 수 있는 학생 주도형 수업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록 학생들이 짧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흥미롭게 몰입할 수 있도

록 유도해야 하며 그것은 곧 교사와 학생이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는 소위 구성주의적 수업활동을 요구한다. 특히, 최근 국가교육과정 개편 논의에서 언급되고 있는 학교 자율화 조치와 수업시수 증감 운영 허용, 교과간 수업시수 재조정 등과 같은 단위 학교의 자율성 신장 노력이 학생 체험 중심의 역동적인 수업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학생들의 단위 시간당 학습 효율성을 높여주고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와 학습전략을 강화시킬 수 있는 수업방법을 적용해야 한다(이옥연, 2010)

○교원1인당 학생수

① 지표의 의미

교사는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특히 교사는 학생들과의 주기적인 상담과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지적 능력의 향상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이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학생의 수가 너무 많아서도 그렇다고 너무 적어서도 안 된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많은 교육통계에서는 학교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측정하고 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열의나 관심, 수업의 진행방식이나 태도, 그리고 여기에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의 정도와 형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한편, 교원1인당 학생 수는 재적학생수/교원수(전임교원)로 산출되며 교육여건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여기서 교원 수에는 전임교원수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유·초등학교의 시간강사, 전문대학 및 대학의 경우 조교 및 초빙교수 등 비전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관련 통계와 현황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유치원을 제외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와 대학교 등은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1980년 교원 1인당 학생수가 47.5명이었던데 반해 2009년에는 19.8명으로 두 배 이상 감소하였고, 중학교도 1980년 45.1명에서 2009년 18.4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교원 1인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까지 많은 개선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교육은 교원 1인당 학생수가 25.6명인데 반해 OECD 평균은 16.0명으로 우리나라 교원이 담당하는 학생수가 9명이 더 많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OECD 평균에 비해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각각 6명, 4명 정도가 더 많다.

<표 Ⅱ-2-12> 교원1인당 학생 수(교급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유치원	19.9	33.9	22.4	20.7	19.5	17.5	17	16.2	15.5	15.2
초등학교	47.5	38.3	35.6	28.2	28.7	25.1	24	22.9	21.3	19.8
중학교	45.1	40	25.4	24.8	20.1	19.4	19.4	19.1	18.8	18.4
고등학교	33.3	31	24.6	21.8	19.9	15.1	15.1	15.3	15.5	15.7
전문대학	31.9	37.7	39	49	51.2	44.1	44.5	44.5	41.6	39.3
대학교	29.7	35.7	30.7	26.5	27.6	25.7	24.9	25	24.5	24.9

자료 : 통계청, 2010.

<표 Ⅱ-2-13> 교원1인당 학생 수(국가별)

	유아교육	초등교육	전기 중등교육 (중학교)	후기 중등교육 (고등학교)	고등교육
한국	18.7	25.6	20.5	16.2	-
미국	13.8	14.6	14.7	15.6	15.1
일본	16.8	19	14.8	12.5	10.6
프랑스	19.2	19.7	14.3	9.6	16.6
영국	18.4	19.4	16.7	11.3	17.6
OECD 평균	14.9	16	13.2	12.5	15.3

자료 : OECD(2009), Education at a glance

③ 관련 정책과 대안 모색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OECD 국가에 비교해 보았을 때 아직까지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관련 통계와 현황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각각 25.6명, 20.5명, 그리고 16.2명으로 OECD 평균인 16.0명, 13.2명 그리고 12.5명보다 많게는 10명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재정을 확대하여 일선학교에 충분한 교육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OECD(2008)의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5년 기준 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은 OECD 국가 평균 5.8%보다 1.4%p가 높은 7.2% 수준이다. 그러나 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구성 비율은 4.3%로 OECD 국가 전체 평균인 5.0%보다 낮은 수준이며, 학부모부담 비중은 OECD 국가 전체 평균 보다 2.1%p 높은 2.9% 수준임을 알 수 있다(아동청소년백서, 2009).

<표 Ⅱ-2-14> 국가별 GDP 대비 공교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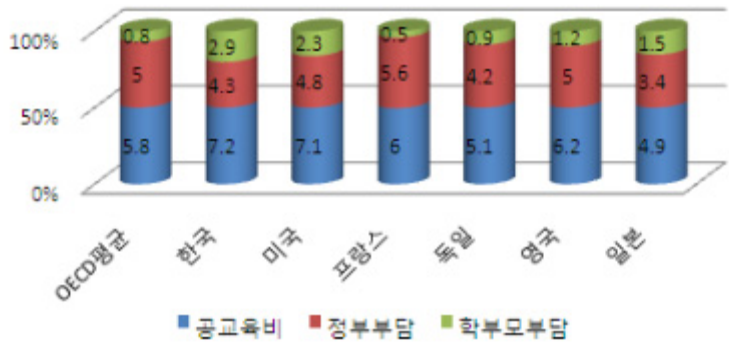
구분	OECD 평균	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공교육비/GDP	5.8	7.2	7.1	6	5.1	6.2	4.9
정부부담	5	4.3	4.8	5.6	4.2	5	3.4
학부모부담	0.8	2.9	2.3	0.5	0.9	1.2	1.5

자료 : OECD(2008), 2008 OECD교육지표, 아동청소년백서 (2009) 재인용

아래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교육예산은 OECD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교육예산 구성을 보면, 정부부담은 4.3%에 불과해 OECD 평균보다 낮지만 학부모 부담은 2.9%로 OECD 평균보다도 높다.

한편,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미국 달러의 구매력지수 환산액)의 경우, 우리나라는 5437달러로 OECD 평균 6741달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중등교육도 7860달러로 OECD 평균(8267달러)보다 600달러나 적었고, 대학

도 우리나라가 1인당 공교육비로 8920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반면, OECD는 평균 1만 2907달러를 지출하고 있어 무려 4000달러나 격차를 보였다. 따라서 교육재정을 충분히 확보하여 일선학교에 충분한 교육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원수 확대를 통해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



[그림 Ⅱ-2-2] 국가별 교육예산

(2) 인지 능력

○ 학습부진아 출현율

① 지표의 의미

아동청소년은 학교학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낮은 학업성취, 가정환경의 결손, 교사의 학생에 대한 낮은 기대, 그리고 암기 지향적이고, 학습결과를 수치화하려는 경향이 강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습성취에 대한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학습부진아의 출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 같은 학습무기력증에 빠진 아동청소년은 발달단계에서 요구되는 지식의 습득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뿐 만 아니라 지적능력 발달에 부정적인 일탈행동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학습부진은 정상적인 지적능력을 지니고 학교수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면서도 내적으로는 발달장애나 학습수행에 필요한 요건과 외적으로는 학교생활부적응과 교우관계 실패로 인하여 능력이하의 최저수준의 학업성취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학습부진아(learning disability)는 발음, 읽기, 쓰기, 셈하기나 기타 학습과정에서 장애나 발달지연현상을 나타내는 학생으로서 그 원인은 개인적 요인에서부터 사회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학습부진아는 지적측면에서 볼 때, 정상적인 학생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정서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학습하기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정상지능이나 정서적 요인에 의해 가능성만큼 성취를 못하는 학생으로 규정지으며 학습가능성으로 보아 기대되는 성취수준에 미달되어 있는 학생을 학습부진아로 보고 개인의 내적 원인에 의해 발달수준 및 교육 단계에서 요구하는 학습과제의 성취에서 최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습자로 보고, 최저수준에 위치한 학습자를 의미한다(Kirk, 1962; 이덕준, 2001 재인용).

② 관련통계와 현황

2009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6학년은 보통학력 이상이 80%가 넘고 기초학력미달이 과목별 2% 전후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단계로 올라가면서 보통 학력이상 비중이 감소하고 기초학력미달이 10% 전후로 증가하였다.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1.6%, 중학교 3학년은 7.2%,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은 5.9%가 기초학력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기초 기초학력 미달이란 목표성취수준의 20%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로 해당 학년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최소 목표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별도의 보정 교육 없이는 다음 학년의 교수, 학습 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표 Ⅱ-2-15>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구분		2009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전체
초6	미달	2.3	1.3	1.3	1.2	1.8	1.6
	보통학력 이상	80.1	70.7	87.5	89.6	84.4	82.5
	기초학력	17.6	28	11.2	9.2	13.8	15.9
중3	미달	4.6	7.6	10.9	7.7	5	7.2
	보통학력 이상	68.9	63.4	56.2	58.9	71.2	63.7
	기초학력	26.5	29	32.9	33.4	23.8	29.1
고1	미달	2.3	8.9	6.1	8.7	3.7	5.9
	보통학력 이상	86.2	41	64	57.7	65.8	63
	기초학력	11.5	50.1	29.9	33.6	30.5	31.1

③ 관련정책과 대안

학교가 학습부진 학생을 양성하게 되는 것은 학교의 체제가 학습부진 학생을 비롯하여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는 국가가 고시한 교육과정을 비롯하여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라서 운영되고, 교육청 등과 같은 상급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그 과정에서 학교는 학생의 학습보다는 계획에 따라서 교육과정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상급기관에 실적을 보여주는 것을 우선시한다.

현재 일선 중고등학교에서 학습부진아 문제 해소를 위해 수준별 이동수업과 특별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수준별 이동수업은 서울과 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의 85.4%가 실시하고 있고, 이 지역을 제외한 중고등학교의 76.2%가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보충수업은 전국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수준별 하반편성과 특별보충수업은 오히려 학업능력개선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백병부(2010)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 때 성취도 검사에서 하위 20%에 속했던 학습부진학생의 성취도 향상 정도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분석한 결과 학습부진 학생을 수준별 하반에 편성하는 것이 인지적 성취도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거나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 만 아니라 백병부(2010)은 수준별 하반편성과 특별보충수업이 교과목 효능감이나 학업자아개념 등 정의적 발달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학생 개개인을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수준별 수업은 학습부진학생이라는 낙인만 줄 뿐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과목에 대한 흥미나 자신감만 떨어뜨릴 수 있어 현재의 학습부진아 정책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

학교교육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학생의 학습수준이나 속도에 따라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체제를 모색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습부진 학생을 지도하거나 일상의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일로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사가 수업 외의 다른 업무의 수행으로 학생의 수업준비를 소홀히 하거나 수업자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도 학습부진아동에 대한 교사교육, 학습부진 아동의 가정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그리고 학습부진아동의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한 교사역량의 강화 등도 학습부진아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되는 정책과제이다(서근원, 2009).

○ 창의성 지수

① 지표의 의미

창의성은 광범위한 영역에 관련되어 있으며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제이다. 특히, 지금보다도 빠른 속도로 다양화되고 변화될 미래사회에서는 창의성이 곧 인간 생존 그 자체와 직결되는 중요한 능력이 된다(윤종건, 1996; 박나미, 2005 재인용).

창의성이란 창의적 사고기능이 최종적으로 인간의 성취를 위해 작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에게 요구되는 정의적 또는 태도적 특성을 말한다. Cuilford(1959)는 창의성에 대한 정의를 새롭고 신기한 것을 낳는 힘이라고 보고, 지능구조모형에서의 발산적 사고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한항철 외, 2004; 김현철·김신영, 2005:31 재인용). 이러한 창의성이 외부세계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탐색을 통해 청소년의 인지적 발달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표가 된다.

창의성 교육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기발한 착상, 독창적인 안목,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으로 기존의 사고방식을 부단히 탈피-수정해 갈 수 있는 창의적 인간을 기르는 교육이다. 오늘날 우리가 창의성 교육을 염원하는 근본 이유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창의적인 인간이 인간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의 집단적 삶의 생존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창의성 교육은 지식기반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자신이 생존과 공동체의 진로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는 대안이다(곽병선, 2005).

② 관련통계와 현황

창의성의 경우 인지적 특성의 전체분포와 유사하게 중1(73.21)의 점수가 중2(71.96)보다 높아 중1보다 중2의 경우 창의성 점수가 다소 떨어지나 중2부터 이후 고3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경우 2007년도 결과와 마찬가지로 조사대상자 중 가장 높은 점수(75.34)를 보였다. 창의성에 대한 기타변수별 조사결과에서는 인지적 특성에 대한 전체 결과와 마찬가지로 남자(73.84)가 여자(73.24)보다, 고등학생(74.17)이 중학생(72.93)보다 더 높았으며, 인문계(74.32)가 실업계(72.96)보다 그리고 서울지역이 다른 지역의 결과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났다.

<표 Ⅱ-2-16> 창의성 지수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2007	73.82	72.56	73.03	74.52	74.35	74.73
2008	73.21	71.96	73.61	73.37	73.92	75.34

③ 관련정책과 대안

달라스와 가이어(Dallas & Gaier, 1970)은 창의성이 높은 20명의 생활상을 면밀히 살펴보고 나서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다음과 같은 13가지의 공통적인 특성을 발견하였다. 즉, 사회적 행동이나 태도에 있어서는 개방적이며 독립심이 강하고, 지배력이 강하며, 내향적이고, 새로운 정보나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며, 광범위한 흥미와 높은 자기수용력, 예민한 직감력, 폭넓은 융통성, 사회적 안정감, 고립적 내지는 비사교적 태도, 사회규범에 대한 깊은 관심, 급진주의적 성향, 외부의 통제에 대해 저항하는 강한 욕구 등이다(송규운 외, 2001 재인용).

한편, 한국교육개발원(2001)은 창의성 교육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교과수업 내용의 학습분량 과다, 학급당 학생 수 과다, 창의성 계발 교수, 교사의 전문성 결핍, 학교장 경영관 미확립, 그리고 학부모의 이해 수준 부족 등을 제시하고 있다(임선하, 2005).

종합해보면, 아동청소년의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의 지식암기위주의 교육을 개선해야 한다. 즉, 우리나라 교과교육에서는 의미가 적은 지식의 암기나 지식 전달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창의성 신장을 저해하고 있다.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암기하여 기억한다는 것은 지식을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지식이 문제해결상황에 활용되어 창의성을 발휘하려면 활동이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학습되어 학습자의 지식구조와 통합되고 지식의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학습되어야 한다. 아울러 토론을 통하여 개념이나 지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느낄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김주훈, 2005).

아울러 개인차를 고려한 교수와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에 따라 타고난 적성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나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학습상황에서 의미있 는 학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습자의 능력에 적절한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개인차를 고려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창의성은 환경에 의해서도 상당한 영향

을 받는다.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학습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누군가의 강제에 의한 학습보다는 스스로 결정하여 하는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이 창의성을 신장시키는데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강조되어야 하며,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대표적인 방법이 프로젝트 학습방법이다. 프로젝트 학습방법은 적은 양을 깊이있게 학습하는 데도 효과적인 방법일 뿐 만 아니라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는데에도 훌륭한 방법이다. 따라서 목표 및 내용 체계화에서 프로젝트 학습과 같은 요소를 적극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김주훈, 2005).

○ 문제해결능력지수

① 지표의 의미

문제해결이란 문제해결자의 현재 상태와 도달해야 하는 목표상태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 차이를 유발시키는 장애물을 해소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문제해결능력이란 이러한 차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지적이며, 창의적인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3; 김현철 김신영, 2005:33 재인용).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한 문제해결은 가정, 학교, 사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필수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생활기술(life skill)이다. 특히,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지고 다변화되어가고 있는 사회에서 올바른 판단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개인의 성공과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요인이 되고 있다(김현철 김신영, 2005:33).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에서도 문제해결의 과정은 개인이 계속해서 학습하고 개인의 활동을 수행하며 효과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의 핵심적인 기초를 제공한다고 본다.

② 관련통계와 현황

문제해결 능력의 경우도 이전의 창의성이나 자기주도 학습준비도의 점수분포와 유사하였다.

<표 Ⅱ-2-17> 문제해결능력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2007	5983	5806	5915	6022	5998	6083
2008	5839	5788	5808	5867	5942	6055

즉 중1(58.39)의 점수가 중2(57.88)보다 높아 중2학년의 결과가 낮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완만한 상승곡선을 나타냈다. 문제해결능력의 경우 고3의 점수(60.55)가 가장 높아 연령이 증가할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기타변수별 분석결과에서는 남자(59.65)가 여자(57.95)보다 고등학생(59.51)이, 중학생(58.12)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인문계가 실업계보다 그리고 서울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았다.

③ 관련정책과 대안

문제해결능력은 개인적 요인과 가정환경적 요인 그리고 학교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개인적 요인에서는 주로 자아개념이나 자아존중감 그리고 자아효능감이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가정 환경적 요인에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의 문화적 배경,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와 지원이 문제해결능력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외 학교요인으로는 학업성취도와 학습태도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 등이 제시되고 있다.

물론 이론적 논의에서는 문제해결능력이 학교환경에 더하여 개인과 가정환경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은 주로 학교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때문에 학교의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는데 더욱 많은 주의를 기울려야 한다.

그러나 학교는 여전히 교사중심의 전달식 수업, 실생활과 무관한 내용,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길러주지 못하는 교육과정, 태도와 가치관 교육의 미흡 등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능력의 함양이라는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이것은

학교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직업을 갖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적절하게 길러주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양한 심리사회적 환경에서 성장하고, 각기 다른 특성과 능력을 가진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상황이나 사회경제적 특성에 맞는 교육적 저치가 필요하다.

특히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교사는 권위적인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대화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어른이어야 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지식의 전달 뿐 만 아니라 학생들의 동기, 감정, 정서, 행동들을 관찰하여 학생들에게 자신이 긍정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지적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김지영, 2006).

○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① 지표의 의미

자기주도적 학습이란 개인 학습자가 자주적으로 행하는 학습활동으로 주로 성인학습방법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학교교육에서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습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주도적 학습이란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의 주체가 되는 교육이다. 즉, 학습과정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스스로 판단하여 주체적으로 결정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하고 책임지는 교육이다.

국제적으로 학습을 위한 준비는 아동발달의 가장 중요한 지표의 하나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Waters et al, 2002:35). 여기서 자기주도학습 준비도는 청소년들이 자기주도학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준비상태나 정도를 의미한다. 자기주도학습은 타인주도학습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교사 혹은 타인의 도움이 있건 없건 간에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에 대해 주도권을 갖고서 자신의 학습요구를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을 탐색하고 적절한 학습전략을 선택·적용하고 학습결과를 평

가하는 학습형태를 말한다. Guglielmino(1977)에 따르면, 자기주도학습도는 ① 학습기회에 대한 개방성, ② 효율적인 학습자라는 자아개념, ③ 학습에 대한 주도성, ④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감, ⑤ 학습에 대한 애정과 열정, ⑥ 미래지향성, ⑦ 창의성, ⑧ 기본학습기술과 문제해결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등 8개 하위요인들로 구성된다(김현철·김신영, 2005:36).

이 같은 자기주도 학습은 수동적으로 가르쳐주기를 기대하는 수동적인 사람들(reactive learner)보다 더 많은 것을 학습하고 더 잘 배우게 된다. 뿐 만 아니라 자기 주도적 학습은 자연적·심리학적 발달 과정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성숙해지면서 점차 부모나 교수 그리고 다른 성인들의 통제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기 주도적인 존재가 되어간다 그래서 성숙 혹은 성장의 본질은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지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 즉, 점차적으로 자기 주도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최미희, 2007).

② 관련통계와 현황

<표 Ⅱ-2-18>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2007	68.18	66.57	68.59	69.95	70.46	72.74
2008	68.06	67.22	68.57	68.78	70.72	73.60

자기주도 학습준비도의 조사결과도 창의성의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즉 중1의 점수(68.06)가 중2학년(67.22)보다 다소 낮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3(73.60)의 경우 가장 높은 점수분포를 보였다. 이와 같은 점수분포 양상은 2007년도와 동일하다. 기타변수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이전의 다른 분석결과와는 달리 여학생(69.97)이 남학생(68.88)보다 높은 점수분포를 보였다. 그러나 연령별, 계열별, 지역별 비교에서는 창의성에 대한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고등학생(70.95)이 중학생(67.95)보다,

인문계(71.41)가 실업계(67.23)보다 높았으며, 서울지역이 광역시나 시군지역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③ 관련정책과 대안

자기주도학습은 주로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1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에서 사교육 유발요인이었던 경시대회나 필기고사 등을 폐지하는 대신 입학사정관에 의한 자기주도학습전형을 도입하였다. 이외에도 인천남부교육청은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 전형 연수를 실시하였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2010)에서는 2010년 사교육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자기주도학습전형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외고와 국제고 중 공립은 모집정원의 20%, 사립은 10%를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선발하고, 과학고와 자율형 사립고는 각각 20%를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자기주도 학습 실시학교는 외국어고 31개교, 국제고 6개교, 과학교 19개교, 자율형 사립고 10개교, 그리고 자율학교 5개교 등 총 71개교이다.

제주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이 입학전형에 자기주도학습을 포함했다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수준 향상을 위해 자기주도학습 방법을 강의하는 강좌나 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가령, 서초구의 경우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자기주도학습 캠프를 개최 청소년 스스로가 합리적인 공부법을 배울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자기주도학습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입학전형의 확대와 함께 아동청소년 본인의 노력, 여기에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즉, 자기주도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Konwles, 1975; Tough, 1979; 이단순, 2006 재인용).

따라서 교사는 공동 학습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학생들이 보다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는 학습조력자(facilitator), 자원인사(resource person)으로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거나 제시 또는 어떤 방향을 지시하거나 훈계하는 교육방식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자기주도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가 학생의 자율적 학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상담과 조언을 전문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자기주도학습은 교사의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효과적인 교수방법에 의해서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표 Ⅱ-2-19> 자기주도학습 실시학교

시·도	학교명	시·도	학교명
서울	대원외국어고	서울	세종과학고
	대일외국어고		한성과학고
	명덕외국어고	부산	부산과학고
	서울외국어고	대구	동대구과학고
	이화여자외국어고	인천	인천과학고
	한영외국어고	광주	광주과학고
부산	부산국제외국어고	대전	대전과학고
	부산외국어고	울산	울산과학고
	부일외국어고	경기	경기북과학고
대구	대구외국어고	강원	강원과학고
인천	미추홀외국어고	충북	충북과학고
	인천외국어고	충남	충남과학고
대전	대전외국어고	전북	전북과학고
울산	울산외국어고	전남	전남과학고
경기	경기외국어고	경북	경북과학고
	고양외국어고		경산과학고
경기	과천외국어고	경남	경남과학고
	김포외국어고		창원과학고
	동두천외국어고	제주	제주과학고
	성남외국어고	서울	하나고
	수원외국어고	울산	현대청운고
	안양외국어고	경기	안산동산고
강원	강원외국어고		한국외대부속용인외국어고
충북	청주외국어고	강원	민족사관고
충남	충남외국어고	충남	북일고
전북	전북외국어고	전북	전주상산고
전남	전남외국어고	전남	광양제철고
경북	경북외국어고	경북	김천고
경남	경남외국어고		포항제철고
	김해외국어고	경기	양일고
제주	제주외국어고	충남	한일고
			공주대부설고
		전북	익산고
		경남	거창고

자료 : 서울시교육청(2010).

2) 정서적 발달

(1) 정서발달 환경

○ 부모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정도

① 지표의 의미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최초로 맺는 인간관계이며, 부모가 제공하는 환경은 자녀의 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사회화의 기초를 형성하며 여러 가지 습관을 획득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녀가 아동 초기에 잘 적응하는 인간으로 성장하려면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이고 상호적이어야 하며, 이로 인해 자녀가 보다 능력있는 아동으로 성장하게되므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한 의사소통은 필수 요건이라 할 수있다(양재희, 2003). 부모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가진 감정이나 사실, 생각, 믿음을 나눔으로써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자녀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된다.

부모와 청소년의 의사소통의 질이 청소년의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제시되어 왔다. 특히 부모의 양육스타일이나 의사소통의 질은 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중심적인 주제 중 하나였다. 초기에 부모와 아동의 관계의 질에 대한 지표는 아동과 부모사이의 애정이나 유대이다(Ainsworth & Bowlby, 1991). 그리고 여러 연구들에서 신뢰와 안정적인 애정을 증진하는 요인으로 상호작용의 질이 핵심적 요인이라는 점을 발견했다.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주로 의사소통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사소통의 방식과 의사소통의 정도는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인이 된다.

전술한 많은 연구의 주요 결론은 부모와 자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자녀의 바람직한 지적 능력의 향상 뿐 만 아니라 도덕적·사회적 성숙을 가져오

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② 관련 통계와 현황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개방성을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부모에게 표현하는 편이라고 부모가 응답했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에는 소득수준과 지역규모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즉,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아동청소년은 부모에게 더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익중 외. 2009).

<표 Ⅱ-2-20>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

구분	소득수준			지역			전체
	빈곤층	차상위	차상위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0-2세	3.1(0.7)	2.8(0.7)	2.8(0.8)	2.8(0.8)	2.8(0.8)	2.8(0.8)	2.8(0.8)
3-5세	2.9(0.6)	2.9(0.5)	3.1(0.6)	3.1(0.6)	3.1(0.6)	3.2(0.6)	3.1(0.6)
6-8세	2.9(0.8)	3.0(0.6)	3.1(0.6)	3.9(0.6)	3.1(0.6)	3.3(0.6)	3.1(0.6)
9-11세	3.1(0.7)	3.0(0.6)	3.9(0.6)	3.9(0.6)	3.0(0.6)	3.0(0.7)	3.9(0.6)
12-18세	2.9(0.7)	3.1(0.7)	3.0(0.6)	3.9(0.6)	3.0(0.7)	3.1(0.7)	3.0(0.6)
전체	3.0(0.7)	3.0(0.7)	3.0(0.7)	3.9(0.7)	3.9(0.7)	3.1(0.8)	3.0(0.7)

자료 : 정익중 외(2009).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보고서.

한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모와의 고민에 대한 대화정도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다는 청소년이 4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화정도가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가 30.1%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성별에서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그리고 경제수준에서는 상보다는 하일수록 부모와의 고민에 대한 대화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2-21> 부모와의 고민에 대한 대화정도

구분		사례수	거의 하지 않는다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4회	일주일에 5-6회	매일
전체	전체	2,781	44.3	30.1	13.2	3.3	7.7
성별	남자	1,412	50.6	27.9	10.7	2.8	6.1
	여자	1,369	37.9	32.3	15.8	3.9	9.3
교급별	초4	849	41.7	30	13.3	3.1	9.8
	초5	931	43.6	29	14.3	4.2	8.1
	초6	1,001	47.3	31.1	12.1	2.8	5.5
권역별	서울	473	44.2	29.4	13.5	3.2	8.5
	광역시	747	42.3	31.2	13.5	2.8	8.6
	시·군	1,561	45.4	29.7	12.9	3.7	7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2,529	43.4	30.3	13.6	3.5	7.8
	한부모가정	146	55.5	25.3	9.6	2.7	6.2
	조손가정	45	57.8	28.9	6.7	2.2	4.4
	기타	61	47.5	31.1	11.5	8.2	1.6
경제 수준	상	1,147	39	31.4	14.8	4.7	8.6
	중	1,317	47.4	29.7	12.6	2.1	6.8
	하	228	56.1	23.7	8.8	3.5	7

자료 : 김기헌·장근영(2009). 한국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

③ 관련정책과 대안

가정은 아동과 청소년의 인성과 성격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교육의 현장이며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은 가정이라는 공간을 통해 삶의 과정에서 필요한 기초적인 행동양식을 배우고 인격을 형성해 간다.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와 상호 관계와 대화를 통해 자녀에게 온전한 인격의 형성을 도모한다.

부모가 자녀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양육의 방법이나 의사소통의 기술 그리고 문제해동에 따른 부모의 대응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교육을 통해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해줌으로서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부모와 자녀의 긍정적 의사소통은 대화나 의사소통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부모교육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부모가 자녀의 건전한 양

육방식을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령, '광양시의 행복한 우리아이를 위한 부모교육'이나 광진구의 '자녀들과의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부모 강좌' 그리고 평창군의 북스타트 부모교육 등이 좋은 예이다.

○ 교사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정도

① 지표의 의미

교육은 교사와 학생, 수업내용으로 구성되며 수업내용은 교사와 학생의 의사소통을 통해 전달된다. 즉 교사와 학생이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한다. Hill은 교육이 사회와 개인간의 일어나는 의사소통과정이며, 학교생활을 통해 학생들이 경험하는 의사소통의 결과로 이해한다(장상호역, 1998; 박서진, 2010 재인용). 즉, 교육의 대부분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것이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의사소통 없이는 아무것도 전달할 수 없으며, 아무리 좋은 가치와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없으면 그것을 전달할 수 없는 것이다(박서진, 2010).

이처럼, 학교 교육활동에서 가장 중핵이 되는 것은 교수-학습 과정이며, 즉 교사와 학생이 지적, 정의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수업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수업의 과정은 주로 교사와 학생이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므로 수업은 학급 내에서 언어가 포함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가정을 제외하면, 학교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대부분을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Hamilton, 2004:127). 가족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처럼 학교에서 교사와의 의사소통의 질도 청소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Piaget(1964)는 교사가 아동들의 사고과정을 자극할 수 있는 질문을 행하고, 아동들의 합리적인 응답을 주의깊게 들어주고, 아동들이 보다 높은 인지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는 발견할 수 있도록 자료와 상황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능숙한 면접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Bugsch, 1985; 박수영, 2001).

교사학생간의 의사소통은 아동청소년의 인지발달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청소년의 진로능력발달(조윤희, 2009), 정신건강(권병남, 2002), 학교적응(이점순, 2006; 설경숙, 2009), 그리고 자아존중감(설경숙, 2009)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② 관련통계와 현황

아직까지 학생과 교사간의 의사소통의 정도를 측정한 연구결과는 제시되고 있지 않아 학생의 교사에 대한 만족도를 대리지표로 활용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통계청의 사회조사(2009) 결과에 따르면,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는 만족한다(매우만족+약간만족)는 의견이 46.9%였고, 불만(불만+약간불만)이 8.2%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보다는 남자의 만족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고, 중고등학생보다는 대학생의 만족도가 높았다.

지역별로는 부산과 광주 그리고 충남과 전북이 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50%를 상회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사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③ 관련정책과 대안

교사와 학생 관계의 구성요인들은 진실성, 공감적 이해, 친밀감, 의존성, 갈등, 애착도, 유능감 등 다양한 변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학자들마다 교사와 학생관계의 구성요인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좋아하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교사는 의사소통의 방식과 정서적 교감 혹은 거리감의 정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학생과 교사의 공감대 형성의 정도나 교사의 명랑함이나 온정 그리고 동화적 태도가 학생과 교사간의 활발하면서도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유인할 수 있다.

<표 Ⅱ-2-22>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행정 구역별	교육정도 별	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불만	약간 불만	매우 불만
전국	총계	46.9	12.4	34.5	45	8.2	6.9	1.3
성별	남자	47.0	12.5	34.6	45	7.9	6.7	1.3
	여자	46.7	12.4	34.3	44.9	8.4	7.2	1.2
교급별	중·고등학교 재학생	46.2	12.2	34.1	46.1	7.7	6.6	1.2
	대학이상 재학생	47.5	12.7	34.8	43.9	8.6	7.2	1.3
소득별	100만원 미만	47.9	14.0	33.9	44.7	7.3	6.2	1.2
	100~200 만원 미만	45.3	13.9	31.4	47.7	7.0	6.2	0.8
	200~300 만원 미만	45.5	11.6	33.9	45.5	9	7.5	1.4
	300~400 만원 미만	47.2	11.4	35.8	43.3	9.6	8.2	1.4
	400~500만 원 미만	47.5	11.5	36	44.4	8.1	7.1	1
	500~600 만원 미만	49.7	10.6	39.1	44.6	5.8	4	1.8
	600만원 이상	49.2	13.3	35.9	41.3	9.5	7.8	1.7
서 울		47.7	9.8	38	43.8	8.5	6.8	1.7
부 산		51.0	10.6	40.4	40.6	8.4	6.3	2.1
대 구		48.8	9.7	39.2	43.2	8.0	6.4	1.5
인 천		42.9	10.6	32.3	45.5	11.6	9.4	2.2
광 주		51.6	15.6	36	38.4	10	8.2	1.8
대 전		41.5	11.9	29.6	53.4	5.1	4	1.1
울 산		42.5	8.2	34.3	49.5	8	6.5	1.5
경 기		44.7	12.9	31.8	45.9	9.3	8.3	1
강 원		45.8	11.4	34.4	47.1	7.1	5.9	1.2
충 북		49.1	14.2	35	46	4.8	4.5	0.4
충 남		53.9	19.0	35	37.6	8.5	8.5	
전 북		53.2	16.2	37.1	40.7	6.1	6.1	
전 남		45.7	14.7	31	46.4	7.9	6.9	1
경 북		41.7	14.6	27.2	52.4	5.8	5.2	0.6
경 남		46.9	15.9	31.1	46.6	6.5	5.7	0.8
제 주		47.5	21.2	26.3	48	4.4	3.5	1

자료 : 통계청(2008). 사회조사

따라서 부모교육과 마찬가지로 교사에게도 학생들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정규수업이외에도 교사와 학생이 활발하게 서로의 의사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의 상담실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들이 경직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학생들을 대면하는 권위적인 양식도 개선해야 한다. 의사소통은 서로가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한 대화의 방식으로서 대화자는 서로 동등한 지위에서 충실하고 성실하게 대화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보수교육에 학생들과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강좌를 의무적으로 개설하고, 학생의 눈높이에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기술 등의 세부적인 실천기술도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청소년 여가시설 수

① 지표의 의미

신체적인 활동과 놀이 그리고 여가를 위한 기회와 시설들은 건강한 아동발달에 있어 본질적인 것이다(UNICEF, 2001).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다양한 시설의 존재는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 차원에서 커다란 중요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문화영역에서 그들의 인권보장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비판의 대부준이 지적하고 있는 바가 바로 청소년들의 여가공간의 부족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육성하기 위해 그들만을 위한 여가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더불어 지역별, 유형별 여가시설의 수와 이에 대한 청소년의 이용률은 그들의 여가 인프라와 관계된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볼 수 있다(길은배 외, 2001:186).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청소년들 스스로가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인 여가시설의 수와 이용률은 그들의 문화인권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다(길은배 외,

2001:182).

② 관련통계와 현황

청소년 여가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 수련관 160개소, 청소년 문화의 집 205개소, 청소년 수련원 179개소, 청소년 야영장 42개소, 유스호스텔 115 개소, 그리고 청소년 특화시설 6개소 등 총 707개소가 설치 운영중에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9개소로 청소년여가시설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도 137개소, 경남 70개소 등의 순이었다.

<표 Ⅱ-2-23> 청소년 여가시설 현황

지역	총 계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야영장	유스 호스텔	청소년 특화시설
총계	707	160	205	179	42	115	6
서울	59	33	16	2	0	3	5
부산	22	7	9	4	1	1	
대구	12	5	5	1	0	1	
인천	22	7	6	4	2	3	
광주	11	5	4	1	0	1	
대전	13	3	8	1	0	1	
울산	9	1	6	2	0	0	
경기	137	23	35	52	6	20	1
강원	68	11	20	13	5	19	
충북	45	9	10	14	2	10	
충남	43	5	10	13	4	11	
전북	52	13	20	11	3	5	
전남	40	10	12	8	6	4	
경북	66	14	10	20	6	16	
경남	70	11	16	28	3	12	
제주	38	3	18	5	4	8	

자료 : 통계청(2010). e-나라지표

③ 관련정책과 대안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2006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청소년 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 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된 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관리·제공 하는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국가 인증제도이다(청소년 백서, 2009).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는 글로벌·다문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청소년의 활동환경조성 및 지원, 청소년들의 사회문화적 역량개발 및 강화의 필요성 대두, 주5일 수업제 시행, 학교교육과 연계한 활동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으로 늘어나는 여가시간과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청소년활동 기반을 강화하고자, 2004년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35조에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 인증제도는 2006년부터 한국청소년진흥센터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청소년 백서, 2009).

한국청소년진흥센터는 2006년 3월부터 인증제 운영을 시작하였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 15인 위촉 및 인증심사 192명을 선발·직무연수를 실시하여 인력풀을 구성하고 5월인증접수를 시작으로 79건의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였다. 2007년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인증제도 운영에 반영하여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인증기준과 인증심사절차의 간소화, 국제청소년활동 인증기준 개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업무의 효율적 연계운영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354건의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였으며, 인증 받은 활동의 효과성 연구를 위한 사전검토와 만족도 조사를 시작하였다. 2008년에는 인증심사원 91명을 추가 선발하여 283명의 인증심사원 인력풀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인증심사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인증제도 홍보와 인증수련활동 사후관리 등을 위해 학부모 참관단 32명을 시범 운영하였다.

○ 한 달 평균 여가활동 시간

① 지표의 의미

청소년이 보내고 있는 여가시간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여가인권실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놀이나

여가가 미치는 청소년 발달상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청소년들이 여가생활의 시간이 매우 짧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성장측면에서 뿐 만 아니라 문화적 권리에 시각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건강한 청소년의 육성은 지적인 활동 뿐 만 아니라 지·덕·체가 고루 갖추어진 전인적인 활동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여가의 이용은 성장기 청소년의 인격형성 뿐 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성숙한 개인의 완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건전한 여가와 레크레이션은 청소년들에게 신체적, 심리적, 지적발달 뿐 만 아니라 능동적인 인간이 되게 하여 규칙을 지키고 공정성을 존중하는 습관을 기르게 한다(김종선, 1986).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여가나 문화생활의 중요성으로 발달학자들과 청소년 정책옹호자들은 여가시간이 긍정적인 발달을 촉진시키고 발달상의 문제의 출현을 예방하는 양질의 교외프로그램이나 방과후 프로그램과 같은 방법들이 보자 잘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Eccles & Gootman, 2002). 이 같은 이유 때문에 특별히 긍정적인 청소년발달의 옹호자들은 청소년들의 성인기로의 전환과정의 완전한 준비를 위해 여가 프로그램들이 요구된다고 지적한다(Eccles & Gottman, 2002: Pittman. et al., 2003).

② 관련 통계와 현황

통계청(2009)의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15세에서 19세 청소년의 여가활동 만족도(만족+매우 만족)는 25.2%였고, 불만족(약간 불만족+매우 불만족)은 30.5%로 만족보다는 불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충남이 34.7%의 만족도를 보여 가장 높은 여가활용만족도 나타냈고, 다음으로 경기 29.9%, 인천 2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Ⅱ-2-24> 여가활용 만족도

	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불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15～19세	25.2	6.5	18.6	44.3	30.5	22.8	7.8
15~19세*남자	26.5	7.5	19	45.2	28.3	20.6	7.7
15~19세*여자	23.7	5.5	18.2	43.3	33.0	25.1	7.9
서울	22.0	5.4	16.6	44.6	33.4	26.7	6.7
부산	22.6	4.8	17.8	51.8	25.6	19.8	5.8
대구	28.0	7.7	20.2	46.9	25.1	21.6	3.5
인천	29.8	10.5	19.3	44.0	26.2	19.9	6.3
광주	21.5	6.2	15.2	42;0	36.6	23.1	13.5
대전	22.5	7	15.5	42.7	34.8	27.2	7.6
울산	23.7	3.8	20	49.9	26.3	16.5	9.9
경기	29.9	8.2	21.7	39.3	30.9	19.9	11
강원	21.0	3.9	17.1	48.8	30.2	21.4	8.9
충북	29.3	6.1	23.3	46.6	24.1	18.6	5.5
충남	34.7	8.7	26	40.0	25.3	19.0	6.3
전북	17.7	5.4	12.3	48.8	33.5	26.5	7
전남	21.9	6	15.8	47.4	30.7	26.6	4.1
경북	18.2	4.8	13.4	48.8	33.1	24.3	8.8
경남	22.0	4.4	17.6	42.8	35.2	28.8	6.4
제주	28.9	6.6	22.3	50.5	20.6	18.4	2.2

자료 : 통계청(2009). 사회조사

③ 관련정책과 대안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공모는 주 5일제 수업 실시에 따라 청소년들이 여유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소외계층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동기 부여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인적·물적 제반자원의 경제적인 활용 방향을 확립하여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과학·정보, 모험·개척, 직업준비, 환경보전 등의 활동을 통해 잠재역량을 개발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청소년백서, 2009).

<표 Ⅱ-2-25>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공모지원 현황

구분	활동영역	응모(수)	지원(수)	참여인원	비고
청소년 문화활동	① 문화감성 영역	166	36	67,765	년중
	② 과학정보 영역	19	4	2,887	년중
	③ 봉사•협력 영역	87	21	18,929	년중
	④ 모험개척 영역	27	6	4,064	년중
	⑤ 직업준비 영역	44	10	10,127	년중
	⑥ 환경의식 영역	32	8	6,912	년중
	⑦방학프로그램(여름•겨울)	142	22	8,162	방학
찾아가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① 문화감성 영역	25	7	11,773	년중
	② 과학정보 영역	5	3	2,319	년중
	③ 봉사•협력 영역	7	2	3,366	년중
	④ 직업준비 영역	5	2	740	년중
	⑤ 환경의식 영역	1	-		년중
합계		560	121	137,044	

<표 Ⅱ-2-26>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

	경제적 부담	시간 부족	교통 혼잡	여가 시설 부족	여가 정보 부족	적당한 취미가 없어서	건강, 체력 부족	여가를 함께 즐길 사람이 없어서	기타
전체	54.3	28.4	1.9	1.8	0.8	2.4	7.7	1.8	0.9
15~19세	25.9	57.9	2.2	4.2	2.2	4.4	0.6	1.5	1
15~19세 (남자)	22.7	59.9	2.4	3.9	2.4	5	0.5	2	1.3
15~19세 (여자)	29	56	2.1	4.5	2	3.9	0.8	1	0.7

자료 : 통계청(2009). 사회조사

한편, 청소년의 여가활용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가시설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여가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래의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여가활동의 불만족 이유에 대해 청소년들은 경제적 부담과 시간 부족을 주된 이유로 제시하고 있

다. 따라서 청소년의 여가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바우처사업의 확대와 함께 충분한 여가시간을 배려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 생활영역에서의 만족도

① 지표의 의미

생활만족이란 개인의 기대수준이 합리적으로 충족되었는가에 대한 평가(Medley,1976)이자 각 생활 영역에서의 현실과 목표 간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이 바라는 삶에 대한 각각의 표준에 의해 정해지는 전반적인 생활의 질이나 경제복지에 대한 주관적 측정(Diener et al., 1985)이며, 만족이란 개인이 가지는 기대와 그 사람이 실제로 받는 보상간의 일치의 정도로 기대만큼 실제로 보상을 받거나 평균보상이 기대수준보다 더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② 관련통계와 현황

여기서 아동의 생활만족도는 아동의 주생활 무대인 가정과 학교에서의 생활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알아보는 것에 의미가 있다. 먼저 가정생활만족이란 가족과의 생활을 통하여 경험하는 즐거움, 만족, 행복 등의 주관적인 감정 및 태도로, 가정생활 전반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충족된 느낌이다(두경자, 1990; 유애리,1998; 김혜경, 2010 재인용).

즉, 생활만족이란 정신건강을 비롯한 정서적 안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생활전반에 걸친 행복과 만족에 대한 주관적 감정이며 일종의 태도로 생활의 실제와 기대감의 일치에서 오는 개인의 관점에 따른 주관적이고도 개인적인 현상이다(임영희, 2008; 김혜경, 2010 재인용).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생활만족도의 정도는 정서적 안정과 발달의 정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생활전반에 걸친 주관적 행복감이 어느정도인지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표 Ⅱ-2-27> 생활에 대한 만족정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4.4	10.9	41.9	42.0	0.9
성별	남자	4.3	10.5	41.2	42.9	1.1
	여자	4.4	11.3	42.6	41.1	0.7
교급	초4	4.3	8.1	35.8	50.7	1.2
	초5	4.3	10.9	42.1	41.8	1.0
	초6	4.5	13.5	47.4	34.1	0.5
권역	서울	3.4	8.8	40.2	46.9	0.6
	광역시	3.9	9.2	42.6	43.0	1.3
	시·군	4.9	12.2	42.1	40.1	0.8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4.6	11	41.6	42.1	0.7
	한부모가정	3.9	9.7	43.5	41.6	1.3
	조손가정	2.0	13.9	44.6	38.6	1.0
	기타	2.2	8.1	43.4	43.4	2.9
가정 경제 수준	상	3.9	7.5	38.8	49.3	0.5
	중	4.1	12.7	46.2	36.1	0.9
	하	9.2	20.8	35.3	33.5	1.2

③ 관련정책과 대안

아동청소년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지만 아동기는 부모의 보호와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므로 가정에서의 부모의 양육방식이나 태도는 아동의 생활만족도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자녀 관계를 강화시키고 서로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부모자녀관계증진 프로그램을 민관 차원에서 확대 시행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월 1회 부모자녀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에 적절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부모자녀관계 증진 프로그램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대화법, 부부간 대화법, 요리실습, 농촌체험 등이 제공되고 있다.

특히, 순천시의 경우 순천시 드림스타트 센터를 통해 매월 1일 부모자녀 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 역사책 만들기, 농촌체험, 부모다짐 선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아동의 생활만족도는 부모자녀관계 뿐 만 아니라 아동이 성장하고 자라는 주된 공간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최근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생활만족도가 가정의 경제적 지위에 의해서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 따라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빈곤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도 이들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직접적인 대안이 된다.

○ 고민유형과 고민상담

① 지표의 의미

자아성장에 있어서 초등학교 학령기에는 많은 내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분노, 공포, 걱정, 불안, 호기심, 애정, 기쁨, 질투 등 다양한 정서적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 더욱이 최근에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정서적으로 중요한 발달 시기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정, 학교, 사회에서 심신의 고통, 고뇌, 근심, 걱정 등 여러 가지 고민으로 인해 학교학습, 학업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김혜선, 2003). 결국, 고민이라고 하는 정서적 고통은 아동의 정서적 발달과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고민 수준이나 정도 그리고 고민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정서적 발달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고민은 괴로움이나 걱정, 불안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괴로움은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의미하고, 걱정은 과거의 만족스럽지 못한 일이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한다. 또한 불안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한다. 불안이 장치 부딪힐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고민은 비교적 현재의 욕구 불만이나 갈등에 대한 해결방도가 세워지지 않은 데서 오는 두려움에 대한 심리적 고통이라고 할 수 있다(김혜선, 2003).

② 관련통계와 현황

2008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이용자의 문제유형별 상담실적을 볼 때 일탈 및 비행문제가 19.2%(622,267명)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학업 및 진로문제 17.9%(579,993명), 대인관계문제 15.0%(487,131명), 정보제공 8.6%(279,653명)로 나타나 작년에 비해 일탈 및 비행에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해서도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백서, 2009).

<표 Ⅱ-2-28>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문제유형별 상담실적

(단위 : 명)

		가족	일탈/비행	학업/진로	성	성격	대인관계	정신건강
개인상담		54,180	71,820	67,729	7,616	39,290	58,326	37,037
집단상담		77,913	383,389	274,969	98,305	79,807	330,441	51,906
전화상담		31,593	57,653	44,108	23,644	11,112	25,667	16,280
심리검사	개별	5,652	5,535	15,108	613	10,625	5,512	3,982
	집단	3,785	2,776	95,575	1,460	66,177	18,384	4,243
사이버상담	메일	1,387	796	3,512	1,996	668	3,341	1,147
	채팅	159	501	498	313	68	620	91
사업수행 PROGRAM		1,139	5,073	7,234	711	399	2,357	551
지원서비스		44,743	92,475	69,424	9,128	23,061	40,844	33,926
기타상담		1,319	2,249	1,836	636	589	1,639	597
소계		221,870	622,267	579,993	144,422	231,796	487,131	149,760

자료 : 청소년백서(2009).

이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보면, 아동청소년의 고민은 주로 비행행동과 자신의 학업문제에 맞추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Ⅱ-2-29>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문제유형별 상담실적(계속)

(단위 : 명)

		생활 습관/ 외모	컴퓨터/ 인터넷 활용	정보제공	법률정보	활동	잘못걸린 전화	합계
개인상담		5,209	11,247	8,727	140	1,525	121	362,967
집단상담		9,889	155,378	94,843	227	201,518	0	1,758,585
전화상담		3,336	10,948	128,036	1,576	5,730	37,062	396,745
심리 검사	개별	297	2,524	283	6	62	77	50,276
	집단	154	37,422	1,714	0	10,773	0	242,463
사이버 상담	메일	584	178	2,581	53	207	0	16,450
	채팅	33	59	452	10	1,216	54	4,074
사업수행 PROGRAM		126	1,695	1,444	2	1,396	2	22,129
지원서비스		9,977	12,006	35,661	220	5,736	18	377,219
기타상담		184	438	5,912	122	1,541	425	17,487
소계		29,789	231,895	279,653	2,356	229,704	37,759	3,248,395

자료 : 청소년백서(2009).

청소년이 겪는 일탈 및 비행문제의 세부유형 빈도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43.5%, 음주·흡연·약물오남용 11.3%, 금품갈취·절도·도벽 8.9%, 비행친구와 어울림 5.2%, 늦은 귀가·잦은 외박 1.7%, 학교 외 폭력 1.9% 순이었다. 학업과 진로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의 경우, 진로정보탐색에 대하여 46.2%로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학업흥미·학업동기부족 12.2%, 학교생활부적응 11.4%, 진로의식부족 6.6%, 등교거부 4,9%, 학습능력부족 4.4%, 시험불안·학업스트레스 2.6%, 진로변경 및 전환 1.3%, 해외·귀국 청소년 부적응 0.4% 문제 순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그 밖에 청소년들이 겪는 대인관계의 문제

에서는 또래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관계 고민이 69.1%로 가장 많았고, 따돌림 12.0%,이성교제 1.4%, 어른과의 관계 1.3%, 교사와의 관계 1.2%순이었다.

③ 관련정책과 대안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통해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다. CYS-Net 사업은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 간 네트워킹을 통한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위기 청소년에 대한 전화상담, 구조, 보호, 치료, 자립, 학습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CYS-Net사업은 2008년 전국 16개 시도 및 65개 시군구의 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81,002명의 위기청소년에게 434,281회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연계하였으며, 2013년까지 전국 248개 지역에 확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아동청소년 백서, 2009).

<표 Ⅱ-2-30> CYS-Net 서비스 이용인원

구분	남자	여자	합계
2006	14,055	15,135	29,190
2007	27,845	29,054	56,899
2008	40,977	40,025	81,002

자료 : 한국청소년 상담원(2008). 청소년백서(2009) 재인용

CYS-Net 서비스 이용자를 보면 2006년 29,190명에서 2008년 81,002명으로 이용인원이 약 2.5배나 증가하였다. CYS-Net은 주로 많은 아동청소년이 고민하고 있는 학업이나 진로문제, 정서적인 상담 및 지원문제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민의 내용에 따른 다양하고 전문적인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상담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상담전

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또한 고민은 불안과 달리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정서적 어려움이라는 점에서 즉각적인 상담과 대응이 필요하다.

<표 Ⅱ-2-31> CYS-Net 서비스 이용건수

	상담/정서적 지원	사회적 보호	기초생활/경제적 지원	교육/학업 지원	자활 지원	의료 지원	법률자문/권리구제 지원	여가/문화활동 지원	합계
2006	143,490	8,365	14,860	1,957	495	1,406	918	2,166	173,657
2007	303,356	25,176	55,035	6,986	2,463	4,902	1,800	13,093	412,811
2008	286,069	30,497	80,857	10,740	2,754	5,759	1,362	16,243	434,281

자료 : 한국청소년 상담원(2008). 청소년백서(2009) 재인용

○ 부모자녀관계

① 지표의 의미

최근의 청소년 문제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은 가족의 심리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남현미·옥선화, 2001). 이들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가족의 심리적 환경은 부모와의 상호작용 즉 의사소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는 청소년기에 직면하는 변화와 혼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차적인 환경적 요소이다. 또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모자녀간의 적절한 대화를 통하여 바람직한 부모자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유지연·박정윤, 2005 재인용).

하지만 최근 청소년기의 부모자녀관계는 입시위주의 교육 환경으로 인해 소극적이거나 긍정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급속한 정보화의 영향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간의 대면관계는 감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하게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건강한 부모자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② 관련통계와 현황

부모자녀 관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만족한다(매우만족+약간 만족)는 72.7%였고, 불만족(약간 불만 + 매우 불만)은 3.5%였다. 전반적으로 부모자녀관계의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부모의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이처럼, 부모자녀 관계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어 부모자녀관계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가정에 대한 세부적이면서도 전문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③ 관련정책과 대안

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적어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대안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를 중심으로 한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형성 방법이나 의사소통 방법을 교육하는 부모교육이 국가차원에서 확대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조손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에 대해서는 이들 가정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상담과 정책이 필요하다. 가령, 남성의 양육참여와 가사분담을 강조하여 취업모 가족의 부모자녀관계를 지원하고, 가족친화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확대하여 부모자녀의 관계가 증진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정, 장애아 가정, 그리고 다문화 가정 등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개선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특수한 시책이 요구된다. 현행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부모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부모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관계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표 Ⅱ-2-32> 부모자녀관계의 만족도

		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불만족	약간 불만	매우 불만
전국	총계	72.7	34.6	38.1	23.8	3.5	3	0.6
교육수준	초졸이하	60.5	24	36.5	33.7	5.8	4.6	1.2
	중 졸	65.8	26.6	39.1	30.2	4.1	3.6	0.5
	고 졸	74.5	36.4	38.2	22.6	2.9	2.5	0.4
	대졸이상	82.2	43.5	38.6	15.4	2.5	2.1	0.3
소득정도	100만원 미만	60.6	25.7	34.9	33	6.4	4.8	1.6
	100~200만원 미만	68.5	32.9	35.6	28.1	3.4	3	0.4
	200~300만원 미만	75	35.4	39.6	22.1	2.9	2.6	0.3
	300~400만원 미만	78.6	38.9	39.6	19	2.4	2.1	0.3
	400~500만원 미만	80.8	39	41.8	16.7	2.4	2.1	0.4
	500~600만원 미만	82.2	42.7	39.4	14.8	3	2.5	0.5
	600만원 이상	81.8	41.5	40.3	15.6	2.5	2.3	0.3
서울		70.4	27.9	42.5	25.3	4.2	3.7	0.6
부산		71	32.9	38.2	25.2	3.8	3.4	0.4
대구		70.1	26.8	43.3	27	2.9	2.5	0.4
인천		69.2	35.7	33.5	26.2	4.7	4.1	0.5
광주		69.2	30.9	38.3	27.1	3.7	3.3	0.4
대전		76.9	35.6	41.3	20.1	3	2.9	0.1
울산		75.8	38.3	37.5	20.7	3.4	2.6	0.9
경기		73.3	37.6	35.7	23.3	3.5	2.8	0.6
강원		76.7	41.7	35	20.1	3.2	2.6	0.6
충북		78.5	42.3	36.3	17.1	4.3	3.3	1.1
충남		72.1	40.7	31.4	25.2	2.7	2.4	0.3
전북		74.1	35.4	38.7	23.7	2.3	1.5	0.8
전남		74	38.9	35.2	23.1	2.9	2.8	0.1
경북		73.7	33.6	40.2	23.3	2.9	2.3	0.7
경남		75.4	36	39.4	21.4	3.2	2.4	0.7
제주		71.7	41.5	30.3	25.4	2.9	2.1	0.7

자료 : 통계청(2008). 사회조사

(2) 정서적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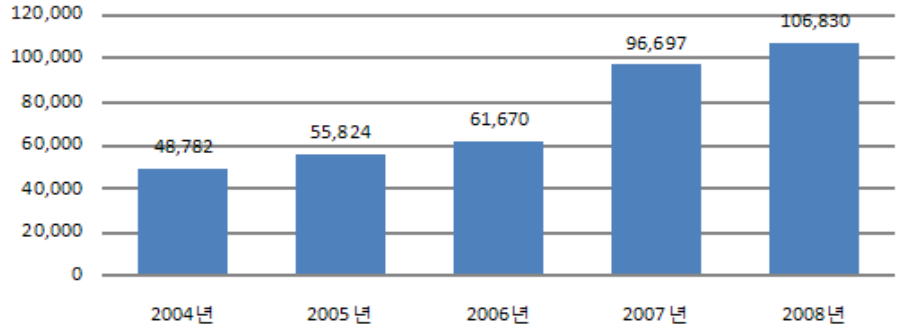
○ 우울증 지수

① 지표의 의미

우울은 온화한 우울적 징후에서 무기력한 치료적 우울까지의 연속선상에 존재한다. 치료적 우울은 2주 이상동안 모든 징후가 만성적으로 나타날 때 진단된다. 치료적 우울은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정신질환이다. 우울은 감정과 동기, 활동수준, 반응성, 수면,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포함한 많은 기능영역들에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의 우울이 심각한 발달상의 장애로 작용하는 것은 심각한 정서적 우울증이 청소년의 자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울증은 자살구상을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자살행동을 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겪는 우울증의 경우, 우리나라 청소년의 20~30% 가량이 시달리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전영주, 2001:152). 청소년의 우울증은 전형적인 증상인 무력감 외에도 극도의 피곤함, 집중의 어려움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정서적 발달이나 신체적 발달을 저해할 뿐 만 아니라 학업성취와 동료와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② 관련통계와 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우울증 진료현황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우울증 진료건수는 2004년 4만8782건에서 2008년 10만6830건으로 5년 새 119% 증가했다. 특히 10대 여성의 경우 진료건수 증가율이 153%로 모든 연령별·성별 분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세계일보, 2009. 11. 1).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9).

[그림 Ⅱ-2-3] 아동· 청소년 우울증 진료건수(10-19세)

또한, 서울시 소아청소년 광역정신보건센터와 학교보건진흥원이 서울시내 39개교 중·고교생 1만30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우울증 학생 선별 및 관리사업'에서도 2180명(16.7%)이 1차 선별검사에서 초기 우울증세를 드러냈고, 우울증 척도가 심각해 병원치료를 권고받은 청소년도 456명(3.5%)에 달했다(세계일보, 2009. 11. 1).

③ 관련정책과 대안

청소년 우울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자칫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성인에 비해 감정의 기복이 크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쉽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우울증 환자의 15~20%는 자살 위험성이 있으며, 실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의 80% 정도는 우울증이 원인이라고 말한다.

청소년의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는 학교와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정신건강 체계의 확립에 있다. 현제 청소년정신보건센터에서는 우울증을 비롯한 청소년 정신보건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정신보건센터가 매우 부족해 정신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청소년의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상담은 한국청소년상담원, 헬프콜 청소년 전화, 생명의 전화, 청소년 희망 충전소, 그리고 각 지역 청소년 상담센터와 정신보건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담기관은 실제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청소년이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된 이유로는 관련 기관을 청소년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 상담관련 기관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 우울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성적이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내에 청소년의 고민 유형에 따란 적절한 상담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다음으로 우울수준에 따른 위험군을 선별하고 이에 따른 교육과 조기개입을 토대로 위기 청소년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우울정도가 낮은 아동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하며, 우울정도가 심한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치료와 재활이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한다.

○ 청소년 자살률

① 지표의 의미

생명의 고결함과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의 부적응 등으로 인해 자살하는 청소년의 수는 급증하고 있고, 자살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본 청소년도 평균 30% 대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기가 되면 다양한 문제행동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은 청소년 자신의 건강한 신체, 심리 및 행동 발달에 장애를 가져올 뿐 만 아니라 타인 및 사회에도 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의 문제해동 중 특히 자살은 다른 어떤 문제행동보다도 그 심각성과 부정적 결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은 가정과 국가의 미래이고 희망이며 발달과정에 있는 현재의 독립된 인격체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청소년을 둘러싼 가정, 학교, 사회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며 청소년들이 가진 문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범사회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청소년 자실의 근본 원인과 실태를 규명하고, 또한 청소년들을 자살의 위기로부터 구출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찾는 일은 청소년정책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청소년 자살을 청소년의 학교생활의 부적응이나 연약한 심리적 상태로만 설명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청소년의 자살은 생명윤리사상의 경시라고 하는 잘못된 문화적 가치와 함께 성적지상주의라고 하는 불합리한 교육제도 그리고 낮은 자존감와 우울증 등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기 위해서는 국가

와 사회의 정책적 보호를 통해서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관련통계와 현황

우리나라 10~19세의 '08년 사망원인 2위는 자살(고의적 자해)이 차지하고 있다. 교급별로 보면,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에서 자살 시도율이 높게 나타났고, 자살생각율도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자살 생각률은 '08년에 전체 18.9%, 남학생 15.4%, 여학생 22.9%로, '07년에 비해 각각 4.8%p, 3.6%p, 6.0%p 감소하였다(청소년 백서, 2009).

<표 Ⅱ-2-33> 자살생각율 및 자살시도율

구분	전체		남자		여자	
	생각율	시도율	생각율	시도율	생각율	시도율
전체	18.9	4.7	15.4	3.7	22.9	5.9
학년						
중학교1	18.7	5.3	14.9	3.6	23.0	7.2
중학교2	19.5	5.5	15.9	4.3	23.7	6.8
중학교3	19.0	4.8	14.8	3.4	23.9	6.4
고등학교1	18.8	4.5	15.0	3.5	23.1	5.6
고등학교2	19.0	4.2	16.1	3.5	22.2	4.9
고등학교3	18.6	3.8	16.1	3.8	21.3	3.9
교급						
중학교	19.1	5.2	15.2	3.8	23.5	6.8
고등학교	18.8	4.2	15.7	3.6	22.3	4.9
일반계고등학교	18.6	3.7	15.9	3.2	21.5	4.3
전문계고등학교	19.3	5.6	14.9	4.8	24.5	6.5

자료 : 청소년건강행태조사(2009).

자살 시도율은 '08년에 전체 4.7%, 남학생 3.7%, 여학생 5.9%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은 전체 4.2%, 남학생 3.6%, 여학생 4.9%이며, 미국 고등학생은 '07년에 전체 14.5%, 남학생 10.3%, 여학생 18.7%로3)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낮았다. 한편, 자살률은 2009년 현재 10세에서 19세에서 6.5%였고, 이는 1999년 5.1%에 비해 1.4% 증가하였다.

<표 Ⅱ-2-34> 연령별 자살률 추이

(단위: 인구 10만명당, %)

연 령	남녀전체			남 자			여 자		
	1999	2008	2009	1999	2008	2009	1999	2008	2009
계	15.0	26.0	31.0	20.9	33.4	39.9	9.0	18.7	22.1
10-19세	5.1	4.6	6.5	5.6	4.9	6.9	4.4	4.4	6.2
20-29세	13.1	22.6	25.4	16.5	22.2	25.3	9.6	23.0	25.4
30-39세	17.3	24.7	31.4	24.1	28.3	35.6	10.3	21.0	27.0
40-49세	21.3	28.4	32.8	32.2	38.1	45.4	9.8	18.4	19.8
50-59세	23.2	32.9	41.1	36.4	50.5	62.0	10.3	15.2	20.0
60-69세	28.9	47.2	51.8	47.4	74.1	80.8	14.3	23.3	25.8
70-79세	38.8	72.0	79.0	66.5	115.0	123.9	22.8	44.0	49.0
80세이상	47.3	112.9	127.7	81.9	194.4	213.8	34.1	79.7	92.7

자료 : 통계청(2009).

③ 관련 정책과 대안

청소년의 자살예방에 대한 정책적 제안은 전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한국청소년상담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는 2007년 '청소년자살예방체제구축 방안 연구'를 통해 전국단위로 구축되어 있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강화하고 기존 인프라와 연계함으로써 국가차원의 청소년 자살예방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청소년자살예방정책안을 제안하였다(지승희, 2009; 홍봉선 외, 2010). 하지만 이 같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자살률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청소년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 청소년 자살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 여기에 전염성 강한 청소년 자살의 특성상 학교 제도권 내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사회 전반적으로 생명존중의식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생명 경시 풍토를 개선하고서 청소년의 자살률을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회 전체가 생명의 소중함과 존귀함을 인식하고 이 같은 생명존중의식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표 Ⅱ-2-35> 자살에 대한 충동 및 이유(15-19세)

구분		자살 충동 있었음	경제적 어려움	이성 문제	질환 장애	직장 문제	외로움 고독	가정 불화	성적 진학 문제	친구 관계	기타
전국	전체 (전국민)	7.2	36.2	2.8	12.8	7.1	14.4	15.6	6.8	1.4	3
	전체 (아동)	10.4	8.8	2	3.5	1.7	13.6	10.1	51	6.6	2.9
	남자 (아동)	7.3	8.9	2	5	2	14.1	12.6	47.3	5.8	2.3
	여자 (아동)	13.8	8.7	2	2.7	1.5	13.2	8.6	53.1	7	3.2
서울	총계	7.1	37.6	4.5	10.1	8.5	16.7	14.4	6.9	1.1	0.2
부산	총계	9.9	34.8	2.6	16.5	7.3	9.1	14.8	6.6	0.6	7.7
대구	총계	5.5	40.3	2.1	8.6	5	13	10.7	10	1.3	8.8
인천	총계	10	41.6	1.4	7.3	8	17.9	13.3	5.3	1.5	3.7
광주	총계	7.7	41.6	3.8	14.4	7.1	9.3	6.7	11	2.1	4
대전	총계	6.5	35.7	0.7	16.3	15.1	13.7	11.2	5.7	1.5	
울산	총계	7.7	48.3	1.5	9.2	4.8	15.6	13.3	4	1.7	1.6
경기	총계	6.3	34.9	3.1	8.4	9	13.8	19.1	7	2	2.7
강원	총계	9	38.6	1.7	10.8	3	22	14.7	3.4	1.1	4.7
충북	총계	9.2	30.4	1.9	18.7	7.6	14.2	16.7	7.4	0.4	2.9
충남	총계	8.1	28.5	1.5	30.8	3.2	14.2	12.3	8.2	0.3	1.2
전북	총계	6	39.7	5.2	19.7	4.8	9.3	12.3	7.3	1.7	
전남	총계	6	29.9	5.4	18.3	1.8	16	20.9	6.3		1.4
경북	총계	7	36.5	0.3	16.6	2.5	16	16.9	5.5	0.6	5
경남	총계	5.6	29.8	1.7	13.4	7.4	11.9	22.8	6.2	3.5	3.3
제주	총계	8.1	37.6		9.6	3.1	16.1	20.4	8.6	3.1	1.3

자료 : 통계청(2008). 사회조사

또한, 입시위주의 교육과 성적지상주의로 신음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그 순간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다. 자신의 존재 가치와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 이유를 깨닫게 하고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족과 학교 그리고 전체 사회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기서 학교는 아동과 청소년이 스스로

고결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해야 한다. 사회는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자살 위험 아동에 대한 사전 인지와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자살행동을 미연에 차단해야 한다.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위해서는 전문 상담교사나 학교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인력을 학교에 배치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내 상담교사나 학교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 경찰서, 병원, 그리고 정신보건센터가 지역사회 자살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심각한 청소년의 자살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 스트레스 지수

① 지표의 의미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성장이 급속하게 진행된다는 전환기적 의미를 암시한다.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도기로서 이러한 급속한 발달 경험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심한 혼란과 스트레스, 그리고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Diclemente, Hansen & Ponto, 1996; 위휘, 2005:129 재인용).

이러한 과도기적 특징 외에 새로운 문화의 유입과 적응, 학교생활에서 부딪히는 과중한 성취압력, 맹목적인 부모의 기대와 요구 등으로 청소년들은 어떤 다른 집단보다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의 34%는 평소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으며, 실제로 86%의 청소년들이 평소에도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이 같은 청소년기의 스트레스는 공격성과 관련이 있어 집단따돌림, 폭주족, 성폭력, 가출 자살 등의 문제를 일으키며 흡연, 약물남용 등과 같은 부적응적, 반사회적 행동경향을 더욱 증가시킨다(park, Cho & Park, 2003; Tomas, James, Alison, Sean & Ori, 2001; Xianchen, 2003: 위휘, 2005: 129 재인용).

② 관련통계와 현황

청소년의 43.7%가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50.1%로 남자 38.1%보다도 약 12%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

로는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일수록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았고, 교급별로는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통계청의 사회조사(2008)에서는 15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의 60.0%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4.3%는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2-36> 스트레스 인지율

구분	전체	남자	여자
전체	43.7	38.1	50.1
학년			
중학교1	40.5	36.4	45.2
중학교2	40.3	35.6	45.8
중학교3	41.0	35.7	46.9
고등학교1	43.1	36.2	50.8
고등학교2	47.0	40.7	53.8
고등학교3	52.0	45.5	59.2
교급			
중학교	40.6	35.9	46.0
고등학교	47.1	40.6	54.4
일반계고등학교	47.0	40.8	53.7
전문계고등학교	47.4	39.8	56.4

자료 : 청소년건강행태조사(2009).

③ 관련정책과 대안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김의철 외(1998)의 연구에서는 부모지원, 부모성취지향,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의 지원, 학교의 풍토 등이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의 스트레스 요인은 대체로 심리적 요인, 가정 및 사회환경적 요인, 행동특성요인으로 범주화된다.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심리적 불안이나 우울증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미연에 차단하거나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없다면, 스트레스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잘관리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방식을 교육하고 훈련해야

한다.

물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데는 어떤 특정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학교생활속에서 대처하기 위한 운동, 명상의 시간 등과 같은 것을 이용한다면 과열경쟁과 입시문제에 억눌려 있는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일정정도 해소할 수 다. 여기에 아동청소년이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여가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확대해 주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표 Ⅱ-2-37>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15세-19세)

	매우 많이 느낌	느끼는 편임	느끼지 않는 편임	전혀 느끼지 않음
전국	4.3	55.7	35.5	4.5
전국(남자)	3.5	53.3	38.1	5
전국(여자)	5.2	58.2	32.7	3.9
서울	4.4	58.4	32.9	4.2
부산	3.1	60.0	34.5	2.4
대구	4.1	51.3	39.5	5.2
인천	2.9	60.2	33.6	3.3
광주	4.3	61.1	31.4	3.2
대전	7.2	48.3	39.2	5.3
울산	7.9	57.2	30.9	4
경기	5.8	54.4	35.0	4.8
강원	5.1	48.9	39.6	6.4
충북	3.8	59.5	32.3	4.4
충남	1.1	52	40.6	6.3
전북	2.0	52.3	39.7	6.0
전남	3.1	57.6	29.5	9.8
경북	3.5	54.8	39.2	2.5
경남	3.0	52.8	40.8	3.5
제주	6.3	51.3	37.9	4.5

자료 : 통계청(2008). 사회조사.

○ 행복지수

① 지표의 의미

행복에 관한 연구들은 주관적인 삶의 질(subjective quality of life),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삶에 대한 만족도(life satisfaction) 또는 행복감(happiness)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각 개념들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주관적 안녕감은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감정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 두 가지 세부요인으로 이루어졌으며, 삶에 대한 만족도는 삶에 대한 판단으로서 인지적 측면을 반영한다(Veenhoven, 1991: 김현철·김신영, 2005:20).

Park(2004:204)도 행복감을 긍정적인 심리적 안녕이나 주관적 안녕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Park(2004)에 따르면, 이러한 행복감은 훌륭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핵심적 요소일 뿐 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의 역경과 스트레스에 대항할 수 있게 도움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과거에는 안녕(well-being)에 대한 주제가 과거 10년 동안 심리학자에서 매우 소홀하게 다루어져왔고 안녕에 대한 압도적인 사고는 고통과 무질서가 없는 상태를 의미했다. 하지만 아동과 청소년들 사이의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에 관한 연구가 최근에는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에 와서야 학자들은 주관적인 안녕과 정신건강, 그리고 긍정적인 청소년 발달과의 관계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행복한 개인들은 훌륭한 문제해결자이고, 더 나은 작업수행을 보여주며 관용과 관대와 같은 미덕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관계를 가질 뿐 만 아니라 스트레스에 보다 많은 저항력을 가지며 더 나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청소년은 지속적인 동료의 스트레스나 자신들의 인접한 환경에서의 자원부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훌륭하게 적응하는 경향이 있다(Park, 2004:204).

② 관련통계와 현황

아동청소년의 행복감 정도는 4점 만점에 평균 2.5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빈곤층의 행복감이 2.4점으로 차상위와 차상위 이상 아동청소년보다는 다소 낮았고, 지역별로는 농어촌이 2.4점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2.5점보다 낮았다.

<표 Ⅱ-2-38> 행복감 정도

구분	소득수준			지역			전체
	빈곤층	차상위	차상위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행복감	2.4(0.3)	2.5(0.3)	2.5(0.3)	2.5(0.3)	2.5(0.3)	2.4(0.3)	2.5(0.3)

자료 : 정익중 외(2009).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보고서.

행복감의 경우 중1(67.4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년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낮아지다가 고3 학생들의 경우 다소 상승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07년도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행복감에 대한 기타변수별 연구결과에서는 행복감에 대한 2008년도의 조사결과 점수가 2007년도보다 전체적으로 높았다. 하위변수별로는 남자(63.97)가 여자(62.27)보다, 중학생(65.32)이 고등학생(60.85)보다 높게 나타났고, 인문계(61.34)가 실업계(56.86)보다 높았다. 그리고 지역별 비교에서는 시/군(63.30)이 광역시(63.04), 서울(62.970보다 높게 나타났다(임지연 외, 2008).

<표 Ⅱ-2-39> 학년별 행복감 정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2007년	66.17	63.72	62.36	61.00	57.62	59.27
2008년	67.42	64.92	63.56	60.60	60.62	61.37

자료 : 임지연 외(2008).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Ⅲ

③ 관련 정책과 대안

청소년의 행복감은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와의 친밀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자녀관계의 질, 사회적 지지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청소년의 행복감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국가, 그리고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 개인으로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

를 견지하고, 가정은 부모와 자녀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유지하며 학교는 학생들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는 입시위주의 교육보다는 청소년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맞는 교육체계를 구성하고 이들이 즐겁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구조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는 미래의 소중한 자원인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감정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의견과 견해를 존중해 주고,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자존감 수준

① 지표의 의미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자기 존중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Rosenberg, 1979). 그래서 자아존중감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정서적 요소이다. 많은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필요한 행복감(happiness)의 중요한 예측변수일 뿐 만 아니라 학업성취와 같은 지적능력의 개발과도 유의미한 인과적 관계를 가진다.

아동청소년이 자신을 평가절하하지 않고 자신의 자아와 능력을 신뢰하고 존중할수록 사회에서 기대되는 긍정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같은 행동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한다.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긍정적인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행복감이나 학업성취, 자아효능감 등의 요소를 매개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견인한다.

② 관련통계와 현황

모상현· 김영지 외(2010)의 연구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은 성별과 학교성적 그리고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남자의 경우는 자아존중감이 10.33점인 반면, 여자는 10.51점

으로 남자보다는 여자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았고, 학업성적에서는 성적이 하인 아동보다는 성적이 상인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았다. 경제수준에서도 하층인 아동보다는 상층인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중고등학생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결국, 모상현· 김영지 외(2010)의 연구결과는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적이나 경제수준에 일정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업성적이 낮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아동에 대한 개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표 Ⅱ-2-40> 자아존중감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초등학생	성별	남	10.33	2.87
		여	10.51	2.66
	학업성적	하	8.82	2.96
		중	10.05	2.55
		상	11.46	2.54
	경제수준	하	8.33	3.18
		중	10.09	2.65
		상	11.35	2.79
중고생	성별	남	10.27	2.44
		여	10.05	2.32
	교급	중	10.06	2.47
		고	10.25	2.31
	학업성적	하	9.59	2.41
		중	10.20	2.22
		상	10.85	2.38
	경제수준	하	9.57	2.79
		중	10.15	2.30
		상	10.84	2.61

자료 : 모상현·김영지 외(2010).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 수준 연구 Ⅴ: 발달권, 참여권.

③ 관련 정책과 대안

자아존중감은 학업성취능력이나 지능, 신체적 조건, 언어발달 수준, 연령

등의 개인적 요인과 또래관계 혹은 친구관계 그리고 부모자녀관계와 의사소통,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가족관계요인 등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 학업성취도나 학교생활 만족정도, 학교의 교풍 등의 학교생활요인도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개인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함께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환경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모들의 자녀와의 대화에 대한 교육과 기술이 필요하고, 학교는 교사교육을 통해 학생의 의견과 견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아존중감과 관련해서 최근 특히 강조되고 있는 요인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차이를 가진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사회복지사 등 학내 상담체계를 구축하여 자존감이 낮은 아동청소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

○ 자기효능감

① 지표의 의미

자기효능감은 구체적인 일상생활에서 자신감(self-confidence)으로 여길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의 결과로 얻어지는 자기 존중감과는 구별되어 진다. 이는 자기효능감아 높은 사람일수록 도전적이고 어려운 목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높은 목표는 적극적인 수행을 유도하여 긍정적인 정서반응으로 나타나게 된다(Bandura, 1986; 한은미, 2009 재인용).

이 같은 효능감은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사고과정에 대한 자기조절, 동기, 정서적·생리적 상태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만일 자기의 행동에 의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신념이 없다면, 사람들은 행동의 추진력은커녕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에 대

한 신념과 믿음은 인간 행동의 주된 근원이며 인간의 삶은 자기효능감과 이에 대한 신념으로 인해 유도되어 진다(한은미, 2009 재인용). 따라서 높은 자기효능감으로 인한 정서적 안정과 정신적 자신감은 아동청소년의 훌륭한 성장과 발달을 견인하는 중요한 정신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으로 상황적 구체적 자신감의 강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신감이란 수행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실성의정도 또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Vealey, 1986; 송현옥 외, 2010 재인용),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생활사건과 부적응 사이를 매개하고,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정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송현옥, 외, 2010).

② 관련 통계와 현황

모상현· 김영지 외(2010)의 연구에서는 중고생의 경우 자기효능감이 여자(7.17)보다는 남자(7.29)가 높게 나타났고, 학업성적과 경제수준에서는 성적이 높고 경제수준이 좋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초등학생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도 학업성적이 좋고, 경제수준이 상일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③ 관련 정책과 대안

모상현·김영지 외(2010)의 연구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학업성적과 경제수준이 자기효능감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장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의 종합적인 대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에게 자기효능감은 성장과정에서의 행동의 방향 뿐 만 아니라 사고유형 및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에 큰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은 부모의 양육태도, 학업성취정도,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의 학력, 가족의 수입 등 가족의 경제사회적 지위나 아동청소년 본인의

학업성적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자기 효능감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갖도록 지원하고, 부모와 자녀가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부모와 자녀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표 Ⅱ-2-41> 자기효능감

구 분		M	SD
성별	남	7.29	1.77
	여	7.17	1.71
교급	중	7.13	1.79
	고	7.31	1.69
학업성적	하	6.83	1.79
	중	7.27	1.62
	상	7.69	1.71
경제수준	하	6.99	2.03
	중	7.21	1.69
	상	7.69	1.87
	남	7.43	1.96
	여	7.60	1.88
	하	6.54	2.24
	중	7.31	1.81
	상	8.12	1.70
	하	6.26	2.11
	중	7.32	1.87
	상	8.06	1.92

자료 : 모상현·김영지 외(2010).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 수준 연구 Ⅴ: 발달권, 참여권.

○ 정서적 조절

① 지표의 의미

정서적 조절이란 내적 감정상태 및 정서와 관련된 생리학적 과정의 발생, 강도, 지속기간을 조정하는 과정(Thompson, 1994이며, 필요할 경우 반응을 지연하는 능력 뿐 만 아니라 정서경험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방법으로 반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Cole et al., 1994). 정서조절에는 자아 속에서 정서조절인 자기조절과 타인의 정서에 대한 조절인 타인조절이 포함된다. 자기조절은 자신의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고 지속시키려고 하는 반면, 좋지 않

은 기분은 감소시키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조절은 타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바꾸려는 것과 타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는 인상을 조절하고 통제하기 위해 타인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행동방식을 조절하는 것이다(임연진, 2002; ; 임연진·이은경, 2010 재인용).

이 같은 정서적 조절은 학교의 적응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강지흔, 2003)에서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발달 뿐 만 아니라 인지적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② 관련통계와 현황

정서적 조절감은 초등학생의 경우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높은 반면, 중고등학생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정서적 조절감은 학업성적이 좋지 않은 아동청소년보다는 학업성적이 좋은 아동청소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아동보다는 경제수준이 높은 아동청소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③ 관련정책과 대안

정서적 조절은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올바르게 안내해주고 목표를 성취하는데 도움을 주는 반응이며, 자신의 정서를 모니터하고, 정서조절을 여러 상황에서 적절하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으로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청소년이 다양하고 복잡한 자신의 정서적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출하고 스스로가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서적 조절능력이 낮은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집단상담은 형태적으로 소집단을 구성하여 집단성원과의 상호작용원리에 기반을 두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개인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 더 나아가 개인의 성장발달 및 인간관계 능력을 초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신뢰롭고 수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역동적인 대인관계과정이다(이형득, 1979; 김수정·손경숙, 2007 재인용). 이러한 집단상담은 개인의 관심사인 여러 생활경험을 다룸으

로써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도와준다. 즉 보다 바람직한 자기이해와 대인관계를 갖도록 도와주는 과정으로 집단내 개인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한 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정서조절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스스로의 감정과 정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켜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의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의 관계 증진이나 또래관계를 비롯한 대인관계의 원만 뿐 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정서적 조절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과 태도에 대한 이해와 함께 상대방의 사고와 감정도 이해할 수 있는 공감능력을 개발해 주어야 한다.

<표 Ⅱ-2-42> 정서적 조절감

구 분		M	SD	t, F	Scheffe 사후검증
성별	남	6.98	1.80	6.243***	-
	여	6.71	1.79		
교급	중	6.94	1.77	4.048***	-
	고	6.77	1.82		
학업 성적	하	6.68	1.85	17.336***	1<2,3
	중	6.89	1.71		
	상	7.00	1.85		
가족 구성	양부모	6.86	1.79	1.834	-
	한부모	6.74	1.84		
	조손가정	6.90	1.97		
경제 수준	하	6.56	2.00	15.093***	1<2,3 2<3
	중	6.84	1.75		
	상	7.15	2.00		

자료 : 모상현·김영지 외(2010).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 수준 연구 Ⅴ: 발달권, 참여권.

○ 정서적 고립감

① 지표의 의미

고립감은 사회학자들에게 우울과 함께 자살과 관련된 흥미 있는 개념으로

연구되어 오고 있다. 고립감은 사회적 관계의 결함에서 야기된 부정적 정서인 우울감, 불안, 자아개념의 저하 등을 수반하는 주관적 경험인 외로움과 외로움의 정서에 의해 현실적으로 나타난 현재 행동상태인 고립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Vincenzi & Grabosky, 1987) 자살과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Kalafat& Elias, 1995 ; Kinkel et al., 1989; 한지영, 2010 재인용), 또한 일부연구에서는 사회적·정서적 고립감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 중 하나로 조사되어 사회적 고립감이 청소년의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증명하였다(한지영, 2010). 특히,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기의 동료관계의 고립이나 학교내의 고립은 아동의 인지적, 사회적, 도덕적 측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정서적 고립은 현재의 사회적 인간관계에서 친밀감과 애착을 표현할 수 있는 가까운 대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인관관계의 단절이나 배제를 의미하는 사회적 고립감과는 구별된다.

② 관련통계와 현황

모상현· 김영지 외(2010)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고립감은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다소 높게 나타났고, 학업성적이 좋은 아동청소년보다는 학업성적이 좋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고립감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경제수준에서도 비빈곤가정보다는 빈곤가정의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고립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고립감은 학업성적과 경제수준에 일정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준다.

③ 관련 정책과 대안

아동의 정서적 고립은 주로 가정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먼저 가정적 요인에는 부모의 애정적 태도가 과도하거나 결여되었을 때 아동의 정서적 고립이 나타나게 된다. 과잉보호함으로써 자녀의 욕구가 너무 용이하게 충족되면 나중에 새로운 환경에 직면했을 경우 사소한 욕구의 좌절에도 인내할 수 없어 도피하거나 거부, 퇴행의 행동을 나타내기 쉽

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거부 할 때도 아동은 애정의 결여로 인한 욕구좌절을 일으키고 자기 무가치감과 열등감을 갖게 되어 고립행동을 하게 된다. 이는 아동기의 안정적인 대인관계형성이 어려웠던 경험이 청소년기로 이어져 유사한 행동이 반복되면서 고립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는 한 순간에 돌발적으로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의 어려운 상황이 누적되면서 고립현상이 점차 심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규미, 1999; 김정희, 2008 재인용).

<표 Ⅱ-2-43> 정서적 고립감

구 분			평균	표준편차	t/F	Scheffe 사후검증
초등학생	성별	남	4.92	2.82	-2.93**	
		여	5.26	3.00		
	학업성적	하	6.19	3.56	41.324***	1>2,3 2>3
		중	5.14	2.88		
		상	4.62	2.55		
	경제수준	하	7.74	4.04	39.419***	1>2,3 2>3
		중	5.28	2.96		
		상	4.46	2.54		
중고등학생	성별	남	5.91	2.92	-12.121***	
		여	6.79	3.11		
	교급별	중	6.04	3.05	-7.655***	
		고	6.60	3.03		
	학업성적	하	6.74	3.20	35.575***	1>2,3 2>3
		중	6.22	2.97		
		상	5.99	2.90		
	경제수준	하	7.44	3.46	52.450***	1>2,3 2>3
		중	6.31	2.98		
		상	5.60	3.02		

자료 : 모상현·김영지 외(2010).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 수준 연구 Ⅴ: 발달권, 참여권.

또한, 사회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기술의 결핍이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을 초래한다. 고립아동은 놀이에 참여하는 방법, 또래의 관심을 사로잡고 타인을 설득하는 기술, 타인의 주도에 적절하게 반응하기 위한 사회적 기술 등이 부족하다. 따라서 또래 집단 내에서 무시되거나 거부되는 자극을 받을 때 위축 또는 고립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배은주, 2005).

결국,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적절한

애정적 태도의 형성에서부터 아동 자신의 사회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 학교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부모가 자녀관계에서 적절한 애정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정서적 고립의 위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고립감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해야 한다.

○ 낙관성

① 지표의 의미

낙관성(optimism)은 개인이 갖는 미래에 대한 보편적인 기대감, 즉, 시간과 상황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안정적인 성격 특성이다(Scheier & Carver, 1985; 서윤주, 2010 재인용). 이 같은 낙관성은 행복과 정신건강에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가령, 낙관성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성취, 낮은 수준의 불안과 우울, 긍정적인 인간관계, 신체적 건강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낙관성은 성실성, 근면성, 만족 지연 능력과 같은 긍정적인 성격요인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Mischel et al., 1989; 박소정, 2009 재인용). 결국 낙관성은 학업성취과 같은 지적 능력 뿐 만 아니라 성실성이나 근면성 등의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② 관련 현황과 통계

아동청소년의 낙관성정도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에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6.77점에서 6.93점으로 중고등학생보다는 초등학생의 낙관성 수준이 높았다. 학업성적에서는 성적이 좋은 아동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서 낙관성 정도가 높았고, 경제수준도 하층보다는 상층일수록 낙관성수준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Ⅱ-2-44> 낙관성

구 분			평균	표준편차	t/F	Scheffe 사후검증
초등학생	성별	남	6.93	2.03	-1.879	
		여	7.08	1.91		
	학업성적	하	6.12	2.25	87.401***	1<2,3 2<3
		중	6.82	1.88		
		상	7.56	1.81		
	경제수준	하	5.81	2.07	44.574***	1<2,3 2<3
		중	6.81	1.92		
		상	7.55	1.98		
중고등학생	성별	남	6.77	1.81	3.402**	
		여	6.62	1.74		
	교급별	중	6.65	1.81	-2.148*	
		고	6.74	1.75		
	학업성적	하	6.36	1.80	89.311***	1<2,3 2<3
		중	6.74	1.67		
		상	7.08	1.82		
	경제수준	하	6.37	2.00	35.659***	1<2,3 2<3
		중	6.67	1.73		
		상	7.22	1.87		

자료 : 모상현·김영지 외(2010).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 수준 연구 Ⅴ: 발달권, 참여권.

③ 관련 정책과 대안

일반적으로 낙관성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 과거 부모로부터 비난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지각하면서 성장한 사람은 과거 자신의 부정적인 경험에 비추어 현실을 지각하기 때문에 현재 아무리 긍정적인 사건을 경험해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지각하지 못하고 부정적 시각으로 처리해 버려 좌절 경험이 많아지게 되고, 따라서 자신감을 상실하고 우울감에 빠지고 비관적으로 된다. 이에 비해 과거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사람들은 좌절을 경험해도 현실적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보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고 이에 따라 낙관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다(송종화, 2006).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낙관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부모가 올바른 양육태도를 가지고 자녀를 대할 수 있도록 원조해야 한다. 자녀에 대한 훈육과 양육을 부모에게만 일임하지 않고, 부모가 올바른 양육태도와 기술을 가지고 자녀를 적절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부모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부모에 대한 충분하고 체계적인 교육이야 말로, 자녀의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긍정적인 태도와 사고를 견지하면서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대안이다.

○ 학교생활 적응

① 지표의 의미

학교에서의 부적응은 아동청소년의 발달을 전 생애의 관점에서 파악할 때, 이후 삶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학교는 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공간일 뿐 만 아니라 또래관계를 비롯한 대인관계의 형성을 통해 사회적 능력을 개발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학교에서의 부적응은 교사나 학생 등과의 대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 같은 영향을 성인기의 사회부적응으로 연결될 수 있다.

적응이란 개인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개념으로 개인이 대인관계나 사회적 규준과 질서 등에 있어 적절하고 조화로운 행동을 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자신이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개인의 생리적·심리적 욕구를 저해하는 여러 환경적인 장애요인을 극복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민영순, 1995). 교육적 상황에서의 적응의 개념은 학생들이 교과활동, 특별활동, 기타 행사활동 등에 자기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교사 및 학생들과 관계가 잘 조화되어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로 정의된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4; 임연진·이은경, 2010 재인용).

여기서 학교적응은 학생의 모든 행동이 모든 학교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잘 조화되고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교사나 다른 학생 등 의미있는 타인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해가며, 학교수업에 적극적이고 학교규범에 순응하여 독립된 개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가는 것이다(주현정, 1998).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학령기에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고 하는 것은 학내의 주요 구성원인 교사나 또래 학생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며, 학교의 규범에 순응함으로써 높은 학업성취를 통해 긍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이행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관련통계와 현황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2009)결과에 따르면, 9세에서 11세까지의 아동의 학교생활만족정도는 5점 만점에 3.4점인 것으로 나타났고, 12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은 3.1점이었다.

<표 Ⅱ-2-45> 학교생활만족도

구분	소득수준			지역			전체
	빈곤층	차상위	차상위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9-11세	3.3	3.3	3.4	3.3	3.4	3.3	3.4
12-18세	3.0	3.0	3.1	3.1	3.1	3.0	3.1

자료 :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2009).

소득별로 보면, 빈곤층보다는 비빈곤계층의 학교생활만족도가 다소 높았고, 지역에서는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는 농어촌 지역의 학교생활만족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편, 모상현· 김영지 외(2010)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정도는 만족한다(만족한다+매우 만족한다)가 62.8%였고, 불만족한다(매우 불만족이다+불만족이다)가 91.%였다. 중고등학생은 만족한다의 비율이 45.2%였고, 불만족한다는 비율은 16.5%로 나타나 초등학생보다는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았다.

<표 Ⅱ-2-46> 학교생활만족도

구 분			매우 불만족 이다	불만족 이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초등 학생	전체		2.6	5.5	29.1	34.6	28.2
	성별	남	3.1	6.0	29.9	32.6	28.3
		여	2.0	4.9	28.3	36.6	28.2
	학업 성적	하	6.0	10.4	38.3	26.0	19.3
		중	1.7	4.9	33.4	34.6	25.4
		상	2.3	4.3	20.5	37.8	35.1
	경제 수준	하	7.1	23.8	28.6	33.3	7.1
		중	2.6	5.2	32.9	35.8	23.6
		상	2.4	5.3	19.6	31.7	41.1
중교생	전체		5.3	11.2	38.4	35.0	10.2
	성별	남	6.6	10.1	36.7	35.2	11.4
		여	3.9	12.4	40.1	34.7	8.9
	교급별	중	5.4	9.1	35.7	36.3	13.5
		고	5.2	13.0	40.7	33.9	7.3
	학업 성적	하	7.9	14.0	43.3	27.6	7.2
		중	3.8	10.1	38.9	36.9	10.3
		상	4.1	9.1	31.2	41.8	13.9
	경제 수준	하	11.4	14.5	45.8	21.4	6.9
		중	4.6	11.2	39.1	35.7	9.4
		상	6.1	7.9	26.0	39.8	20.2

자료 : 모상현·김영지 외(2010).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 수준 연구 Ⅴ: 발달권, 참여권.

③ 관련 정책과 대안

학교생활의 적응은 개인적 요인과 가족요인 그리고 학교요인이 제시된다. 학교요인에서는 학교규모, 학교가 위치한 지역, 학교시설, 교사의 수업진행, 학생의 수업행동, 교사와의 관계, 학생의 학업성취정도 등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아울러 교육여건이나 학교의 물리적 환경, 교사의 수업방식 등도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교사나 교우간의 관계,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의 개인적 요인들도 학교생활적응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적

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생활적응에 취약한 사회경제적 환경을 가진 아동들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에서부터 학교의 물리적 환경의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입시위주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입시중압감에 따른 학업스트레스를 가중시켜 학교생활의 적응에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는 점에서 거시적으로는 입시위주의 교육방식을 탈피하여 학생의 다양한 자질과 능력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의 학사와 행정은 학생의 인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학생도 우리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보편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임으로 자각하고 학교를 인권친화적인 학교로 만드는 공동의 노력도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는 중요한 대안이다.

3) 사회적 발달

(1) 사회성 발달 기회

○ 학생 1인당 평균 단짝 수

① 지표의 의미

타인과 성공적으로 그리고 협동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은 핵심적인 생활기술이다. 아동들이 타인에 대한 관심과 생각을 고려하여 행동하게 될 때, 그 행동은 사회적 책임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들의 발달은 이 같은 타인 즉, 동료와 성인 등의 관계로부터 다양한 영향을 받는다. 특히, 동료는 가족이외에 가장 많은 지지와 지원을 제공하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동료로부터 긍정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향후 많은 행동상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제시되고 있다. Kupersmidt와 Coie(1990)에 따르면, 공격성과 동료의 거절은 청소년기에 학업문제와 사회적 문제 그리고 행동상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동료의 수용은 특별히 향후 학업의 성취에 있어 특별히 중요하게 나타난다. 한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동료로부터 사회적으로 거부당한

것처럼 보이는 아동의 25%가 고등학교에서 중도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이 환경내의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경험하는 것은 모든 개인들의 건강한 발달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 성인과 동료와의 지지적 관계는 더 나은 정책결정, 낮은 스트레스, 높은 학업성취, 건강한 관계, 낮은 약물복용 등 정서적 발달에 도움을 주는 정서적 지지의 자원이다(Eccles, et al, 1993; Connell & Bambone, 2000 재인용).

② 관련통계와 현황

모상현· 김영지 외(2010)의 연구에 따르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수가 초등학생의 경우 3-4명이 31.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2명(29.7%), 5-9명(16.6%), 10명 이상 15.7%였다.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전혀 없다는 초등학생도 6.5%였다.

③ 관련 정책과 대안

아동청소년에게 친구는 사회화를 통한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매우 긍정적인 친구관계의 형성은 자아존중감 뿐 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성을 향상에 촉매제가 된다. 따라서 사회화를 통한 사회성의 발달이 중요한 아동청소년기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업이 원만하고 긍정적인 친구관계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원만한 친구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근원적인 사회화 장소인 가정에서 부모나 성인의 노력이 중요하다. 아동의 대인관계 능력은 부모의 양육태도나 문제해결방식과 관련이 깊어 가정에서 아동이 애정적이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 자신의 스트레스와 정서를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심희옥·신유림, 2009)은 모두 부모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사회의 자원들이 충분한 교육과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부모자녀간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한다.

아울러 원만한 친구관계의 형성은 스스로에 대한 높은 자존감과 함께 타

인에 대한 높은 배려와 수용도를 요구한다. 자신의 주장보다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을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신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교는 학습능력향상이라고 하는 목표이외에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감 향상을 통한 전인적 교육을 목표로 학생들간의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표 Ⅱ-2-47>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의 수

구 분			전혀 없다	1~2명	3~4명	5~9명	10명 이상
초등학생	전 체		6.5	29.7	31.5	16.6	15.7
	성별	남	8.0	26.6	28.8	16.5	20.2
		여	5.0	33.0	34.2	16.7	11.1
	학업 성적	하	9.7	32.2	33.0	13.1	12.1
		중	6.6	30.6	30.6	16.6	15.6
		상	5.1	27.9	31.9	17.9	17.2
	가족 구성	양부모	6.0	29.0	32.3	16.8	15.8
		한부모	9.5	39.0	21.4	15.2	14.8
		조손가정	27.3	13.6	36.4	4.5	18.2
	경제 수준	하	14.3	31.0	35.7	9.5	9.5
		중	6.8	31.8	32.2	16.8	12.3
		상	5.2	24.6	29.3	16.4	24.5
중고생		전체	3.8	29.1	40.4	17.9	8.7
	성별	남	4.3	24.2	38.7	20.2	12.6
		여	3.2	34.2	42.2	15.6	4.7
	교급별	중	4.6	26.7	37.6	18.5	12.5
		고	3.1	31.2	42.7	17.4	5.6
	학업 성적	하	4.6	29.7	39.1	18.1	8.6
		중	3.0	29.8	41.5	17.6	8.1
		상	3.6	27.6	40.7	18.2	9.9
	가족 구성	양부모	3.7	28.6	40.6	18.1	8.9
		한부모	3.8	32.0	38.5	17.5	8.1
		조손가정	1.1	36.0	44.9	10.1	7.9
	경제 수준	하	6.8	34.0	38.6	12.9	707
		중	3.5	29.5	41.5	17.9	7.6
		상	3.3	21.4	32.7	21.7	20.9

자료 : 모상현·김영지 외(2010).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 수준 연구 Ⅴ: 발달권, 참여권.

○ 청소년 1인당 청소년 단체/시설 프로그램 참여 횟수

① 지표의 의미

청소년단체나 시설은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제도교육은 획일화된 교육방식과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청소년의 다양한 발달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때문에 다양한 청소년 개발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 단체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노태일(2003:73)에 따르면, 청소년단체의 활동은 크게 청소년 수련활동, 지도자 연수활동, 연구활동, 상담활동, 지역사회 개발활동, 자원봉사활동, 사회교육 및 체육활동, 국제교류활동, 홍보 및 출판활동, 문예·취미 등 여가활동, 장학 및 포상, 유해환경 민간감시활동, 조직강화 활동을 비롯하여 부모, 지역사회인사,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인력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 단체나 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그 목적과 내용이 다양하지만 그 형태가 주로 개인이 아닌 다양한 또래집단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② 관련통계와 현황

청소년단체활동에 회원으로 가입한 비율이 초등학생이 26.7%, 중학생 15.0%, 인문계 고등학생 11.1%, 전문계 고등학생이 7.4%로 나타나서 교급이 낮을수록 청소년단체 가입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 정도는 초등학생의 경우 한 달에 1번이 35.2%로 가장 높았고, 한 달에 2번이 22.5%로 나타났으며, 회원으로 가입했으나 실제 활동이 없는 경우도 18.7%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주 1회 미만으로 참가하는 비율은 중학생이 48.3%인데 비하여 고등학생은 일반계 62.3%, 전문계 51.3%로 나타났다(임지연 외, 2009).

<표 Ⅱ-2-48> 청소년활동 유형별 참여현황

구분	초등 학생	중학생	인문계 고등 학생	전문계 고등 학생
청소년단체 회원 가입비율	26.7	15.0	11.1	7.4
동아리 가입 비율	-	14.8	25.7	19.7
자치활동 참여 비율	24.0	21.2	22.3	16.0
연간 3회 이상 봉사활동 참여 비율	60.9	60.2	62.0	55.7
연간 3회 이상 견학활동 참여비율	72.3	50.6	32.0	28.8
연간 3회 이상 공연관람 참여비율	33.4	21.5	19.3	16.5
연간 3회 이상 청소년축제 및 행사활동 참여비율	20.5	14.9	14.1	12.7
연간 3회 이상 단체수련활동 참여비율	36.2	18.3	8.5	11.0
연간 3회 이상 야외 자연체험활동 참여비율	29.6	14.8	9.9	7.6
연간 3회 이상 청소년수련시설 이용경험 비율	12.7	8.8	6.1	7.0
연간 1회 이상 해외에 나가 본 경험비율	15.8	16.0	12.6	4.7
주1회 이상 강좌 프로그램 참여비율	66.8	40.1	25.0	26.2
주3회 이상 스포츠활동에 참여비율	43.6	29.9	23.7	22.6

자료 : 임지연 외(2009). 2009한국 아동청소년 활동 문화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③ 관련 정책과 대안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공모는 주 5일제 수업 실시에 따라 청소년들이 여유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소외계층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동기 부여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인적·물적 제반자원의 경제적인 활용 방향을 확립하여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과학·정보, 모험·개척, 직업준비, 환경보전 등의 활동을 통해 잠재역량을 개발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아동청소년백서, 2009).

최근 청소년단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학생 1청소년단체 가입을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고, 청소년 단체별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단체 활동 우수

사례 발표대회를 실시하여 연구실적에 따른 가산점 부여와 함께 지도교사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표 Ⅱ-2-49>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공모지원 현황

	활동영역	응모	지원	참여인원	비고
청소년 문화활동	1. 문화감성 영역	166	36	67,765	년중
	2. 과학정보 영역	19	4	2,887	년중
	3. 봉사•협력	87	21	18,929	년중
	4. 모험개척	27	6	4,064	년중
	5. 직업준비	44	10	10,127	년중
	6. 환경의식	32	8	6,912	년중
	7. 방학프로그램(여름·겨울)	142	22	8,162	방학
찾아가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1. 문화감성	25	7	11,773	년중
	2. 과학정보	5	3	2,319	년중
	3. 봉사·협력	7	2	3,366	년중
	4. 직업준비	5	2	740	년중
	5. 환경의식	1	-	년중	
합계		560	121	137,044	

향후에는 청소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와 인성개발을 위해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함께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의 부족으로 현재 많은 청소년단체들이 청소년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매우 형식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청소년단체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청소년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 활동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의 가장 큰 어려움은 단체활동 참여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의 문제이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육성 관련 부서는 청소년 단체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활동정책을 추진하는 관계부처간 업무연계, 협력 그리고 조정기능이 확립되어야 한다. 현재의 청소년 활동정책은 청소년 활동영역에 대해 균형감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관계부처 협의하에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아래 체계적으로 청소년 단체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청소년 1인당 월평균 자원봉사활동 시간

① 지표의 의미

아동청소년의 자원봉사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사회속에서 넓은 지역사회나 타인인을 위해 공헌하게 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자원봉사를 하는 청소년들이 봉사대상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고, 봉사자 자산에게도 보람과 흥미를 느끼고, 자신이 살아가는 공동체속에서 일체감을 느끼게 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소질을 발견하기 때문에(이용안, 2010). 자원봉사활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발달과는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청소년 자원봉사의 기능으로는 청소년 본인에게 마음의 평화, 존엄성,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 새로운 세계의 경험, 지도력 개발, 인적 교류의 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집단에게는 사회적 책임성을 부여해 줌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좋은 이웃관계를 형성케 한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봉사활동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실천과정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지식을 배우는 과정을 반복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데 있으며,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② 관련통계와 현황

통계청(2009)의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15에서 19세까지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79.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자는 주로 아동청소년이나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활동(46.01%)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환경보전이나 범죄예방 활동(32.0%), 국가 및 지역행사(1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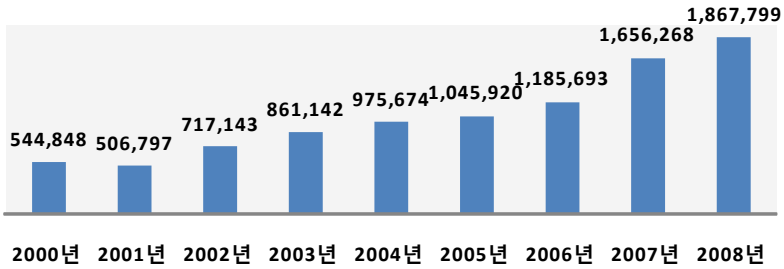
한편, 2008년 현재 전국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수는 전년대비 39.7%p 증가한 1,867,799명으로서 2001년도를 제외

하고는 매년 증가하였다. 2008년 현재 참여 청소년 수는 1,867,799명이며, 청소년 자원봉사교육 및 연수를 받은 인원은 402,135명에 달한다(아동청소년백서, 2009).

<표 Ⅱ-2-50>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및 참여형태

	참여자	환경보전 범죄예방	국가/ 지역행사	자녀교육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재소자 등	재해주민 돕기/ 시설복구 등	기타
15~19세 (전체)	79.8	32.0	13.4	2.2	46	4.6	20.2
15~19세 남자	80.2	34.7	12.5	1.7	43.1	4.2	21.1
15~19세 여자	79.4	29.0	14.4	2.7	49.2	4.9	19.3

자료 : 통계청(2009), 사회조사



[그림 Ⅱ-2-4] 연도별 청소년 자원봉사자수

③ 관련 정책과 대안

정부는 청소년 자원봉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1996년 5개 광역시에 이어 1997년에 9개소, 1998년 울산, 1999년 3월 서울센터의 독립(중앙센터와 서울센터의 분리)을 시점으로 전국 16개 시·도의 명실상부한 청소년자원봉사 지원조직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이후 전국적

지원의 확산을 계기로 2005년 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특히 2001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제7차 교육과정에 청소년봉사활동이 특별활동 시수에 반영되어 학교교육과정에 포함됨으로서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해야하는 의무적 활동으로 전환되었다(청소년백서, 20099).

또한 2005년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명칭을 개편하고 청소년봉사활동과 청소년활동을 2가지 핵심 기능으로 하는 기구개편을 단행하였고, 조직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1~2명의 인원을 시·도별로 배치하여 업무를 확대하였다. 같은 시기에 일부 시·도에서는 독립적인 지자체의 법인을 설립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업무를 일원화 시키는 작업을 동시에 추진하게 되었는데, 경남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기점으로 현재는 5개 지역이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중앙기구인 한국청소년진흥센터는 우리나라 청소년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와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청소년 및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도자들을 위한 교재개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망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16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수급연계 및 정보제공,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터전개발 및 인증 관리,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관련기관간의 협조 체제 구축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청소년백서, 2009).

이외에도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지역 내 초중고생을 및 학급을 대상으로 청소년자원봉사 협력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해외봉사단도 운영하고 있다. 2008년에는 라오스와 캄보이아에 16개 지방센터에서 총 183명을 파견하였다.

○ 청소년 1인당 평균 가입 동아리 수

① 지표의 의미

오치선과 허영욱(2003)은 청소년 동아리활동을 자주적 활동으로서 취미나 소질, 가치관이나 문제의식 등을 공유하는 청소년들에 의해 자생된 자치활

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치적이며 지속적인 청소년활동으로 정의한다. 류철식(2001)은 청소년 동아리 활동은 자생, 자율적이고 소그룹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동아리 활동의 내용이 어느 한 부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청소년 수련활동의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지속적인 활동을 전제로 하는 '작은 모임'이라는 점에서 클럽활동, 특기적성활동, 단체활동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이들의 청소년 동아리활동의 개념을 종합해보면, 청소년 동아리 활동은 학교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들의 자치활동이라는 점 그리고 주제에 제한을 받지 않은 지속적인 활동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교사나 사회의 강요에 의해 조직된 모임이 아닌 청소년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자치모임이라는 점 등이다. 청소년의 동아리 활동은 다양한 주제로 모인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자치활동을 통해서 자신과 생각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또래 청소년들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수반한다. 그리고 동아리 내에서의 청소년들의 소속감 또한 청소년의 사회적 발달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스라빈(Slavin, 1991)의 주장처럼, 청소년들은 연대감을 동아리나 팀, 교화나 조직과 같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개발하게 되고 이러한 참여는 타인에 대한 존중과 더큰 책임감 등의 사회적 능력을 능력들을 더욱 촉진시킨다.

② 관련통계와 현황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의 수를 가계수준과 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가계수준에 따라, 빈곤층의 경우 없다가 62.9%로 가장 많았고, 1~2개(30.9%)가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5%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였다. 차상위의 경우 없다가 58.5%로 가장 많았고, 1~2개(38.5%), 3~5개(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상위이상의 경우 없다가 57.4%로 가장 많았고, 1~2개(36.6%)가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3~%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였다(이봉주 외, 2009).

<표 Ⅱ-2-51> 동아리 활동 참여 개수

구분	소득수준			지역			전체
	빈곤층	차상위	차상위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2-18세 없다	62.9	58.5	57.4	60.9	52.5	58.4	57.5
1-2개	30.9	38.5	36.6	32.7	41.7	36.5	37.5
3-5개	4.5	3.1	3.1	3.7	2.7	3.1	3.2
6-9개	0.8	-	1.1	1.4	0.8	0.3	1.0
10개 이상	0.1	-	0.8	0.5	0.9	0.8	0.7

자료 : 정익중 외(2009).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표 Ⅱ-2-52> 동아리 가입 및 활동여부(초등생 다중응답)

구 분			가입하지 않았다	가입은 하였지만 별로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초등학생	전체		76.0	7.9	16.1
	성별	남	80.5	6.5	12.9
		여	71.2	9.3	19.4
	학업성적	하	78.1	8.6	13.3
		중	78.4	7.6	14.0
		상	72.3	8.1	19.5
	경제수준	하	79.1	4.7	16.3
		중	77.2	8.7	14.1
		상	72.7	6.2	21.1
중고등학생	전체		88.1	8.4	3.4
	성별	남	86.8	8.8	4.4
		여	89.5	8.1	2.4
	교급	중	87.3	8.5	4.2
		고	88.8	8.5	2.7
	학업성적	하	88.9	7.9	3.1
		중	88.8	8.0	3.2
		상	86.1	9.8	4.0
	경제수준	하	86.4	10.0	3.6
		중	88.6	8.2	3.2
		상	85.5	9.6	4.8

자료 : 모상현·김영지 외(2010).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 수준 연구 Ⅴ: 발달권, 참여권.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의 경우 없다가 60.9%로 가장 많았고, 1~2개(32.7%)가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4%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였다. 중소도시의 경우 없다가 52.5%로 가장 많았고, 1~2개는 41.7%였으나, 나머지는 3%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였다. 농어촌의 경우 없다가 58.4%로 가장 많았고, 1~2개(36.5%)가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4%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가 없는 아동청소년이 약 50-60% 정도가 되며, 동아리 활동 참여 경험자 중 1~2개의 동아리 참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봉주 외, 2009).

모상현· 김영지 외(2010)의 연구에서는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은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은 각각 76.0%와 88.1%로 대부분의 청소년이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한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초등학생이 16.1%, 중고등학생이 3.4%였다.

③ 관련 정책과 대안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동아리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청소년기의 동아리활동은 청소년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성취감을 얻게 할 뿐 아니라 진로 결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동아리활동이 학업에 방해가 되고 많은 시간을 소모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 따라서 청소년 동아리활동의 긍정적인 면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청소년들이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얻은 긍정적인 경험에 대한 성공 사례들을 언론에 홍보하여 널리 알리거나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과 연계하여 동아리활동을 진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금연 캠페인이나 유해환경 감시단과 같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점차 청소년 동아리활동에 대한 긍정적 측면을 알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주연, 2010).

또한, 동아리 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이 동아리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먼저, 예산과 관련하여 동아리지원 사업의 경우 가능한 한 많은 동

아리가 지원을 받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개 동아리가 받을 수 있는 예산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동아리활동 공모전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가 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동아리활동을 발표할 기회를 확대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리는 행사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공연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짧은 시간일뿐더러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는 활동이 아닌 경우가 많다. 현재 전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아리 경진대회, 청소년 동아리 축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별로 동아리축제와 같은 행사를 주최한다면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마음껏 동아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전국적인 동아리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이주연, 2010).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전국 시·도별 청소년 시설 및 각 급 학교의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근 청소년수련 시설과 연계하여 지도자를 파견하거나 활동 장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2,000개의 청소년동아리를 선정하여 2,000백 만 원을 지원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원하는 동아리 활동을 육성지원해야 한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도 청소년의 여가문화에 대한 욕구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학부모나 성인의 관점에서 동아리 활동을 개발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청소년의 동아리 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없다. 따라서 청소년이 원하는 동아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청소년의 여가문화 정책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Ⅱ-2-53> 동아리 지원 현황

지역	동아리지원개수	동아리 지원액(백만원)	
		국비	지방비
서울	412	206	206
부산	152	76	76
대구	110	55	55
인천	112	56	56
광주	68	34	34
대전	68	34	34
울산	46	23	23
경기	440	220	220
강원	60	30	30
전북	62	31	31
전남	78	39	39
충남	74	37	37
충북	68	34	34
경북	104	52	52
경남	124	62	62
제주	22	11	11
합계	2,000	1,000	1,000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

○ 사회적 고립감 인식 정도

① 지표의 의미

사회적 고립은 개인이 집단으로부터 분리되거나 집단의 기준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서 자신이 사회적으로 거부되고 있음을 의식하고 사회적 수용에 대한 기대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윤나리·김영란2004:104).

고립은 정서적 고립과 사회적 고립으로 나누어진다. 정서적 고립은 현재의 사회적 인간관계에서 친밀감과 애착을 표현할 수 있는 가까운 대상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사회적 고립은 현재의 사회적 인간관계에서 집단 내에서 수용받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이다(Vincenzi & Brabosky, 1989; 박미혜, 2008 재인용).

일반적으로 사회적 고립은 오늘날 이동사회의 문제로 가족들은 다른 확대

가족의 구성원이나 이웃들로부터 고립될 수 있다Maris RW(1997). 사회적 고립은 권능상실(disempowerment)감, 소외감, 이질감을 갖도록 할 수 있다(Vimpani, 2000). 또한 사회적 고립은 자살시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aris RW, 1997). 발달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의 소외감은 외로움,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 등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을 측정하는 중요한 발달 지표이다(문진명, 2001; 윤나리·김영란, 2004:104 재인용).

이 같은 고립은 가족, 학교, 동료, 직장, 서비스, 사회적 기회로부터의 격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청소년의 건강과 안정을 위한 방법으로 사회적 유대가 강조된다. Water외(2002)에 따르면, 사회적 유대는 청소년의 건강과 복지를 개선하는 사회적 자본이다. 결국 청소년이 가족이나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청소년의 사회적 발달은 물론이고 정서적 발달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② 관련 통계와 현황

사회적 고립감 현황에 대한 조사는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해, 사회적 관계망 정도로 사회적 고립감의 정도를 유추해 보면, 우선, 15세에서 19세까지 사회적 관계망을 보면, 집안일을 부탁한 경우가 있는 경우는 80.1%였고, 돈을 빌린 경우가 있는 경우 50.2%였으며,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는 87.4%로 나타났다. 강한 사회적 관계망을 가진 청소년의 비율이 모든 측정 항목에서 대체로 80%이상 높게 나타남으로써 사회적 관계망이 낮은 청소년의 비율은 20% 이내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③ 관련 정책과 대안

Prinz(1982)는 사회적 고립의 원인을 상호작용율(interaction rate), 사회적 지위(social status), 그리고 사회적 기술의 수준(level of social skills)으로 진단한다. 즉, 아동청소년이 또래 아동들과의 상호작용이 없는 경우 사회적 고립이 발생한다. 그래서 고립된 아동청소년은 홀로 독립적인 놀이를 함으로써 다

른 또래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된다.

<표 Ⅱ-2-54> 사회적 관계망(15세-19세)

	집안 일을 부탁한 경우 (있음)	집안 일을 부탁한 경우 (없음)	집안 일을 부탁한 경우 (인원)	돈을 빌릴 경우 (있음)	돈을 빌릴 경우 (없음)	돈을 빌릴 경우 (인원)	이야기 상대 필요 (있음)	이야기 상대 필요 (없음)	이야기 상대 필요 (인원)
전국	80.1	19.9	2.9	50.2	49.8	3	87.4	12.6	4.2
전국 (남자)	76.2	23.8	3	47.2	52.8	3.2	83.9	16.1	4.2
전국 (여자)	84.4	15.6	2.8	53.4	46.6	2.8	91.1	8.9	4.2
서울	81.2	18.8	2.6	47.8	52.2	2.7	88.7	11.3	4.1
부산	74.2	25.8	3.2	48.5	51.5	3.3	87.5	12.5	4.8
대구	78.5	21.5	2.9	47.4	52.6	3.5	93	7	4.7
인천	79	21	3	44.7	55.3	3.1	87.9	12.1	4.4
광주	77.9	22.1	3	48.4	51.6	3.4	82.1	17.9	3.9
대전	76.7	23.3	2.9	42.4	57.6	3	86.1	13.9	4.3
울산	72.9	27.1	3.1	54.6	45.4	3.1	89.6	10.4	4.3
경기	88.1	11.9	2.9	58.4	41.6	3	88.2	11.8	4.2
강원	69.4	30.6	3.1	41.8	58.2	2.8	86.2	13.8	4.1
충북	78.5	21.5	2.8	42.7	57.3	3.2	82.8	17.2	4.1
충남	79.5	20.5	2.7	48.6	51.4	3	84.6	15.4	4.7
전북	75.9	24.1	2.4	53	47	2.3	86.1	13.9	3.6
전남	80.4	19.6	2.4	43.2	56.8	2.4	87.8	12.2	3.3
경북	74	26	3.8	52.9	47.1	3.4	82.4	17.6	4.2
경남	74.3	25.7	2.6	47	53	2.6	85.7	14.3	3.8
제주	83.9	16.1	3.2	52.8	47.2	3.6	88.7	11.3	4.4

자료 : 통계청(2009). 사회조사.

다음으로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은 대화와 타협 그리고 사교력 등이 낮아 다양한 사회구성원들로부터 배제된다. 특히 사회적 기술은 아동 본인의 능력보다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다는 점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아동청소년의 배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아동 본인의 낮은 사회적 지위 또한 동료들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어렵게 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을 강화시킨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긍정적이면서도 활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기술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사회적 지위나 낮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심리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지위가 낮은 그래서 사회적 고립의 위기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을 위해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 체계를 구하여 이들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에 다른 극단적인 선택을 미연에 차단해야 한다.

(2) 사회성 발달 정도

○ 갈등해결 능력지수

① 지표의 의미

청소년 발달 특히 사회성발달에 있어 친구관계의 중요성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 예를 들어 Hightower(1990)는 천년기의 좋은 교우관계가 중년기 때의 정신건강과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Ryan과 Patrick(1996)은 좋은 교우관계가 사회적 적응과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Shaffer(1994)에 의하면, 친구관계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장차 원만한 인간관계의 바탕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이희영·천태복, 2005:228).

따라서 좋은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청소년의 중요한 발달과업이 된다. 청소년의 친구관계 형성 및 유지와 관련하여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변인은 갈등이다. 개인이 갈등을 효율적으로 다루는 것은 친구를 사귀고 친구관계를 유지하는데 충추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갈등해결은 친구관계를 유지·존속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갈등 그 자체는 청소년의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은 갈등을 경험함으써 사회적 이해를 촉진하게 되고 대화의 기술을 향상시키며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받는다(Collins & Laursen, 1994; 이희영·천태복, 2005:229

재인용). 좋은 교우관계를 지속시켜주는 갈등의 해결은 무엇보다도 정서적인 자기조절과 감정적 절제와 함께 갈등의 원인과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사고능력이 요구된다.

② 관련 현황과 통계

갈등해결의 유형은 협력유형, 공격유형 그리고 회피유형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령, 협력유형은 양측 모두의 관심사를 고려하여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으려 노력하며 평화롭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려 하려는 유형이다. 공격유형은 갈등을 경쟁적 관계에서 힘의 논리나 폭력으로 해결하려하거나 자신의 욕구만을 생각하여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유형이다. 회피유형은 자신과 상대방 모두의 관심사를 무시하고 갈등상황을 회피함으로써 갈등해결을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유형이다.

모상현· 김영지 외(2010)의 연구에 따르면, 갈등해결전략으로서 협력전략은 77.7%의 청소년이 활용한다(대체로 그렇다+많이 그렇다+아주 많이 그렇다)고 응답했고, 양보전략은 53.4%의 청소년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전략과 지배전략은 각각 59.2%, 29.5%의 청소년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2-55> 갈등해결전략

구 분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많이 그렇다	아주 많이 그렇다
갈등해결전략(협력전략)	3.9	18.3	44.8	22.9	10.0
갈등해결전략(양보전략)	11.2	35.4	36.7	13.1	3.6
갈등해결전략(회피전략)	13.9	26.9	36.6	16.2	6.4
갈등해결전략(지배전략)	30.5	40.1	21.9	5.8	1.8

자료 : 모상현·김영지 외(2010).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 수준 연구 Ⅴ: 발달권, 참여권.

③ 관련 정책과 대안

청소년의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환경적 요인과 개인의 내부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먼저 환경적 요인으로는 부모양육의 방식, 의사소통, 그리고 친구관계 등이 주로 논의되고 있고,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공감능력이나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감 등이 주로 제시되고 있다.

결국, 청소년의 갈등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 스스로가 갈등을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교육을 통해 청소년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정서조절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갈등상황에서 분노나 회피 혹은 지배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함으로써 갈등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서조절능력을 함양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부모와의 관계나 의사소통의 질 등도 청소년의 갈등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이라는 점에서 부모에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자녀가 합리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문화감수성 지수(타문화 수용능력 지수)

① 지표의 의미

문화감수성은 오감을 통해 문화를 수용하는 능력이고 하는 의미 이상으로 더욱 중요하고 본질적인 또 따른 심층적인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문화가 지니고 있어야 하는 두 가지 전제조건인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오감능력이 지니고 있어야 하는 철학적 조긴인 주체성 등이 문화적 감수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이 같은 조건하에서 최원기 외(2000)는 문화감수성을 신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다양한 문화적 자극들을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 입각하여 주체적으로 구성 및 수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문화는 민족성이나 종교 혹은 공통의 관심에 기초한 사회집단을 정의하는 관습이나 습관, 언어, 가치 세계관과 관련되어 있다. 문화적 동질성이 인간이 자아감이나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문화적 틀 내에서의 학습과 생활은 청소년의 발달의 중요한 영역이 된다. 만약 타문화에 대한 관용과 배려의 정도가 낮은 국가에서 생활하는 소수문화권의 청소년들은 발달권 뿐 만 아니라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The Aspen Institute(2004:7)는 청소년 영역과 사회변화영역에서의 인종적 불평등에 대한 연구가 유색인종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생산적인 발달의 장애와 그러한 발달을 증진하는 장벽들을 깊이있게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정도는 한 사회의 사회적 성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② 관련 통계와 현황

임지연 외(2009)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72.4%가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86.7%의 청소년들은 다른 나라의 문화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타문화를 존중하는 다문화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Ⅱ-2-56> 문화에 대한 가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문화에 관심이 많다	7.9	19.6	49.2	23.2
나는 다른 나라의 문화도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5.2	8.1	56.2	30.5

자료 : 임지연 외, 2009. 한국청소년지표조사Ⅳ(아동청소년 활동·문화지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울러 다문화감수성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인 외국인 이민 허용에 대한 청소년들이 견해를 보면, 외국인의 이민허용을 가능한 한 만이 해

야 한다는 의견이 47.9%로 나타나 약 절반에 이르는 청소년이 외국인의 이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2-57> 외국인 이민허용 정도

		절대 안된다	아주 약간만	어느 정도	가능한 많이	모르겠다
전체		2,781	7.2	21.2	47.9	15.4
성별	남자	1,412	8.8	20.6	45.6	14.8
	여자	1,369	5.6	21.8	50.2	16.1
교급	초4	849	9.3	24	42.9	15.1
	초5	931	6.6	20.1	49.5	15.3
	초6	1,001	6.1	19.8	50.5	15.9
권역	서울	473	6.8	20.5	48.4	16.7
	광역시	747	7.4	21.6	46.1	17.3
	시·군	1,561	7.3	21.2	48.6	14.2
가족 구성	양부모 가정	2,529	7.2	21.4	48	15.4
	한부모 가정	146	8.9	19.2	45.9	15.1
	조손가정	45	2.2	20	53.3	17.8
	기타	61	8.2	18	44.3	14.8
경제수준	상	1,147	6.6	20.4	48.6	17.7
	중	1,317	7.5	22	47.2	13.6
	하	228	7.9	22.4	48.2	15.4

자료 : 임지연 외, 2009. 한국청소년지표조사Ⅳ(아동청소년 활동·문화지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③ 관련 정책과 대안

문화감수성의 요인 중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과 주체성 및 독립의식의 고취를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인정 및 이해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닌 실질적인 측면에서 사회는 청소년 문화 전반의 다양성 확보와 강화에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이용시설에 있어서의 다양화, 청소년 문화의 다양화 등과 같이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루어진다면 각 개별

청소년들의 개성 및 주체성 발휘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그들의 문화감수성 전체가 결과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극대화될 것이기 때문이다(최원기 외, 2000).

또한 청소년의 문화감수성과 관계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상호 보완적이고 밀접한 연계성을 지닐 수 있도록 청소년 정책들간의 연계와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 청소년 정책간의 상호 조정을 통해 분절된 정책으로 인한 혼선과 불합리한 정책 이행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청소년 문화정책은 청소년 관련 다양한 제 정책과 유기적 관계속에서 계획되고 이행될 때 문화적 감수성 증진이라고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문화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양질의 문화적 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의 노력과 배려가 경주되어야 한다. 기존의 수련활동 위주의 청소년 정책을 문화감수성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 지도사 등 전문인의 양성과정에 문화감수성을 훈련시킬 수 있는 내용을 정책에 포함시키고 청소년의 문화생활을 위한 시설의 확충과 재정적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4) 직업적 발달

(1) 진로준비 기회

○ 월평균 진로교육 실시 시간 수

① 지표의 의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94)에 따르면에 따르면, 진로교육은 개인의 진로선택, 적응, 발달에 초점을 둔 교육으로 각 개인이 자기 자신과 일의 세계를 인식 및 탐색하여 자기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선택하고 선택한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취학 전부터 시작하여 평생동안 학교, 가정, 사회에서 가르치고, 지도하고, 도와주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긍정적인 학업효과와 직업교육의 효과는 학교중심의 진로발달 특별히 진로자문, 컴퓨터에 기

초한 진로가이드와 같은 교과중심의 개입의 결과이다. 이러한 학교중심의 진로발달은 높은 성적, 교사와의 더좋은 관계, 진로교육계획의 증가, 진로지식에 확대, 자존감의 향상, 자신에 대한 이해의 증가 그리고 진로선택의 주저함을 낮추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Hughes & Karp, 2004; Lapan, Gysber, & Sun, 1997). 학교중심의 진로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진로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성인으로의 이행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직업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② 관련 통계와 현황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진로관련 검사를 통한 진로교육(78.3%)' 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 도덕, 기술·가정 등 과목에서의 진로교육(61.6%)', '진로와 직업 과목수업을 통한 진로교육(55.2%)' 이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Ⅱ-2-58>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여부

구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진로와 직업과목 수업을 통한 진로교육	55.2	44.8
사회, 도덕, 기술·가정 등 과목에서의 진로교육	61.6	38.4
현장학습이나 견학을 통한 진로교육	49.3	50.7
상담선생님의 상담중심 진로교육	45.4	54.6
진로관련 검사(예: 적성검사, 흥미검사 등)를 통한 진로교육	78.3	21.7
인터넷 또는 동영상을 통한 진로교육	48.5	51.5
소집단 혹은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37.2	62.8
저명인사나 선배의 초청 강의	45.3	54.7
재량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47.2	52.8
진로관련 읽기자료를 통한 진로교육	48.6	51.4
방과 후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38.6	61.4

자료 : 최인재(2009). 2009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실태조사.

③ 관련 정책과 대안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진로교육 근거를 강화하였고, 고교 단계의 인문계·전문계 및 문·이과 선택 등 중요한 진로결정을 위한 탐색이 이루어지는

중학교 단계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로와 직업' 교과를 선택과목화하여 진로 관련 수업의 시수를 확보하였다. 교육과정 내 진로교육의 형식적 혹은 정태적 운영을 탈피하기 위해 현재의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을 통합한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을 제시하였다. 세부영역으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을 제시하여 학교 안팎의 공간, 방과후 및 주말, 방학 등의 시간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학교의 다양한 직업체험 및 진로탐색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청의 '지역자원목록' 제공을 명문화하였고,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 시스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교과 외 활동인 창의적 체험활동 뿐 아니라 독서활동, 방과후활동 등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및 진로활동을 지원하고자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체계적 누적 관리 시스템 구축하였다. 온라인 종합직업진로정보망(CareerNet)으로서 진로정보센터(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 운영 강화하였는데, 2010년 6월 현재, 커리어넷 회원 수는 약 41만 명 정도이고, 커리어넷 1일 평균 페이지뷰는 14만건 정도이다.

시도교육청은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상시 지원 및 관내 학교 학생들 대상의 정보 제공을 위하여 진로코디네이터(도우미) 선발 활용하고 있다. 중학생에 우선 제공 후 연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며, 지역사회인사 등 교육청별 선발 및 연수(30시간) 후 단위학교에 배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진로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진로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진로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진로교육은 기술·가정 등 특정 교과의 일부단원, 창의적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을 활용한 교과 외 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진로와 직업의 채택률이 5.5%에 불과하여 교과과정 편성차원에서 진로교육의 전달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뿐 만 아니라 진로와 직업의 담당교사도 수업시수가 부족한 교사가 활용되고 있어 교과과정 자체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진로교육 시수를 확대하고 진로교육 관련 전문교사를 양성하여 진로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두 번째로는 진로상담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이버 진로상담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이버 진로상담은 인프라 구축의 한계로 전체 학생의 2.2%만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이버 진로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내실있게 구축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표 Ⅱ-2-59> 진로교육 편성 및 운영현황

	영역/구성방식	운영현황(진로교육활용비율)
진로와 직업	고2,3학년 일반 선택보통교과 교양 과목군의 4단위	이수학생 수 : 49,529명(1,2,3학년 전체 중 3.5%, 2,3학년 중 5.5%)
기술·가정, 도덕, 사회 등 교과의 일부단원	·초 5·6년(실과): 주2회, 68시간 ·중고생(기술가정) : 주2-3회 68-102시간	중2 기술가정의 경우 산업의 이해, 진로의 선택과 직업윤리 등으로 삽입하고 있으나 비중이 낮음
재량활동	·초:주2회, 68시간 ·중고: 주3회, 102시간	중(25.3%), 일반계고(25.0%), 전문계고(19.3%)
특별활동	·초: 주1-2회, 30-68시간 ·중: 주2회, 68시간 ·고: 주2회, 12단위	·중학교(12.7%) ·일반계고(11.6%) ·전문계고(11.7%)

자료: 2007년 및 2008년 진로교육지료조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8년 교육통계연보

마지막으로 진로교육 담당 교원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현재는 교사양성 및 연수과정에서 진로교육이 다루어지는 비중과 수준이 매우 낮아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전반적인 의식과 준비정도가 취약한 상황이다. 즉, 진로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진로상담부장, 전문상담교사, 진로와 직업 과목 담당교사는 60시간 이상 진로 연수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원칙적으로 희망자에 한해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연수 참가 대상이 모호하며 연수 참가교사의 인력풀도 매우 낮다. 가령, 2008년 기준으로 60시간 현직 교육과정을 이수한 진로교육 업무 담당 또는 전담하는 인력은 초등학교 17.4%, 중학교 29.5%, 일반계고 37.6%, 그리고 전문계고 53.4%이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8; 김승보·방혜진, 2010 재인용). 따라서 교사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연수과정 등을 이용한 진료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

다.

○ 진로탐색기회의 충분성

① 지표의 의미

진로탐색은 진로발달 과정에서 진로인식, 진로계획과 함께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서 진로결정이나 진로발달을 목적으로 자기 자신과 직업세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인지적·행동적 활동을 의미한다(최동선, 2003; 김현철, 2005:87 재인용). 다시 말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찾아내기 위해 직접 자신과 직업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전개를 뜻한다(김현철, 2005:87). 직업세계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부족한 청소년에게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세계를 찾을 수 있도록 조력해 주는 진로탐색은 청소년의 직업능력의 개발을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과제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적성, 흥미 그리고 성격을 면밀히 분석하고 오늘날의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조력이 제공되어야 한다.

② 관련 통계와 현황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에 대해서 학생들이 일 년에 한번 또는 그 이상의 경험을 갖는다고 응답한 학교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박람회의 참여, 기업인 강연, 기업체 방문, 현장실습이 OECD 28개국 중에서 각각 24위, 21위, 26위, 25위로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관련 정책과 대안

아동청소년의 진로탐색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의 욕구에 맞게 체험에 바탕을 둔 직업탐색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진로박람회를 광역시도 수준에서 매년 개최하여 관내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표 Ⅱ-2-60> 학교에서의 진로경험

	직업박람회 (순위)	기업인강연 (순위)	기업체방문 (순위)	현장실습 (순위)
호주	946(2)	8684(3)	7893(12)	5710(7)
오스트리아	7396(10)	89.15(1)	9243(4)	5144(8)
벨기에	1750(27)	2483(28)	5847(24)	876(21)
캐나다	7941(7)	8737(2)	7421(17)	3538(13)
스위스	8290(5)	5406(20)	8515(7)	3046(14)
체코	7634(8)	7462(8)	8405(11)	2589(16)
독일	8940(4)	7888(7)	9452(1)	8245(5)
덴마크	7529(9)	8500(5)	9312(3)	9333(3)
스페인	5102(19)	5489(19)	7514(16)	140(28)
핀란드	6981(11)	8064(6)	9401(2)	9907(1)
프랑스	.	.	.	.
영국	9195(3)	8501(4)	8439(10)	9501(2)
그리스	6643(14)	3889(27)	7679(14)	141(27)
헝가리	3809(25)	5091(24)	7785(13)	497(24)
아일랜드	4359(22)	5163(22)	4336(27)	439(26)
아이슬란드	5089(21)	6454(13)	7194(18)	4408(12)
이탈리아	5832(17)	6234(15)	6674(20	1061(19)
일본	-	6336(14)	2716(28)	945(20
한국	3838(24)	518(21)	4410(26)	484(25)
룩셈베르크	5890(16)	6061(16)	8454(9)	4834(10)
멕시코	1768(26)	463(25)	5746(25)	623(23)
네덜란드	6929(12)	5745(17)	7155(19)	5072(9)
노르웨이	9756(1)	6899(11)	8485(8)	6907(6)
뉴질랜드	8022(6)	6999(10)	5871(23)	4551(11)
폴란드	.	.	.	.
포루투갈	6595(12	5606(18)	8551(6)	2011(17)
슬로바키아	4165(23)	651(12)	7552(15)	2688(15)
스웨덴	6095(15)	5095(23)	8730(5)	8461(22)
터키	5090(20)	4377(26)	6089(21)	814(22)
미국	5458(18)	7315(9)	6056(22)	1816(18)

자료 : 임언(2010). OECD 국가 진로교육 실태 비교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Working Paper 2009-2.

또한, 진로교육전문교사를 배치하여 진로탐색기회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선진국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진로교육 전담교사를 둔 학교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시행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별로 진로교육 전담교사를 배치하여 학교 내 다양한 활동 속에 진로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진로상담 서비스 및 진로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진로교육 만족정도

① 지표의 의미

진로선택은 한 개인에게 지대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가 어떤 직업과 진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능력발휘의 기회, 인간관계, 사회경제적 지위 심지어는 가치관과 인간관계, 사회경제적 지위 심지어는 가치관과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진로교육은 어려서부터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 현장에서는 개개인의 소질이나 적성, 특기 등을 고려한 진로교육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다. 초등학교에서는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중·고등학교에서는 치열한 입시교육에 의해 한편으로 밀려나 있으며 심지어는 정규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진로교육 시간조차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조덕주 외, 2005:34).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로교육에 대한 청소년의 주관적 평가는 진로교육의 현주소와 함께 그 개선점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지표가 된다.

② 관련 통계와 현황

중고등학생의 진로교육 만족정도를 보면, 보통이라는 의견이 40.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18.9%, 도움이 된다 13.9%,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2.7%, 그리고 매우 도움이 된다 4.1%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현재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진로교육이 도움이 된다(도움이 된다+매우 도움이 된다)의견이 18.0%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31.5%)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20.3%가 여자(15.5%)보다, 교급별로는 중학교(23%)가 전문계고(18.1%)나 일반계고(11.8%)보다 더 높았고, 학년별로는 고학년보다는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긍정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최인재, 2009).

<표 Ⅱ-2-61>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

구분		전혀 도움이 되지않음	도움이 되지않음	보통	도움됨	매우 도움이됨	무응답
전체		12.7	18.9	40.4	13.9	4.1	10
성별	남자	13	17.2	37.7	15.2	5.1	11.8
	여자	12.4	20.8	43.4	12.5	3	7.9
교급별	중학교	7.7	14.7	43	17.1	5.9	11.6
	일반계고	19.6	25.4	35.4	9.7	2.1	7.8
	전문계고	11.5	16.4	43.9	14.3	3.8	10.2
학력별	중1	5.9	9.9	41.8	20.6	8.5	13.3
	중2	9	17.1	43.5	14	3.5	13
	중3	8.3	16.8	43.5	17	5.9	8.5
	고1	12	18.3	42.7	14.2	3.3	9.5
	고2	14.6	23.2	39.8	11.3	3.1	8.1
	고3	25.5	26.6	30.9	7.6	1.2	8.1
거주지	서울	12.7	20.4	40.1	15.1	4.1	7.6
	광역시	12.4	18.2	40.7	14.3	3.5	10.9
	시·군	12.9	18.8	40.2	13.3	4.6	10.1

자료 : 최인재(2009). 2009 한국청소년 진로·직업실태조사.

③ 관련 정책과 대안

아동청소년의 진로교육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진로전문교사제 운영이나 진로교육시수 확대 등과 함께 학생들의 진로선택의 폭을 확대·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진로경로 다변화를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

문과, 이과 뿐 만 아니라 예체능 등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계열 확대 및 다양화하여 학생들의 잠재력과 능력을 키워주는 진로경로 및 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주요 교과목이 아닌 음악, 체육 등에서도 관심과 소질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수준별 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학생들이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관심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 외 기관과의 연계 방안 모색도 필요하며, 이

를 위해 시·도교육청이나 교과부 차원의 종합적인 연계방안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관심 갖는 분야 과목에 대한 선택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해당 교과 교사가 대학선수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 직업능력

○ 진로성숙도 지수

① 지표의 의미

진로성숙의 개념은 1950년대 직업선택에 대한 발달이론가들에 의해서 발달된 개념으로 슈퍼(Super, 1953)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그는 진로성숙을 개인이 현재 보이고 있는 진로행동이 그 개인의 연령층에 기대되는 진로행동과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의해 평가되는 것으로 그 일치도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이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개인의 직업적 소양이나 가치, 지식, 기술 등의 습득을 통하여 직업 적성에 부합되는 행동과 판단력을 낳는 직업발달의 결과를 진로성숙으로 정의하기도 한다(김경화, 2008). 한국교육개발원(1992)에서는 진로성숙의 개념을 자아가의 이해,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기초로 하여 자기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동일연령이나 발달단계에 있는 집단의 발달과업 수행정도에서 차지하는 개인의 상대적 위치로 정의한다. 이 같은 진로성숙은 주로 진로선택 유형, 진로태도, 진로 능력 등의 지표로 구성되어 측정된다.

② 관련 통계와 현황

진로성숙도 지수와 유사한 지표로서 아동청소년의 진로직업역량 결과를 보면, 5점 만점에 자기이해 3.61점, 진로·직업 지식 3.21점 그리고 합리적 의사결정 3.80점이었다.

세부 항목별 비교에서는 합리적 의사결정의 '직업에 대하여 알아 볼때 그 직업이 나의 성격이나 흥미와 맞는가를 따져볼 것이다(M=3.98)'가 가장 높

은 응답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이 나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지 따져볼 것이다(M=3.97)', 자기이해의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M=3.8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가 원하는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M=3.05)',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그 직업의 전망 등에 대해 알고 있다(M=3.07)', '나는 여러 가지 직업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M=3.07)'는 다른 문항들에 비해 낮은 점수 분포를 나타냈다(최인재 외, 2009).

③ 관련 정책 및 대안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교 진로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진로교육의 내실화, 체험학습을 통한 진로교육의 강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한 진로교육 강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 진로상담 활동의 활성화, 개인별 진로개발 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체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교원의 진로교육 전문성을 신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초중등 및 고등교원의 자격 연수 및 일반연수프로그램에서 진로교육 내용을 강화하고, 전 교원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며 진로교육 관련 사이버 연수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한 전문상담교사의 진로지도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진로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및 지역단위로 진로교육 연계체제를 실질화하고, 중앙 및 지역의 진로정보센터 이용을 활성화해야 하며, 시도교육청의 진로교육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표 Ⅱ-2-62> 진로직업역량

문 항	평균	표준편차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3.37	1.046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3.82	0.917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선택의 조건(명예, 보수, 봉사 등)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3.66	0.92
내 성격에 어울리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3.41	1.045
자기이해 전체	3.61	0.91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3.24	0.994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그 직업의 전망 등에 대해 알고 있다	3.07	1.001
나는 여러 가지 직업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3.07	1.015
나는 나에게 맞는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알고 있다	3.12	1.012
내가 원하는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3.05	1.047
내가 관심을 가지는 직업의 특성(예: 일의내용, 수입, 근무환경 등)에 대해 알고 있다	3.19	1.019
내가 원하는 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알고 있다	3.34	1.076
진로 직업지식 전체	3.21	0.935
여러 직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해 본 후에 내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	3.74	0.967
진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생각할 것이다	3.6	0.958
내가 처한 현실(가정환경,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	3.44	1.009
직업에 대한 지식과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게 맞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3.81	0.872
직업에 대하여 알아 볼 때 그 직업이 나의 성격이나 흥미와 맞는가를 따져볼 것이다	3.98	0.889
관심 있는 직업이 나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지 따져볼 것이다	3.97	0.88
내가 갖고 싶은 직업에서 요구하는 학력이나 자격을 갖출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3.7	0.874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한 후에 결정할 것이다	3.79	0.91
구체적인 진로를 선택하기에 앞서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할 것이다	3.79	0.867
진로결정에 관하여 가족갈등이 생겼을 때 잘 타협하여 결정할 것이다	3.7	0.965
합리적 의사결정 전체	3.80	0.800
진로직업역량 전체	3.56	0.745

자료 : 최인재 외(2009). 한국 청소년 지표조사Ⅳ: 청소년 진로직업지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 신체적 발달

(1) 신체발달기회

○ 청소년 주당 평균 운동시간

① 지표의 의미

아동청소년기이 체력은 신체적 발달 뿐 만 아니라 정신작용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중추신경계의 질적 발달을 의미한다는 차원에서 인지적, 정신적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규칙적인 운동을 계속하면 근육, 뇌, 신경, 폐, 심장, 순환계 등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며, 뼈와 근육에 적당한 자극을 줌으로써 키, 몸무게, 가슴둘레 등의 성장발달에 큰 도움이 된다. 운동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뿐 만 아니라 학업으로 인한 과다한 스트레스의 긴장과 불안을 분출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체력과 체격의 기초가 완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튼튼한 몸의 관리와 함께(Malina, 1994; Beunen et al, 1983; Heald, 1996; Houtkooper et al, 1989; 이혜진, 2004:1266 재인용) 규칙적인 운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② 관련 통계 및 현황

임희진과 김현철(2009)의 연구에 따르면, 30분 이상 운동횟수가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인 초등학생은 30.6%였고, 중고등학생은 30.4%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한번도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은 각각 16.0%와 40.8%로 나타나 중고등학생보다는 초등학생의 운동빈도가 더 높았다. 성별로는 여자보다는 남자의 운동빈도가 많았다.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아동청소년은 초등학생이 17.1%, 중고등학생이 9.3%였다.

③ 관련 정책과 대안

아동청소년의 규칙적인 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규칙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허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게 운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이다.

<표 Ⅱ-2-63> 30분 이상 운동빈도

사례		사례	거의 하지 않는다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4회	일주일에 5-6회	매일
초등학생	전체	2,781	16	30.6	23	12.6	17.1
중고생	전체	6,369	40.8	30.4	13.8	5.5	9.3
초등학생	남자	1,412	13.9	26.5	21.1	15.8	21.7
	여자	1,369	18.2	34.8	25.1	9.3	12.4
중고생	남자	3,387	28.6	34	17.2	7.1	12.8
	여자	2,982	54.6	26.4	9.9	3.7	5.3
초등학생	초4	849	13.3	30.5	25.6	10.7	19.3
	초5	931	14	30.4	22.1	15.1	17.6
	초6	1,001	20.2	30.9	21.8	11.8	14.8
중고생	중1	975	31.9	31.2	18.7	9	8.9
	중2	875	34.2	28.7	17.7	6.3	12.7
	중3	920	39.6	28.8	16	5.3	10.2
	고1	1,265	40.4	31.8	12.1	5.1	10.4
	고2	1,218	44.5	32.8	11	4.7	6.9
	고3	1,116	51.2	28.1	9.6	3.3	7.7

자료 : 임희진·김현철(2009). 한국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

아울러, 규칙적인 운동을 위해서는 아동의 적성과 체력에 맞는 운동을 선택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교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학교라는 점에서, 학교라는 공간을 배제하고서는 아동청소년들이 규칙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갖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학생들이 건강한 운동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과정 속에서 체육이나 운동 등의 교과를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방과후에도 아동청소년이 규칙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과후 학교가 현행 교과 중심의 프로그램 뿐 만 아니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방과후 학교도 지역사회의 전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강사들에게 학생들의 교육비를 비롯한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 청소년의 1일 평균 수면시간

① 지표의 의미

규칙적인 일과는 아동의 건강한 행동적 사회적 발달에 유익하다. 규칙적인 일과는 아동들이 더욱 안정감을 느끼고 스스로에 대한 통제와, 독립심 그리고 결정기술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고 사회적 기술과 문제해결기술을 촉진할 뿐 만 아니라 자신감을 강화시킨다. 여기서 규칙적인 수면시간과 식사시간은 학업준비에도 역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규칙적인 수면시간은 아동들이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해준다. 여러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수면시간이 수면문제를 감소시키고 수면문제가 없는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서 초등학교에서 더 나은 학업성취를 보여준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일정한 수면시간의 부족은 정신건강문제를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Center For Child Health Research, 2005) 많은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무력감과 심한 감정 기복, 건망증 등의 정신적 질환과 만성적인 수면부족간의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논증되었다.

② 관련 통계와 현황

모상현· 김영지 외(2010)의 연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평일 평균 수면시간은 5시간에서 6간이 31.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시간에서 7시간 30.2%, 7시간에서 8시간 1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자보다는 남자의 수면시간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의 수면시간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2-64> 평일 평균수면시간

구 분		5시간 이하	5~6시간 정도	6~7시간 정도	7~8시간 정도	8~9시간 정도	9시간 이상
전 체		10.6	31.6	30.2	18.6	6.8	2.1
성별	남	9.7	28.4	30.1	20.8	8.3	2.7
	여	11.6	34.9	30.3	16.3	5.3	1.6
교급	중	4.1	15.5	34.5	30.8	12.1	3.0
	고	16.1	45.2	26.7	8.2	2.4	1.3
학업 성적	하	10.7	30.9	29.2	184	8.1	2.6
	중	10.6	31.5	29.9	19.2	6.5	2.3
	상	10.4	32.6	31.9	18.1	5.8	1.2
경제 수준	하	13.6	34.7	29.8	12.1	6.0	3.8
	중	10.2	31.8	30.3	19.0	6.9	1.9
	상	12.2	26.6	29.4	20.8	7.6	3.3

자료 : 모상현·김영지 외(2010).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 수준 연구 Ⅴ: 발달권, 참여권.

③ 관련 정책과 대안

청소년 수면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과중한 학습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성적 지상주의와 대학입시에 메몰된 학교교육의 특성상 청소년들에게 가중되는 학업부담은 상당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학생들은 부족한 수면시간으로 어려운 학업부담을 견뎌내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수면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적위주의 교육을 탈피한 전인적 교육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른 등교시간이 아동청소년의 부족한 수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등교시간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충분한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교시간을 30분 늦출 경우 하루 최소한 8시간 밤잠을 잔다는 학생의 비율이 약 16%에서 55%로 증가했고, 대신 낮에 잠을 잔다는 학생은 49%에서 20%로 줄었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방증한다.

청소년 수면부족의 제도외적 요인으로는 청소년 본인의 불합리한 시간관리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인터넷 중독이나 과도한 TV시청 등으로 인한 시간관리의 실패는 필연적으로 수면부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

서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간관리 능력을 향상시켜주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부모에게도 자녀의 시간관리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녀가 자신의 시간을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건강에 대한 관심

① 지표의 의미

건강을 개선해 나가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개인이 어떤 질환에 대해 주관적으로 지각한 민감성과 심각성 그리고 질병에 관한 위협, 건강행위를 함으로써 예측되는 이점, 그 외 적절한 건강행위가 일어나도록 촉진하는 행동의 계기 등이다. 그래서 건강한 생활습관은 건강에 대한 민감성, 즉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다. 브레슬로우 외(Breslow, 1972)의 시계열 연구가 규명한 바와 같이, 건강관심도가 결정되면 이 건강관심도가 건강행위를 결정하고, 결정된 건강행위는 건강상태를 결정한다. 여기서 건강행위는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키기 위해 행하는 행위로 목표지향적 활동이며 다차원적이고 개인적 성향을 가져 자발적이고 예방적이므로 행위예측을 위해 중요한 가치를 지닌 개념이다. 결국, 건강상태와 건강행위는 모두 건강관심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② 관련 현황과 통계

모상현· 김영지 외(2010)의 연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절반이 넘는 50.6%가 스스로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보통이다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건강에 관심이 많다 28.5%, 매우 관심이 많다 10.2%, 관심이 없는 편이다 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더 많았고, 학업성적과 경제수준에서는 하층보다는 상층일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2-65>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

구 분		전혀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는 편이다	보통 이다	관심이 많다	매우 관심이 많다
전 체		1.7	9.0	50.6	28.5	10.2
성별	남	1.9	7.8	44.9	32.1	13.3
	여	1.4	10.3	56.4	24.8	7.1
교급	중	1.7	8.5	50.4	28.6	10.8
	고	1.6	9.4	50.7	28.5	9.7
학업 성적	하	2.4	10.7	51.3	25.9	7.9
	중	1.2	8.0	53.7	27.7	9.4
	상	1.4	8.3	44.9	33.2	12.2
경제 수준	하	3.5	12.3	43.4	28.8	12.1
	중	1.4	9.1	52.2	27.9	9.4
	상	2.8	5.1	41.7	34.0	16.4

자료 : 모상현·김영지 외(2010).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 수준 연구 Ⅴ: 발달권, 참여권.

③ 관련 정책과 대안

청소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생건강증진대책에서 구체화되어 있다. 학생건강증진대책은 2007년에서 발표되었고, 2011년까지 5년간 시행할 학교보건 및 급식분야 11개 추진과제, 학교체육분야 6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청소년백서, 2009).

아울러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학생건강증진대책을 시달하고, 매년 말 이행상황을 점검 평가 한다. 학생건강증진대책에서는 2006년 3월에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초중고등학교 매점이나 자판기에서 탄산음료를 판매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 급식에 포함된 영양성분의 정확한 양이 표시하고, 2010년에는 학교건강 환경평가제를 도입하여 교실내 공기질, 식수, 소음, 새학교증후군 등 학교환경을 평가하며, 점심식사 후 이닦기와 1일 8회 30초 손씻기 운동을 학교에서 전개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2011년까지 학생 비만율을 15%로, 흡연률을 5%로, 음주율을 7%로 줄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청소년백서, 2009).

한편, 청소년 건강에 관심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와 지역

사회가 청소년의 주변 환경을 건강하게 조성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들에게 건강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청소년에게 건강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올바른 정보를 전달함으로서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도 보건소와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 건강에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소년 스스로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2) 신체적 능력

신체적 능력은 50m 달리기, 근지구력, 순발력, 심폐지구력으로 관련 지표의 의미와 통계 및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대안은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하여 제시한다. 전술한 신체적 능력은 신체적 발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상호연관되어 있어 각 지표들마다 개별적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관련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 50m 달리기

① 지표의 의미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전이나 생활습관, 환경, 개인적 특성, 신체활동, 체력 등 다양하다. 특히, 신체활동과 체력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신체활동을 통하여 적절한 체력을 유지·증진 시킬 수 있으며 이는 신체적 건강 뿐 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포함하여 청소년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즉, 신체활동을 통한 적절한 체력의 증진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의 기초가 되며 청소년기의 활력적인 생활을 가능케 하고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 심장질환, 비만, 고혈압, 제 2형 당뇨병, 골다공증, 뇌졸중, 우울증, 암과 같은 많은 생활습관병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② 관련 현황과 통계

2008년 현재 초등학생의 50m 달리기의 속도는 9.5초에서 10.4초대였다. 중

학생은 초등학생보다는 빠른 8.1초에서 10.1초를 기록했다. 고등학생은 7.9에서 10.3초대의 기록을 보였다.

<표 Ⅱ-2-66> 성별/연령별 50m 달리기

(단위 : 초)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5	9.8	10.2	9.4	10.1	8.7	9.8	8.3	9.9	8.1	9.9	7.8	9.9	7.7	9.9	7.8	10.2
2006	10.1	10.5	9.5	10.2	8.8	10	8.4	10.1	8.1	10.2	7.8	10.1	7.8	10.3	7.9	10.5
2007	9.9	10.5	9.5	10.3	8.8	10.1	8.4	10.2	8.1	10.3	7.9	10.1	7.8	10.1	8.1	10.4
2008	9.9	10.4	9.5	10.4	8.9	9.9	8.4	10.1	8.1	10.1	7.9	10.2	8	10.1	8	10.3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연도

○ 근지구력

① 지표의 의미

근력은 근육의 부하에 대응하여 발휘할 수 있는 힘을 말하며 근지구력은 근력을 발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으로 물건들기, 걷기 및 달리기 등의 능력을 가름하는 체력요소이다. 현대에 와서 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근지구력에 대한 검사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박상호, 2005). 근력과 근지구력이 우수하려면 운선 근육계와 신경계에 이상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 계통의 기능이 뛰어나야 한다. 근지구력의 측정종목은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턱걸이, 철봉매달리기 등이다(구정환, 2005:58~59).

② 관련 현황과 통계

근지구력은 주로 팔굽혀펴기와 팔굽혀 매달리기로 측정된다. 2008년 현재 남자의 팔굽혀펴기는 분당 30회이고, 여자의 팔굽혀 매달리기는 5.88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근지구력 실태는 2000년에 비해 남녀 모두 점차적으로 약화되었다.

<표 Ⅱ-2-67> 종목별 신체능력검사 결과(‘00~’08)

년 도 / 종 목	2008	2007		2006		2000	
			차이		차이		차이
50m달리기(초)	9.39	9.41	-0.02	9.39	0	9.22	0.17
팔굽혀펴기(남)/(회)	30.00	29.5	0.5	30.67	-0.67	31.27	-1.27
팔굽혀매달리기(여)/(초)	5.88	5.77	0.11	5.62	0.26	8.63	-2.75
윗몸일으키기(회/분당)	34.00	33.75	0.25	33.88	0.12	35.44	-1.44
제자리멀리뛰기(cm)	174.06	172.85	1.21	173.37	0.69	180.65	-6.59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cm)	12.72	12.83	-0.11	13.28	-0.56	13.84	-1.12
오래달리기-걷기(분:초)	8.09	8.12	-0.03	8.02	0.07	7.32	0.37

다음으로 윗몸일으키기는 2008년 현재 초등학생이 분당 25.2회~35.8회이고, 중학생이 26.4회~43.0회였다. 마지막으로 고등학생은 29.2회~47.1회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윗몸일으키기는 학년이 높을수록 그 횟수가 많았고,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더 많았다.

<표 Ⅱ-2-68> 윗몸일으키기

(단위 : 회)

	초5		총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5	32.5	24.9	36.1	26.9	38.7	27.1	41.6	28.1	43.6	28.1	45.2	29.3	46.5	30.3	46.1	30.3
2006	32.1	24.2	35.3	26.1	37.9	27.1	41	27.4	42.8	28.1	44.3	29.1	45.4	29.8	44.9	28.3
2007	31.9	24.1	35.7	26.1	38.4	26.4	40.1	26.2	42.9	27	44.6	28	46	29.1	44.5	28.6
2008	31.9	25.3	35.8	25.8	38	26.4	40.8	27.6	43	28.3	45.6	29.2	47.1	29.9	44.4	29.3

○ 순발력

① 지표의 의미

짧은 시간에 효율적인 근수축을 바탕으로 고강도의 운동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무산소성 운동능력의 측정방법에는 제자리 높이뛰기 및

30m 달리기를 비롯한 간편한 방법에 의한 현장테스트와 Quebec10초 테스트, 윈게이트 테스트, 마가리아 칼라먼 파워테스트, 산소부채 테스트 등과 같은 실험실테스트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김기진, 2003:1634). 무산소성 시스템중 순발력은 운동능력과 관련된 중요한 체력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순발력을 단순하게 정의하면 단위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운동량 즉 동적상태에서 발휘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순발력을 측정하기 위한 체력검사의 항목들은 주로 30m달리기, 제자리높이뛰기, 수직뛰기, 제자리멀리뛰기, 계단뛰기, 핸도볼공 던지 등이 주로 활용된다.

② 관련 현황과 통계

제자리 멀리뛰기는 2008년 현재 초등학생이 140.4㎠~163.7㎠였고, 중학생이 148.3㎠~209.2㎠였다. 고등학생은 156.4㎠~226.2㎠였다. 전반적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더 많이 뛰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더 많이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2-69> 제자리 멀리뛰기

(단위 :㎠)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5	153.8	138.9	166	144.8	185.1	151.8	200.3	155.3	213.3	158.4	221.4	158.1	228	162	232	161.4
2006	152.9	136.8	165	141.7	181.9	149.7	196.4	151.8	207.3	154	219.1	157	224.1	156	226	154.1
2007	151.8	136	163.9	139.8	180.8	149.9	195.8	151.7	207.5	153.9	216.9	156.9	223.4	159.4	222.8	155.4
2008	155	140.4	163.7	141.3	183.2	148.3	196.9	151.5	209.2	155.3	219.3	156.4	224.4	156.6	226.2	157.2

○ 심폐지구력

① 지표의 의미

심폐지구력은 활동에 필요한 영양물질과 산소를 각 신체조직에 공급하는 심장과 폐, 그리고 혈관의 능력을 말한다. 운동이나 작업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심폐지구력은 전신지구력이라고 한다, 전신지

구력은 건강관련 체력 중 가장 중요한 체력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신지구력의 평가는 최대산소섭취량에 의해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최대산소섭취량(mg/kg/min)일나 인체가 운동하는 중에 단위 시간당 섭취할 수 있는 최대산소의 양을 의미한다. 전신지구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12분 달리기, 1,500m 달리기, 3,200m 걷기 등이 있다(구정모, 2005:58).

심폐지구력이 우수하다는 것은 심장근육 자체의 기능이 좋다는 뜻 이외에도 근세포로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해 주는 심폐기능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여 근육세포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학생체력검사제도 개선 연구, 1993; 박상호, 2005 재인용).

② 관련 현황과 통계

심폐지구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체력검정 방법으로서 오래달리기는 초등학생의 경우 6분 26초~7분이었고, 중학생은 8분 22초~9분 43초였다. 고등학생은 8분 07초에서 8분 42초였다.

<표 Ⅱ-2-70> 오래달리기

(단위 : 분, 초)

	초5		총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5	6.07	6.3	5.5	6.24	9.22	8.00	8.57	7.56	8.27	7.56	8.07	8.00	8.04	7.56	8.10	8.25
2006	6.14	6.45	6.02	6.36	9.36	8.29	9.10	8.26	8.48	8.3	8.16	8.10	8.17	8.13	8.28	8.37
2007	6.27	7.06	6.15	6.57	9.49	8.26	9.20	8.36	9.07	8.36	8.29	8.14	8.20	8.19	8.37	8.36
2008	6.26	6.55	6.14	7.00	9.43	8.3	9.17	8.22	8.54	8.26	8.28	8.07	8.20	8.17	8.40	8.42

주. 초등학교 1,000m, 중고여자 1,200m, 중고남자 1,600m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연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신체능력검사 2008년의 결과를 2000년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50m달리기, 오래달리기및걷기,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의 모든 종목에서 2008년 기록이 저조해 아동청

소년들의 기본 체력이 과거에 비해 저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자의 제자리멀리뛰기,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와 여자의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펴기를 제외한 항목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에서 기록이 저하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입시준비에 따른 학업 증가로 신체활동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아동청소년백서, 2009).

③ 관련 정책과 대안

2009년부터 초·중·고 체력검사가 운동능력검사 방식에서 심폐지구력, 유연성, 비만 등 건강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 3학년까지이던 검사대상도 초등 1학년부터 고 3학년까지로 확대되었다. 새로 도입된 건강체력평가는 학생들의 건강도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운동 처방을 내리게 된다. 이를 위해 심폐지구력, 유연성, 근력·근지구력, 순발력, 체지방 등을 검사하게 된다.

구체적 검사종목으로는 현행 50m 달리기, 오래달리기 걷기(초등생은 1000m, 중·고 남학생은 1600m, 중·고 여학생은 1200m), 제자리 멀리뛰기, 팔굽혀펴기(중·고 남학생) 및 팔굽혀 매달리기(중·고 여학생), 윗몸 일으키기,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등 6개에서 왕복 오래 달리기, 오래 달리기 걷기, 스텝(발 움직임)검사,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종합 유연성검사, 팔굽혀 펴기(남) 및 무릎대고 팔굽혀펴기(여), 윗몸말아 올리기, 악력, 50m 달리기, 제자리 멀리 뛰기, 체지방률, 체질량지수 등 12개로 바뀐다. 학생들은 이 가운데 자신의 체력 상태에 맞게 5개를 고르게 된다.

12개 필수평가 종목 외에도 ① 근육량, 지방량, 체지방률 등을 측정하는 비만평가 , ②심폐능력 정밀평가 ③ 설문지로 자신의 신체 상태를 체크해 보는 자기신체평가, ④ 자세 이상, 신체 뒤틀림 등을 평가하는 자세평가도 새롭게 도입된다.

신체발달은 심신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바람직한 사회적, 정서적 태도를 육성하는데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경험론의 창시자 로크가 신체의 발달이 정신과 도덕 발달의 기본이라는 믿음(임태평, 2002)을 가졌듯이,

신체건강의 중요성은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자리잡아왔다. 그러나 최근 학력위주의 교육풍토가 지속되면서 학생들의 신체를 통한 교육의 중요성은 위축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적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현 주소에서, 신체의 발달과 교육적 성과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

<표 Ⅱ-2-71> (현행)학생신체능력검사와 (개정)학생건강체력평가 비교

구분	현행(학생신체능력검사)	개정(학생건강체력평가)
적용 학년	초5~고3	초4~고3 ※ 초5~고3(의무/필수), 초4(선택) ※ ('09)초등학교 → ('10)중학교 → ('11)고등학교
특징	운동기능체력 위주 : 순발력, 스피드, 민첩성등 ※ 운동선수 조기선발에 초점	건강관련체력 위주 : 심폐지구력, 근력·근지구력, 유연성, 체지방조절력등 ※ 학생개인의 건강체력 측정 중심
종목	▸ 6개 종목(고정형) ① 50m 달리기 ② 제자리멀리뛰기 ③오래달리기-걷기 *1600(1200)m ④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⑤ 윗몸일으키기 ⑥ 팔굽혀펴기(오래매달리기) ※ 괄호 안은 여자 종목	<필수평가> ▸ 5개 체력요인 5종목(12개 종목중 선택형) <심폐지구력> ① 왕복오래달리기(페이서) ② 오래달리기-걷기 *1600(1200)m ③ 스텝검사 <유연성> ④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⑤ 종합유연성검사 <근력·근지구력> ⑥ (무릎대고)팔굽혀펴기 ⑦ 윗몸말아올리기 ⑧ 악력검사 <순발력> ⑨ 50m 달리기 ⑩ 제자리멀리뛰기 <체지방> ⑪ 체질량지수(BMI) ⑫ 체지방량 ※ 밑줄 : 새로 추가된 종목 <선택평가> ① 비만평가 ② 심폐지구력정밀평가 ③ 자기신체평가 ④ 자세평가
등급 (점수)	1~5급(종목별 5점, 총점 초 25점, 중·고 30점)	1~5등급(종목별 20점, 총점 100점) ※ 신체활동 성취동기 유발
측정	초시계, 줄자 등을 사용한 분, 초, 횟수 등 단순측정	다양한 IT기술 적용 측정도구 사용
활용	검사결과가 단순 기록·보관(1회적)되고, 운동처방 등 후속 조치 미흡 - 건강기록부에 기록되고 학생·학부모에게 통지·활용도 낮음	자신의 건강체력 정보의 누가적 관리 및 운동처방을 받음 -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건강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웹기반으로 구축 비만 학생의 선별 및 관리 선택평가 있음

3. 아동·청소년 발달권 정책제언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강과 신체적 안정, 양육환경의 적절성, 지적능력과 다른 능력들의 완전한 개발, 정서적 안정과 정신적 건강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장 단계별 정책과제를 세분화하고, 해당 시기의 정책과제 이행여부에 대한 정책적 평가와 환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발달이 성장과정에서 발현되는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으로 이해된다면, 발달권은 이 같은 성장과정에서 국가의 정책적 과제가 어느정도 실현되고 있고, 권리의 당사자인 아동청소년은 이 같은 권리를 어느정도 향유하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발달권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은 아동청소년이라고 하는 시기적 특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이 시기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국가의 정책적 과제 그리고 현제 아동과 청소년이 국가의 정책적 과제로부터 그 권리를 어느정도 보장받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과정을 거친다.

김윤정(1998)은 아동전문가를 대상으로 발달단계별 권리의 유형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연령과 발달상의 특징에 따라 각각의 단계에서 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상이한 권리를 유형화하였다. 그에 따르면, 먼저 영유아기는 발달특성상 신체적, 정서적인 성장이 두드러지고 부모와 양육자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자라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습관과 활동 등을 습득하게 되고 신체 및 지적인 성숙에 기초하여 여러 가지 놀이와 표현활동이 발달되어 가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발달상의 특성에 따라 영유아기에는 건강과 의료, 위생적인 양육환경에 대한 권리, 놀이를 위한 장난감, 시설 등을 제공받고 충분히 놀 수 있는 권리, 생활습관을 교육받을 권리, 부모에 의한 양육과 가정에서 성장할 권리가 강조된다.

다음으로 아동기는 신체적 발달이 비교적 완만히 진행되며 발달의 속도가 점차적으로 안정성을 보이는 시기로 이 시기는 운동기능이 발달하고 놀이에 열중하며 지식을 추구하는 시기이다. 또한 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사회생활

을 경험하게 되며, 부모보다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점차 중요해지는 시기이다. 따라서 아동기는 건강한 발달과 교육을 위한 생활조건을 제공받을 권리,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고, 여러 가지 활동을 선택해서 참여할 권리, 휴식·놀이·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교통안전에 대한 권리가 강조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정신적 성장의 시기이며, 신체적으로 성인과 거의 동일해지고 성적으로 성숙하며, 사고가 발달하는 시기이다. 정체성을 확립고하 하는 욕구가 강하고 독립성이 강해지며, 미래 성인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이같은 청소년기의 특성상 이 시기에는 능력과 자질의 개발할 권리, 교육기회를 부여받고 교육에 대한 여러 사항을 선택하고 참여하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등의 시민적 자유와 권리가 강조된다.

모든 연령대의 아동에게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권리는 건강, 의료, 생존, 발달, 생활의 보장에 대한 권리, 휴식, 여가, 놀이, 문화적 생활에 대한 권리,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고 교육받을 권리, 아동의 의사존중과 표현의 권리, 비차별의 권리, 국적권, 위험한 물건, 물질, 시설 각종 폭력, 노동,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상황에 맞는 도움을 요청할 권리, 부모에 의해서 양육받고 가정에서 성장할 권리 등이다(김윤정, 1998).

이 같은 인간의 발달단계를 고려한다면, 아동청소년의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과 여가 그리고 문화적 권리의 향유가 강조되어야 한다. 교육은 단순한 제도교육만을 의미하지 않고, 가정내에서의 올바른 교육과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학습 그리고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존중 등을 포괄한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은 시작은 가정내에서의 부모자녀관계에 절대적인 지배를 받는 다는 점에서 부모자녀간의 긍정적인 관계형성과 올바른 의사소통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확대되어야 한다.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의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의 아동, 이를테면 다문화가정이나 장애아동 부양가족 혹은 빈곤 가족에 대한 물질적·미물질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물질적 지원 중심의 취약가정에

대한 지원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올바른 자녀양육에 필요한 부모교육을 비롯 부모와 자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포함한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지나친 입시스트레스로 인해 정서적 불안과 우울을 호소하는 아동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적위주의 교육방법을 개선하고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견인할 수 있는 전인적 교육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우울증이나 자살, 사회적 고립감, 정서적 불안 등 발달권의 중요한 지표들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고, 이 같은 요인은 주로 개성과 인성을 경시하는 현재의 입시중심의 교육에 기반한다. 아동청소년이 인지적 발달 뿐 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그리고 신체적으로 균등한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입시체제는 상당한 개선이 불가피하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의 발달권 보장은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동의 권리가 성인의 권리에 종속되지 않는 개별적 권리이자 주체적 권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단계에서 요구되는 정책을 세부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을 성인의 종속물로 이해하는 잘못된 문화적 태도와 정치적 영향력이 약한 아동청소년의 낮은 경제사회적 지위는 아동청소년 권리정책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환경이다. 이 같은 환경의 개선은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인권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 전환을 기초로 국가의 적극적 의무가 강제될 때 개선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을 법과 제도로 통해 강제할 수 있는 국가의 적극적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한편, 청소년 발달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로 청소년 발달권 지표를 청소년 발달 영역에 따라 구체화하고 범주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발달권의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할 뿐 만 아니라 발달권의 권리 유형도 체계적인 학술적 논의를 통해 도출된

개념이 아니다. 때문에 발달권의 측정을 위한 일부 지표들이 생존권이나 보호권 등의 여타 권리의 지표들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권리 혹은 인권실태에 대한 분석은 해당 권리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정의와 이 같은 정의에 기초한 권리내용의 명료화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발달권 현황에 대한 실태분석 이전에 발달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와 함께 발달권의 구체적 영역을 여러 과학적 논거를 토대로 범주화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청소년발달권 지표는 청소년의 단점과 문제행동보다는 긍정성과 장점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최근 청소년관련지표들은 여러 맥락을 중시하는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지표들이 청소년의 긍정적인 행동이나 사회의 영향을 평가하지 않고 청소년의 부정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정적인 행동을 강조할 경우 청소년 정책은 고위험 청소년들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과 오점을 제공하고 장기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장애를 줄 수 있다.

물론 청소년지표의 구성에 있 긍정적 측면 뿐 만 아니라 부정적 측면도 균형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긍정적 측면만을 강조할 경우 청소년의 현실적인 실태에 대한 분석이 소홀히 다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Kirby(2001)의 적절한 지적처럼, 문제중심의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동기부여와 능력을 제공하거나 문제행동의 복잡한 개인적 사회적 전제를 제시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알코올이나 약물남용, 10대의 임신과 폭력과 같은 사회문제를 감소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청소년발달권 지표는 청소년의 발달과정상의 문제행동과 단점을 지양하고 긍정성과 장점이 구체화될 수 있는 자료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는 청소년발달권 지표는 전체 청소년의 발달권에 대한 실태와 상황에 더하여 취약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청소년, 이주청소년, 미혼모, 혼혈청소년, 편모가정의 청소년 등의 발달상의 장벽과 장애의 현황과 실태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한 발달권의 전반적인 내용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 청소년에 대한 지표의 개발은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다루어져 왔지만 이들 소수청소년들에 대한 지표는 다른 지표의 개발에 비해 더딘 것이 현실

이고 이들 청소년의 실태를 평가해줄 전문적인 지표안도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1] 설사 장애인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지표가 논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체 장애인에 대한 논의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져 왔을 뿐 장애인청소년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적·연령적 관점이 동시에 투영되지는 못했다. 따라서 청소년발달권지표에서는 일반청소년을 중심으로 소수청소년을 주변화하지 않고 소수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권리상의 문제와 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세밀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발달권지표의 구성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주관적 지표의 구성은 엄격한 조사와 평가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객관적인 지표보다는 개인이 느끼거나 인식하고 있는 주관적 지표가 상황과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

1) 특수한 인구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권지표는 대부분 여성(김양희·윤혜미, 998)이나 노인(이가옥 외, 2000; 정경희, 2000; 정경희 외, 2002)에 집중되어 있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지표는 아직 개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인권을 포함한 장애인의 현황과 실태에 관한 자료는 현재 장애인인권백서가 전부라고 할 수 있다.

Ⅲ. 아동·청소년 참여권 주요 현황분석

1. 아동·청소년 참여권 정량지표 개관
2. 아동·청소년 참여권 정량지표 현황
3. 아동·청소년 참여권 정책제언

Ⅲ. 아동·청소년 참여권 주요 현황분석

1. 아동 · 청소년 참여권 정량지표 개관

UN에서는 1985년을 '세계 청소년의 해(International Youth Year)'로 선포하고 '참여(participation)', '발전(development)', '평화(peace)'를 주제로 선정하여 세계 청소년운동의 방향전환을 모색하였다. 또한 1988년 유럽각료회의에서 청소년정책의 기본조건으로 청소년 참여를 선택하고 '참여는 미래 사회를 형성하는 측면에서 청소년의 권리이며 의무이기도 하다'는 결론을 지어 청소년참여에 관해 현재 국제적인 합의에 도달한 상황이다(김윤수, 2004; 1). 뿐 만 아니라 1989년 UN총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청소년의 4가지 기본 권리, 즉, 생존권 · 보호권 · 발달권 · 참여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를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1991년 비준하여 협약당사국이 되었으며, 협약비준국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OECD 회원국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국제적 수준의 청소년 인권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강현아,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동안 청소년 집단의 권리를 인격과 권리의 주체가 아닌 미성숙한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인권이나 권리수준이 매우 미약하였다(정회욱 외, 2000). 최근에 문제시되었던 고교생 광화문 촛불시위, 두발제한에 대한 집단 반발, 학원폭력 등 파행적인 청소년 집단행동은 청소년들의 요구사항이나 정책에 대한 불만을 공식적이고 정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참여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문제에서부터 정책에 대한 비판,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관심 등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은 또다시 청소년들로 하여금 극단적인 집단행위를 표출하게 할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최창욱 외, 2006).

청소년의 참여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청소년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고 성인은 이런 청소년 의사를 최대한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은 발달특성상 자신의 주장, 가치관, 생각 등을 형성하기 시작하며, 책임있는 성인 시민으로서의 준비를 하는 시점에 있다. 과거에 비해 청소년의 참여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대폭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우리나라 입시위주의 교육여건, 보수적인 유교문화, 권위적 성인-청소년 관계 등을 생각해보면 청소년 참여권 조성환경은 그리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다(강현아, 2006).

이러한 사회풍토로 인하여 청소년들은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자율적인 경험을 가져보지 못했다. 그 결과,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청소년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가 무시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게 되고, 강자에 의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에도 그것에 대해 항의하고 교정하지 못하고 그냥 참아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확고히 자리 잡고 선진사회로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권리를 존중받고 누리를 경험을 가져야 하며, 남의 권리도 존중하는 습관과 태도의 형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 참여권의 보장이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다.

청소년참여는 사회발전을 위한 자원으로서 또는 사회변동의 주체로서 청소년의 역할과 기여를 기대한다. 청소년이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그리고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자율성을 갖는 독립된 존재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동시에 국가 발전에 참여해야 할 책임이 있다(김윤수, 2004; 4). 청소년들도 한 국가의 주권을 가진 시민일 뿐 만 아니라, 각자 자신의 이익과 권리 보호를 위해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동등하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으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

더군다나 청소년들은 참여 경험을 통해 사회내 자신의 위치와 역할 등을 익히며 정체성을 형성해가고 또 사회성, 대인관계 능력, 정치 사회화과정 등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반드시 부여되어야 할 발달과업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은 당연하며, 사회적 입장에서도 청소년 집단의 목소리와 역량들을 반영 · 흡수함

으로써 사회통합 및 발전의 폭을 넓히고 실질적인 민주체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최윤진, 2004; 1-2).

무엇보다도 참여권의 중요성은 우리나라 헌법을 포함하여 많은 나라의 헌법 및 국제권리 문서에 보장되어 있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참여권은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주도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며 그 속성상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청소년 참여권의 정당화 논의는 여타의 권리에 관한 정당화 논의보다 논리적으로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은 연령 등의 이유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양육"의 대상이며 성인보다 능력면에서 열등한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아동·청소년 참여권은 행위의 주체가 주로 양육자나 국가기관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과는 달리 가장 적극적인 인권의 영역이다. 참여권은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권리행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참여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참여민주주의에서의 참여는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을 참여라고 본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참여 중의 하나가 투표임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참여권에는 현재 근본적인 제약이 있다. 그러나 또한 우리나라청소년들이 온갖 UCC(User Created Contents)를 통해 창발적인 인터넷 환경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기성세대 세상에 참여하려는 욕구는 매우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a).

청소년과 사회의 변화양상을 간파한 유럽과 미주지역의 국가들은 20세기 후반부터 이미 청소년에 대한 문제중심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발전의 잠'재력을 지닌 집단으로 간주하면서 그간의 보호와 관리, 치료중심의 정책과 교육을 자율과 참여의 방향으로 획기적으로 전환시켜 왔다. 청소년을 더 이상 2급 시민이나 예비시민이 아닌 오늘의 주요시민으로 인식하면서 사회내에서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권리를 적극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최윤진, 2010).

박영균·최창욱(2006)은 아동·청소년 참여권을 '자신의 국가나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등이 포함된다고 정의했다. 아동권리협약에 나타난 참여권은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의미한다(Sherrod et al, 2006: 531). 또한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이루는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 즉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의 보장, 아동 차별금지의 원칙, 그리고 아동의 의견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동·청소년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일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 결정권(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과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등도 포함해야 한다(서문희 외, 2003;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pp. 36-39, 재인용).

이 연구는 참여권에 대한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생존권 관련 주요 지표를 선정하여 지표별 의미와 관련 통계 및 현황을 파악하고, 또한 해당 지표와 관련한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발전적 대안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지표와 관련된 연구는 1998년부터 2000년 동안 한국 아동권리학회에서 '2001 한국의 아동지표'라는 명칭으로 아동권리지표를 개발한 이래로 계속하여 수행되어져 왔다. 이후 2001년 한국청소년개발원 길은배, 이용교, 김영지(2001)에 의해 개발된 청소년의 인권지표(안) 연구, 200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아동권리지표, 2005년 한국 청소년개발원의 청소년인권실태 조사도구, 2006년 이용교 외의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 2006년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청소년 참여권 현황과 지표개발, 2009년 아동·청소년 권리지수개발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외국의 경우, 미국에서는 교육부 산하의 국립 교육통계센터(NCES)에서 매년 14세-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지표 개발하여 그 지표를 통해 매년 청소년 관련 통계를 산출하고 있으며, 1994년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의 휴즈센터(Hughes Conference Center)에서 개최한 아동지표 관련회의 이후 1997년에 범 기관적 아동 및 가족 통계연방포럼(Federal Interagency Forum on Child and Family Statistics)을 설립하여 아동복지 지표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또한 Child Watch International(CWI)는 국제적 수준에서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케임브리지대학 가족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아동권리지표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니카라과, 세네갈, 태국, 베트남, 짐바브웨의 5개 국가에서 아동권리지표 개발사업이 실시되었고 세네갈과 짐바브웨에서 개발된 아동권리지표가 웹에 공개되고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들과 2006년 청소년 참여권에 관한 인권지표개발의 연구내용을 토대로 지표내용들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2호: 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권[1]'의 '회원국가는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아동을 격려하고 자신의 의견표명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참조하여 보완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즉 가정, 학교,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청소년들에게 참여권이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한 교육의 기회 제공 등과 청소년의 참여권에 관한 인식 및 권리 증진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구상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참여권의 핵심 세부지표 항목을 선별하고 대표적인 정량지표 항목의 실태 및 현황을 분석하였다. 참여권의 핵심 세부지표항목 및 대표적 정량지표 항목 중 설문을 통해 알아낼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선정된 지표항목 들 중에서 관련 통계와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책실태 등을 분석할 수 있는 16개 지표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표 Ⅲ-1-1> 2010 아동·청소년 참여권 지표체계

관심 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항목	분석 대상
4-1. 자기	4-1-1. 종교 결정권	4-1-1-1. 청소년의 종교 자유에 대한 부모의 존중도	

1) 부록 1 참조

관심 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항목	분석 대상
결정권 (=청소년 의견 존중)과 사생활 보호		4-1-1-2. 종교재단별 설립 학교 수 및 재학생의 비율	✔
		4-1-1-3. 종교대체과목 개설 및 자유선택 허용비율	
	4-1-2. 가정사에 대한 결정권	4-1-2-1. 가정의 대소사 결정 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 존중 정도	
		4-1-2-2. 부모의 이혼 시 청소년의 부모선택권이 반영되는 사례 비율	✔
		4-1-2-3. 부모의 이혼 시 면접권 확보비율	
	4-1-3. 교육 및 진로 결정권	4-1-3-1. 상급학교 선택 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존중 정도	
		4-1-3-2. 진로선택 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존중 정도	
	4-1-4. 문화·여가 활동 결정권	4-1-4-1. 문화 및 여가활동 선택에 대한 부모의 청소년 의견 존중정도	✔
	4-1-5. 사생활에 대한 결정권	4-1-5-1.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4-1-5-2. 사생활의 자유와 적법절차의 권리	
4-2. 표현의 자유	4-2-1. 사적 취향의 표현	4-2-1-1. 두발 및 복장 자율화하는 학교의 비율	
		4-2-1-2. 부모의 청소년의 두발 및 복장에 대한 규제의 정도	✔
	4-2-2. 학교에서의 의견 표현	4-2-2-1. 교지 및 학교신문 발행하는 학교의 비율	
		4-2-2-2. 교내 징계 시 의사 소명권이 있는 학교의 비율	
		4-2-2-3. 학생으로서 의견 표명 정도	
	4-2-3. 매체를 통한 표현활동	4-2-3-1. 대중매체를 통한 표현활동	
		4-2-3-2. 인터넷 이용 표현활동	
	4-2-4. 청소년 발언권 존중정도	4-2-4-1. 청소년 의견에 대한 사회의 인식	
4-3. 집회·결사의 자유	4-3-1. 학교에서의 집회·결사	4-3-1-1. 교내 자치회가 있는 학교의 비율	✔
		4-3-1-2. 학생자치회에 참여한 학생의 비율	
	4-3-2. 학교밖에서의 집회·결사	4-3-2-1. 청소년 관련단체 가입 및 단체 활동에 대한 학교 규제 정도	
		4-3-2-2.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행동 경험	
		4-3-2-3.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정도	
4-4. 정보접근권 및	4-4-1. 도서에 대한 접근	4-4-1-1. 청소년 도서 발행비율	✔

관심 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항목	분석 대상
정보참여		4-4-1-2. 청소년 1인당 도서대출 현황	✔
	4-4-2. 인터넷에 대한 접근	4-4-2-1. 청소년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	✔
		4-4-2-2. 청소년 가구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한 비율	✔
		4-4-2-3. 일주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	✔
	4-4-3. 알권리	4-4-3-1. 청소년의 법적 권리안내 정도	
		4-4-3-2. 청소년 친화적 정보제공 정도	
4-5. 사회참여 및 참정권	4-5-1. 사회참여	4-5-1-1.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4-5-1-2. 부모나 학교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제재 정도	✔
		4-5-1-3. 청(소)년 실업률	✔
		4-5-1-4. 문화적 활동 참여현황	✔
		4-5-1-5. 청소년 정책참여 동아리 참여율	
		4-5-1-6. 청소년정책사업 결정과정 참여 정도	
	4-5-2. 학교에서의 참여	4-5-2-1. 학생 대표 피선출권을 제한하는 학교비율	
		4-5-2-2. 교칙 제·개정 학생 참여 허용 학교비율	
		4-5-2-3.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참여 보장하는 학교비율	
		4-5-2-4. 교육활동 결정과정 참여 정도	
	4-5-3. 참정권	4-5-3--1. 청소년의 선거참가율	✔
		4-5-3-2. 선거연령에 대한 인식/선거 참여 의향	
4-6. 참여관련 인식		4-6-0-1. 참여 의의와 필요성	
		4-6-0-2. 참여의 장애	
		4-6-0-3. 참여 효과	✔
		4-6-0-4. 참여 활성화 방안	
		4-6-0-5. 우리사회의 참여권 보장 수준	

2. 아동·청소년 참여권 정량지표 현황

본 절에서는 최종적으로 선정된 참여권의 대표 지표에 대해서 각 개별 지표의 의미, 지표관련 통계 및 현황, 그리고 각 지표와 관련한 정책과 대안 모색 등 3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은 표현의 권리(제12조), 표현의 자유(제13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제14조), 결사와 집회의 자유(제15조), 복지와 건강 향상을 위한 정보와 자료에의 접근권(제17조), 아동권리협약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권리(제42조)들과 관련된 항목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전체 지표들은 2006년 인권지표보고서의 참여권 내용과 2009년 아동·청소년권리지수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지표를 구성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1)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보호, 2) 표현의 자유, 3) 집회·결사의 자유, 4) 정보접근권 및 정보참여, 5) 사회참여 및 참정권, 6) 참여관련 인식 등의 하위영역 관련 지표를 구분하여 제시한다. 선정된 16개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 동일한 통계원이나 최근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였으며, 사례 등의 질적 자료들도 활용하였음을 밝혀둔다.

1)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보호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보장은 청소년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부모를 비롯한 성인들은 이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권리협약 제 12조(아동의 견해를 존중)는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가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

회가 국내법상 절차규칙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자기결정권과 관련되는 내용은 다른 선행지표연구에서는 따로 세부영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로 분류하여 부모 이혼 시, 아동 자신의 입양 시 의사 표명의 사례를 지표로 삼는 경우(한국아동권리학회, 2001), 교육 및 직업 선택에 있어서의 자기결정권의 내용도 덧붙여 포함한 경우(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등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권'세부관심영역을 결정권의 종류에 따라 종교에 대한 결정권, 가정사에 대한 결정권, 교육 및 진로에 관한 결정권, 문화 및 여가에 관한 결정권, 사생활에 대한 결정권 4가지로 구성하여 살펴보았다. 각 세부관심영역별 지표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종교결정권

종교결정권과 관련해서는 청소년의 종교 선택의 자유에 대한 부모의 존중도와 종교재단별 설립 학교의 수 및 재학생 비율 등을 살펴볼 수 있다.

① 지표의 의미

청소년의 종교 선택의 자유에 대한 부모의 존중도는 청소년이 자신의 종교를 선택함에 있어 부모는 청소년의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즉 부모의 종교와 상관없이 자신이 종교 선택권을 갖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종교재단별 설립 학교의 수 및 재학생 비율 등은 청소년들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재단에서 학교를 설립한 경우 사회에 대한 그 기여를 인정해주기 위한 차원에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는 종종 무시되고 재단의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표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② 관련 통계 및 현황

청소년의 종교 선택의 자유에 대한 부모의 존중도는 관련 연구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다. 최복경(2008)의 청소년의 참여 실태와 참여권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48.3%의 청소년들이 종교를 스스로 결정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 56.7%가 종교를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했다.

이 연구는 제천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2008년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모집단 11,118명 중 제천 시내 2개 중학교 학생과 1개 고등학교 학생 240명을 임의표집하여 최종 120부 통계처리한 내용이다. 종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았을 경우, 남자 청소년(35.6%)보다 여자 청소년(60.7%)이 종교를 스스로 결정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중학생(41.3%)보다는 고등학생(62.5%)이 또 종교를 스스로 결정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학습수준이 높은(64.9%) 경우 학습수준이 낮은(35.0%) 청소년보다 종교를 스스로 결정하는 경향이 높고 이러한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재단별 설립 학교의 수 및 재학생의 비율은 1,910개 고등학교 중 종교사학은 개신교 7.2%, 천주교 2.0%, 불교 0.8%, 기타 6.5%로 총 16.5%(315개교)나 됨을 알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전국 종립학교 현황' 2009년 4월 1일 기준). 이 자료로 판단한다면, 청소년의 종교 자기결정권에 대한 기본권 충돌이 일부 소수에게만 발생하는 것이라 치부해버리기에는 무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종립학교 내 학생의 종교의 자유에 관해 법원의 입장은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2005년 10월경 강의석군이 대광학원과 서울시 교육감 상대로 종교활동 강요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소 제기 후 4년을 넘겨 2010년 4월 22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배상책임을 부인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를 볼 수 있다. 이 판결은 학생의 의사에 반한 종교교육을 거부할 자유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대법원은 우선 '고교평준화 제도 자체는 합헌'이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합헌이라는 토대 위에 종교교육을 실시할 학교의 권리와, 학생이 누리는 종교의 자유 간에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하며, 비록 종립학교에 종교교육의 자유·사학의 자유가 있지만 학생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에 대한 기준으로 대법원은 '종교교육 분량과 비중', '학생들에 대한 사전설명과 동의절차 여부', '종교교육 거부나 대체과목 선택이 가능한지 여부', '종교교육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들었다. 이 모든 기준들을 고려해보았을 때, 지나치게 강요된 종교교육은 위법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다. 그리하여 종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학생 자신의 신앙과 무관하게 입학하게 된 학생들을 상대로 종교적 중립성이 유지된 보편적인 교양으로서의 종교교육의 범위를 넘어서서 학교의 설립이념이 된 특정의 종교교리를 전파하는 종파교육 형태의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종교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종교교육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학생들에게 그러한 종교교육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였는지 여부, 종교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나 학생들이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대체과목을 선택하거나 종교교육에 참여를 거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한 종교교육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기준을 근거로 대광고의 종교 교육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종교 행사에 불참한 학생에게 청소를 시키는 등 불이익을 줬고, 강의석군이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학교 정책에 변화가 없었으며,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았고, 학생들에게 사전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평준화 정책에 따라 자신의 신앙과 무관하게 종립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종교 교육 참여의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종립학교에서 종교교육 허용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자신의 신앙과 무관하게 종립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종교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지에 대한 첫 판례가 나온 것이다. 기준의 핵심은 '충분한 사전 설명과 학생의 동의 여부', '불이익 없이 자유롭게 대체 과목을 선택하거나 종교교육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다(자료출처: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식블로그 http://minbyun.org/blog/382).

③ 관련 정책과 대안 모색

종교의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가정에서의 청소년 종교자유 보장에 대한 부모의 존중도, 학교에서의 청소년 종교 보장 등에 관한 내용 및 실태를 위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이슈화되고 있는 학교에서의 청소년 종교 보장과 관련된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의 설립자 및 학교법인은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1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4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으로서 자신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할 자유를 가진다. 이러한 설립자나 학교법인이 가지는 사학 운영의 자유에는 설립자나 학교 법인의 종교적·세계관적 교육이념에 따라 교과과정을 자유롭게 형성할 자유가 당연히 포함되므로 종립학교에서 종교행사 및 종교과목 수업을 할 자유는 종교의 자유 뿐 만 아니라 사학의 자유라는 관점에서도 일반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교평준화 정책으로 학생들이 신앙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을 하지 못한 채 강제배정된 학교로 입학하게 되고, 종립학교가 그 학생들을 상대로 자유로운 참가를 보장하지 아니하며 종교적 중립성이 유지된 보편적인 교양으로서의 종교교육의 범위를 넘어서서 학교의 설립이념이 된 특정의 종교교리를 전파하는 이른바 '종파교육' 형태의 종교교육을 실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특정 종교와 다른 종교를 가지거나 종교를 가지지 아니한 학생들은 자신들이 이를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종교교육에 강제로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고 전학을 가는 등의 특별한 조치 없이는 이를 면할 길이 없다. 또 종교교육에 참여한 후에도 그 특정 종교를 신앙으로 가진 학생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

종립학교와 학생의 기본권 모두 일정 한도에서 제한이 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을 할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인 학생들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인 반면 학생의 종교교육을 거부할 자유는 소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인 점,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이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주입되는 방식으로 행하여진다면 그 자체로 교육 본연의 목적을 벗어났다고 볼 소지가 높은 점, 그로 인하여 학생이 입게 되는 피해는 지속적이고 치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들을 고려한다면 종립학교와 학생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학생의 법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

한편 가정에서의 청소년의 종교 자기결정권은 문제는 아직 우리 사회에 좀 이른 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종교에 대한 결정권은 종교, 사상, 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권의 종류이며 종교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자유권이다. 따라서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부모의 종교를 강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청소년의 결정권을 보장해주는 환경을 갖추는 방향으로 부모의 역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2) 가정사에 대한 결정권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청소년의 참여권보장을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하고 가정에서의 대소사에 대해 가족구성원으로서 참여하는 것은 청소년 자기결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또 최근 United Nations Centre for Social Development and Humanitarian Affairs는 가정이라는 곳은 곧 사회의 중심이며 가장 작은 민주주의를 건설해야 하는 곳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가정이 개개인의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유엔의 정신과 가치관을 새로이 펼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Hodgkin & Newell, 2002;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p. 84 재인용).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가정에서의 자녀의 자기결정권을 부모에 대응하는 권리로 보고 가정에서의 청소년의 권리도 주로 보호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① 지표의 의미

여기에서는 부모의 이혼 시 청소년의 부모선택권이 반영되는 사례 비율을 살펴보았다. 이는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 최근의 한국사회 경향을 감안할 때, 많은 수의 청소년이 부모의 이혼과 동시에 어느 한쪽 부모와 분리되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이 지표는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이 얼마나 보장되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② 관련 통계 및 현황

부모의 이혼 시 청소년의 부모선택권이 반영되는 사례 비율은 이종희(2001)의 연구자료를 통해 그 통계 및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수집한 재판이혼 판례는 총 26건으로 이들 판례에 제시된 아동의 수는 총 38명이었으며, 그 중 15세 미만 아동이 33명, 15세 이상 아동이 5명이었다. 한편 아동의 의사가 반영된 판례의 수는 모두 4건으로 9세(남아), 13세(여아), 14세(여아), 17세(남아) 아동의 의사가 반영되었다. 아동의 의사가 반영되는 연령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가사소송규칙에 15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판례를 살펴보면, 1994년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이혼시 양육자 지정 사건(94르545)에서는 만9세 남아의 의사가 반영되었으며, 같은 해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이혼시 양육자 지정사건(94르927)에서도 만13세 여아의 의사가 반영되었다.

1995년에는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이혼시 양육자 지정 사건(94르2565)에서 만14세 여아의 의사가 반영되어 15세 미만의 아동도 양육자 지정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유미(1995)에 의하면, 법관의 재량으로 아동 개개인의 연령이나 성숙도, 의사형성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8세 아동의 의사를 반영한 사례(서울가정법원, 1994. 12. 9, 92드38724)도 있다. 실제로 15세 미만 아동의 의사가 가사소송규칙과는 관계없이 양육자 지정 사건에서 고려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동의 연령과 그에 따른 의사표명능력에 대한 판단이 법관의 재량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법은 명문화된 양육자 지정 기준보다 더 많은 기준들을 실제에 적용하고 있었으며, 양육자 지정 기준의 하나인 아동의 의사역시 법에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법관의 재량에 의해 아동의 의사를 반영한 예가 몇몇 판례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아동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연령이 법으로는 15세 이상이지만 15세 미만 아동의 의사가 반영된 판례도 그 수가 매우 적지만 찾아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결과들은 우리나라 법원이 제한적이나마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매우 고무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아동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따른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아동은 발달상 성인과는 다른 인지적 수준과 정서상태를 지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아동발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아동과의 의사소통 기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③ 관련 정책과 대안 모색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이혼시 자녀의 양육권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협의를 바탕으로 부여되며, 그에 대한 협정이 없어 법원에 그 사항을 정할 것을 청구한 때에는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녀의 복지를 고려하여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결정해야 한다. 가정법원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결정할 시 자녀의 연령이 15세 이상인 때는 법원의 심판에 앞서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가사소송규칙 99조, 100조). 그러나 이와같이 연령의 한계를 둠으로써 15세 미만 자녀들의 의사표현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UN 아동권리협약 제12조의 아동의 의사표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15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판단능력과 책임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혼이 진행되거나 숙려되는 기간내에 당사자들이 자녀를 위한 보호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한다는 점이다.

(3) 문화 및 여가활동 결정권

① 지표의 의미

이 지표는 문화 및 여가활동의 선택 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 존중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지표는 청소년의 취미나 여가활동에 대한 선택에 대해 부모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얼마나 인정해주는지를 측정하는 주관적 지표이다. 입시위주의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의 취미나 여가활동의 결정권은 진로나 학교 선택만큼 자기결정권에서 중요시 인식되지는 않았다. 그나마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많은 문화 및 여가활동을 부모들이 권장하고 있으나, 여가나 취미활동을 선택하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중·고등학교생은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에 밀려 아예 취미 및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는 종종 무시되며 이에 따라 부모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② 관련 통계 및 현황

최복경(2008)의 연구에서는 88.3%의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을 스스로 결정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여가활동을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욕구도 115명(95.8%)이나 되었다.

한편 서울청소년활동진흥센터(2009)에서 연구한 2008-2009 요구조사에 기반한 청소년활동 개발의 전략적 접근에 의하면, 학부모의 청소년들에 대한 여가활동에 관한 부모의 청소년 의견 존중 정도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센터에서는 2008년에 실시한 활동욕구조사에서 청소년들이 여가생활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가 '부모님의 통제와 간섭'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아 이러한 답변에 대해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리고 실제로 부모님께서 청소년들의 여가생활을 통제 또는 간섭하고 계신다면 어떠한 이유인지 답변을 부탁드렸다. 답변 결과 부모님들은 학교성적 하락에 대한 우려와 아이들의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하다는 관점, 정해진 시간내 할 수 있는 활동관리에 대한 시간관리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청소년들의 여가활

동을 통제하고 간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 예, 저도 동감을 합니다. 부모의 통제와 간섭이 아이들 여가 활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데, 진짜 이 부분이 가장 와 닿는 것 같구요, 이유를 물어 보셨는데, 아이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는 아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애로 보느냐 .... 저는 아직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 자체도 시간을 들여서 관리를 하다보면 관리자체가 엄마 보기에 부모님이 보기에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그리고 학교공부랑) 여가를 너무 즐기다 보면 여가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다보면 학교공부가 안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선까지는 학교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고나서 여가를 하라고 자꾸 지시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정도껏 해야되는데 하나에 빠지게 되면 계속 그것만 하게 되니까...운동도 시켜보면 그것만 계속 한다던가...그래서 자꾸 간섭이 되는 것 같아요.

F: 저도 뭐 비슷한 입장이죠. 그런데 통제와 간섭이, 예를 들어서 아이가 기타를 배우게 되면은 어느 정도 마스터 할때까지는 기타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이는 기타를 배우다 보면은 드럼도 또 배우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다 배우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통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운동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진정한 여가라고 느끼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시작을 하게 되면은 어디까지 마스터를 해야 된다고 하는 통제를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예원이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원하는 컴퓨터를 한다던가 책을 읽는다던가 하는 시간을 무한정 줄 수가 없는 게 본인이 24시간 밖에 없는 거잖아요 누구나에게 일정한 시간 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잠도 자야 될 것이고 또 우리아들은 커야 되잖아요 그렇게 위해서는 해야될 것도 있을 것이고 공부도 해야될 것이고 아이들이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는 것이겠죠

G : 애들하고 교류하지 않고 교육받지 않으니깐. 애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게 과잉보호로 가면 안되요. 보통 내 눈에 안보이면 못 믿어서 그래요. 아이가 밖에 나가서 혹시라도 좀 질이 좋지 않은 친구들을 만나서 탈선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과잉보호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통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철칙이 잠은 집에 와서 자야 되고, '친구들하고 노는 것은 좋은데 외박은 절대 안된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에게 그렇게 해놔가지고 지금 아이는 아무리 친구랑 같이 놀다가도 시간이 되면 꼭 집에 와서 자야한다 이게 아주 심어져 있어요. '다른 애들은 이렇게 한다던데 나도 그러면 안돼?' 하고 가끔씩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엄마 철칙이 '절대 그건 안된다.' 아직까지도 제가 좀 보수적이라 그런 면은 제가 통제를 해요. 여자아이고, 남자아이도 마찬가지였고, 밖에 나가서 탈선할까봐 그런 염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잉보호 일 수 도 있겠죠. 밖에서 순수하게 친구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같이 자고 싶고 어울리고 싶은데 부모입장에서는 그게 걱정이 되니깐 그거는 안된다고 통제를 시키는 거죠. 관심은 과잉보호하고 다른거잖아요. 관심을 가지면서도 믿어주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H : 부모들이 욕심이 많이 있어요. 달리는 말한테 째찍을 가한다고, 우리애도 옆에서 보면 잘해요. 우수한 아이에요. 그러면 더 우수하도록, 그렇게 우수한 애들은 또 여유 있게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은 그런 걸 또 못봐요. 잘 하는 아이여도. 엄마의 지나친 욕심이죠. 어느 정도 비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와 똑같은 질문에 청소년들은 부모님의 통제와 간섭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학부모의 응답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들이 아무리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해도 학업성적이 떨어질까봐 혹은 나중에 청소년에게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로 부모님께서 통제하고 간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 : 이해를 못 하시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요. 취미가 아까 안 말한 것까지 있는데 네 개 정도 하면은 첫 번째가 그림 쪽인데요. 그림은 제가 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상장을 받은 건 일곱 살 땐데, 이미 다섯 살 때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그림으로. 그래서 그거는 아빠가 뭐라고 안하세요. 여전히 제가 상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둘째 치고. 제가 요즘에 같은 경우는 글 쓰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에 몰래 소설을 쓰고 있어요. 인터넷에다가. 창작도 하고 아니면 페러디, 펜딕도 쓰고 있는데, 딱 한번 아빠한테 말씀을 드려 본 적이 있어요. 혹시 내가 소설을 쓴다면 어떻겠냐 하니까 네가 소설가냐고 그런 대답을 들었어요. 의도는 이해하는데요. 솔직히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서. 그래서... 몰래 소설을, 아마추어들이 나오는 행사에 몰래 소설을 냈어요. 근데 그때요. 홍보가 안 되가지고 판매를 하나도 안 됐거든요. 일단 친구 두 명이 샀구요. 인터넷에서 어떤 분이 인터넷으로 저한테 계좌로 돈을 입금을 하셔서 특별히 보내줬는데, 일단 만족은 받았어요. 그거 말고도 인터넷에 올린 소설도 되게 반응이 좋았고, 그리고 아니면 제가 인터넷에서 블로그를 하는데요. 컴퓨터 쟎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들어가다 보면은 밤중에 몰래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진짜 그게 너무 하고 싶고 필요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시죠. 그거를 겉에 있는 면만 보니까. 또 만드는 거는 제가 창작하는 걸 좋아하고, 또 어차피 이 주위에서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그 쪽으로는 딱히 간섭이 없으세요.

B : 저도 만화책을 본다든지 에니메이션을 본다든지 게임을 하면은 이게 부모님이 통제를 하시고 간섭을 하시죠. 이게 그 통제하고 간섭을 하시는 이유를 들어 보면은 그게 지금은 재미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니까 차라리 따른 여가활동을 하라고는 하시는데... 그래도 이게 학생으로서 이게 어 재미있으니까 그래도 나중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쪼금씩 하는 거는 별로 문제가 될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들은 그거를 아

예 하지 말라고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런 게 불만이죠.

C : 여가생활이 보통 컴퓨터를 하나 TV를 보거나 아니면 따른 쪽으로 보면은 학교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학생이 크고 작으나 시간이 오래 가잖아요. TV를 보거나.. 눈도 나빠지고... 엄마 아빠 말은 공부에 별 도움도 안 되고 반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동아리 활동을 하더라도 막 저는 연습이 되게 많이 필요한 동아리를 지금 하고 있어서... 막 한 번 공연이나 그런 거 할 때는 몇 개월을 잡고 하루에도 여덟시 아홉시까지 남아서 막 연습을 해야 하는데... 집이 없잖아요 그러면. 학원도 막 빼먹을 때가 많고... 그래서 아빠는 막 공부에 도움도 안 되는걸 왜 하느냐고... 공부 그런 쪽 그런 것 때문에 관계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게 공부에 꼭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해?) 아니요. (결국에는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되지 않을까요? (그래) (당장의 성적만을 보시는 거지.. 어른들은...어떤 면에서는) 상장 받는 거 그런 거 점수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또 점수도 올라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D : 저는요 저 컴퓨터만 하면 엄마가 뭐라 그러거든요. 공부하라고 그러고 하는데요. 저는 그쪽에 흥미가 없으니까 더 안하고 하니까 이러는 거 같아요.

K : 맞아요. 저도 불만족해요. 부모님이 걱정하셔서 그런 거 같아요. 너무 놀다보면 공부 안하는 어디로 갈 수도 있고, 그럼 부모님이 (우리가) 어디있는지 모르니까요.

L :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엄마는 2주에 한 번은 놀게 해주시는데 아빠는 못 놀게 해요. (이유는) 저를 잘 나게 키우려고요. 나중에 사람들 입에 많이 불리우는 사람 되라고...

M : 맞는 거 같아요. (부모님이 그러시는 이유는) 커서 직장 구할

때 힘들게 구하지 않고 쉽게 구하라고요.

N : 작년의 의견이랑 달라요. 부모님이 (우리가) 할 거 다 하면 하게 해주는데, 애들이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자꾸 놀려고 하니까 그런 거 같아요.

③ 관련 정책과 대안 모색

지금까지 청소년의 문화 및 여가활동의 실태 및 현황에 관한 조사들은 진행되어 왔으나, 청소년의 문화 및 여가활동 선택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 존중 정도를 측정하는 객관화된 연구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기초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청소년의 문화 및 여가활동 선택권에 대한 부모교육 매뉴얼 개발, 부모교육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아동권리협약 제13조에서도 명시했듯이 중요하게 강조되는 권리이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하위영역으로 사적취향의 표현, 학교에서의 의견 표현, 매체를 통한 표현활동, 청소년 발언권 존중정도가 제시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부모의 청소년 두발 및 복장에 대한 규제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사적 취향의 표현

① 지표의 의미

본 연구에서 실시한 부모의 청소년의 두발 및 복장에 대한 규제의 정도는 청소년의 두발 및 복장의 자유를 통한 사적취향의 표현보장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지표이다. 이는 청소년의 인식을 통해 측정하는 주관적 지표로서 부모의 규제를 측정하는 것이다.

② 관련 통계 및 현황

길은배 외(2005)의 연구에서는 2005년 전국 중·고 청소년 2,910명을 대상으로 '부모님은 나의 두발 상태에 대하여 지나치게 간섭하여 가정에서의 두발 자유권이 없다'는 문항에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11.4%('그렇다' 7.8%, '매우 그렇다' 3.6%),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 중 25.2%는 두발 상태에 대한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렇다' 16.0%, '매우 그렇다' 9.2%). 즉,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2배가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두발 상태에 대한 부모님의 간섭 경험도는 성별, SES별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하류층과 상류층에 속하는 학생들이 중류층에 속하는 학생들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2006)의 중고등학생 인권상황실태조사에서는, 엄격히 지켜지거나 비교적 잘 지켜진다고 응답자가 절반이 넘은 규칙은 교복 변형, 무스·스프레이, 염색·파마, 매니큐어, 화장과 같이 용의복장 규정 중에 비교적 눈에 잘 띄는 것들이었다. 반면 교복상용, 머리 길이, 머리 모양 같은 경우는 의외로 상당수가 있으나 마나 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엉뚱한 현상은 학생보다는 학부모가, 또 학부모 보다는 교사가 규칙이 엄격히 지켜지거나 비교적 잘 지켜진다는 응답자가 많았다는 것이다. 즉 학생들은 이미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학교 규칙을 어른들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학생들이 어른들을 기만함으로써 규칙에 저항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표 Ⅲ-2-2>는 학교생활규칙이 청소년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정도를 측정하여 평균을 비교한 결과다. 이 수치가 4에 가까울수록 해당 규칙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이며 1에 가까울수록 인권침해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표 Ⅲ-2-1> 학교규칙 준수 정도의 집단별 빈도 비교 (단위 %)

규칙	학생				학부모				교사			
	엄격히 지켜짐	제대로 지켜짐	있으나 마나	모름	엄격히 지켜짐	제대로 지켜짐	있으나 마나	모름	엄격히 지켜짐	제대로 지켜짐	있으나 마나	모름
교복 상용	14.1	28.9	43.6	13.4	27.2	50.1	12.9	9.7	23.2	61.8	11.8	3.3
교복 변형 금지	16.1	34.2	34.0	15.8	19.9	48.4	23.7	8.0	16.7	66.7	15.4	1.2
외투 제한	7.0	14.5	40.1	38.3	21.9	44.3	23.2	10.7	11.2	61.0	26.1	1.7
외래어 표기 금지	10.1	22.0	47.5	19.8	11.9	28.6	34.9	24.6	11.7	44.2	34.6	9.6
잠바 금지	14.5	27.9	39.4	18.3	12.5	31.6	39.2	16.7	7.4	45.0	42.4	5.2
속옷 제한	9.5	17.9	52.2	20.4	19.3	44.5	21.3	14.8	11.2	61.6	24.4	2.9
양말 제한	20.6	26.2	40.7	12.6	16.3	34.7	36.3	12.7	7.9	50.4	37.2	4.5
두발 길이	16.0	18.5	48.5	17.0	16.3	42.6	32.1	9.0	7.4	53.3	36.5	2.9
두발의 형태	27.8	34.2	26.3	11.7	15.0	31.9	39.6	13.4	8.7	34.9	50.2	6.1
무스 금지	40.8	34.0	19.3	5.8	28.7	41.7	20.6	9.0	17.3	60.5	19.4	2.8
염색, 파마 금지	29.1	32.7	24.9	13.3	42.9	41.7	10.4	5.0	29.1	61.0	8.4	1.6
화장 금지	24.3	33.0	28.8	13.9	39.2	41.8	10.0	9.0	29.7	59.8	8.8	1.6
매니큐어 금지	24.8	34.0	31.4	9.9	37.9	40.1	12.6	9.4	27.4	55.6	14.5	2.4
장신구 금지	15.2	29.2	40.7	14.9	37.8	38.4	15.0	8.7	24.7	56.8	16.5	2.1
신발 제한	8.4	16.7	52.2	22.7	32.6	42.7	15.5	9.1	17.4	71.3	10.1	1.2
가방 제한	11.0	10.7	34.8	43.5	17.6	38.7	31.0	12.6	7.0	52.9	36.0	4.1

<표 Ⅲ-2-2> 학교규칙 인권침해 인식의 집단별 비교

내용	순위	규칙	학생		학부모		교사		F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복장	1	교복상용	2.24	.876	1.94	.791	1.70	.771	50.447***
	2	교복 변형 금지	2.43	.859	1.98	.761	1.74	.701	95.624***
	3	외투 제한	2.62	.883	2.20	.833	1.95	.760	77.897***
	4	외래어 표기 금지	2.69	.968	2.29	.875	1.99	.753	70.847***
	5	잠바 금지	2.78	.924	2.42	.857	2.07	.786	69.187***
	6	속옷 제한	2.55	,917	2.21	.828	1.94	.739	58.381***
	7	양말 제한	2.69	.970	2.29	.854	2.07	.788	60.441***
두발	8	두발 길이	3.14	.945	2.38	.929	2.13	.815	180.167***
	9	두발의 형태	3.17	.977	2.47	.965	2.26	.886	135.903***
	10	무스 금지	2.38	.961	2.08	.890	1.95	.732	31.560***
	11	염색, 파마 금지	2.32	.974	1.88	.871	1.82	.713	52.477***
용모	12	화장 금지	2.12	.929	1.78	.832	1.76	.700	32.384***
	13	매니큐어 금지	2.27	.906	1.83	.827	1.80	.686	57.757***
	14	장신구 금지	2.46	.945	1.90	.830	1.86	.671	89.158***
	15	신발 제한	2.62	.947	2.01	.863	2.01	.666	107.981***
	16	가방 제한	2.79	.950	2.20	.874	2.20	.705	107.078***

표를 살펴보면 학생들은 복장관련 규칙들, 두발관련 규칙들, 그리고 학생회 입후보자 성적제한 규정 등을 인권침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거의 모든 규칙에 걸쳐 일관되게 교사들은 해당 규칙이 인권침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세 집단 중 가장 낮았으며 학부모는 그 중간에 위치했다. 분산분석(ANOVA)결과 세 집단 간의 학교생활규칙 인권침해 인식 정도의 차이는 전체 평균 및 각 규칙별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차이는 주로 학생과 교사 사이에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은 학교생활규칙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여기는 정도가 높은 반면, 교사들은 그렇게 여기는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제재를 가하

는 측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받는 측은 인권침해라고 여기는 것이다.

③ 관련 정책과 대안 모색

청소년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령차별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이 자신의 인권을 가장 침해하는 기관으로 학교를 지목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길은배 외, 2005), 교과서로만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공간이 아닌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의 실천공간으로서 변화하기 위하여 교사와 학생이 상호 인권을 존중하는 생활양식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실질적인 교내 인권교육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교칙 제· 개정 절차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 집회 · 결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는 아동권리협약 제 15조(freedom of association)에 의해 보장된다. 제15조는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고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또한 세계청소년행동프로그램에서도 청소년의 참여권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모임 결성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강조하였다(United Nations, 2005). 청소년의 집회·결사의 자유는 학교 내와 학교 외에서의 자유로 분류될 수 있다.

(1) 학교에서의 집회·결사

통상적으로 집회·결사의 자유가 국가권력과 시민 사이의 충돌 문제라면, 학생의 결사의 자유는 학교 당국과 학생 사이의 충돌 문제가 주류를 이룬다. 학생의 결사의 자유는 정치적 결사와 사교적 결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치적 결사는 다시 학교 외부의 정치에 대한 결사와 학교 자치와 관련된 결사와 학교 자치와 관련된 결사(학생회, 각종 학내 이익단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학생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보다는 많은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그 내용을 이유로 하는 제한은 금지되고 단지 합리적인 시간, 장소, 방법의 규제가 주로 이루어진다. 미국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학생 단체로 하여금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여 학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승인제도 혹은 등록 제도를 두고 있다. 승인을 받은 단체는 때로는 학교 측의 통제를 받기도 하지만 많은 지원과 이익이 부여되기도 한다. 만일 학교 측이 부당하게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학생의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학교 내에서 결사 집회 등을 통해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자신들의 힘을 정치적으로 행사하고자 하는 행위는 교권에 도전하는 것으로 종종 간주되므로 학교가 학생의 결사 집회의 자유를 허용하고 향유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학교 내에서의 결사 집회의 자유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학교 내 학생 자치회라고 할 수 있으며 아동권리위원회도 각 국가에서 학생자치회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거나 허용이 되더라도 학교에서 자치회의 결성이나 가입을 권장하지 않음을 우려하고 있다(Hodgkin & Newell, 2002;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p.90, 재인용).

학교 내 집회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주요 이슈는 학교 내 공식적인 학생회 활동, 동아리 활동, 클럽활동 등과 학교 밖의 집단 활동 및 집회 등에 대해서 학교 당국의 불합리한 간섭과 과도한 제한과 통제 혹은 비협조적인 자세와 무관심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학생 인권 침해의 문제가 주류를 이룬다.

② 관련 통계 및 현황

교내 자치회가 있는 학교의 비율과 관련된 정량적 자료는 찾기가 매우 힘들다. 우리나라 학교 대부분의 교칙에는 '학교장 허락 외에 일체의 대외 활

동을 금한다'라든가, '학교장 허락이 없는 교내 비공식 동아리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등의 규정이 있어 학생들의 자율적인 교내·외 일체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학칙의 기준도 애매모호하여, 대부분 학교의 분위기나 전통, 학교장의 성격에 따라 적용범위도 크게 다르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는 1990년대 중반, 최OO군의 강제 야자 관련 위헌 소동을 계기로 모인 중고등학생복지회의 회원들이 학교로부터 탈퇴를 종용받으며 체벌을 받은 사례나, 전국 중고등학생연합(준)의 전 부산 지역장이 학교 측으로부터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또한 구논회 의원이 전국 학생 286명을 대상으로 학교생활규칙이 나아진 정도를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학교생활규칙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방식을 묻자 31.4%가 '학생들의 의견을 물었는지 잘 모른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대의원회에서 결정함'(30.6%), '몇몇 학생대표들의 의견만 들음'(22.9%)이 그 다음 순이었다. 학급회의와 설문조사 등을 통한 직접 참여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힌 학생들은 14.9%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2001년 11월부터 2006년 5월까지의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진정사례를 살펴보면, 내신등급제 반대 촛불시위에 참석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 집회에 참석하는 학생을 불법집회에 참석하거나 집단행동하는 학생에 대해 징계하도록 한 각 학교 교칙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관련 사이트를 검색해 동태를 파악하여 각 학교 교사 및 장학관, 담임 장학사에게 집회현장에서 생활지도를 하도록 한 사례 등이 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실천'을 공약으로 내세운 고등학교 2학년 학생회장 후보에게 학교가 인권조례를 말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방송용 원고를 사전에 검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학교측의 공개사과를 요구한 최근의 사례가 있다(연합뉴스, 2010. 7. 10 기사).

③ 관련 정책과 대안 모색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09년 12월 14일 교칙개정 활동 등을 이유로 한

학생회장 입후보를 제한한 진정건에 대해 교칙개정 활동 등을 이유로 학생회장 입후보 추천을 하지 않은 것은 차별임을 결정하고, 해당 고등학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사례가 있다. 학생의 정당한 자율권, 자치권까지 통제하는 수준의 일방적인 제한은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앞서 학교 구성원 간의 합의를 통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 정보접근권 및 정보참여

한국청소년개발원(2006)의 연구에 의하면, 정보접근권은 청소년이 적절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아동권리협약 제 17조는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 정신적 도덕적 복지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정보접근권은 유엔아동권리협약뿐 만 아니라 세계청소년행동프로그램에서도 청소년들이 참여할 기회를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보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제안되었으며, 청소년의 참여 증진을 위한 행동으로 가장 첫 번째로 제시된 바 있다. 정보접근권은 전 세계적인 현상인 정보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더욱 중요시 되고 있으며 UNESCO에서도 청소년의 참여권과 관련하여 최근 더욱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UNESCO는 특히 청소년의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환(ICT; Internet Communication Technology)을 권장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권한(empowerment)을 강화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에서도 강조될만큼 청소년의 정보접근권 및 정보에 관한 능력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시대변화를 감안하여 '도서에 대한 접근'과 '인터넷 접근'의 두 차원

에서 정량적 지표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1) 도서에 대한 접근

① 지표의 의미

도서에 대한 접근은 기존의 참여권 관련 지표 연구들에서도 많이 포함되어 온 지표영역이다.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권리 지표(2001), 청소년개발원의 청소년지표(20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아동권리지표(2003) 등의 선행연구들에서 도서관 이용률과 청소년 도서발행비율을 청소년의 도서에 대한 접근을 측정하는 중요한 개별지표로서 포함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도서 발행비율(연간 발행되는 신간 발행 종수 중 아동 대상 도서의 비율)과 청소년 1인당 도서대출 현황(청소년 1인당 월평균 도서대출 현황)을 살펴보았다.

② 관련 통계 및 현황

대한출판문화협회의 2009년 출판통계에서는 청소년 대상에 따른 도서 발행 비율보다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어학, 학습참고 등의 분야 혹은 서지분류에 대한 통계자료를 산출하고 있어 청소년 도서 발행 비율을 알아보기란 쉽지 않다. 대상도 아동에 대한 발행 종수 및 발행 부수를 통계화하고 있어 아동 도서 발행 종수 및 부수로 청소년 도서 발행 비율을 대체 자료화 한다.

2009년 43,099권의 총 신간 발행 종수 중 아동 신간 발행 종수는 7,884권으로 18.69%이며, 신간 발행 부수는 총 106,214,701권 중 29,275,142권으로 27.56%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Ⅲ-2-3> 총 신간 발행 종수 대비 아동 신간 발행 종수

구분	신간 발행 종수				신간 발행 부수			
	2008년	2009년	증감률	점유율	2008년	2009년	증감률	점유율
총계	43,099	42,191	-2.1	100.00%	106,515,675	106,214,701	-0.3	100.00%
아동	8,417	7,884	-6.3	18.69%	26,885,334	29,275,142	8.9	27.56%

한편, 청소년 도서대출 현황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연구소(2008)의 2008년 국민독서 실태조사에 의한 자료를 통해 파악해볼 수 있다. 2008년 10월을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 학생 3,000명에게 "지난 한 달 동안 몇 권의 책을 읽었느냐"고 물어본 결과, '한 권 이상의 책을 읽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 응답자의 74.8%로 조사되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10명 가운데 7명 정도는 한 달에 한 권 이상 독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4> 한 학기 독서율(단위 : %)

전 체		학교급별			학교급별 * 학년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사례수(명)	3,000	1,000	1,000	1,000	330	335	335	350	326	324	352	315	333
일반도서	89.1	96.8	88.5	81.9	95.5	98.8	96.1	90.3	90.2	84.9	92.9	79.0	73.0
만화	63.5	89.7	58.7	42.2	93.0	90.4	85.7	67.4	58.6	49.4	43.8	43.8	39.0
잡지	27.0	25.0	25.8	30.1	17.6	30.4	26.9	24.0	28.2	25.3	27.8	34.6	28.2

* 한 학기 독서율 : 지난 한 학기(08년 1학기) 동안 해당도서를 1권 이상 읽은 사람의 비율

또한 "지난 1학기 동안 몇 권의 책(일반도서)을 읽었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89.1%가 적어도 1권 이상의 '일반도서'를 읽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기 독서율은 '04년 89.0% → '06년 89.6% → '07년 90.6% → '08년 89.1%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나타나던 증가 추세가 '08년도에는 약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96.8%) > 중학생(88.5%) > 고등학생(81.9%)' 순으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독서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Ⅲ-2-5>월간 독서율(단위 : %)

전 체		학교급별			학교급별 * 학년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사례수(명)	3,000	1,000	1,000	1,000	330	335	335	350	326	324	352	315	333
일반도서	74.8	92.5	71.7	60.2	93.3	94.6	89.6	78.0	67.5	69.1	73.9	56.2	49.5
만화	48.1	78.8	38.1	27.4	86.7	80.9	69.0	46.9	37.4	29.3	23.0	31.1	28.5
잡지	16.2	18.0	14.5	16.0	14.5	22.1	17.3	12.6	16.6	14.5	12.5	22.2	13.8

* 월간 독서율 : 조사시점('08년 10월) 기준으로 지난 1개월간 해당도서를 1권 이상 읽은 사람의 비율

학생들의 한 학기 만화 열독률은 63.5%로 '07년 조사결과인 70.4%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잡지 열독률은 '02년 39.4% → '04년 32.1% → '06년 30.9% → '07년 30.9% → '08년 27.0%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07년에 이어 학생들의 만화 열독률은 하급학교일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잡지 열독률은 반대로 상급학교일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Ⅲ-2-6> 한 학기 독서율 변화추이(일반도서)(단위 : %)

전 체		학교급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08년	89.1	96.8	88.5	81.9
07년	90.6	96.7	89.3	85.7
06년	89.6	96.1	87.9	84.9
04년	89.0	94.4	90.9	81.6
02년	89.6	95.5	89.1	84.1
99년	93.9	99.8	91.0	90.9
96년	96.7	99.9	96.9	93.4
95년	97.1	98.9	96.1	96.4

아동·청소년의 독서량 실태는 일반도서, 만화, 잡지 등의 실태와 최근 도서 구입현황 등을 살펴봄으로써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

- 일반도서

우리나라 전국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난 한 달 동안 몇 권의 책(학습참고서, 교과서, 만화, 잡지 제외)을 읽었느냐"고 질문한 결과, 한 달간 일반도서 독서량은, '1-2권' 32.5%, '3-4권' 11.7%, '5-10권' 16.7%로 '11-20권' 7.6%, '21-50권' 5.1%, '51권 이상' 1.3% 등으로 '일반도서를 전혀 읽지 않았다'(25.2%)는 학생까지 포함하여 1인 평균 독서량을 집계하면, 학생들의 한 달 평균 독서량은 5.5권으로 조사되었다.

학생들의 한 학기 일반도서 독서량은 '1-2권' 13.3%, '3-4권' 14.3%, '5-10권' 25.3%, '11-20권' 13.8%, '21-50권' 13.8%, '51권 이상' 8.6% 등으로 '일반도서를 전혀 읽지 않았다'(10.9%)는 학생까지 포함하여 1인 평균 독서량을 집계해보면, 학생들의 한 학기 평균 독서량은 14권 정도로 조사되었다.

한 학기 동안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은 학생'은 지난 '04년 11.0% → '06년 10.4% → '07년 9.4% → '08년 10.9%로 '07년까지 일반도서의 독서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08년에는 10.9%로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 학기 평균 독서량은 초등학생 25.8권, 중학생 10.1권, 고등학생 6.1권으로 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의 독서량이 약 4배 정도 많으며, 이는 과거 조사보다 독서량의 격차가 다소 증가한 것이다. 학생들의 한 학기 평균 독서량(14권)은 지난 '07년 조사(13.5권)보다 0.5권 증가하였다.

<표 Ⅲ-2-7> 한 달 일반도서 독서량(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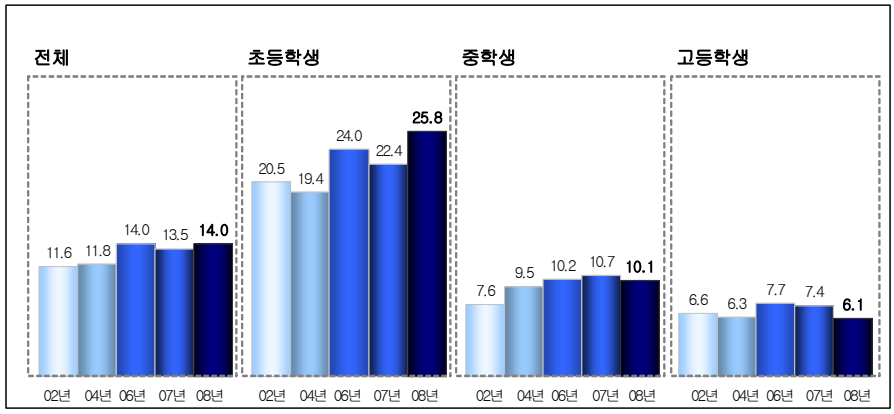
전체		학교급별			학교급별 * 학년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사례수(명)	3,000	1,000	1,000	1,000	330	335	335	350	326	324	352	315	333
없음	25.2	7.5	28.3	39.8	6.7	5.4	10.4	22.0	32.5	30.9	26.1	43.8	50.5
1~2권	32.5	14.5	39.2	43.8	6.1	14.9	22.4	38.3	38.3	41.0	55.1	42.2	33.3
3~4권	11.7	12.1	13.6	9.4	9.1	11.0	16.1	15.7	12.6	12.3	10.5	9.2	8.4
5~10권	16.7	32.1	12.8	5.1	30.6	31.0	34.6	16.3	10.4	11.4	6.5	3.8	4.8
11~20권	7.6	17.3	4.1	1.4	23.3	17.9	10.7	6.0	3.7	2.5	1.4	0.6	2.1
21~50권	5.1	13.3	1.6	0.3	18.8	15.8	5.4	1.7	2.1	0.9	0.3	0.3	0.3
51권 이상	1.3	3.2	0.4	0.2	5.5	3.9	0.3	0.0	0.3	0.9	0.0	0.0	0.6
전체 평균(권)	5.5	11.7	3.2	1.7	15.6	12.7	6.9	3.7	3.0	2.8	1.9	1.3	1.7
독서자 평균(권)	7.4	12.7	4.4	2.7	16.8	13.4	7.7	4.8	4.4	4.1	2.5	2.4	3.5

<표 Ⅲ-2-8>한 학기 일반도서 독서량(단위 : %)

전 체		학교급별			학교급별 * 학년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사례수(명)	3,000	1,000	1,000	1,000	330	335	335	350	326	324	352	315	333
없음	10.9	3.2	11.5	18.1	4.5	1.2	3.9	9.7	9.8	15.1	7.1	21.0	27.0
1~2권	13.3	2.7	16.5	20.6	2.4	3.0	2.7	9.4	22.7	17.9	12.5	22.9	27.0
3~4권	14.3	7.3	17.0	18.7	3.3	7.8	10.7	14.0	21.5	15.7	19.3	18.7	18.0
5~10권	25.3	18.2	28.4	29.4	12.7	17.0	24.8	34.0	23.3	27.5	42.3	26.7	18.3
11~20권	13.8	18.0	14.6	8.7	16.7	15.8	21.5	18.9	12.9	11.7	13.6	7.0	5.1
21~50권	13.8	29.1	8.8	3.4	33.3	27.2	26.9	11.7	7.4	7.1	4.3	3.2	2.7
51권 이상	8.6	21.5	3.2	1.1	27.0	28.1	9.6	2.3	2.5	4.9	0.9	0.6	1.8
전체 평균(권)	14.0	25.8	10.1	6.1	29.6	28.2	19.8	11.6	8.8	9.7	7.9	5.4	4.8
독서자 평균(권)	15.7	26.7	11.4	7.4	31.0	28.6	20.6	12.8	9.8	11.4	8.5	6.8	6.6

<표 Ⅲ-2-9> 한 학기 독서량 변화추이 (일반도서)(단위 : 권)

년 도	사례수(명)	전체	학교급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08년	3,000	14.0	25.8	10.1	6.1
07년	2,700	13.5	22.4	10.7	7.4
06년	3,000	14.0	24.0	10.2	7.7
04년	2,700	11.8	19.4	9.5	6.3
02년	3,000	11.6	20.5	7.6	6.6
99년	3,000	13.3	23.3	9.6	7.1
96년	2,700	15.4	28.2	10.8	7.2
95년	2,700	14.9	22.9	10.9	9.7



[그림 Ⅲ-2-1] 한 학기 독서량 변화 추이(단위 : 권)

- 만화

학생들의 한 학기 만화 열독량을 알아본 결과, 지난 학기 동안 '적어도 한 권 이상'의 만화책을 읽은 학생은 전체의 63.5%로, '1-2권' 8.8%, '3-4권' 8.5%, '5-10권' 18.9%, '11-20권' 11.4%, '21-50권' 10.9%, '51권 이상' 5.1%이며, '만화책을 전혀 읽지 않은 학생'은 36.5%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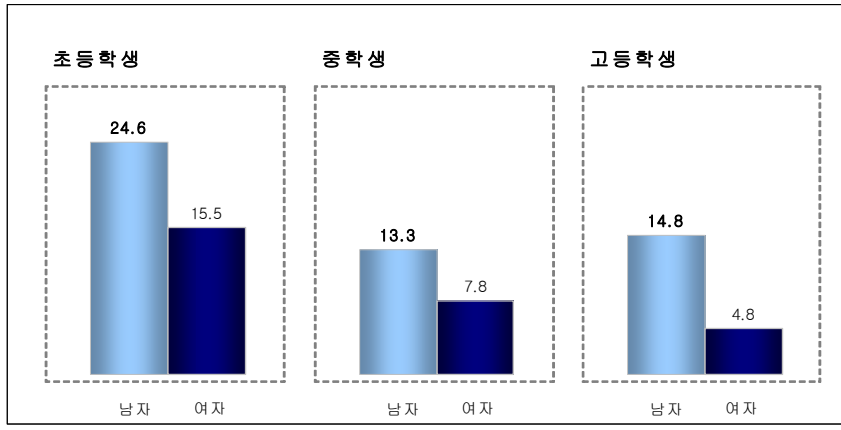
'만화책을 전혀 읽지 않았다'는 학생까지 포함한 한 학기 평균 만화 열독량은 13.5권으로 '07년 조사결과(16.5권)에 비해 3권 감소했으며, '일반도서 독서량'(14권)보다 0.5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만화 열독량을 살펴보면, 초등학생 20.1권, 중학생 10.5권, 고등

학생 9.8권으로 중·고등학생에 비해 초등학생들의 만화 열독량이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초등학교 4,5학년 학생들의 만화 열독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중·고 학생 모두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만화 열독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2-10> 한 학기 만화 열독량(단위 : %)

전 체		학교급별			학교급별 * 학년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사례수(명)	3,000	1,000	1,000	1,000	330	335	335	350	326	324	352	315	333
없음	36.5	10.3	41.3	57.8	7.0	9.6	14.3	32.6	41.4	50.6	56.3	56.2	61.0
1~2권	8.8	9.8	11.2	5.3	8.5	9.6	11.3	13.4	12.0	8.0	6.0	5.7	4.2
3~4권	8.5	10.8	9.2	5.4	12.1	8.1	12.2	10.3	9.2	8.0	5.4	6.0	4.8
5~10권	18.9	27.1	16.5	13.0	25.8	29.9	25.7	18.0	16.9	14.5	12.8	14.3	12.0
11~20권	11.4	17.2	10.8	6.3	18.2	17.3	16.1	13.7	10.1	8.3	6.5	6.3	6.0
21~50권	10.9	16.9	7.3	8.6	18.8	17.3	14.6	8.9	6.4	6.5	10.2	6.3	9.0
51권 이상	5.1	7.9	3.7	3.6	9.7	8.4	5.7	3.1	4.0	4.0	2.8	5.1	3.0
전체 평균(권)	13.5	20.1	10.5	9.8	23.5	21.5	15.4	10.2	11.3	10.0	9.2	11.0	9.3
열독자 평균(권)	21.2	22.4	17.9	23.3	25.2	23.8	18.0	15.1	19.3	20.3	21.1	25.2	23.9



[그림 Ⅲ-2-2] 한 학기 만화 열독량 성별 비교(단위 : 권)

한편, 초·중·고 학생 중 지난 한 달간 만화를 '한 권도 보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한 월평균 만화 열독량은 평균 4.8권 정도이며, 만화 열독층만을 대상으로 한 월평균 만화 열독량은 9.9권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2-11> 한 달 만화열독량

전 체		학교급별			학교급별 * 학년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사례수(명)	3,000	1,000	1,000	1,000	330	335	335	350	326	324	352	315	333
없음	51.9	21.2	61.9	72.6	13.3	19.1	31.0	53.1	62.6	70.7	77.0	68.9	71.5
1~2권	15.2	20.8	15.9	8.9	18.2	22.1	22.1	17.4	17.5	12.7	6.3	12.7	8.1
3~4권	8.5	15.3	6.3	3.8	18.8	14.6	12.5	10.9	5.2	2.5	3.7	5.4	2.4
5~10권	14.3	25.2	9.8	8.0	29.1	25.4	21.2	11.7	8.9	8.6	7.7	7.3	9.0
11~20권	5.6	9.9	3.3	3.6	9.1	12.8	7.8	3.7	3.1	3.1	3.1	2.5	5.1
21~50권	3.5	6.2	2.0	2.4	9.1	4.5	5.1	2.9	1.5	1.5	2.0	2.5	2.7
51권 이상	1.0	1.4	0.8	0.7	2.4	1.5	0.3	0.3	1.2	0.9	0.3	0.6	1.2
전체 평균(권)	4.8	7.7	3.4	3.1	10.3	7.7	5.3	3.3	4.0	2.9	2.7	3.3	3.4
열독자 평균(권)	9.9	9.8	8.9	11.4	11.9	9.5	7.6	7.1	10.6	9.9	11.8	10.6	12.0

- 잡지

한 학기 동안의 잡지 열독량 조사에서는 '잡지를 전혀 읽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99년 36.6% → '02년 60.6% → '04년 67.9% → '06년 69.1% → '07년 69.1% → '08년 73.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잡지를 읽지 않는 학생까지 포함한 한 학기 평균 잡지 열독량은 1.1권 정도로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은 한 학기에 약 1권 정도의 잡지를 읽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한 달간 잡지를 '전혀 읽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83.8%로 '07년 조사결과(82.4%)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잡지를 읽지 않는 학생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월간 잡지 열독량은 평균 0.3권으로 나타났다.

<표 Ⅲ-2-12> 한 학기 잡지 열독량

전 체		학교급별			학교급별 * 학년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사례수(명)	3,000	1,000	1,000	1,000	330	335	335	350	326	324	352	315	333
없음	73.0	75.0	74.2	69.9	82.4	69.6	73.1	76.0	71.8	74.7	72.2	65.4	71.8
1~2권	13.7	9.7	14.1	17.4	5.2	12.5	11.3	13.7	14.4	14.2	15.6	16.8	19.8
3~4권	5.3	5.2	5.1	5.5	4.2	6.0	5.4	3.1	6.4	5.9	5.7	7.3	3.6
5~10권	6.4	7.5	6.0	5.6	5.5	8.4	8.7	6.6	6.4	4.9	6.0	7.0	3.9
11~20권	1.6	2.6	0.6	1.6	2.7	3.6	1.5	0.6	0.9	0.3	0.6	3.5	0.9
전체 평균(권)	1.1	1.3	0.9	1.1	1.0	1.5	1.2	0.9	1.0	0.8	0.9	1.6	0.8
열독자 평균(권)	4.0	5.0	3.4	3.6	5.7	5.1	4.5	3.6	3.4	3.2	3.2	4.5	3.0

<표 Ⅲ-2-13> 한 달 잡지열독량

전 체		학교급별			학교급별 * 학년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사례수(명)	3,000	1,000	1,000	1,000	330	335	335	350	326	324	352	315	333
없음	83.8	82.0	85.5	84.0	85.5	77.9	82.7	87.4	83.4	85.5	87.5	77.8	86.2
1~2권	13.0	13.0	12.5	13.6	9.1	16.4	13.4	9.7	14.7	13.3	11.6	18.1	11.4
3~4권	1.5	1.4	1.4	1.7	1.8	1.2	1.2	2.0	1.5	0.6	0.9	3.2	1.2
5~10권	1.6	3.6	0.6	0.7	3.6	4.5	2.7	0.9	0.3	0.6	0.0	1.0	1.2
전체 평균(권)	0.3	0.5	0.3	0.3	0.5	0.6	0.4	0.3	0.3	0.2	0.2	0.4	0.2
열독자 평균(권)	2.1	2.8	1.7	1.7	3.4	2.8	2.3	2.0	1.5	1.7	1.4	1.8	1.8

- 최근 구입 도서 분야

우리나라 학생들의 독서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학기(2008년 1학기) 동안 도서구입 경험이 있는 초등학생(708명)에게 “지난 학기 동안 어떤 분야의 책들을 주로 구입하셨습니까”라고 물어본 결과, ‘학습용 만화’(13.3%)를

가장 많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 소설'(12.6%), '오락용 만화'(9.7%), '역사'(9.0%), '과학'(8.8%)등을 주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여학생의 경우 '어린이 소설'구입률이 17.5%로 가장 높은 반면, 남학생은 '학습용 만화'의 구입 비율이 1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남학생의 경우 '오락용 만화', '과학', '역사' 분야의 구입이 여학생에 비해 많은 반면, '외국동화', '국내 창작동화'의 구입률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지난 학기(2008년 1학기) 동안 구입한 도서 분야로 '문학도서'가 52.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양도서' 16.9%, '만화·무협지' 15.6%, '실용·취미도서' 15.5% 순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 모두'문학도서'를 가장 많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학도서'중에서도 '일반소설'이 30.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07년 조사결과와 비슷하게 '문학도서' 구입률은 여중생과 여고생(각각 56.9%, 58.6%)이, '만화·무협지'는 남자 중학생(23.6%)이, '교양도서'는 남자 고등학생(22.4%)의 구입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Ⅲ-2-14> 최근 구입도서 분야(초등학생)

전 체		성별		학교급별 * 학년별			한 학기 독서량				
		남자	여자	4학년	5학년	6학년	없음	1~4권	5~10권	11~20권	21권 이상
사례수(명)	708	332	376	249	246	213	10	54	109	124	411
만화(학습용)	13.3	15.9	11.0	13.1	15.4	11.2	24.6	18.6	14.7	14.3	11.8
어린이 소설	12.6	7.1	17.5	10.4	12.5	15.5	8.8	15.2	12.1	10.1	13.3
만화(오락용)	9.7	13.4	6.5	10.2	10.0	8.8	24.6	16.9	13.9	10.3	7.3
역사	9.0	11.8	6.6	9.5	8.7	8.7	0.0	6.9	8.9	9.1	9.5
과학	8.8	12.4	5.7	9.1	10.0	7.1	1.8	9.0	9.0	9.8	8.6
위인전	7.8	9.6	6.3	9.3	8.2	5.7	7.0	8.6	5.8	6.7	8.6
외국 동화	7.0	4.3	9.4	5.3	7.5	8.6	0.0	3.1	6.0	5.8	8.3
국내 창작동화	6.7	3.2	9.8	6.2	5.2	9.2	0.0	2.1	3.1	6.6	8.5
취미	6.1	4.1	7.9	6.2	6.0	6.3	7.0	5.9	8.7	4.6	6.0
전래 동화	5.3	4.7	5.9	9.5	4.1	1.7	5.3	1.0	5.5	5.6	5.7
연예, 오락	3.6	4.3	3.0	2.3	3.8	5.0	12.3	5.2	3.1	4.6	3.1
성인 소설	2.0	1.6	2.4	0.7	2.3	3.2	0.0	1.7	2.6	2.3	1.9
철학/논리	2.0	2.2	1.8	2.1	1.6	2.1	0.0	1.0	1.8	3.1	1.8
동시	1.4	1.4	1.4	1.5	1.8	0.7	0.0	1.7	1.3	0.9	1.6
예술	1.0	0.5	1.4	1.1	0.9	1.0	1.8	0.0	0.3	1.3	1.2
수필	0.7	0.5	1.0	0.0	0.4	2.1	0.0	0.0	1.8	1.9	0.3
종교	0.4	0.6	0.2	0.2	0.4	0.6	1.8	1.0	0.0	0.9	0.3
기타	2.3	2.5	2.1	3.2	1.1	2.5	5.3	2.1	1.5	2.3	2.5

<표 Ⅲ-2-15> 최근 구입도서 분야(중고생)

전 체			학교급별		학교급별 * 성별				한 학기 독서량				
			중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없음	1~4권	5~10권	11~20권	21권 이상
					남	여	남	여					
사례수(명)		1,006	563	443	282	281	190	253	41	333	360	154	118
문학 도서	전 체	52.0	50.9	53.5	44.7	56.9	46.7	58.6	35.6	51.5	53.7	51.1	55.1
	일반소설	30.3	29.3	31.6	25.3	33.2	26.0	35.8	16.4	30.1	31.9	30.7	30.1
	추리소설	7.1	7.3	6.9	7.4	7.2	7.2	6.7	6.4	7.4	6.3	7.1	9.4
	수필/명상	6.2	6.1	6.3	4.6	7.7	6.6	6.1	3.2	6.9	6.9	5.7	4.2
	수기/전기	3.0	2.3	4.0	2.1	2.5	3.4	4.5	2.3	2.6	3.7	2.5	3.3
	시	2.5	2.5	2.4	1.8	3.1	1.9	2.8	4.1	2.0	2.0	2.5	4.2
	다큐멘터리	1.9	1.8	1.9	2.1	1.6	1.5	2.2	2.3	1.8	2.2	1.5	1.4
	동화	1.0	1.6	0.3	1.6	1.6	0.1	0.5	0.9	0.7	0.8	1.1	2.4
교양 도서	전 체	16.9	15.4	18.8	17.5	13.3	22.4	16.1	12.8	15.6	18.4	19.9	13.3
	역사/지리	4.5	4.8	4.0	5.5	4.1	3.4	4.5	3.2	4.4	5.0	4.5	3.5
	과학/기술	4.3	4.7	3.8	6.9	2.6	5.0	3.0	2.3	3.0	5.0	5.9	4.5
	경제/경영	2.7	1.8	3.9	1.5	2.1	6.3	2.1	0.5	3.3	3.3	1.7	1.7
	철학/사상	2.2	1.5	3.1	1.1	2.0	4.1	2.3	2.7	1.6	2.0	4.2	1.8
	예술	1.8	1.2	2.5	0.8	1.6	2.0	2.9	2.7	2.4	1.2	1.8	1.4
	종교	0.9	0.8	1.0	1.0	0.6	0.8	1.2	1.4	0.7	1.3	0.9	0.2
	법/정치	0.5	0.5	0.4	0.6	0.4	0.8	0.1	0.0	0.3	0.6	0.8	0.3
실용/ 취미 도서	전 체	15.5	15.1	15.9	14.1	16.1	15.9	15.9	25.1	17.6	14.6	13.4	11.8
	취미	3.7	3.4	4.1	3.5	3.4	4.2	4.0	2.3	3.6	3.7	4.9	2.6
	연예/오락	3.4	3.8	2.8	2.7	5.0	2.3	3.1	4.6	4.7	3.2	1.6	2.1
	어학	1.8	1.9	1.7	0.7	3.2	1.3	2.0	3.2	2.0	1.5	1.4	2.3
	스포츠	1.6	1.9	1.2	3.2	0.6	2.0	0.5	1.8	1.7	1.6	1.7	0.8
	여행	1.5	1.2	1.9	1.2	1.3	2.0	1.8	3.7	1.3	1.6	1.0	1.7
	요리	1.3	0.9	1.9	0.6	1.1	2.1	1.8	2.7	1.9	1.0	0.8	0.9
	컴퓨터	1.0	1.2	0.8	2.0	0.4	1.0	0.6	2.7	0.8	0.7	1.1	1.5
	건강/다이어트	0.7	0.6	0.9	0.4	0.9	0.9	0.9	1.4	1.3	0.4	0.8	0.0
	여성	0.4	0.2	0.8	0.1	0.3	0.0	1.3	2.7	0.3	0.7	0.0	0.0
만화/ 무협지/ 기타	전 체	15.6	18.6	11.8	23.6	13.7	15.0	9.3	26.5	15.3	13.3	15.6	19.8
	무협지/판타지소설	8.2	10.0	5.9	13.4	6.6	8.1	4.3	11.0	8.1	6.3	8.6	12.9
	만화	5.5	6.3	4.6	8.6	4.1	5.4	4.0	12.3	5.6	5.6	4.5	4.4
기타		1.9	2.3	1.3	1.6	3.0	1.6	1.1	3.2	1.6	1.4	2.5	2.6

학생들이 평소 읽고 싶은 책을 어떻게 구해 보는지 알아본 결과, '직접 사서 본다' 27.5%, '부모님이 사다 주신다' 13.3% 등 읽고 싶은 책을 '구입'하는 응답자는 40.7%로 나타났고, '학교도서관'(13.8%), '친구'(11.2%), '공공도서관'(10.4%), '도서대여점'(5.9%), '문고/작은도서관'(2.0%) 등을 이용하여 '대출/대여'하는 학생이 43.3%로 조사되었다.

<표 Ⅲ-2-16> 도서 입수경로

전 체			학교급별			학교급별 * 성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남	여	남	여	남	여
사례수(명)		3,000	1,000	1,000	1,000	500	500	500	500	500	500
구입	전 체	40.7	41.9	41.3	39.1	42.7	41.1	43.2	39.4	39.8	38.3
	직접 사서 본다	27.5	23.7	27.8	31.0	23.4	24.0	28.6	27.0	30.7	31.3
	부모님이 사다 주신다	13.3	18.2	13.5	8.1	19.3	17.1	14.6	12.4	9.1	7.0
대여	전 체	43.3	41.3	43.6	45.1	39.5	43.1	39.1	48.0	41.9	48.2
	학교도서관에서 빌려본다	13.8	13.9	13.2	14.2	11.3	16.5	8.5	17.8	11.5	16.9
	친구에게 빌려본다	11.2	11.4	10.1	12.1	13.0	9.8	10.7	9.4	12.2	12.1
	공공도서관에서 빌려본다	10.4	9.8	11.4	10.1	8.2	11.3	9.7	13.1	7.1	13.0
	도서대여점에서 빌려본다	5.9	4.1	6.8	6.9	4.6	3.6	7.9	5.7	9.0	4.8
	문고/ 작은도서관에서 대출	2.0	2.1	2.2	1.7	2.3	1.9	2.3	2.0	2.2	1.3
기타	전 체	15.9	16.8	15.1	15.9	17.8	15.8	17.7	12.6	18.3	13.5
	집에 있는 책을 읽는다	9.4	10.5	8.7	9.0	9.6	11.5	9.8	7.6	10.5	7.6
	선물로 받는다	3.3	3.3	3.4	3.1	4.6	2.1	4.4	2.4	3.9	2.3
	서점에 가서 본다	1.8	1.5	1.7	2.2	2.0	1.1	2.2	1.2	1.8	2.6
	기타	1.4	1.4	1.3	1.5	1.6	1.1	1.3	1.3	2.0	1.0

'07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빌려보는 비율은 47.4%에서 43.3%로 감소하였고, 구입하는 비율은 35.4%에서 40.7%로 증가하였다.

한편, 읽고 싶은 책을 '구입'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초등학생이 41.9%로 중

학생(41.3%)과 고등학생(39.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인이 직접 구입'하는 비율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며, '부모님이 직접 구입'하는 경우는 학교급이 낮아질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빌려보는 학생들의 비율은 고등학생(45.1%)이 중학생(43.6%)이나 초등학교(41.3%)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도서를 빌려보는 경우 '학교도서관'(13.8%)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으며, 그 다음은 '친구'(11.2%) > '공공도서관'(10.4%) > '도서대여점'(5.9%) > '문고/작은 도서관'(2.0%) 등을 통해 책을 빌려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본다는 응답은 특히 고등학생(14.2%)에게서 약간 높게 나타났다.

③ 관련 정책과 대안 모색

백원근(한국출판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국민독서실태조사로 본 청소년 독서의 현주소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초중고 학생들의 독서율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 다매체 환경에서 독서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한 · 일 청소년의 독서량을 비교해 보면, 일반도서는 양국이 흡사했으나 잡지 열독량은 일본이 한국의 10배 이상으로 충격적인 차이를 보인다.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률 역시 2년 만에 16.9% 포인트나 늘어난 70.7%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책 읽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으로는 도서관 증설과 장서 확충, 매스컴의 책 정보 제공 확대,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본 조사를 통한 청소년 독서실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청소년들의 독서율, 독서량, 독서시간, 도서구입량 등 제반 독서지표가 갈수록 악화 되고 있다. 한 학기 독서율(일반도서를 한 권 이상 읽은 비율)은 평균 86.3%이며, 고등학생의 경우 10년 전보다 15%포인트 이상 감소했다. 상급학교에 진학할수록, 해가 바뀔수록 책을 멀리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한 학기 독서량은 초등학생이 19.4권인 데 비해 중학생 9.5권, 고등학생 6.3권으로 2002년 조서결과에 비해 중학생은 약간 증가하고 고등학생은 감소했

지만, 장기적으로 독서량 감소 경향이 여전했다. 평일 기준 독서시간은 47분으로 큰 차이가 없었는데, 전반적으로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 독서시간이 계속 줄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청소년 맞춤 독서정보가 빈약하고 베스트셀러 편식 독서가 만연돼 있다. 먼저 청소년이 즐겨 읽는 도서 분야로는 일반소설(24.4%) 선호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만화/ 무협지/판타지소설(28.3%), 추리소설, 연예/오락 등의 순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 중고생의 독서경향은 교양도서보다 오락물 위주로 편중되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읽은 책 가운데 기억에 남는 도서' 상위권에 든 책들은 '나무', '해리포터',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 '연탄길', '삼국지', '뇌', '연어', '아홉 살 인생', '연금술사', '다 빈치 코드' 등 대부분 베스트셀러 소설이었다. 중고생들은 지난 2002년 조사에서 MBC-TV <느낌표> 프로그램의 독서 캠페인 코너에 소개된 책들이 주로 기억에 남는다고 응답했었는데, 해당 코너의 종영(2003년 12월) 이후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는 성인 취향의 일반 소설류가 이를 대체하는 양상이었다.

아울러 중고생들은 국내외 유명 소설가를 선호하는 작가로 꼽았다. 중학생의 경우 조앤 K.롤링, 베르나르 베르베르, 황순원 등을 좋아하는 작가로 꼽았으며, 고등학생은 박완서, 귀여니, 조창인, 이문열, 김진명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청소년들이 책을 선택할 때 주로 참고하는 정보는 '친구 추천'과 '베스트셀러 목록' 으로, 가족이나 교사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중고생 모두 또래문화의 영향으로 '친구 추천' 비중이 23% 안팎으로 1위이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베스트셀러 목록 의존율이 높아져(초 8.7%, 중 12.5%, 고 15.0%) 2위를 차지했다. 기타 선생님 추천 및 과제 지정, 가족 추천, 대중매체의 책 소개 비중은 낮아 실질적으로 체계적인 독서정보 제공이 이뤄지고 있지 못함을 시사했다. 도서구입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은 '책의 내용' (52.5%)이 가장 높지만, 그 다음으로 '베스트셀러 순위'와 '가격' (각각 10.6%), '책 제목 및 차례' (8.3%), '책의 외형 및 디자인' (6.6%)을 꼽아 베스트셀러 의존 경향을 재확인시켰다.

셋째, 학교와 가정의 독서에 대한 무관심이 심해지고 있다. 학생들의 독서

지표에서는 학교 도서관 이용이 활성화되는 현상만이 유일한 청신호였다. '학교도서관(도서실)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95년 78%에서 2004년에 95.4%로 꾸준히 늘고 있으나 (초 89%, 중 100%, 고 97%), 실제로 '학교도서관을 이용한다'는 학생은 중학생 69%, 고등학생 60% 에 머물렀다. 이러한 학교도서관 이용률은 2년 전에 비해 17%포인트나 늘어나 지난 10년 중 가장 높은 수치였고, 만족도(30%대) 역시 불만족(10%)을 훨씬 상회했다. 학교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 장서 부족(41.4%)과 이용상의 불편(자유 이용 불가, 대출 불가, 독서지도 사서선생님 부재)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학교 도서관이 조금씩 활성화되고는 있으나 학생들의 독서공간으로 충분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개선 과제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학교의 독서 권장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평소 선생님들이 참고서 이외의 독서를 어느 정도 권장하는지" 물어본 결과, '권장한다'는 응답이 약 50%로 다수이나 '전혀 권장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중학교 13%, 고등학교 22%로 적지 않았다.

학교의 독서지도 내용은 '독후감 쓰기'가 50% 가장 많았으며, 이외 '도서관 이용/도서분류법' 20.4% > '도서 선택과 독서방법' 13.9% > '독서토론회 및 발표' 11.5% 등의 독서지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에서 독서지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중학교 25%, 고등학교 53%(고3은 72%)나 되어 지나친 입시 중압감 때문에 독서교육이 황폐화된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줬다.

또한 학생 본인들은 "평소의 폭넓은 독서가 수능시험이나 논술에 도움이 될 것" (고교생의 75%) 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대학입시를 대비해 폭넓게 독서한다"는 비율(15%)은 매우 낮았다. 하지만 중고생들은 학교의 '독서시간' 신설에 과반수가 찬성했고, 교육부가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정책으로 추진중인 '교과별 독서활동의 대학입시 반영정책' 에 대해 찬반이 엇갈렸으나 (찬성 27%, 반대 39%, 잘 모르겠다 34%) 압도적으로 반대 의견이 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수용 의견도 크다는 점이 주목된다. 학생들이 관심을 가진 독서 관련 활동은 독서퀴즈(약40%)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독후감 쓰기, 독서동아리 활동, 독서일기 쓰기, 독서토론회, 독서강연회 등의 순으로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독서교육 방법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모들의 경우 과반수가 자녀에게 독서를 권장하지만 책에 관한 대화를 하는 가정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책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경우는 10명중 1명꼴(약 11%)에 불과하다. 부모님이 학생의 독서에 관심을 보인다는 비율은 중학생 48.4%, 고등학생 30.4%로 상급학교에 진학할수록 자녀의 독서에 대한 무관심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와 가정의 성적 만능주의가 독서 중심의 전인교육으로 시급히 전환돼야 하겠다.

넷째,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독서환경 기반이 빈약하고 일반도서에 비해 학습 참고서 구입비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집 주변(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독서관련 문화공간(복수응답)은 공공도서관 · 마을문고가 평균 25%에 머문 반면 상업적 도서대여점과 서점은 57%나 되어 사회적 독서 인프라의 부족을 상징한다. 청소년들의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중학생 53.4%, 고등학생 45.7%로 2년 전과 비슷했는데, 이용목적은 여전히 시험공부(약 45%)와 열람이 주였고 만족도는 30%대에 머물렀다.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은 그 이유로 '집에서 멀다'(30.0%), '이용할 시간이 없다' (19.9%), '읽을 만한 책이 없다'(11.0%)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므로'(12.1%) 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아져(2002년 5.6%) 학교도서관 기능의 확대를 반영했다. 평소 읽고 싶은 책을 구해보는 경로는 '구입해서 본다'는 학생이 33.3%(부모님이 사주는 비율 중학생 9.6%, 고교생 4.1% 포함)로 2002년 대비 4%포인트 감소한 반면, '주위사람, 도서대여점,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에서 빌려본다'는 비율은 50.3%(2002년 46.4%)로 과반수를 넘겼다. 상급학교로 갈수록 대여 비율이 높으며, 도서를 빌려볼 경우 공공도서관 (8.5%)이나 학교도서관(13.1%)보다는 상업적 도서대여점(15.0%)을 이용하거나 친구 (13.7%)에게 빌려보는 경우가 많았다.

학생들의 한 학기 평균 도서구입비는 일반도서가 중학생 14000원, 고등학생 9000원이며, 학습참고서 구입비는 중학생 22000원, 고등학생 62000원(고3

은 13만 원)으로 학습참고서 구입비가 일반도서보다 2-7배나 많은 현실을 반영했다. 책 구입시 주로 이용하는 곳은 시내 대형서점(32.2%)과 학교근처서점 / 구내서점 (25.4%), 동네서점 (17.9%), 인터넷서점(10.1%) 순으로 나타났다. 킬링 타임용 도서는 유료로 빌려보고, 책값의 대부분은 학습 참고서 구입비로 지출하는 구조가 뚜렷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청소년 독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학생 개인들에게 방치된 '나 홀로 독서' 구조를 청산해야 한다. 책 읽는 재미와 정보, 방법, 환경을 가정과 학교, 사회가 챙겨주지 못하는 것은 어른들 모두의 잘못이다. 또 학생들이 독서의 장애 요인으로 '어떤 책을 읽을지 모르겠다'(8.3%)고 응답하여 정보 부족과 정보활용능력 미흡을 호소하고 있음에 착목해야 한다. 독립된 인격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직립보행을 준비하는 '사회적 걸음마' 단계를 스스로 알아서 헤쳐 나가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관용의 만용이다.

둘째, 독서습관 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교육의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학생 들이 지적한 독서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보다도 '공부 등으로 인한 시간 부족'(44.7%) 이다. 하지만 실제 여가생활에서 중고생 모두 TV 시청(17%), 인터넷하기, 컴퓨터게임, 음악감상 순으로 시간을 할애하고 여기에 이은 독서의 비중(평균6%)은 위 여가활동의 1/9 정도에 불과했다. 즉 시간 부족이 아니라 독서습관 부족이 진정한 장애물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책 읽는 재미와 지혜를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을 학교 운영의 중심에 두고 교과관련 참고독서를 활성화하는 등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청소년들의 의견은 출판계 입장에서 볼 때 경청해야 할 엄정한 독자의 요구이다. 독서 장려를 위해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응답하게 한 결과, 학생들이 출판사에 바라는 점으로는 다양한 양서 및 재미있는 책 발간, 책값 인하 등이 제시되었으며, 특히 '재미있는 책'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학교에 바라는 점으로는 학교도서관 및 학급문고 활성화, 독서 분위기 조성, 선생님의 적극적인 독서지도, 독서관련 행사 개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

시됐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의견과 그 함의에 육박해 가는 노력이야말로 이 나라의 미래와 청소년출판의 울창한 계통수를 만들어 가는 지름길일 것이다.

지금 청소년들은 사회적 방풍림도 없이 온몸으로 북풍한설을 맞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한 권의 책을 나침반 삼아, 난로처럼 따스한 학교와 가정의 온기로 추위를 녹이며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고 만들어 나가도록 어른들이 각성해야 한다. 이제 갈 길을 묻는 청소년들에게, 책과 더불어 대화하는 사회를 일구는 한 발짝 한 발짝의 정신으로 답해야 한다(자료출처 : 다음 카페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http://cafe.daum.net/ysial).

(2) 인터넷에 대한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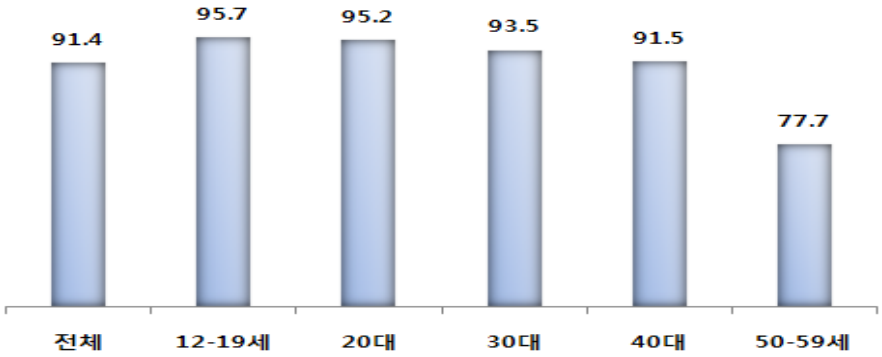
인터넷에 대한 접근은 최근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고, 정보교환, 여론형성, 정치세력형성 등 사회전반에 걸친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어 이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① 지표의 의미

인터넷에 대한 접근 지표로는 청소년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청소년 가구 중 컴퓨터를 보유한 가구의 비율), 청소년 가구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청소년 가구 중 초고속 인터넷에 가입한 가구의 비율), 일주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청소년의 일주일 동안의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등에 관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관련 통계 및 현황

먼저 청소년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2010)의 2010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연구를 통해 그 현황들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Ⅲ-2-3] 연령별 거주지 컴퓨터 보유율(%)

<표 Ⅲ-2-17> 2009년 5월 가구 컴퓨터 보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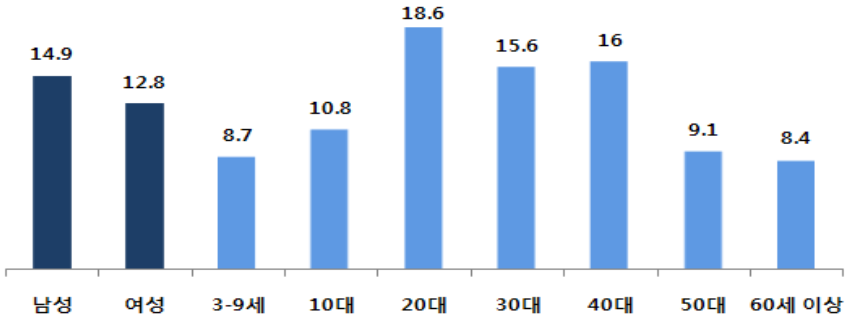
구 분	보 유	미보유
전체가구	81.4	18.6
가구주연령		
20대	97.4	2.6
30대	99.2	0.8
40대	97	3
50대 이상	61.8	38.2

또한 인터넷통계정보시스템(http://isis.nic.or.kr/)를 통해 알아본 청소년 가구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은 약 95%이상인 것으로 분석해볼 수 있는데, 이는 20대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과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의 가구 연령대를 감안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2009)의 2009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청소년의 일주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실태는 다음과 같다.

학생의 경우, 평일에는 방과 후인 15시 이후('21-22시' 44.0%, '22-23시' 44.1%)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직장인은 근무 시간 및 퇴근 후 저녁시간('21-22시' 49.6%, '22-23'시 45.8%)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주말·휴일에는 학생과 직장인의 인터넷 이용 시간대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2-4] 성, 연령별 주평균 인터넷 이용시간
-만3세이상 인터넷이용자(단위:시간)

<표 Ⅲ-2-18> 인터넷 이용빈도

	인터넷 이용빈도			
	하루에 1회 이상	일주일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미만
< 2008 >				
3~9세	71.7	26.9	1.3	0.1
남 자	71.8	27.8	0.4	0.1
여 자	71.6	26.0	2.3	0.1
10대	85.5	14.3	0.1	-
남 자	84.7	15.1	0.2	-
여 자	86.4	13.5	0.1	-
20대	87.3	12.5	0.2	0.0
남 자	87.4	12.4	0.1	0.1
여 자	87.1	12.7	0.2	0.0
< 2009 >				
3~9세	64.4	35.6	-	-
남 자	65.5	34.5	-	-
여 자	63.1	36.9	-	-
10대	96.7	3.3	-	-
남 자	97.1	2.9	-	-
여 자	96.1	3.9	-	-
20대	91.3	8.7	-	-
남 자	92.8	7.2	-	-
여 자	89.7	10.3	-	-

<표 Ⅲ-2-19> 주평균 인터넷 이용시간

	주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							
	1시간 미만	1-3시간	3-7시간	7-14시간	14-21시간	21-35시간	35시간 이상	주평균 (시간)
2008								
3~9세	4.0	7.2	29.1	34.1	13.1	10.9	1.7	8.6
남 자	2.3	6.1	29.8	33.7	15.1	10.3	2.7	9.1
여 자	5.7	8.4	28.4	34.4	10.9	11.6	0.5	8.1
10대	1.8	9.3	16.2	37.1	22.9	10.1	2.7	10.4
남 자	1.3	8.5	15.7	36.1	24.2	11.3	3.0	10.9
여 자	2.3	10.2	16.7	38.2	21.5	8.7	2.3	9.9
20대	0.4	1.1	3.6	23.4	33.5	26.0	11.9	18.6
남 자	0.3	1.0	3.0	19.9	35.6	27.1	13.2	19.5
여 자	0.5	1.3	4.2	27.2	31.3	24.9	10.6	17.5
2009								
3~9세	2.6	13.4	17.6	42.1	14.7	7.5	2.1	8.7
남 자	2.3	12.5	17.5	42.1	15.8	7.8	2.1	8.9
여 자	2.9	14.5	17.8	42.1	13.5	7.1	2.1	8.5
10대	0.7	8.3	15.4	36.8	26.0	10.3	2.4	10.8
남 자	0.9	7.5	14.5	35.9	27.5	11.3	2.5	11.1
여 자	0.6	9.2	16.5	37.8	24.4	9.1	2.3	10.5
20대	0.5	3.1	5.6	22.8	31.2	24.5	12.3	18.6
남 자	0.4	2.3	4.5	20.1	32.8	27.2	12.8	19.8
여 자	0.6	4.1	6.7	25.7	29.6	21.6	11.7	17.4

③ 관련 정책과 대안 모색

2005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2004년 12월 6일부터 12월 13일(8일간)까지 전국 거주 초·중·고등학생 1,865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중·고등학생) 및 일대일 면접조사(초등학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온라인게임 · 온라인채팅 · P2P공유사이트 · 커뮤니티 · 휴대폰 등 무선콘텐츠 및 청소년들의 인터넷에 대한 인식도·인터넷 이용행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2시간 12분이며 응답자의 46.5%가 “한번 접속하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고 대답했으며 “거의 매일 빠짐없이 인터넷에 접속한다”는 응답도 44.8%에 달하였다. 특히 인터넷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공부할 시간을 빼앗긴다”가 64.5%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수면부족, 시력저하, 신체피로”라는 응답이 56.4%로 나타나 인터넷 과다 사용이 청소년들의 신체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는 초등학생 저학년 단계에서부터 인터넷 역기능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전한 사이버 윤리 교육의 실시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인터넷 과다 사용이 청소년들의 신체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청된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터넷 문화 형성과 청소년 스스로가 사이버 공간의 주체로서 자신들의 창의성과 잠재된 능력을 적극 발휘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정책 개발을 추진 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차원에서 청소년보호 차원의 다양한 성인인증방법 검토,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보급 추진, 청소년을 위한 사이버 윤리 교육의 확대·강화, 사이버 윤리 평가, 척도에 의한 정기적인 평가 및 결과 공표를 통해인터넷 업계의 자율 정화 유도 등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2009년 아동·청소년백서에 따른 인터넷중독 대응정책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인격체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건강한 매체환경을 조성해주는 정책의 주요한 분야로서, 이를 위해 세 가지 차원의 상호보완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먼저 매체 역기능에 대한 비판력 및 변별력을 증진함으로써 인터넷 중독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청소년 스스로 지킴이(YP : Youth Patrol) 운동 등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고 있다. 둘째, 잠재적인 인터넷 중독 아동청소년에 대한 예방적 상담 활성화를 위해 한국청소년상담원을 중심으로 전국 148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연결하여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셋째, 심각한 인터넷중독 아동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위해 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와 공동으로 전국 26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치료센터와, 159여개 치료협력 병원을 지정 운영하는 등 치료 기반 확대에역점을 두고 있다.

이 중에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통한 상담과 정신보건센터를 통한 치료병원으로의 연계가 인터넷중독 대응정책의 핵심이라 하겠다. 16개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허브로 하는 지역협력망은 협력병원, 자치단체, 교육청, 청소년단체,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한다. 지역협력망을 통하여 인터넷중

독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추가상담을 통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보건센터를 통해 각 지역의 인터넷중독 치료협력병원에 의뢰하게 된다. 아울러 청소년 인터넷중독 관련 실적은 위기청소년안전망(CYS-Net) 시스템에 연계하여 지역별 중독해소 서비스지원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심각한 인터넷중독 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치료·재활기반이 현저히 부족하여 국민적 고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프로파일 연구와 중독 청소년에 대한 장단기적 서비스의 총괄적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2005년부터 <심각한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위한 치료-재활 기반 조성 및 임상적 치료-재활 모델 개발 사업>을 시작하였다. 1차 년도인 2005년에는 서울시를 시범지역으로 정하여 4대 권역에 각각 4개의 중심센터(서울대병원, 한양대병원, 연세대병원, 중앙대병원) 및 협력병원 8개소를 치료·재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심각한 인터넷중독 청소년의 심층적 개인심리치료, 입원치료 및 가족치료, 공존질환치료, 집단치료 모델을 개발하였다.

2006년에는 이 사업에서 개발된 치료모델을 수정 및 보완하여 매뉴얼화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 협력병원의 전문의들에게 인터넷중독 치료 모델을 교육시키는 등 치료 인력의 전문화를 꾀하였다. 또한 서울지역에 국한되었던 치료협력병원을 전국 64개 병원으로 확대하여, 전국의 대상 청소년들에게 좀 더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07년에는 지역협력망 내에서 상담과 치료 연계가 활성화되도록 전국 16개 시·도 96개 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치료가 가능하도록 병원을 확대하고, 국제심포지움을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 치료모델을 국제적으로 공유하였다. 2008년 말 현재, 2012년까지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선별검사를 확대하기 위하여 초·중·고 정신건강검진사업과 연계하여 정신보건센터 미설치지역에 보건소를 적극 활용하는 등 조기발견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치료기관도 전국 16개 시도의 대학병원(26개)와 지역병원(152개)을 협력병원으로 확대하였다.

이 경우 초기 진단비(5만원 범위내)를 국가가 지원하며, 저소득층 청소년의 경우에 대해서는 최고 50만원까지 치료비(진단비 포함)를 보조한다. 아울러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을 위하여 각급학교에 전문상담 및 방문상담을 통하여 인터넷중독 고위험군으로 판명된 경우 치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하는 등 인터넷중독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중독에 대한 상담·치료 이외에 인터넷에 몰입 혹은 중독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놀이 문화, 또래경험, 토론, 가족들과의 대화, 인터넷 중독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인터넷 뿐 아니라 다양한 즐길 거리의 경험과 가족 간의 대화 경험 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심각한 인터넷 중독을 호소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2주 과정의 '기숙형 치료학교'과정을 운영하여,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2주간의 합숙을 통해 인터넷과 단절한 채 자아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터넷중독 해소의 의지를 북돋웠다. 또한 해당 청소년과 YC(청소년동반자)를 1:1로 연계하여 치료효과를 유지하고 인터넷 중독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 상담과 생활점검을 통한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외에도 가족들의 이해와 협력이 치료·재활에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청소년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5박6일의 단기캠프인 가족치료캠프를 2006년부터 실시하였는데 특히 부모들이 적극 참여하고, 캠프 이후에도 정기적 모임을 갖는 등 인터넷 중독 치료에 긍정적인 모델로 성장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특화된 프로그램은 치료효과가 평균 50%를 넘으며, 만족도도 90%이상 얻는 등 지역단위로의 확대도 요구되고 있다.

5) 사회참여 및 참정권

사회참여와 참정권은 청소년의 참여권과 시민권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측면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연령과 능력, 그리고 미성년자라는 사회적 지위 등으로 인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United Nations, 2005). 본

연구에서는 사회참여, 학교에서의 참여, 참정권의 세 가지 큰 영역에서 청소년의 사회참여 및 참정권 실태·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회참여 관련 지표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대해 자기 목소리를 내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얼마나 하는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UNESCO에서 자원봉사활동의 보장뿐 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20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는 정규직근로를 통한 경제활동 등도 중요한 사회참여로 강조하여(Kim-Xuan, 2006) 본 지표안에 포함시켰다. 또한 청(소)년 실업률과 문화적 활동 참여현황 등의 실태를 정량적 지표에서 확인하였다.

학교에서의 참여는 학생 대표 피선출권을 제한하는 학교의 비율과 교칙 제·개정 학생 참여 허용 학교 비율,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참여 보장하는 학교 비율, 교육활동 결정과정 참여 정도의 4가지 세부 항목을 구성하였고, 참정권 관련 지표는 청소년의 선거참여율과 선거연령에 대한 인식/선거 참여 의향의 세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중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본 현황, 실태를 제외하고 사회참여 영역에서 부모나 학교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제제정도, 참정권 영역어서의 청소년 선거참가율을 정량적 지표로 확인해보았다.

(1) 사회참여

① 지표의 의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제재 정도와 청(소)년 실업률, 문화적 활동 참여현황을 알아보았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제재 정도는 청소년 노동을 금지하는 15세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모 및 학교의 제재정도이며 청(소)년 실업률은 본인이 취업을 원하거나 취업이 필요하지만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못한 비율을 의미한다. 문화적 활동 참여현황은 2009년에 실시한 청소년 단체 활동, 동아리 활동, 청소년 자치활동, 강좌 및 교육프로그램 참가활동, 스포츠활동, 자원봉사활동, 견학활동, 공연관람활동, 청소년 축제 및 행사활동, 단체수련활동, 야외자연체험활동, 국제교류활동, 청소년 시설 이용활동의 13개 활동의 지난 1년간 참여율을 조사한 결과를 의미한다.

② 관련 통계 및 현황

고용노동부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2009)」결과 중학교 3학년 22.5%, 고등학생 33.7%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분석' 결과보고서(2010)에서도 조사대상학생들의 20% 이상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을 정도로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 있을 뿐 만 아니라, 업주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ASUNARO]의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인터뷰 내용을 통해 부모나 학교의 제재 정도도 확인해볼 수 있었다.

- 선생님이나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나?

A: 처음에 알바를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화를 많이 내셨다. 차라리 용돈을 올려주겠다고 말씀하셨다. 부모님이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신 것 같다. 하지만 나중에 부모님 몰래 알바를 구했다. 두 달쯤 지나니까, 부모님도 제가 알바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국 저를 포기했는지 이후 그냥 내버려뒀다.

B: 제가 다니는 학교는 교칙으로 알바가 금지돼 있다. 알바를 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선생님 몰래한다. 알바 때문에 보충수업에 빠진다는 말은 꺼낼 수도 없다. 인문계 학교여서 그런지 학생들이 돈을 버는 것보다 공부하는 걸 원하는 것 같다. 하지만 알바가 불건전하거나 나쁜 일도 아닌데, 학교에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정규수업 시간은 어쩔 수가 없지만, 알바 시간을 학교에서 배려해주면 좋겠다. 보통 아침 7시 정도에 등교해, 야자 등 보충수업까지 하면 밤 10~11시가 된다. 그러면 방학 때 말고는 알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이다. 자꾸 학교에서 알바를 못하게 하니까, 학생들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다."

*자료출처 : 레디앙~[짱돌토크] 10대들의 '알바' 뒷담화…"우리도 노동자예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ASUNARO], 작성자 onlyasunaro)

한편 청소년 실업률은 통계청의 청소년 실업률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2008년 전체 청소년 실업자는 14만5천명, 실업률은 9.3%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자 청소년의 실업률(11.5%)이 여자 청소년(7.9%)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8년 15세 이상 전체 실업자는 76만 9천명으로 실업률이 3.2%인 점을 감안하면 청소년 실업률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실업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들어서 2002년 8.5%로 낮아진 다음 2003년 10.1%로 다시 높아진 이후 10% 이상의 실업률을 보여주다가 2007년 10%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나 1995년과 비교해 보면 2008년 청소년 실업률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Ⅲ-2-20> 청소년 실업자 수 및 실업률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1995	2004	2005	2006	2007	2008
청소년 실업자수	173	231	208	180	147	145
청소년 실업률	6.3	10.5	10.2	10.0	8.8	9.3
남 자	7.8	12.2	12.3	11.7	11.4	11.5
여 자	5.3	9.4	9.0	9.0	7.2	7.9

주 : 1)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5세 이상인 자를 조사하므로 청소년을 15-24세로 하였으며, 현역군인 등은 제외되었음.
2)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 각 년도.

<표 Ⅲ-2-21> 연령계층별·성별 청소년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2004	실업률	2005	실업률	2006	실업률	2007	실업률	2008	실업률
15-24세	231	10.5	208	10.2	180	10.0	147	147	145	9.3
남 자	104	12.2	94	12.3	80	11.7	74	74	68	11.5
여 자	127	9.4	114	9.0	100	9.0	73	73	77	7.9
15-19세	42	14.1	35	12.6	24	10.4	22	22	22	10.2
남 자	20	14.9	17	13.4	11	10.4	10	10	12	12.2
여 자	22	13.4	18	11.9	13	10.5	11	11	10	8.6
20-24세	189	9.9	173	9.9	156	9.9	126	126	123	9.2
남 자	84	11.7	77	12.1	69	11.9	64	64	64	11.4
여 자	105	8.8	96	8.6	87	8.8	62	62	67	7.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 각 년도.

OECD 국가들의 청소년 실업률과 비교해 보면, 남자 청소년의 실업률이 여자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나는 패턴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외적인 경우는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는 이탈리아(남자:여자=18.9%:24.7%)에서 발견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 실업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보기 위해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OECD 국가 전체 평균(12.4%)보다 3.1%p 낮아 IMF 이후 실업률이 증가하였지만 우리나라 청소년 실업률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실업 문제가 최대 사회 현안 중 하나인 이탈리아나 프랑스의 경우 청소년 실업률은 각각 21.3%, 18.1%로 20%내외의 높은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산학협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취업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져 매우 낮은 실업률을 보여주었던 독일과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은 여전히 매우 낮은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으나 독일은 통독의 영향 등의 이유로 OECD 평균보다 높은 10.4%의 청소년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청소년 실업률은 15-19세가 10.2%로 20-24세(9.2%)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5-19세 남자 청소년의 실업률이 12.2%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15-19세의 실업률은

9.3%에서 10.2%로 높아졌고 20-24세 실업률도 전년도보다 높아졌다. 성별로 보면 여자 청소년의 실업률은 7.2%에서 7.9%로 증가하였고 남자 청소년의 실업률도 11.4%에서 11.5%로 약간 증가하였다.

한편 청소년의 문화적 활동 참여 현황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09 아동청소년 활동문화 조사 보고서의 자료를 통해 그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09년 6월부터 9월까지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2,731명, 중학생 3,099명, 고등학생 3,389명을 조사한 결과, 첫째, 청소년활동은 주당 참여활동이라기 보다는 연간 참여활동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주간단위활동은 청소년단체활동(중·고생 주0.91회), 강좌 및 교육프로그램 수강(초·중·고생 주1.58회). 스포츠활동(초·중·고생 주1.96회)으로 나타났다. 월간단위활동은 청소년단체활동(초등생 월1.77회), 동아리활동(중·고생 월3.54회), 자치활동(초등생 월1.35회)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연간단위활동은 자치활동(중·고생 연3.83회), 자원봉사활동(초등학생 연4.08회), 중·고생 연3.67회), 견학활동(초·중·고생 연3.06회), 공연관람활동(초·중·고생 연1.67회), 축제 및 행사활동(초·중·고생 연1.25회), 단체수련활동(초등생 연 2.53회, 중·고생 연1.45회), 야외자연체험활동(초·중·고생 연1.28회), 국제교류활동(초·중·고생 연0.23회), 청소년시설이용활동(초·중·고생 연1.00회)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들에게서 문화예술활동, 진로직업활동, 교류활동에 대한 참여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복수응답)에 대해 문화예술활동(63.6%), 진로직업활동(41.5%), 교류활동(32%) 등의 순서를 보였다.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을 3순위까지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문화예술활동(58.7%), 모험개척활동(39.6%, 교류활동(29.1%), 고등학생은 문화예술활동(68.3%), 진로직업활동(44.8%), 교류활동(3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은 단체수련활동(47.5%), 견학활동(43.5%), 스포츠활동(42.6%) 순으로 대답했고, 중학생은 공연관람활동(42.3%), 동아리활동(37.9%), 단체수련활동(36.8%)으로, 고등학생은 공연관람활동(53.9%), 동아리활동(41.2%), 스포츠활동(38,7%)의 순서로 응

답하였다.

셋째, 2008년 청소년활동시설 연간 방문횟수는 시설 별로 0.8회~2.3회로 나타났다. 주민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을 방문한 횟수가 가장 많았고(2.27회), 다음으로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야영장 등은 1.05회,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회관, 수련관 등은 0.82회로 나타났다. 2008년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비율은 고등학생(53.9%), 초등학생(44.9%), 중학생(38%)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형태(복수응답)는 학교 수련활동(초등학생 70,5%, 중·고등학생 77.9%)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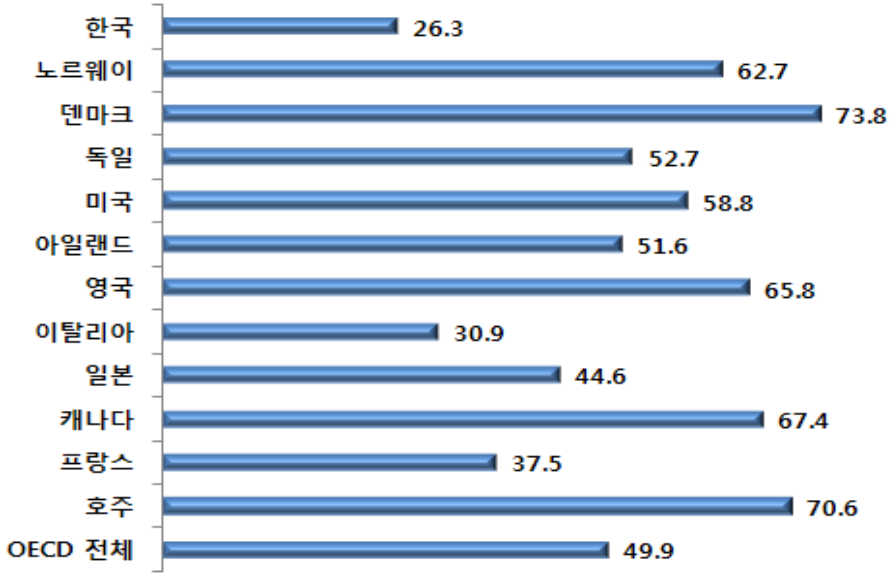
넷째, 청소년활동을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복수응답)로는 참여할 시간이 없다(49.1%)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참가비용이 부담되어서(43%), 필요 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34.7%),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31.8%),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25.2%), 프로그램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25.2%),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18.5%), 같이 참여할 친구가 없어서(18%),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12.4%) 활동 참여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활동에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활동 참여증진 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참가비용을 국가에서 지원(58.9%), 학교를 통해서 청소년활동 참여기회를 확대시키는 것(40.2%), 참여 청소년에게 상을 주는 포상제도(38.4)의 순서로 나타났다.

다섯째, 청소년들의 문화관련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영화가 87점으로 가장 높았고, 만화/애니메이션(73점), 발라드(67점), 힙합/랩(57점), 연극/뮤지컬(57점), UCC(55점), 클래식(49점), 미술(48점), 문학(42점), 트로트(38점), 무용(34점), 국악(31점) 순으로 응답하였다. 청소년의 문화 관련 요구도는 악기연구(58점), 블로그/미니홈피/카페운영(55점), 영화출연/제작(54점), 가수(51점), 그림(49점), 연극/뮤지컬출연(45점), UCC제작(44점), 시/소설(38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③ 관련 정책과 대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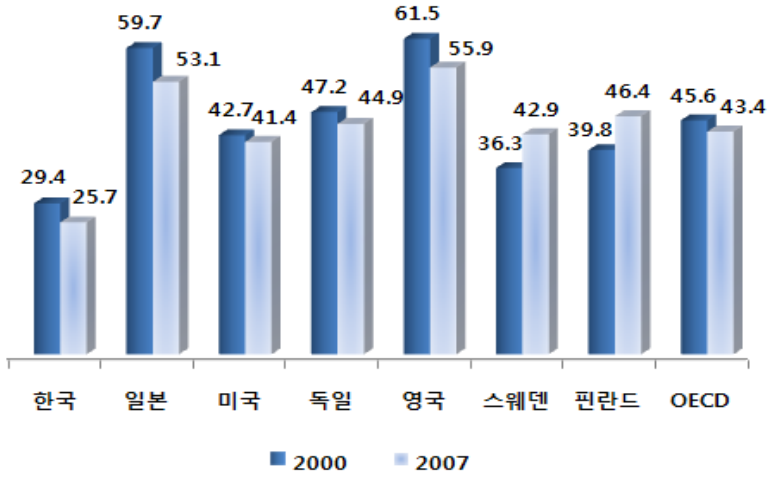
사회참여와 관련하여 아르바이트나 실업률은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관련 정책 현황을 파악해볼 수 있다. 노르웨이, 덴마크, 호주 등 북유럽 국가들과 영국이 60% 이상의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6.3%의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OECD국가 전체의 비율인 29.9%보다도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주 :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100
자료 : OECD(2009). OECD Employment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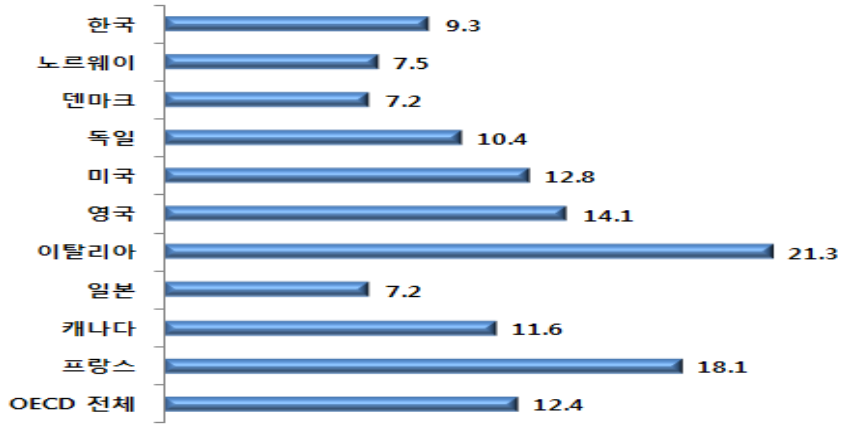
[그림 Ⅲ-2-5] 2008년 청소년(15-24세) 경제활동 참가율



주 : 고용율=취업자 수/생산가능인구×100

자료 : OECD(2009). OECD Employment Outlook.

[그림 Ⅲ-2-6] 청소년(15-18세)고용률



주 : 실업률=실업자 수/생산가능인구×100

자료 : OECD(2009). OECD Employment Outlook.

[그림 Ⅲ-2-7] 2008년 청소년(15-24세) 실업률

한편 정부의 2009년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영역으로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 '청소년 문화존', '청소년 수련활동인증제',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있다. 먼저 청소년 동아리 활동 영역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에서는 2,000개의 청소년 동아리를 지원함으로써 동아리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표 Ⅲ-2-22> 전국 시·도별 동아리 지원 현황

(2008.12.31 기준, 단위 : 개)

시·도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000	412	440	152	112	68	68	46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62	78	74	68	104	124	60	22

또한 주5일 수업제의 확대 실시에 따라 방과후 시간대에 청소년의 생활권 주변에서 쉽고 다양한 문화체험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2004년, 2005년 8개 광역시도에서의 운영을 시작으로 2007년 전국으로 확대·실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수련활동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2006년부터 국가인증제도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2009년 청소년수련시설 36개소 신규건립 지원 및 기존 시설 33개소에 대하여 기능보강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등 16개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청소년 자원봉사 협력학교와 함께 청소년 해외봉사단을 운영하고 있고, 매 해 각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청소년 봉사활동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표 Ⅲ-2-23> 인증수련활동 영역별 분류

영역	영역별 활동 예시(안)
건강·보건활동	신체단련활동, 약물예방활동, 흡연·음주·약물·비만 예방활동, 안전·응급처치활동, 성교육활동
과학정보활동	모형 및 로봇활동, 인터넷활동, 우주천체활동, 정보캠프활동, 영상매체활동 등
교류활동	청소년국제교류활동, 남북 청소년교류활동, 도농간 청소년교류활동, 국제이해활동, 다문화이해활동, 세계문화비교활동, 한민족청소년캠프 등
모험개척활동	탐사·등반활동, 야영활동, 해양활동, 오지탐사활동, 극기훈련활동, 호연지기활동, 수상훈련활동, 한국의 산수 탐사활동, 안전지킴이활동 등
문화예술활동	지역문화, 세계문화, 대중문화, 역사연극활동, 어울마당, 전통예술활동 등
봉사활동	일손돕기활동, 위문활동, 지도활동, 캠페인활동, 자선·구호활동, 지역사회개발 및 참여 활동 등
직업체험활동	청소년모의창업, 경제캠프, 사회생활기술, 진로탐색 활동, 직업현장체험 등
환경보존활동	생태활동, 환경탐사활동, 자연지도 만들기, 숲체험, 환경음식 만들기, 환경살리기 활동, 환경·시설 보존활동 등
자기(인성)계발활동	표현능력개발 수련활동, 자기탐구활동, 자기존중감향상 프로그램, 자기표현활동, 심성수련활동 등

<표 Ⅲ-2-24>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2009.12.31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총 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계	707	160	205	179	42	115	6
공 공	446	156	201	46	25	12	6
민 간	261	4	4	133	17	103	0

<표 Ⅲ-2-25> 연도별 해외봉사단 파견지역 및 파견형태

연 도	파견지역(국)	파견형태	비고
2002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중국, 홍콩, 대만, 호주(7개국)	14개 지방센터에서 월드컵청소년 홍보단으로 개별파견(130명)	최초 파견 사업 시작
2003	몽골, 중국, 태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6개국)	15개 지방센터에서 센터별 자체 편성을 통해 개별파견(269명)	
2004	카자흐스탄, 러시아(하바로 프스크), 몽골(3개국)	'고려인 돕기 봉사활동' 주제로 중앙센터의 조정에 의해 개별파견(162명)	
2005	스리랑카	쓰나미 피해지원봉사단으로 16개 지방센터에서 통합파견(176명)	구)국가청소년 위원회 주최
2006	러시아 연해주(빠르티잔스크)	고려인돕기 봉사활동으로 16개 지방센터에서 통합파견(174명)	〃
2007	캄보디아, 라오스	현지 봉사활동으로 16개 지방센터에서 통합파견(182명)	〃
2008	캄보디아, 라오스	현지 봉사활동으로 16개 지방센터에서 통합파견(183명)	보건복지가족부

<표 Ⅲ-2-26> 2008년 해외봉사단 파견지역 및 파견형태

파견국	캄보디아 (4개 팀)				라오스 (4개 팀)			
파견 지역	Udeng (우동)	Kampong Cham 1(깜퐁짬)	Kampong Cham 2(깜퐁짬)	Dei Edth (다이엣)	Ponhong (폰홍)	Vang Vieng 1(왕위앙)	Vang Vieng 2(왕위앙)	Vienkham (위앙캄)
지방 센터	서울,경북 (20)	인천,전남(20)	울산,충북 (20)	부산,대전 (20)	충남,전북 (20)	대구,제주 (20)	경기,경남 (20)	광주,강원 (20)

<표 Ⅲ-2-27> 청소년자원봉사 활동분야별·활동터전별 활동현황

(2008.12.31 기준)

분야별 봉사활동		활동터전별 봉사활동	
구 분	인 원(%)	구 분	인 원(%)
일손돕기	1,635,218(87.5%)	공공기관 및 단체	1,771,342(94.5%)
위문활동	21,571(1.2%)	사 회 복 지 시 설	5,216(0.3%)
지도활동	21,640(1.2%)	공공시설 (관공서)	7,176(0.4%)
캠페인	17,961(1.0%)	문화.예술시설 (관련단체)	306(0.1%)
자선구호	36,978(2.0%)	체육.관광시설 (자연)	577(0.3%)
환경시설보존	27,901(1.5%)	종교.사회단체 (관련단체)	69,101(3.7%)
지역사회개발	40,561(2.1%)	지역사회(행사장)	4,568(0.2%)
기 타	65,969(3.5%)	기 타	9,513(0.5%)
합 계	1,867,799(100%)	합 계	1,867,799(100%)

(2) 참정권

① 지표의 의미

참정권 관련 지표는 19세 청소년의 선거참가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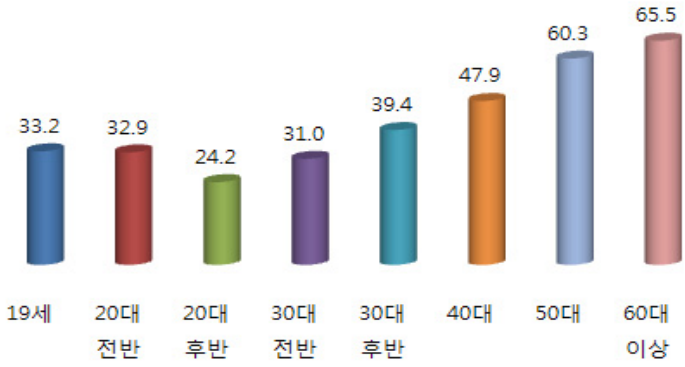
② 관련 통계 및 현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총람에 의하면, 2006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선거권이 부여된 19세의 투표율은 33.2%로 투표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인 20대 후반(24.2%)보다 9.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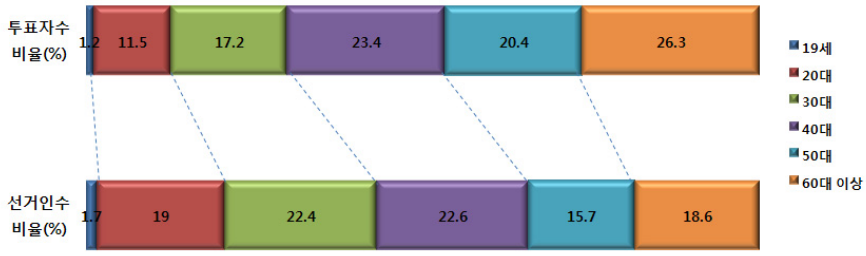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연령대별 투표자수 비율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26.3%, 40대가 23.4%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다음으로 50대 20.4%, 30대가 17.2%, 20대가 11.5%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인수 비율은 40대가 22.6%로 가장 많았으나, 투표자수 비율은 60세 이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시 전 연령대에서 투표율이 감소하였으며, 투표율이 가장 많이 감소한 연령대는 30대 전반으로 22.2%p가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은 6.0% 감소하였다. 20대, 30대 등 저연령층의 경우 투표율이 높은 대통령선거와 투표율이 낮은 지방 선거간 투표율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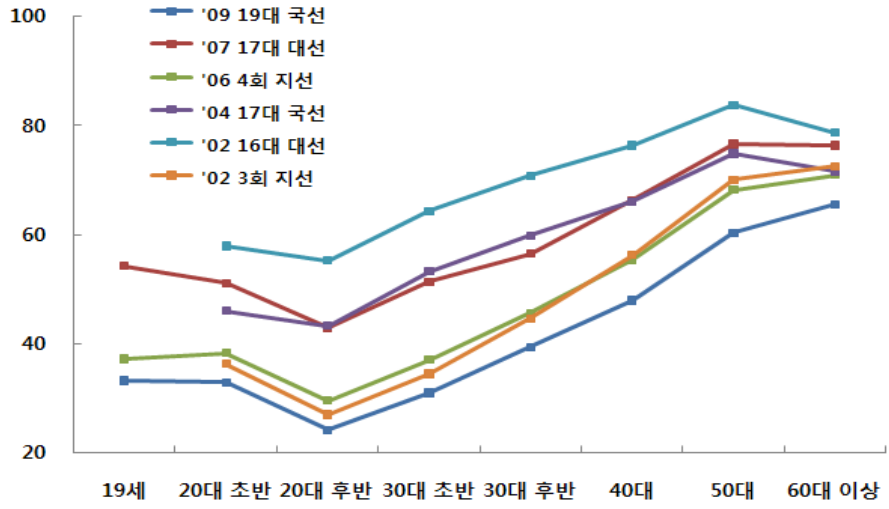
반면, 50세 이상의 고연령층의 경우 선거별 투표율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2-8] 연령대별 투표율



[그림 Ⅲ-2-9] 연령대별 선거인수/투표자수 비율 비교



[그림 Ⅲ-2-10] 최근 선거의 연령대별 투표율 변화

[그림 Ⅲ-2-11] 성별·연령대별 투표율

③ 관련 정책과 대안 모색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인도, 필리핀, 중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위스, 태국, 브라질, 쿠바, 멕시코, 페루 등 세계 119개국

중 18세 선거연령 이하인 나라가 98개국(82%)이며, 북한도 17세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의 나라는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21세에서 바로 18세로 낮추었으며 노르웨이도 20세에서 18세로 낮추었다. 또한 유럽지역 선거의 투표 및 입후보 권리도 다음의 표와 같다.

<표 Ⅲ-2-28> 세계 국가의 선거 연령

연령	국 가 명	국가수
16세	니카라구아, 쿠바, 브라질(임의적)	3
17세	북한, 인도네시아, 이란, 수단	4
18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중국, 호주, 브라질(의무적), 뉴질랜드,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인도, 벨기에, 아르헨티나,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체코, 이스라엘, 이탈리아, 에코로르, 멕시코, 불가리아, 그리스, 폴란드, 스페인, 도미니카, 스위스, 캐나다,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필리핀, 슬로바키아, 러사아, 헝가리, 루마니아, 태국, 이집트, 터어키, 몽골, 스리랑카, 에디오피아, 수리남, 과테말라, 파키스탄, 그라나다, 아이슬란드, 미크로네시아,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팔, 베네주엘라, 칠레, 파나마,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 우루과이,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엘살바드로, 니제르, 시리아, 베트남, 유고슬라비아, 잠비아, 바하마,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짐바브웨,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벨로루시,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그루지아, 가나, 아이티, 이라크, 몰타, 마샬군도, 모리타니, 모르셔스, 팔라우, 세인트키츠네비스, 슬로베니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투발루, 탄자니아, 바누아투, 콩고, 세네갈, 가이아나, 아일랜드, 자메이카, 케냐, 마다가스카르, 나이지리아, 파라과이, 산마리노, 안도라, 안티가바부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마케도니아, 시에라리온, 상투메프린시페, 파퓨아뉴기니, 알제리, 솔로몬제도, 브르키나파소, 기니, 키리바시,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말리, 코트디브아르, 바베이도스, 베냉, 보츠와나, 기니비사우,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라나다, 말라위, 몰도바, 세이셜, 키프로스, 가봉, 온두라스, 세인트루시아 등	143

<표 Ⅲ-2-29> 유럽지역의 선거 투표 및 입후보 권리

국가	선거권(연령)	피선거권(연령)	국가	선거권(연령)	피선거권(연령)
알바니아	18	18	네덜란드	18	18
안도라	18	18	노르웨이	18	18
오스트리아	18, 19, 20	18, 19, 20	폴란드	18	18
벨기에	18	18	포르투갈	18	18
불가리아	18	18	루마니아	18	23
크로아티아	18	18	러시아	18	21
키프로스	18	25	산마리노	18	18
체코	18	18	슬로바키아	18	18(시의원25)
덴마크	18	18	슬로베니아	18	18
에스토니아	18	18	스페인	18	18
핀란드	18	18	스웨덴	18	18
프랑스	18	18	스위스	18	
독일	16, 18	18	아일랜드	18	18
그리스	18	18	이탈리아	18	18
헝가리	18	18	라트비아	18	18
아이슬란드	18	18	리히텐슈타인	20	20
리투아니아	18	18	마케도니아	18	18
룩셈부르크	18	21	터키	18	25
몰타	18	18	우크라이나	18	21
몰도바	18	21	영국	18	21

* Council of Europe, 'Electoral systems and voting procedures at local level'. The Electoral Commission(2003. 7). 『How old is old enough?』 Consultation paper. 재인용.

만 18세의 청소년들에게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많은 법적인 의무가 부여된다. 주민등록 발급(17세), 원동기면허(16세), 운전면허(18세), 공무원 임용(18세), 혼인적령(18세) 등 다른 법령에서 대부분의 권리가 부여되는 18세에 뚜렷한 이유 없이 선거권만 허용하지 않는 것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같은 나이의 청소년들에게 병역의 의무로 총은 쥐어주면서 투표지는 빼앗아 참정권을 박탈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뿐 만 아니라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6) 참여관련 인식

청소년 참여관련 인식에 관한 내용은 새로 추가된 영역으로 청소년들이 참여의 의의와 필요성, 참여에 있어서의 장애요인, 참여효과, 참여활성화 방안, 우리사회의 참여권 보장 수준 등의 항목을 통해 이를 확인해볼 수 있다. 정량적 지표로는 참여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① 지표의 의미

청소년참여의 효과에 관한 지표는 그동안의 진행된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 청소년 참여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내용이다.

② 관련 통계 및 현황

청소년참여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으며, 대체로 개인적, 사회적 측면에서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Winter(1997)는 청소년참여는 청소년을 사회구조에 통합(fitting)하며, 청소년의 사회적 영향력과 권한을 강화하는 수단(empowerment)으로 작용하고, 청소년들에게 자질있고 독립적이며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발달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education in democratic citizenship)으로서의 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Chechoway(1999)는 청소년들의 참여로 얻어지는 이득은 개인발달(personal development), 조직개발(organizational development),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 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유용하다고 하였다(조혜영·최창욱, 2008, p.114 재인용).

한국에서 실시된 최창욱·조혜영(2007)의 연구에서는 사회를 보는 시각 확대, 공동체 의식 확대, 능력과 자질 향상, 문제해결과정에서의 자부심 확대를 들고 있다. 특히 개인변인 및 참여관련변인이 리더십능력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리더십능력 수순을 예측하는데 있어 자아존중감, 참여정도, 성적, 성취기대수준, 연력, 경제적 배경 순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인들은 리더십능력 수준의 43.8%를 설명해 주었다.

<표 Ⅲ-2-30> 개인변인 및 참여관련변인이 리더십능력수준에 미치는 영향

변 인	β(표준화)	R^2(adj-R^2)	F
자아존중감	.489***	.443(.438)	84.995***
참여정도	.184***		
성적	.146***		
성취기대수준	.106***		
연령	.080**		
경제적배경	.082**		

** p<.01, *** p<.001

또한 개인변인 및 참여관련변인이 리더십능력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목표달성수준을 설명하는데 있어 자아존중감, 참여정도, 성적, 성취기대수준, 참여기간 변인들의 순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인들은 목표달성 수준의 32.5%를 설명해 주었다. 재창조수준을 설명하는 변수로는 자아존중감, 참여정도, 경제적배경, 성적, 참여기간의 순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수들은 재창조수준의 28.5%를 설명해 주었다. 통솔력 수준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자아존중감, 참여정도, 성적, 성취기대수준, 연령 변수의 순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수들은 통솔력수준의 28.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관계수준을 설명하는데 있어 자아존중감, 참여정도, 성적, 가정형편, 성취기대수준의 순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수들은 전제 인간관계수준의 21.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목적의식수준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자아존중감, 성적,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 연령, 경제적배경 변수의 순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수들은 전체 목적의식수준을 29.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31> 개인변인 및 참여관련변인이
리더십능력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변 인	β(표준화)	R(adj-R)	F
목표달성	자아존중감	.408***	.330(.325)	63.279***
	참여정도	.145***		
	성적	.171***		
	성취기대수준	.092**		
	참여기간	.081*		
재창조	자아존중감	.400***	.290(.285)	52.456***
	참여정도	.196***		
	경제적배경	.099**		
	성적	.083*		
	참여기간	.067*		
통솔력	자아존중감	.378***	.292(.286)	52.893***
	참여정도	.157***		
	성적	.130***		
	성취기대수준	.116**		
	연령	.090**		
인간관계	자아존중감	.347***	.223(.216)	36.745***
	참여정도	.123**		
	성적	.105**		
	경제적배경	.088*		
	성취기대수준	.083*		
목적의식	자아존중감	.424***	.306(.299)	47.045***
	성적	.113**		
	참여정도	.108**		
	성취기대수준	.089**		
	연령	.082*		
	경제적배경	.083*		

* p<.05, ** p<.001, *** p<.001

한편 김정주 외(199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는 청소년 정책 참여의 효과는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인식 증가, 지역사회 기여, 자아정체감 형성, 대인관계 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김희성(2004a)은 청소년참여와 임파워먼트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참여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의 정치,사회 임파워먼트 수준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

났고, 적극적 참여정도가 강할수록 정치, 사회적으로 더욱 임파워먼트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즉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참여활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잠재적 힘을 발견하고 실제적 힘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경호·문지영(2005)은 청소년 개발조직, 자생적 청소년조직 중심으로 사례를 선정하여 연구하였는데 연구결과 지역사회 청소년 조직에의 참여를 통해 청소년들이 임파워먼트를 경험하게 됨을 입증하였다. 김원태(2001)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참여가 정치적 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참여의무감과 같은 시민의식 형성에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밝혀냈으며 허인숙·이정현(2004)의 연구에서는 사회참여 활동 후에 느끼는 만족감이 시민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아내었다. 이기범(2005)은 청소년 참여가 민주시민 의식 향상 뿐 아니라, 학습과정에도 매우 큰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여 사회적 실천에의 참여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들과의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청소년 참여활동의 성과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탐색을 연구한 조혜영·최창욱(2008)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참여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 다른 의견을 들어봄으로써 사고의 폭을 넓히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자신과 관심분야를 공유하는 사람을 만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의사소통 기술을 익히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더욱 적극성을 기르게 되며, 자신이 주도하여 타인의 의견이나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기르게 된다. 또한 참여활동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주도성과 성취감을 경험하며 정의적, 사회적 영역 뿐 아니라 지적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사소통을 하고 의견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의사표현 능력을 기르며, 나름대로의 논리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배경지식을 충분히 쌓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③ 관련 정책과 대안 모색

2010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참여 관련 정책사업은 '청소년 정책참여 및 권익 증진 확대'를 위해 청소년분야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

별회의"를 운영하고, 중앙 및 지자체(179개) 단위 "청소년정책참여위원회"를 운영하며 청소년시설(273개)의 운영에 청소년의 관점과 권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이 창의적·자율적으로 기획·운영하는 참여 프로그램 지원한다. 특히 2010년 사업 추진방향은 지역사회 변화 유도를 위한 풀뿌리 참여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확대 추진하고(※ '10년 참여위원회 설치 현황 : 전국 174개소 운영 중)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대표성 확보를 위해 참여기구 청소년 선발 기준 준수할 것이다. 그리고 참여기구 위상 재정립을 통한 청소년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해 2009년 개편된 시·도 참여기구 통합 운영의 안정적 운영 도모를 통한 참여기구 위상을 재정립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하여 다양한 경로의 홍보 등을 통해 참여기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있다.

3. 아동 · 청소년 참여권 정책제언

청소년 참여권 지표는 2006년도의 연구에서 5개의 관심영역, 12개의 세부관심영역의 31개 개별지표가 개발되었으며, 이후 2009년 권리지수 개발연구에서는 그 중 대표적인 23개를 선택하여 해당 지표의 현황 분석이 수행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의 지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2호의 내용도 참고하여 6개의 관심영역, 17개의 세부관심영역, 48개의 개별지표가 개발되었다.

이 연구는 그러한 흐름에서 청소년 참여권의 대표적 지표항목으로 제시된 항목 가운데 본 연구에서의 설문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외한 정량적 지표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정량적 지표 내용들은 관련 통계와 현황이 파악가능하고, 정책과 대안모색이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각 지표의 의미, 통계와 현황, 그리고 관련 정책과 대안모색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참여권 지표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참여권 지표의 개발과 관련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 참여권 이론적 Framework에 기반한 총체적인 지표항목의 개발 및 조정이다. 아동·청소년 참여권은 다른 권리영역, 즉,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등보다 오히려 참여권의 보장이 더 어려운 현실에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청소년의 참여권 행사를 가로막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 입시위주의 교육과 권위적인 학교분위기, 보수적인 유교문화, 청소년 참여에 대한 청소년 자신과 사회전반의 인식부족 등이 그것이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따라서 청소년의 참여에 관한 연구도 미비하였고 이와 관련된 통계자료 실태도 매우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수행된 지표개발도 아동권리협약이라든지 다른 외국의 선행연구들에서 진행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문화와 실정에 맞는 아동·청소년 참여권 지표들이 고려되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참여권의 Framework과 국제대비 수준의 참여권을 비교·고찰할 수 있는 총체적인 이론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청소년 참여권의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를 고려한 지표항목의 개발이다. 2006년의 연구에서도 지적했듯이,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는 아동과 청소년의 외적 환경과 내적 인식을 측정하는 것이고 어느 한 부분만을 고려하여 최종 권리지수를 산출하였을 경우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연간시계열 국가통계 등의 객관적 지표만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권리지수를 산출하였을 경우 실제 한국의 아동·청소년들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혹은 인지적으로 그들의 삶에 있어서의 주체적 권리를 느끼고 있는지와 동떨어진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주관적 지표들로만 아동·청소년권리지수의 지표들을 구성 하였을 때에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나 사회의 제도적 환경 등에 대한 평가가 전혀 고려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참여권 관련해서 현재 수준은 주관적·객관적 지표 모두 그 현황조차 파악하기 매우 어려워 지표 연구시 마다 조사를 하여 데이터를 구축해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기초연구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표를 구성할 때, 객관적 지표로 파악할 수 없는 사안이라 주관적 지표로 대체할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지표를 모두 파악하여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참여권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셋째,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행사에 관한 지표와 아동·청소년이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는가의 관점에서 지표산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 등의 환경의 변화가 중요하다. 현재 청소년 참여권 실태 관련한 각종 선행연구결과에서 학교에서의 청소년 참여권 보장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에서의 청소년 참여권은 연구조차 많이 수행되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형태로의 사회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참여의 기회 제공, 정보 제공, 채널 제공 등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청소년 참여권 관련한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자체의 참여능력에 대한 지표 뿐 아니라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청소년 참여 보장 구축정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지표가 다양하게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지표는 다른 지표와는 달리 보다 적극적인 성격이 강화된 지표이다. 따라서 참여권 관련 지표결과들이 지표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충분히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미비한 데이터의 경우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촉진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세부 개별 지표의 수준을 국제적 수준과 비교, 고찰하여 이를 국제적으로 향상시키는 노력을 촉발시키는 기능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아동·청소년 참여권 지표의 데이터 구축 종단화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 참여권 지수구축을 위한 세부지표들은 자료의 출처 뿐만 아니라 자료수집 주기 또한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단기적이고 산발적으로 수행된 설문조사로는 참여권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 산출해내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짧은 자료구축 기간과 지표별 구축년도의 상이함은 많은 수치를 추정해야 하는 등 표준화 과정에서 많은 기술적 문제를

야기 할 수밖에 없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따라서 아동·청소년 참여권 지표의 데이터 구축의 포괄적·종합적 그림을 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세부지표들이 일관된 구축년도를 통해 자료가 축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종단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Ⅳ. 아동·청소년 발달권 및 참여권 지표 연구의 발전과제

1. 아동·청소년 발달권·참여권 지표 검토를 위한 문제인식
2. 아동·청소년 발달권·참여권 지표체계의 의의 및 기능
3. 아동·청소년 발달권 및 참여권 지표체계 개선과제

Ⅳ. 아동·청소년 발달권 및 참여권 지표 연구의 발전과제[1)]

1. 아동·청소년 발달권·참여권 지표 검토를 위한 문제인식

이 연구는 2006년부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연속사업으로 수행되어 온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의 5년차 과제로서, 인권영역 중 발달권과 참여권 분야에서 우리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과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환경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토대의 구축과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5년차까지 지속되었을 만큼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진행된 이 연구는 기간 많은 성과물들을 내어 왔으나 다양한 문제점 또한 노정하였다. 5년차를 정리하게 되는 이 시점에서 과거 연구의 궤적을 간단히 되살펴 보면, 사업 1차년도인 2006년에는 국제기준을 반영한 152개 항목의 청소년인권지표체계를 개발하였고, 사업 2차년도인 2007년도에는 전체 4개 영역의 핵심 정성지표 항목을 중심으로 63개 문항의 설문지를 개발하여 한국의 청소년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전국규모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업 3차년도인 2008년에는 1, 2차년도 연구에서 개발된 조사도구를 활용하여 한국과 주요 외국의 청소년 인권실태를 비교하는 국제비교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한국청소년의 인권수준을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2009년 4차년도에는 생존권과 보호권 43영역에서 총 34개의 새로운 지표항목이 추가로 발굴·보완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141문항으로 구성된 설문도구(생존권 46문항, 보호권 84문항, 배경변인 9문항)를 개발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올해 연구에서는 전체 4개 영역으로 분류된 인권체계 중 발달권과 참여권 영역을 함께 묶어 주요 지표의 추가 산출을 통해 133문항(청소년용 기준)으로 구성된 설문도구(발달권 63문항, 참여권 61문항, 배경변인 9문항)를 개발하였으며,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의 변화양상과 인권현황을 파악하고자

1) Ⅳ장은 한양사이버대학교 김신영 교수가 집필하였음.

하였다.

과거 5년간 많은 연구성과물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에서 노정되는 가장 큰 문제점들은 첫째, 기개발된 지표들, 특히 조사문항들로 이루어진 정성지표들은 얼마만큼의 학문적 고민을 담아내고 있는가, 둘째 '위의 지표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학문적 연구와 정책적 연구는 상호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 정책지향적 연구가 학문적 철저함을 갖지 못한다면 연구의 결과는 과학적이지 못하며 따라서 그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한 정책적 효용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문적 연구가 실제 현실에서 의미를 전혀 갖지 못한다면 이 또한 엘리트들의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정책적 실효성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지표관련 연구, 그 가운데서 특히 종합적 지표체계를 생산하고자 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관련 통계의 단순 나열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관련 자료들을 하나의 보고서에 종합하는 것 자체도 충분히 의의가 있는 작업이다. 그러나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이 과연 전체적인 종합지표의 틀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 되어야 하는가를 밝히는 작업은 제시된 자료에 대한 독자들의 체계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만약 그 독자가 실제 정책의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정책적 개입의 지점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위에서 제기한 두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장에서 다룰 내용들을 소개하자면 먼저 발달권과 참여권 정량지표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이루어 질 것이다. 검토의 지점은 어떻게 하면 행정자료 내지는 과거 조사자료들을 나열하는 식의 지표체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를 집중시키도록 한다. 다음으로 발달권과 참여권 정성지표, 즉 조사문항 및 결과들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자 한다. 검토의 지점은 크게 조사문항들의 측정속성에 대한 검증과 지표로서의 조사결과 활용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언차원에

서 발달권과 참여권 지표들의 지수화 방안을 언급하고, 더 나아가 국제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아동·청소년 발달권·참여권 지표체계의 의의 및 기능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천부적 권리로서 보편성(universality)과 비양도성(inalienability), 비분리성(indivisibility),독립성(interdependence)과 상호연관성(interrelatedness),평등(equality),비차별(non-discrimination),참여(partipation)와 통합(inclusion). 그리고 책임성(accountability)과 법치성(the rule of law)을 그 특징으로 한다(UNDP, 2007).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발달권과 참여권, 보호권도 이 같은 인권의 6대 원칙에 근거해서 그 개념이 정의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다른 유형의 권리(예: 생존 및 보호권)와 마찬가지로 발달권이나 보호권에 대한 정의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인권을 인권의 '보편적' 관점에서 파악할 것인지 아니면 성장발달단계 있는 시기적 특성을 감안한 '특수성'의 관점에서 파악할 것인지에 따라 그 개념이나 정의가 달라진다. 전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아동의 생존 및 보호권은 성인과 동등한 기본적 권리로서 아동·청소년이 보호의 객체가 아닌 능동적 주체로서 가지는 권리로 정의된다. 반면, 후자의 관점에서 생존 및 보호권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기의 특성상 자율성을 가진 능동적 권리의 주체보다는 수동적인 보호의 객체로서 가지는 권리로 정의된다.

다른 유형의 아동·청소년관련 지표와 달리 청소년 인권에 대한 지표는 다소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인권과 관련된 국제적 환경이 그것인데,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협약에서 제시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님과 동시에 나아가 실제적으로 그 법을 집행하고, 집행결과를 모니터링하며 협약의 관점에서 국내적 실천과 관행에 대한 검토의 의무를 지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지표가 중요시되는 이유는 이러한 권리협약 이행 자체 또는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 제공

수단으로써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권리협약이 정부에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활동을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므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이러한 모니터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료가 수집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료의 수집은 아동권리지표라는 기준을 이용할 때 보다 체계적인 자료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시계열 비교 등에서 활용 시 효율성이 높다(서문희·안현애, 2003).

아동·청소년 발달권과 참여권에 대한 각각의 지표체계들은 아래와 같다. 각각의 지표체계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먼저 발달권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목적으로 성장주기에 따라 각 발달과정의 과업수행에서 요구되는 과제들에 대한 권리로 정의된다. 광범위한 문헌검토를 통하여 청소년 발달의 영역은 인지, 정서, 사회, 직업, 그리고 신체적 영역[1]으로 나뉘게 되며 정량지표 또한 이러한 구분에 의해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참여권은 자신의 국가나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등이 포함된다고 정의되고 있다. 발달권과 달리 참여권 지표체계는 하위권리로 구분되는 것이 아닌 실제적인 청소년들의 권리를 관심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발달권과 참여권 정량지표 분석은 <표 Ⅱ-1-3> '2010 아동·청소년 발달권 지표체계'와 <표 Ⅲ-1-1> '2010 아동·청소년 참여권 지표체계'에 근거하여 개별 지표들에 대하여 지표의 의미를 제공하고 다음으로 관련통계 및 현황을

1) 각각의 발달에 대하여 간략한 정의를 부여하자면 먼저 인지적 발달이란 사고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신과정이 점진적·순차적으로 보다 복잡해지고 세련되어지는 변화를 의미하며 정서적 발달은 적절한 정서적 행동을 얻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자신의 감정통제 능력을 의미한다. 사회적 발달은 부모와, 형제, 동료, 교사 그리고 다른 성인들과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직업적 발달은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진로탐색이나 준비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능력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발달은 매일의 학업이나 직업 활동을 피로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을 의미한다.

제시한 후 관련 정책과 대안을 공통의 순서로 제시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지표에 대한 원론적 의미를 되새겨 보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1절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이 연구는 2006년부터 무려 5년여의 기간을 통하여 진행되어온 작업이고 따라서 지금쯤은 과연 이 연구가 과거 설정했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살펴봐야 할 시점이며 이 연구의 다양한 목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지표의 구성과 그것의 목적달성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지표에 대한 원론적 논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지표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정의를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지표를 사회의 중요한 조건에 관한 지수(index)로서 계량화된 자료로 정의하는 반면, 다른 이는 정책차원에서의 지표의 기능을 강조하며 정책의 형성, 분석평가를 위한 경제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대한 통계 및 측정자료로, 또 어떤 이는 지표를 성과측정치(performance measure)와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로 구분하기도 한다. 전자가 일반적으로 산출과 성과의 변화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측정이 용이하여 성과를 보다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반면, 후자는 활동 또는 산출과 성과간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측정이 어렵고 성과가 간접적이고 불명확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박소희, 2008).

이렇듯 다양한 지표에 대한 개념정의들을 관통하는 것은 지표란 '현상에 대한 실태와 변화양상을 나타내는 의미있는 통계치'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지표가 가지는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을 추출할 수 있다. 첫째는 변화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생산된 수치는 반드시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수치화 하여 변화를 보여줄 수 없다면 추상적 탁상공론에 머무를 뿐이고 반면에 아무리 수치화된 자료가 많다고 하더라도 연구자가 그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한다면 그 수치들은 그저 숫자에 그치고 말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표의 개발과 이에 대한 분석은 귀납적이자 동시에 연역적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영역에서

도 이러한 지표개발을 위한 노력은 매우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1].

그렇다면 청소년영역에서의 지표개발은 애당초 어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추진되었는가? 각주를 통해서도 제시하였다시피 한국의 청소년관련 지표의 개발은 민간영역 보다는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져 온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의 청소년지표는 정부정책의 일환이었고 따라서 정부의 청소년 정책의 과

1) 청소년 영역의 지표개발을 위한 초기 작업들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을 들 수 있다. 한국청소년개발원(1993, 1995, 1997)의 『한국의 청소년지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생활·환경 및 의식의 현황과 그 변화양상을 총체적으로 파악·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계량화된 척도로서, 실제적인 통계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한국의 청소년지표』는 최초의 체계화된 청소년관련 지표로서, 청소년과 관련된 각종 공식통계자료를 취합·정리하여, 청소년들이 처해있는 사회적 위치와 그 변화양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청소년연구의 활성화와 청소년정책의 수립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된 전형적인 사회지표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후 한국청소년개발원(1998)의 『청소년정책평가지표체계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과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자치단체별로 청소년정책의 노력성 정도와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청소년정책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통계청의 『청소년통계』는 청소년의 인구, 교육, 문화, 범죄등 청소년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청소년통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2001년 국무조정실 특정과제로 선정되어 2002년부터 통계청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다. 이 연구의 핵심주제인 청소년인권관련지표에 대한 국내연구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2001)의 『청소년인권지표개발연구』는 청소년의 인권실태와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청소년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이행정도와 인권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청소년인권지표체계와 청소년인권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 역시 청소년인권지표 개발보다는 청소년인권지표체계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청소년인권지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과 개념정의가 부족하고, 청소년인권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지표들을 측정가능한 지표로 객관화시키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인권지표는 8개 분야, 15개 관심영역, 37개 세부관심영역, 142개 지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통계청의 『청소년통계』는 청소년의 인구, 교육, 문화, 범죄등 청소년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청소년통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2001년 국무조정실 특정과제로 선정되어 2002년부터 통계청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다. 청소년통계의 목적은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청소년관련 통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육성정책의 밑거름을 제공하고,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통계청, 2002). 그러나, 『2001년 한국의 사회지표』의 일부로 작성되어 오던 청소년관련 통계에 다른 관련기관의 청소년관련자료를 수집·정리하여 확장시킨 통계자료집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모(母)통계 작성특성에 따라 통계표가 달라진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청소년통계』의 체계는 2002년에는 인구와 가족, 교육, 청소년의 경제활동, 보건, 교통과 통신, 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등 8개 부문, 88개의 통계표로 구성되었으나, 2003년에는 유해환경 접촉실태 부문을 추가하여 총 9개 부문 167개 통계표로 구성되었다.

학적 수립과 효율적 집행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졌던 것이다.

이를 정책의 공급자별로 구분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지표는 거시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을 둘러싼 제반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청소년정책이 지향하는 목표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개발되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청소년 정책에 청소년지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첫째, 국가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설정함에 있어 무엇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실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 청소년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과제에 정책적인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개발지표를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정책적 투자우선과제를 선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객관적 데이터에 의한 체계적·과학적 정책수립을 가능하게 해준다.

둘째, 청소년을 둘러싼 제반 환경의 실태와 취약분야를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소년개발을 위해 투입되는 하위체제들은 무수히 많지만, 이들 하위체제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부재한 상태이다. 이러한 정보원의 부재는 국가청소년정책의 계획 및 실행에 실질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청소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장애요인이 된다. 청소년지표는 청소년개발체제의 투입 및 과정요인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준다.

셋째, 청소년 지표는 청소년정책이 지향하는 목표에 대한 청소년의 여러 가지 특성과 시계열적 변화양상을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주기적·지속적인 조사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종단적 분석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시계열적 변화양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지표는 청소년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수치의 단순한 평면적 또는 시계열적 나열만으로는 이루어 지지 않는다. 청소년 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정책의 효과에 의해서만 입증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 지표간의 인과적 모형의 설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뿐 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에도 청소년 지표는 다양한 활용지점을 갖는다. 먼저 양질의 청소년 지표는 우리나라 청소년 전반에 대한 거시적인 통계치 뿐 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 통계치를 동시에 제시해 준다. 따라서, 지역청소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시계열적 변화양상을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 지역청소년정책의 방향과 정책적 투자우선과제를 선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청소년을 위한 여건과 인프라의 구축의 현황에는 많이 차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지표를 통하여 지자체의 청소년 및 그들을 둘러싼 제반환경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대한 정책적 투자를 집중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청소년 지표는 청소년관련 시설 및 단체의 활동을 위해서도 활용 될 수 있다. 먼저, 청소년지표는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의 특성화·전문화 및 프로그램 운영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청소년 시설 및 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기관의 생존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특성과 시계열적 변화추세에 기초한 특성화·전문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즉, 청소년시설 및 단체의 프로그램은 현재 청소년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한다. 청소년지표는 청소년관련 시설 및 단체의 특성화전략 수립과 타겟그룹(target group) 설정, 그리고 기존 프로그램의 지속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지표는 청소년개발 관련 시설 및 단체의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청소년관련 시설 및 단체에서 특성화·전문화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정부 및 민간의 재정적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특성화·전문화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청소년지표는 청소년관련 시설 및 단체차원에서 재정적 지원을 얻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청소년지표에 대한 일반론적인 사항들을 이 연구의 주제

인 아동·청소년 발달권 및 참여권에 적용시켜 보자면 아동·청소년 발달권 및 참여권 정량지표는 아동·청소년의 발달권 및 참여권의 실현을 위한 의무당사자의 의무이행정도를 명확하게 평가하여 이른바 권리정책의 성과측정을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권리당사자인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권리인식을 평가하기 위한 정성지표와는 달리 정량지표는 객관적인 아동·청소년 발달권 및 참여권 향유 실태와 정도를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정량지표의 결과는 추후 권리정책의 개선과 변화의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된다. 따라서 발달권 및 참여권 지표는 권리보장 혹은 권리침해의 정도나 심각성을 보여주어야 하고, 특정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면 권리침해의 원인을 밝힐 수 있는 평가문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아울러 권리지표는 권리와 쌍방적 관계에 있는 의무와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아동·청소년의 발달 및 참여권 분석하기위해 개발되어 구성된 정량지표는 권리보장의 정도나 권리침해의 심각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논거가 된다. 아동·청소년 발달권 및 참여권의 정량지표들이 위와 같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냈을 때 비로소 권리보장의 주된 의무당사자인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의 인권중심의 정책을 설계하고 이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3. 아동·청소년 발달권 및 참여권 지표체계 개선과제

이 장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권과 참여권에 대한 개별 정량 또는 정성지표들에 대한 논평은 지양하고 대신 5년여의 연구결과가 제시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전체 지표체계, 이후 발전방안, 그리고 이후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 patchwork식 통계수치 나열 지양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발달권과 참여권에 대한 방대한 양의 정성지표

와 정량지표들이 기존의 통계를 단순히 수집·가공하여 나열하는 조각보식(patchwork)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표체계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요구된다. 지표는 기본적으로 기존통계나 각종 추정치들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고, 광범위하면서도 비체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집약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체계적인 이론적 틀에 기초하여 개발되기보다는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청소년관련 통계를 수집·정리하는 수준에서 그치게 되면 지표의 체계성은 물론이거니와 지표간의 상호 연계성 또한 부족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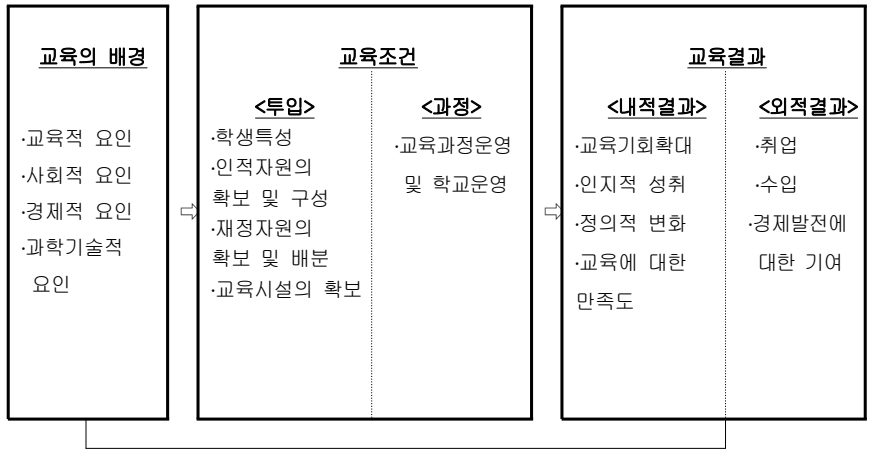
지표간의 연관이나 논리적 지표체계 모형 구축에 관련하여 체제분석적 접근방법이 존재한다. 체제분석적 접근방법에서는 지표체제를 투입, 과정, 산출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다시 하위영역을 선정한 후 각 하위영역별로 관련지표들을 산출해 내는 방식을 취한다. 교육지표개발의 체제분석적 모형을 사례로서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교육지표는 체제분석적 접근방법에 기초하여 개발되었다. 체제분석적 접근방법에 기초할 때, 교육체제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다 상위체제인 사회체제로부터 피교육자를 포함한 인적·물적투입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투입은 교육체제의 과정을 통하여 교육의 결과인 유형·무형의 산출을 낳게 된다'는 관점을 취하게 된다. 예컨대, Johnstone(1981)은 교육체제를 투입, 과정, 산출영역으로 나누고, 교육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그 사회의 과거틀(past framework)과 교육의 산출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 사회의 미래틀을 포함시켜 교육지표체제 개발을 위한 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과거의 사회틀은 교육체제의 배경으로서 경제체제, 사회체제, 정치체제가 포함된다. 둘째, 투입요소는 크게 교육자원과 교육의식으로 나누어진다. 교육자원은 교육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과 재정과 같은 물리적 자원을 의미하며, 교육의식(preference for education)은 사회가 교육에 어느 정도 투자하려고 하며, 제공되는 교육체제에 대해 사회가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리고 교육에 대해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인들에 대한 지표는 보건, 국방 등 다른 국가사업에 비해 교육이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며, 교육에 어느 정도 자원이 투입되는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과정요소는 교육체

제구조(system structure)와 투입요인의 분배로 구분된다. 교육체제구조는 체제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의미하며, 투입요인의 분배는 교육자원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나타내준다. 넷째, 산출요소은 자원 및 기술과 교육에 대한 만족도로 구분된다. 자원 및 기술은 교육체제에 의해서 산출되는 기술의 양과 질을 의미한다. 다섯째, 미래사회의 틀은 교육체제의 산출결과가 경제, 사회, 정치체제의 요구에 얼마나 일치하는 가를 나타내주는 변인으로서, 자원과 기술의 활용이 포함된다.

MacRae(1985)는 교육지표개발을 위한 교육정책모형을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변인, 투입변인, 과정변인, 산출변인의 네 개의 변인군으로 분류하여 각 변인군 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하였다. 첫째, 교육 외생변인(exogeneous variable)은 교육체제의 환경 또는 배경변인으로서, 가정환경, 학생능력, 지역사회환경, 교육시장이 포함된다. 둘째, 투입변인은 학교가 작용하기 위한 자원을 제공해 주는 투입요소로서 재정자원, 물적자원, 인적자원, 학교조직과 학급조직이 포함된다. 셋째, 과정변인은 교육환경속에서 투입요소가 피교육자에게 개개인의 학습을 통해 교육의 결과를 산출해내는 과정으로서, 다차원적인 개인의 학습이 포함된다. 넷째, 산출변인은 학교교육을 통해 산출되는 결과로서, 취업 및 수입과 같은 개인의 성취, 생활양식, 문화적 소양, 시민정신 등이 포함된다.

한국교육개발원(1988)은 교육지표개발을 위한 교육체제분석모형을 교육의 배경, 교육조건, 교육결과의 세 범주로 나누어 인과관계를 설정하였다. 첫째, 교육의 배경은 교육체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변인으로서, 교육적 요인,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과학기술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교육자원의 확보, 배분과 교육정책의 형성 및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교육의 질을 규제하고, 교육의 발전을 촉진 또는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둘째, 교육조건은 교육체제의 목적이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체제에 투입되는 자원과 투입된 자원을 배분하고 운영, 관리하는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전자는 투입요소, 후자는 과정요소로 지칭된다. 셋째, 교육결과는 교육체제에 투입된 변인이 변환과정을 거쳐 나타난 피교육자의 변

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결과는 교육의 직접적 결과인 내적결과와 교육 바깥의 사회체제와 관련하여 의미를 갖는 외적결과로 구분된다.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1988). p.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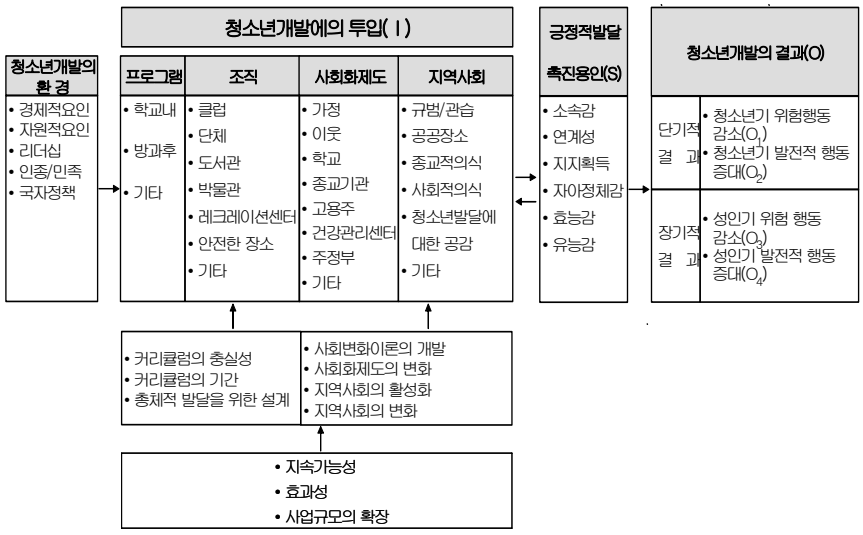
[그림 Ⅳ-3-1] 교육지표개발을 위한 교육체제모형

체제분석적 접근방법은 청소년개발지표연구에서도 시도된 바 있다. Benson & Saito(2001)는 체제분석적 접근방법에 기초하여 청소년개발의 이론적 개념틀의 개발을 시도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청소년개발의 이론적 개념틀은 아래 그림과 같이 크게 배경부문과 투입부문, 긍정적발달 촉진요인, 결과부문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배경부문은 청소년개발의 투입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서, 경제적요인(economics), 자원요인(resources), 리더십(leadership), 청소년정책(policy) 등이 포함된다.

둘째, 투입부문은 청소년개발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장(setting)으로서, 크게 프로그램, 조직, 사회화제도, 지역사회 등으로 유형화된다. 프로그램(program)은 청소년에게 발달적 체험과 배움의 기회를 계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디자인된 활동과정으로서, 학교내 프로그램이나 방과후 활동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조직(organization)은 청소년에게 발달적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들로서, 클럽이나 단체, 도서관, 박물관, 레크레이션 센터 등을 말한다. 사회화 제도(socializing system)는 청소년개발이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을 같이하는 사회체제들로서, 학교, 가정, 이웃, 종교기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역사회(community)는 청소년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프로그램, 조직, 사회화제도들이 네트워킹되는 지리적인 공간 뿐 만 아니라 청소년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의 규범과 관습, 청소년발달에 대한 공감과 지원, 공공장소 등을 모두 포괄하는 환경적 생태계를 말한다.



자료: Benson & Saito(2001), p.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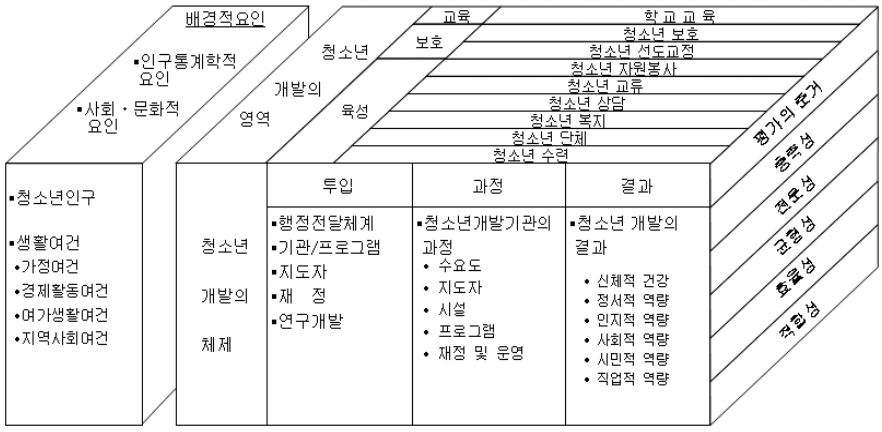
[그림 Ⅳ-3-2] 청소년개발(youth development)의 체제분석적 개념틀

셋째, 긍정적발달 촉진요인은 청소년이 프로그램, 조직, 사회화제도,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해 얻게되는 중간결과물로서, 향후 긍정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발달적 자산(asset)을 말한다. 여기에는 소속감, 연대성, 지지획득, 정체감, 효능감, 유능감 등이 포함된다.

넷째, 결과부문은 청소년개발의 과정을 통해 산출되는 단기적·장기적 결과

를 말한다. 단기적 결과는 청소년기의 위험행동을 감소시키고, 발전적 행위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의미하며, 장기적 결과는 성인기의 위험행동을 감소시키고, 발전적 행위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2004 청소년개발지표 체계모형'을 통해 청소년 개발에 체제분석적 개념틀을 적용하고자 시도하였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이 모형은 '배경-투입-과정-산출(결과)'의 체제를 기본 틀로 하고 있으며, 배경부문은 2개의 핵심영역으로, 투입부문은 5개의 핵심영역으로, 과정부문은 9개의 핵심영역으로, 그리고 결과부문은 6개의 핵심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Ⅳ-3-3] 2004 청소년개발지표 체계모형

각 부문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경부문은 청소년개발체제를 둘러싸고 있는 인구통계학적, 사회·문화적 환경변인으로서, (1)청소년인구, (2)생활여건으로 구성하였다. 이 요인들은 청소년개발의 투입, 과정, 산출과정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청소년개발의 자원확보 및 배분과 청소년개발정책의 형성, 청소년개발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투입부문은 청소년개발체제가 작동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적자원, 물적자원, 재정자원 등 모든 투입요소와 관련된다. 즉, (1)청소년행정 전달체계, (2)청소년기관 및 프로그램, (3)청소년지도자, (4)청소년재정, (5)연구개발을 포함한다.

셋째, 과정부문은 청소년개발을 위해 투입된 인적자원, 물적자원, 재정적 자원 등이 분배되어 운영·관리되는 부문이다. 다시 말해, 과정부문은 청소년개발체제의 투입요인이 청소년에게 적용됨으로써 청소년개발의 결과를 산출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정부문에서는 어떠한 구조나 조직을 통하여 청소년개발이 이루어지고, 투입된 요인이 어떻게 분배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전환되는지를 보여주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개발은 크게 청소년육성, 청소년보호, 학교교육의 체제에서 ⑴청소년수련, ⑵청소년단체, ⑶청소년복지, ⑷청소년상담, ⑸청소년교류, ⑹청소년자원봉사, ⑺청소년선도교정, ⑻청소년보호, ⑼학교교육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과정부문에서는 이들 9개의 청소년개발 하위체제에서의 수요도, 지도자, 시설, 프로그램, 재정 및 운영현황을 나타내도록 구성하였다.

넷째, 결과부문은 청소년개발의 목표영역별 개발정도를 총량적으로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개발체제를 통해 산출되는 결과로서, ⑴신체적 건강(physical competencies development), ⑵정서적 역량(emotional competencies development), ⑶인지적 역량(cognitive competencies development), ⑷사회적 역량(social competencies development), ⑸시민적 역량(civic competencies development), ⑹직업적 역량(vocational career development) 등을 포함한다.

아동·청소년의 발달권과 참여권에 대한 정량지표들이 일련의 이론적 모형하에 배치되어야 하는 실천적 이유는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되는 수많은 지표들의 궁극적 목적이 정부의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권과 참여권 증진을 위한 수많은 정책들의 성과측정에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다. 정량지표의 결과는 추후 권리정책의 개선과 변화의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된다. 권리지표는 권리보장 혹은 권리침해의 정도나 심각성을 보여주어야 하고, 특정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면 권리침해의 원인을 밝힐 수 있는 평가문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아울러 권리지표는 권리와 쌍방적 관계에 있는 의무와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많은 지표들이 영역구분에 따른 단순나열식으로 배치되어 있다면 특정 지표를 통해 개별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할지라고, 그러한 상황의 개선이나 수정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책방안을 도출해 낼 수 없게 되며, 따라서 성과의 측정이나 개선방향 도출이라는 지표자체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2) 지수화에 대한 고민 필요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발달권과 참여권에 대한 방대한 양의 지표들을 생산한 이후 고민해야할 내용은 발굴된 지표의 활용일 것이다. 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세부지표들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발달권 및 참여권에 대한 종합지수생산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지수는 단일한 통계계열을 비교하는 개별지수와 다수의 통계계열을 비교하는 종합지수로 나눌 수 있다. 종합지수를 개발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이론적 및 방법론적 고려들이 필요하다. 먼저 가중치의 문제이다. 종합지수는 지수를 작성하는 방식에 따라서 개별 지표들을 동등한 단위로 취급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 단순지수(또는 Equal Weighting Strategy Index)와 각 요소의 중요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가중지수로 구분된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또 하나의 고려 지점은 지수화 단위이다. 애초에 연구자들이나 행정엘리트들이 지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비교'에 있기 때문에 비교의 수위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는 지수 또는 지표 개발 이전에 선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가 간 비교가 목적인가? 아니면 국내 특정 지역들 간 비교인가? 아니면 개인 간 비교를 염두에 두고 있는가? 등을 결정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다음 이슈는 지수개발을 위한 세부지표의 양(Quantity)이다. 일반적으로 복수의 지표를 통한 종합지수 개발은 지나치게 많지 않은 지표의 수를 전제로 한다. 물론 사회현상의 측정을 위한 내용타당도나 구성타당도 등을 고려하자면 현상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관찰이 필요하나 이를 위해 만약 지표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진다면 첫째, 개별 지표가 최종 지수 값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Sensitivity)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둘째, 종

합지수의 구축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해져서 최종 지수의 정책적 활용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사실 2009년 아동·청소년 권리지수를 개발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이 연구는 과거 수년 동안 진행되어온 청소년 관련 지표개발 작업을 정리하고 한 단계 더 발전된 지수개발을 목표로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당시 연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주요 이슈들을 다음과 같다. 시계열적 종합지수로서 아동·청소년 권리지수를 정의했을 때 국가를 단위로 하는(국가별 비교가 아님) 시계열적 지수는 일반적으로 개별지표들의 연도별 변화율을 통해 구해진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표들이 자료 구축년도가 동일해야 하며, 둘째, 지표들 간의 구축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일련의 표준화과정(standardization process)을 거쳐야 한다. 또한 표준화 작업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변이(variation) 확보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의 축적된 자료가 필요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표준화된 개별지표들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개별지표들의 방향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후 개별지표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시 논의되겠지만, 사회지표 자체가 사회의 발전이라는 가치판단을 전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순 실태나 유형분류 등에 관한 지표들은 가능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수의 개발을 위해 개별지표를 선정하고 연도별 변화율과 표준화 과정을 통해 지표들의 변화의 양을 측정해내는 작업과 일정 무관하게 그렇지만 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지점은 바로 지표의 연도별 변화에 대한 해석이다. 세부지표들의 변화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국제적 합의사항 및 권고, 그리고 현재 한국사회의 구성원 전반이 동의할 수 있는 규범적 준거에 따라 그것의 변화가 증가가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와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몇 개의 세부지표를 통하여 사례를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 긍정적 지표: 학교별 취학율,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 부정적 지표: 학교급당 학생수, 교원1인당 학생수, 학업중단율, 청소년성

매매, 근로청소년특별보호, 청소년 범죄, 아동학대,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흡연율, 요보호아동

예컨대, 교원1인당 학생수가 2005년을 100으로 했을 때 2006년에는 98.4로 감소하였지만 이것은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최종 지수값의 계산에는 1.6이 더해지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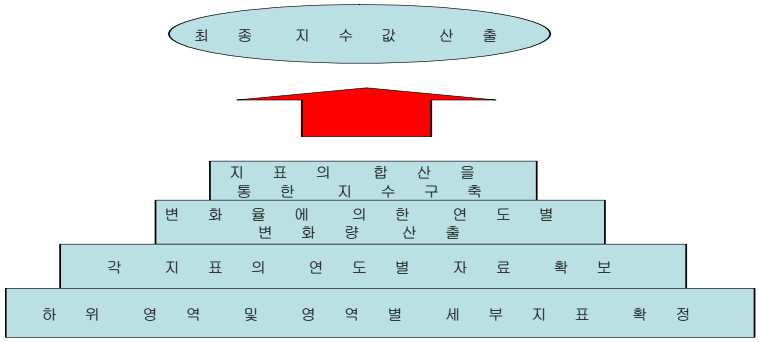
지표변화 해석의 다양성에 대한 판단은 사회문제에 대한 행정적 개입의 경우 다소 애매모호해 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행정적 개입의 정도를 지수화 과정에 포함시켰을 경우 최종 지수값이나 이것들의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어떤 경우에는 매우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교급당 학생수나 교원1인당 학생수 등의 지표들은 이것의 규범적 해석에 이견이 존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러나 청소년성매매나 청소년 범죄, 아동학대 또는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경우에는 비록 아동·청소년의 권리 발달의 차원에서 부정적인 현상임에는 분명하나 현상의 기저에 존재하는 보다 본질적인 현상의 의미 또는 원인의 차원에서는 반드시 부정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청소년 범죄나 아동학대 등에 관한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실제로 한국사회에 이와 같은 현상들이 증가하고 있을 수도 있으나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정부의 행정적 개입 확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많은 현상들이 행정당국에 의해 포착되었기 때문일 가능성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장 객관적일 수 있는 수치화된 자료에 이처럼 상호 충돌하는 해석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특정 현상을 발현시키지만 직접 관찰되지는 않는 인과적 원인의 다양성에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자면 일면 부정적인 현상의 증가는 부정적인 원인에 의한 그 자체의 증가일 가능성과 부정적인 현상의 개선 과정에서 발견되는 증가된 관찰일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만약 후자일 경우 부정적인 지표는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해석될 수는 없는 것이다.

지수화 과정에서 수치의 처리는 비교적 단순한 과정에 속한다. 지수의 개

발이 힘든 작업인 이유는 바로 지수의 구축을 위해 관찰되는 지표들에 대한 규범적 해석의 모호함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첫 번째, 구축하고자 하는 지수와 관련된 지표의 생산 또는 선택 과정에서 보다 진지한 학문적 논의가 필요하다. 지표에의 접근성 또는 확보가능성은 그 지표 자체의 양질성 여부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그리고 국제적 비교 가능성에 치중한 나머지 하나의 지표가 특정 사회의 역사, 정치, 경제, 문화적 맥락에서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놓쳐서도 안 될 것이다. 두 번째 해결방안은 보다 축적된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수 구출을 위해 동원되는 지표들이 긴 시간 동안 축적된 것이라면 앞에서 제기되었던 복수의 원인들을 판별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성매매 지표가 단기간 큰 폭으로 증가 한 후 일관된 모습을 보인다면 단기간의 증가는 청소년 성매매 자체의 증가하였다기보다는 행정적 개입의 일시적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들은 오직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자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은 지수의 개발 보다는 지수 개발에 동원될 수 있는 지표들의 안정적 구축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아래의 그림은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지수개발의 각 단계를 요약한 것이다.



[그림 Ⅳ-3-4] 아동·청소년권리지수 개발단계

그러나 안타깝게도 위의 원칙들에 근거하여 당시까지 수집된 자료를 살펴

본 결과 애석하게도 당시의 자료상황에서는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권리지수의 개발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세부지표들이 자료누적의 불충분으로 인해 변화정도를 가늠조차 할 수 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지수의 구성을 위해서 선결되어야 하는 조건중 하나는 바로 세부지표들의 자료축적 기간이 일정 수준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세부지표들의 상황은 1990년대 초반에서 2008년까지 매우 다양하며 이는 지수개발을 위한 지표의 합산 또는 통합과정을 불가능하게 만들게 된다. 셋째, 기술적인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소수의 지표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들 지표만으로 아동청소년권리지수를 구축하기에는 내용적 타당성이 지나치게 결여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즉 형식이 내용을 압도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넷째, 주관적 지표들의 경우 조사원의 객관적 공신력이 의심되는 지표들이 존재하였으며 국가기관에 의한 조사자료들 또한 그것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조사된다는 보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세부지표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규범적 동의가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였다. 예컨대, 범죄현상의 증가가 범죄 자체의 증가인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행정, 사법적 개입의 증가인지는 판별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아동·청소년권리지수개발은 미완의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시점에서 지수개발의 몇 가지 원칙을 되짚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다. 지수개발을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 각각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과 참여에 대한 외적 환경과 내적 인식을 측정하는 것이고 어느 한 부분만을 고려하여 최종 권리지수를 산출하였을 경우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간시계열 국가통계 등의 객관적 지표만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권리지수를 산출하였을 경우 실제 한국의 아동·청소년들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혹은 인지적으로 그들의 삶에 있어서의 주체적 권리를 느끼고 있는지와

동떨어진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반대로 주관적 지표들로만 아동·청소년권리 지수의 지표들을 구성하였을 때에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나 사회의 제도적 환경 등에 대한 평가가 전혀 고려되지 못하게 된다. 실례로 UN이나 WHO등의 국제기구에서 실시하는 각국 성인들의 삶의 질이나 행복감 관련 조사들이 그 나라의 경제, 의료, 복지 수준과 전혀 동떨어지게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주관적 지표들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1].

둘째, 주관적 지표의 산출을 위한 측정도구의 개발과정은 측정 속성의 검증까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경우 조사를 통해 측정속성을 검증하고 기 개발된 척도들을 수정 및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동·청소년 발달권 및 참여권과 관련되어 이미 개발되고 다른 조사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정 수준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다. 국내외의 관련문헌 들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한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따라서 '한국청소년패널조사'나 '한국청소년발달지표연구'등과 공인기관에 의해 생산된 조사도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청소년 발달권 및 참여권 지수를 구성하는 각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 그리고 각 영역 내에서 세부지표들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하는 작업은 최종 지수를 산출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세부지표들 간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절차인 델파이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문제는 세부지표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개별연구자들의 관심영역이나 이론적 정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개발된 Child Well-Being Index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문헌검토를 통해 확인된 독립적 삶의 영역이 무려 150여개가 넘는다는 사실은 단일한 개념에 대해서도 연구자들마나 얼마나 다르게 그것의 내용과 구성을 정의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

1) 2004년 World Value Survey에 따르면 주관적 안녕감이 가장 높은 나라는 푸에르토리코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심리검사형 설문지 지양 - 발달권의 경우

이 연구에서 개발된 지표들은 행정통계자료를 주로 활용하는 객관적 지표들과 이를 보완하는 설문조사도구를 활용한 주관적 지표들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주관적 지표는 발달·참여권 분야에서 총 133문항(발달권 63문항, 참여권 61문항, 배경변인 9문항)으로 선정·구성 되었으며 아래의 표는 그 중 발달권 설문항목을 보여 주고 있다. 설문도구의 각 조사항목은 초등용과 중고등학생용으로 나누어 분류되어 있으며 각각의 설문문항들은 관련 통계자료(객관적 지표)들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표 Ⅳ-3-1> 2010 아동·청소년 발달권 설문항목

관심 영역	세부영역	조사문항		문항번호 초등	문항번호 중고	지표 항목
3-1. 인지적 발달	3-1-1. 인지발달 기회	학업중도포기 이유			26	3-1-1-2A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		23	25	3-1-1-2B
		사교육 경험 유무와 효과성		8 8-1	8 8-1	3-1-1-4
		학교 수업에 대한 이해도		5	5	3-1-1-5, 6
		학교수업진행 수준		6	6	
		학교수업에 대한 만족도			5-1	
		학교수업 이외의 하루 평균 학습시간		7	7	3-1-1-7
3-2. 정서적 발달	3-2-1. 정서발달 환경	부모님과의 대화빈도(아버지)		16-1	18-1	3-2-1-1
		부모님과의 대화빈도(어머니)		16-2	18-2	
		학교선생님과의 대화빈도		16-3	18-3	3-2-1-2
		활용 가능한 여가시간 평균(하루기준)		9	9	3-2-1-4
		여가시간 충분성에 대한 지각		10	10	
		휴일을 보내는 방법		12	12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에 대한 충분한지에 대한 의견		11	11	3-2-1-5
		각 생활영역별 만족도	가정	24-1	30-1	3-2-1-6
			친구	24-3	30-3	
			학교	24-2	30-2	
		고민 상담 대상		15	17	3-2-1-7
		고민거리 유형별 우선순위		14	16	
		부모·자녀관계		17-1 17-2	19-1 19-2	3-2-1-8

	3-2-2. 정서적 안정	우울감	20-1~3	22-1~3	3-2-2-1
		학업스트레스	20-7 20-8	22-7~9	3-2-2-2
		전반적인 행복감	21-1 21-2	22-1 22-2	3-2-2-3
		자아존중감	22-1~3	24-1~3	3-2-2-4
		자기효능감	22-4 22-5	24-4 22-5	3-2-2-5
		정서적 고립감	20-4~6	22-4~6	3-2-2-7
		정서적 조절감(24-6,7)	22-6,7	24-6,7	3-2-2-6
		낙관성 수준(24-8,9)	22-8 22-9	24-8 24-9	3-2-2-8
3-3. 사회적 발달	3-3-1. 사회성 발달기회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의 수	18	20	3-3-1-1
		아동·청소년단체 가입/활동 여부	13	13	3-3-1-2A
		아동·청소년활동의 효능성에 대한 의견		14-1~3	3-3-1-2B
		동아리 가입 및 활동여부		15	3-3-1-4
	3-3-2. 사회성 발달정도	갈등해결전략	19-1~4	21-1~4	3-3-2-1
3-4. 직업적 발달	3-4-1. 진로준비 기회	진로준비행동		28-1 28-2	3-4-1-2
		진로교육경험유무/만족정도		27 27-1	3-4-1-3
	3-4-2. 직업능력	진로직업태도		28-3~5	3-4-2-1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생각		29-1 29-2	
3-5. 신체적 발달	3-5-1. 신체발달 기회	정기적인 운동실천 여부	4	4	3-5-1-1
		평일 평균수면시간	1	1	3-5-1-2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	2	2	3-5-1-3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	3	3	

발달권 설문항목에는 본 필자가 생각하기에 매우 우려스러운 측정항목이

있다. ‘우울감’과 ‘정서적 조절감’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심리적 상태를 조사하는 다른 문항들이 많이 있으나 굳이 이 두 가지에 대하여 우려를 보이는 이유는 이 두 가지 것들이 부정적 심리상태에 대한 조사라는 사실에 있다. 조사문항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자면 우울증은 ‘나는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나는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나는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등이며 정서적 조절감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나는 기분 나쁜 일이 잊더라고 빨리 잊으려고 노력 한다’와 ‘나는 화가 나거나 감정이 상해도 빨리 잊으려고 노력한다’이다. 일단 여기서 본 필자는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 그렇기 때문에 본 필자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말이 심리학, 특히 이상심리학이나 발달심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을 다소 언짢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복수의 설문문항을 통하여 인간의 정신상태를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근본적으로 ‘물화(reification)’와 ‘정량화를 통한 서열화(ranking)’에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다. 물화란 추상적인 개념을 실체(reality or thing)로 변환시키려는 경향을 가리킨다. 물화의 대표적인 사례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인 지능이다. 물화와 서열화에 기반한 인간 정신의 수량화는 이분법(dichotomization), 즉 복잡하고 연속적인 실체를 둘로 분할하려는 갈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층화(hierarchy), 즉 모든 사물을 선형으로 증가하는 가치로 서열화 하려는 경향 등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도 역시 우울감과 정서적 조절감은 요인분석을 거친 후 하나의 실체로 발전되어 평균값과 표준편차 그리고 몇 가지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을 통한 집단비교로 수치화 되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사실은 우울의 과거 이름은 수줍음이었다는 것이다. 불과 수십 년 전만해도 수줍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소 내성적이고 약간 어줍다고는 생각해도 결코 이상한 정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이다. 오히려 숫기 없는 태도는 책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고독을 열망하는 성격과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하며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까지 했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지나친 수줍음은 우울

또는 사회불안 등으로 불리우며 심한 경우에는 갖가지 약물처방이 주어진다. 최근 서울시에서도 청소년들의 우울에 대하여 제도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 청소년들의 우울감과 정서적 조절감에 대한 이 연구의 조사결과를 보면(중/고생만을 대상으로), 먼저 우울감의 경우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학업성적이 낮은 청소년들이 중간이나 높은 청소년들에 비해, 경제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이 높은 청소년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2> 우울감 통계표

구 분		M	SD	t, F	Scheffe 사후검증
성별	남	7.25	3.46	-27.939***	-
	여	9.55	3.42		
교급	중	7.70	3.67	-14.570***	*
	고	8.95	3.49		
학업 성적	하	8.66	3.65	11.272***	1>2,3
	중	8.26	3.58		
	상	8.38	3.63		
가족 구성	양부모	8.34	3.61	3.419*	1<2
	한부모	8.68	3.70		
	조손가정	8.40	3.95		
경제 수준	하	9.41	3.76	32.954***	1>2,3 2>3
	중	8.36	3.58		
	상	7.66	3.77		

다음으로 정서적 조절감에 대하여 살펴보면(중/고생만을 대상으로), 남자청소년에 비해 여자청소년들이, 중학생들에 비해 고등학생들이, 학업성적이 낮은 청소년들이 중간이거나 높은 청소년에 비해, 경제수준이 낮은 청소년

1)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2011 서울학생 정신건강 증진 계획'에 따르면 서울지역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학생은 전원 내년 3~6월 ADHD 검사를 받게 되며, 중·고교 1학년생은 우울증 검사를 받게 된다고 한다. 검사결과 추가 진단이나 치료, 상담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정신보건센터나 위(Wee) 센터와 연계해 치료를 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시교육청은 일선학교의 전문상담원을 305명에서 495명으로 늘리고,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정신건강관리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할 방침이라고 한다.

들이 중간이나 높은 청소년들에 비해 낮은 수준의 정서적 조절감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Ⅳ-3-3> 정서적 조절감 통계표

구 분		M	SD	t, F	Scheffe 사후검증
성별	남	6.98	1.80	6.243***	-
	여	6.71	1.79		
교급	중	6.94	1.77	4.048***	-
	고	6.77	1.82		
학업 성적	하	6.68	1.85	17.336***	1<2,3
	중	6.89	1.71		
	상	7.00	1.85		
가족 구성	양부모	6.86	1.79	1.834	-
	한부모	6.74	1.84		
	조손가정	6.90	1.97		
경제 수준	하	6.56	2.00	15.093***	1<2,3 2<3
	중	6.84	1.75		
	상	7.15	2.00		

이러한 통계적 분석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분석 자체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먼저 응답범주가 5개로 구성되어 있음을 감안 할 때, 어느 응답범주를 우리는 우려할 만한 수준의 정신상태(우울감 또는 정서적 조절감)으로 간주할 것인가의 문제가 개인적인 수준에서 발생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집단통계치를 살펴 볼 때, 어느 지점까지를 소위 말하는 '정상' 또는 '문제없음'의 수준으로 간주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만약 하위 5%나 1%를 문제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정신상태로 간주할 때 반대로 상위 5%나 1%의 범주에 속하는 개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가? 우울하지 않고 항상 지나치게 쾌활한 것은 문제에 속하지 않는가? 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통계적 분석은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문제를 노정한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우리는 과연 특정성별의 청소년들이 반대성별의 청소년에 비해 더 우울감을 더 또는 덜 느낀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소위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을 기준으로 하는 평균차이의 분석은 더 높은 수준의 이론화 작업을 항시 필요로 한다. 다시 말

하자면, 여성청소년과 남성청소년의 무엇의 차이가(단순 성별이 아닌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울감의 평균의 차이를 가져오는가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고민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무엇인가 신비로운 생물학적 차이로 환원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중/고별 차이나, 가족구성, 또는 경제수준의 차이에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이다.

설문에 의한 개인 정신상태의 측정은 그것의 윤리적,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여기서 윤리적이라고 함은 조사결과에 의한 낙인(labelling)의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고 사회적이라고 함은 조사의 결과에 의해 정신의학과 약물의 개입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우려한 바이다.

4) 지표체계에 대하여 - 참여권을 중심으로

2006년에 개발된 청소년 발달권 지표는 인지적 발달, 정서적 발달, 사회적 발달, 직업적 발달, 신체적 발달의 5개 관심영역에 각 2개의 세부관심영역을 가져 총 10개의 세부관심영역이 형성되었고 정량지표 10개, 정성지표 25개로 총 35개의 개별지표로 구성되었다. 역시 2006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청소년 참여권 영역의 지표체계는 청소년참여권의 관심영역을 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보접근권, 사회참여 및 참정권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자기결정권은 종교결정권, 가정사에 대한 결정권, 교육 및 진로결정권, 문화 및 여가활동 결정권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표현의 자유는 사적취향의 표현, 학생으로서의 의견표현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에서는 학교내에서의 집회·결사의 자유, 학교외에서의 집회·결사의 자유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정보접근권은 도서에 대한 접근, 인터넷에 대한 접근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나누었으며 사회참여 및 참정권은 사회참여, 참정권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류된다.

2006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는 5년차 연구의 종료를 앞두고 있는 일단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관련 연구의 주춧돌을 놓았다는 의미는 높게 살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듯이 기존 연구에서 드러난 많은 문제점들 또한 발견된 것이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영역구분과 지표체계에 대한 지적은 심각한 주제로 분류될 수 있다. 영역구분과 지표체계에 대한 문제는 발달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참여권에서 많이 발견된다. 아마도 청소년발달에 대한 심리학적 또는 사회학적 연구가 많이 축적된 것이 비해 청소년 참여는 주제 자체도 최근에 와서 관심을 끌게 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청소년 참여에 대한 정책적이고 실용적 논의에 비해 학문적 깊이가 담보된 논의들이 부족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아동과 청소년의 현실사회에 대한 참여는 사회전체의 시민민주주의의 성숙정도 및 문화적 유산 또는 전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의 민주주의 성숙 정도는 아직도 일천한 수준이며 뿌리 깊은 유교적 문화의 전통은 청소년의 참여권에 대하여 인식의 지평을 좁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해 개발된 참여권은 '자기결정권과 사행활 보호',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정보접근권 및 정보참여', '사회참여 및 참정권', 그리고 '참여관련 인식'으로 관심영역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액면상으로도 부적절해 보이는 지표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정보접근권 및 정보참여' 영역의 '청소년도서 발행비율'이나 또는 '청소년 1인당 도서대출현황'은 이 지표들을 통하여 과연 무엇을 측정해 내고자 하는지가 일단 명확하지 않다. 전자의 경우 지표의 정의는 '연간 발행되는 도서 중 입시관련 서적을 제외한 청소년 대상 도서의 비율'로 제공되어 있다. 그러나 산식을 살펴 보면 이 지표는 총 발행도서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게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도 역시 도서인지라 해당 업계의 영향이나 전체 경기의 영향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된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도서에 대한 접근이란 도서에 대한 욕구와 그것을 충족시키는 것과의 함수관계이지 전체 총 도서량대비 청소년관련 도서량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후자인 '청소년 도서대출 현황'에도 역시 적용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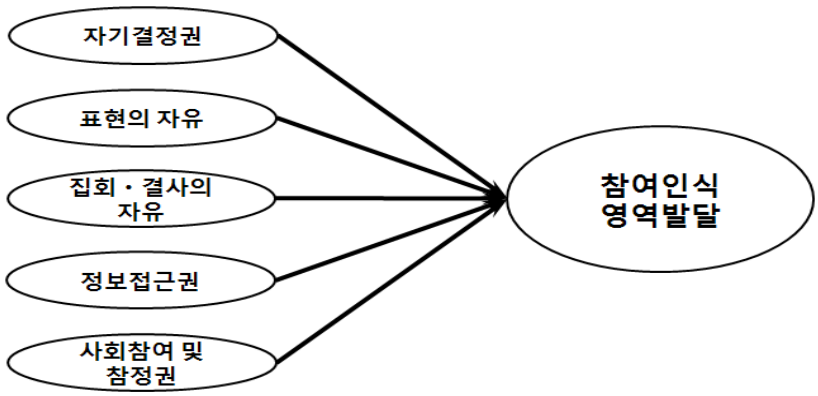
참여권의 영역구분과 관련하여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참여권과 발달권의 충돌 내지는 중복의 문제이다. 현재 연구의 틀에서는 청소년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가 동일한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 수평적 구분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기준 어디를 찾아보아도 청소년의 인권이 위의 4가지 영역으로 수평적으로 구분되어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발달권과 참여권의 중복 내지는 애매모호함의 예는 '정보접근권 및 정보참여'와 '사회참여 및 참정권'에서 나타난다. 도서에 대한 접근이나 인터넷에 대한 접근은 발달권에서 인지적 발달의 영역에서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것들이며 청소년의 사회참여나 참정권 역시 발달권의 사회적 발달영역을 보다 확장해서 구성할 경우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의 지표들이다. 따라서, 어느 연구자께서 지적하였듯이, 이후 연구에서는 기간 5년여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인권의 영역 구분 및 중복의 문제에 대하여 비판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조사결과의 다면적 활용

2010년 연구에서는 정량지표와 함께 조사를 근거로 한 정성지표들도 개발되어 활용되었다. 몇 가지 주요한 특징들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발달권 영역에서의 설문문항의 체계화 작업은 5개 발달권 개별지표에 상응되는 설문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정성지표를 대표할 수 있는 문항으로 선정되었다. 아동·청소년 참여권 영역에서의 설문문항의 체계화 작업은 7개 참여권 개별지표에 상응되는 설문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정성지표를 대표할 수 있는 문항으로 선정되었다. 설문조사도구는 청소년용 기준 발달·참여권 분야에서 총 133개 문항(발달권 63문항, 참여권 61문항, 배경변인 9문항)으로 선정·구성 되었으며 설문도구의 각 조사항목은 초등용과 중고등학생용으로 나누어 분류되었으며, 각 설문문항의 순서에 따라 해당 지표 항목이 제시되었다. 조사의 표본크기는 전국 12개 시도의 전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여 초등학생(4～6학년),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중학생(1～3학년)과 일반계와 전문계를 포함한 고등학교 재학 중인 남녀고등학생(1～3학년)을 대상자로 2009 교육통계연보에 수록 된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현황을 기초로 각 시도의 학생비율 분포에 근거하여 계산되었다.

이처럼 엄정한 절차를 거쳐서 생산된 자료임을 감안 할 때 자료의 활용 정도는 다소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통계표를 위주로 한 현재의 조사결과 제시는 실태조사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청소년 발달과 참여에 대한 지표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성격의 자료제시 그 이상이 요구된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제기되는 문제는 바로 이론 또는 모형의 부재이다. 영역별로 구분되고 각 영역안에서 개발된 지표로서의 조사문항은 상호간에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이 질문은 지표의 측정 속성(예. 구성타당도 또는 예측타당도)을 검증을 위함과 동시에 앞서 제기했던 지표간의 체계적 연관의 존재유무를 동시에 묻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정서발달 환경은 실제 정서적 안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은 환경과 그것의 결과를 검증하는 이론적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측정도구들의 타당도까지도 검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Ⅳ-3-5] 청소년참여의식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장 단순하게 청소년의 인지적발달, 정서적 발달, 사회적 발달, 직업적 발달, 그리고 신체적 발달의 단순상관매트릭스(simple correlation matrix)는 어느 발달 영역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 내지는 어느 발달영역이 다른 영역들의 발달과는 일정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수학적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다른 예로, 청소년의 참여인식영역의 발달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보접근권, 사회참여 및 참정권들중 어느 영역의 발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지? 각 영역의 발달이 가지는 상대적 효과의 크기는 어떠한지? 등의 질문은 비단 청소년 참여의식의 발달에 관한 모형의 경험적 검증 뿐 만 아니라 지표로서의 타당도까지도 검증하게 되는 것이다.

6) 국제비교연구를 위한 고민 필요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협약에서 제시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님과 동시에 나아가 실제적으로 그 법을 집행하고, 집행결과를 모니터링하며 협약의 관점에서 국내적 실천과 관행에 대한 검토의 의무를 진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한 두 차례의 심의의견을 통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인권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권 실태자료와 통계수집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해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의 인권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태분석과 모니터링은 단순한 연구과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의 성격을 가져 왔다.

정량지표의 국가비교는 아동·청소년 인권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의 원칙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인권은 모든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는 천부적 권리로서 국가의 경제사회적 상황에 따라 권리보장의 정도나 침해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국가가 자국의 문화나 사회 혹은 재정을 이유로 권리보장을 위한 노력을 해태할 위험을 이는 국제간 비교를 통해서 차단할 수 있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동일한 인권 지표를 토대로 한국의 아동·청소년이 향유하고 있는 권리의 현실과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수 있고, 이 같은 비교는 정책결정자들의 정책이행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논거가 된다. 국제 비교는 정량지표

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그러나 5차년도 연구의 종료를 맞는 현 시점에서 살펴보면, 이 연구가 애초에 가졌던 국제비교 연구지향적 성격이 다소 사라진 인상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져 볼 수 있다. 첫째, 5년 동안의 연구가 종료된 지금, 현재 개발된 청소년 발달권 및 보호권 지표체계는 해외 주요 국들 또는 국제기구의 그것과 얼마나 비교가능(comparable)한가? 둘째, 만약 비교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현재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권 및 참여권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셋째, 만약 비교가 어렵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등이 될 것이다.

과거 연구기간 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해외의 청소년 인권에 관한 연구자들을 직접 만나서 토론을 통한 논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기간의 종단 및 횡단적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해외의 그것과 비교검토를 통하여 공통된 합의의 지점을 찾아내고 청소년 인권을 국가간 협력의 주요 의제로까지 상승시키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간의 연구 성과 및 한계들을 정리하고 이것들을 해외의 연구자들과 공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Ⅴ. 요약 및 제언

1. 아동·청소년의 발달권 및 참여권 정량 지표 분석결과
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연구의 향후 과제

V. 요약 및 제언

1. 아동·청소년의 발달권 및 참여권 정량지표 분석결과

(1) 아동·청소년 발달권 주요 정량지표 분석결과 요약

발달론적 관점에서 발달이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변화의 과정을 의미하며, 이러한 변화는 한 개인의 인지·신체·심리·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난다(최경숙, 2000; Newcombe, 1996; Shaffer, 2002; 이봉주 외, 2010 재인용). 따라서 인간발달의 구체적 영역은 인지발달, 언어능력 발달, 정서 및 사회성 발달, 의사소통능력 발달, 도덕성 발달, 신체 및 운동발달 등으로 세분화된다. 본 연구도 이 같은 선행연구에 비추어 아동청소년 발달의 영역을 인지적 발달, 정서적 발달, 사회적 발달, 직업적 발달 그리고 신체적 발달로 범주화하여 관련 정량지표를 개발하고 관련 실태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하여 인권의 향유 정도나 의무이 이행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발권영역의 범주를 각 영역별로 기회와 결과로 세분화하였다. 가령, 인지적 발달은 인지발달기회와 인지능력으로 하위범주를 구성하였고, 정서적 발달은 정서발달 환경과 정서적 안정 등으로 하위범주를 구성하였다. 이외 사회적 발달과 직업적 발달 그리고 신체적 발달도 기회와 결과의 내용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위범주를 구성하였고, 분석결과를 발달영역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서적 발달의 경우 주요 지표인 취학률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중퇴율은 낮았다. 15세에서 19세 청소년의 취학율 2009년 현재 89%로 OECD평균 82%보다도 7%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0세에서 29세까지의 청소년 취학율 역시 한국은 2009년 현재 28%로 OECD 평균 취학율인 25%보다도 3% 높게 나타났다. 중고등학교 중퇴율도 1990년에는 1.6%에서 1998년 2.1%로 상승하였지만 2005년에는 0.06%, 2008년에는 0.09%로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다만 학교생활 즐거움 정도에 대한

주관적 의견에서는 청소년의 약 25%정도가 즐겁지 않다고 응답해 학교생활에 대한 청소년의 주관적인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못했다. 아울러 대학진학률도 2004년 이후 80%를 초과해 많은 청소년들이 고등교육을 수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높은 대학등록금으로 인해 저소득 가정의 아동청소년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점 그리고 사교육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진 점 등은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정서적 발달에서는 다른 지표들 중에서도 우울증지수와 자살률 등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우울증 진료현황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우울증 진료건수는 2004년 4만8782건에서 2008년 10만6830건으로 5년 새 119% 증가했다. 또한, 서울시 광역정신보건센터 등이 서울시내 39개교 중·고교생 1만30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울증 선별검사에서는 2180명(16.7%)이 1차 선별검사에서 초기 우울증세를 드러냈고, 우울증 척도가 심각해 병원치료를 권고받은 청소년도 456명(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의 자살률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10-19세 청소년의 사망원인 2위는 자살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률도 2008년 현재 전체 아동청소년의 18.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발달의 중요한 지표인 스트레스 인지율에 있어서도 청소년의 43.7%가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트레스는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일수록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았고, 교급별로는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더 높게 나타나 아동청소년의 스트레스원이 주로 학업이나 성적에 따른 결과임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는 입시위주의 교육에 따른 성적의 중압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부모와 자녀의 그리고 자녀와 교사와의 긍정적 의사소통을 강화하여 정서적 불안에 미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발달 부분에서는 청소년단체활동에 회원으로 가입한 비율이 초등학생이 26.7%, 중학생 15.0%, 인문계 고등학생 11.1%, 전문계 고등학생이

7.4%로 나타나서 교급이 낮을수록 청소년단체 가입비율이 높았고, 5에서 19세까지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79.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청소년의 약 37.5%가 한 두개 정도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대체로 아동청소년의 사회참여나 동아리 활동 참여는 다소 높았지만 지속적인 참여에는 학업과 입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사회참여프로그램의 개발, 동아리 활동의 지원, 그리고 학교수업과 사회참여 프로그램간의 연계 등의 정책이 요구되었다.

한편, 진로발달부문에서는 청소년의 78,3%가 진로관련 검사를 위한 진로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사회나 도덕 등의 과목에서 진로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도 61.6%였다. 특히, 진로발달을 위한 정부의 정책 중 직업박람회 참여나 기업인 강연, 그리고 기업체 방문 등의 진로교육은 OECD 28개국 중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진로교육 만족도도 청소년의 절반 정도가 보통이라는 평가를 내놓았고,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18%에 불과해 현재의 진로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발달에서는 초등학생의 17.1%, 중고등학생의 9.3%만이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었고, 중고등학생의 31.6%가 평일 평균 수면시간은 5시간에 6간인 것으로 나타나 많은 청소년들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중고등학생의 절반이 넘는 50.6%가 보통이다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건강에 관심이 많다 28.5, 매우 관심이 많다 10.2%, 관심이 없는 편이다 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능력은 지속적으로 감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령, 2008년 신체검사 결과를 2000년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50m 달리기, 오래달리기및걷기,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의 모든 종목에서 2008년 기록이 저조해 아동청소년들의 기본 체력이 과거에 비해 저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자의 제자리멀리

뛰기,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와 여자의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펴기를 제외한 항목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에서 기록이 저하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입시준비에 따른 학업 증가로 신체활동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2) 아동·청소년 참여권 주요 정량지표 분석결과 요약

아동·청소년 참여권영역에서의 주요 정량지표 영역은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보호,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보접근권 및 정보참여, 사회참여 및 참정권, 참여관련 인식 등으로 총 6개의 관심영역, 17개의 세부관심영역, 48개의 개별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에 의해 개발된 참여권 분야의 주요 정량지표를 토대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실태를 살펴 본 지표의 기술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보호 관련해서는 종교결정권과 가정사에 대한 결정권, 문화 및 여가활동 결정권의 정량적 지표를 알아보았다. 청소년의 종교 선택의 자유에 대한 부모의 존중도는 48.3%의 청소년들이 종교를 스스로 결정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 56.7%가 종교를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재단별 설립 학교의 수 및 재학생의 비율은 1,910개 고등학교 중 종교사학은 개신교 7.2%, 천주교 2.0%, 불교 0.8%, 기타 6.5%로 총 16.5%(315개교)나 됨을 알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전국 종립학교 현황 2009년 4월 1일 기준). 이 자료로 판단한다면, 청소년의 종교 자기결정권에 대한 기본권 충돌이 일부 소수에게만 발생하는 것이라 치부해버리기에는 무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4월 22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2005년 10월경 강의석 군이 대광학원과 서울시 교육감 상대로 종교활동 강요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판결에서 학생의 의사에 반한 종교교육을 거부할 자유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종교재단 설립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권 보장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사에 대한 결정권과 관련해서는 부모의 이혼 시 청소년의 부모선택권

이 반영되는 사례 비율을 확인하였다. 이종희(2001)의 연구자료에서는 총 26건의 판례를 분석하였는데 이중 아동의 의사가 반영된 판례의 수는 단지 4건이었다. 실제로 15세 미만 아동의 의사가 가사소송규칙과는 관계없이 양육자 지정 사건에서 고려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동의 연령과 그에 따른 의사표명능력에 대한 판단이 법관의 재량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최근의 정량적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급증하는 이혼률에 비해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문화 및 여가활동 결정권과 관련해서는 문화 및 여가활동의 선택 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 존중 정도를 알아보았다. 최복경(2008)의 연구에서는 88.3%의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을 스스로 결정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여가활동을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욕구도 115명(95.8%)이나 되었다. 그러나 서울청소년활동진흥센터(2009)에서 연구한 2008-2009 요구조사에 기반한 청소년활동 개발의 전략적 접근에 의하면, 학부모의 청소년들에 대한 여가활동에 관한 부모의 청소년 의견 존중 정도는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님들은 학교성적 하락에 대한 우려와 아이들의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하다는 관점, 정해진 시간내 할 수 있는 활동관리에 대한 시간관리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을 통제하고 간섭하고 있었다.

둘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사적취향의 자유영역에서 부모의 청소년 두발 및 복장에 대한 규제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2005년 전국 중·고 청소년 2,910명을 대상으로 '부모님은 나의 두발 상태에 대하여 지나치게 간섭하여 가정에서의 두발 자유권이 없다'는 문항에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11%('그렇다' 7.8%, '매우 그렇다' 3.6%), 25%는 두발 상태에 대한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렇다' 16.0%, '매우 그렇다' 9.2%). 즉,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2배가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집회·결사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학교에서의 집회·결사의 자유영역에서 교내 자치회가 있는 학교의 비율을 알아보았으나, 이와 관련된 정량적

자료를 찾기가 매우 힘들었다. 우리나라 학교 대부분의 교칙에는‘학교장 허락 외에 일체의 대외 활동을 금한다’라든가,‘학교장 허락이 없는 교내 비공식 동아리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등의 규정이 있어 학생들의 자율적인 교내·외 일체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학칙의 기준도 애매모호하여, 대부분 학교의 분위기나 전통, 학교장의 성격에 따라 적용범위도 크게 다르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는 1990년대 중반, 최OO군의 강제 야자 관련 위헌 소동을 계기로 모인 중고등학생복지회의 회원들이 학교로부터 탈퇴를 종용받으며 체벌을 받은 사례나, 전국 중고등학생연합(준)의 전 부산 지역장이 학교 측으로부터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넷째, 정보접근권 및 정보참여는 최근의 시대변화를 감안하여 ‘도서에 대한 접근’과 ‘인터넷 접근’의 두 차원에서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 도서에 대한 접근권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도서 발행비율(연간 발행되는 신간 발행 종수 중 아동 대상 도서의 비율)과 청소년 1인당 도서대출 현황(청소년 1인당 월평균 도서대출 현황)을 알아보았다. 도서 발행비율은 2009년 43,099권의 총 신간 발행 종수 중 아동 신간 발행 종수는 7,884권으로 18.69%이며, 신간 발행 부수는 총 106,214,701권 중 29,275,142권으로 27.5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도서대출 현황으로 초중고 학생들의 독서율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 다매체 환경에서 독서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한 · 일 청소년의 독서량을 비교해 보면, 일반도서는 양국이 흡사했으나 잡지 열독량은 일본이 한국의 10배 이상으로 충격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률 역시 2년 만에 16.9% 포인트나 늘어난 70.7%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청소년 한 학기 독서율(일반도서를 한 권 이상 읽은 비율)은 평균 86.3%이며, 고등학생의 경우 10년 전보다 15%포인트 이상 감소했다. 상급학교에 진학할수록, 해가 바뀔수록 책을 멀리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한 학기 독서량은 초등학생이 19.4권인 데 비해 중학생 9.5권, 고등학생 6.3권으로 2002년 조서결과에 비해 중학생은 약간 증가하고 고등학생은 감소했지만, 장기적으로 독서량 감소 경향이 여전했다. 평일 기준 독서시간은 47분으로

큰 차이가 없었는데, 전반적으로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 독서시간이 계속 줄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청소년 맞춤 독서정보가 빈약하고 베스트셀러 편식 독서가 만연되어 있다. 청소년이 즐겨 읽는 도서 분야로는 일반소설(24.4%) 선호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만화/ 무협지/판타지소설(28.3%), 추리소설, 연예/오락 등의 순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 중고생의 독서경향은 교양도서보다 오락물 위주로 편중되었다.

인터넷에 대한 접근 지표로는 청소년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청소년 가구 중 컴퓨터를 보유한 가구의 비율), 청소년 가구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청소년 가구 중 초고속 인터넷에 가입한 가구의 비율), 일주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청소년의 일주일 동안의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등에 관한 세부 항목을 알아보았다. 먼저 청소년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은 12-19세가 95.7%로 전체 평균 91.4% 보다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 가구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은 약 95%이상인 것으로 분석해볼 수 있는데, 이는 20대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과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의 가구 연령대를 감안한 것이다. 청소년의 일주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주평균 10.4시간으로, 1시간 미만이 1.8%, 1-3시간이 9.3%, 3-7시간이 16.2%, 7-14시간이 37.1%, 14-21시간이 22.9%, 21-35시간이 10.1%, 35시간 이상이 2.7%였다.

다섯째, 사회참여 및 참정권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제재 정도와 청(소)년 실업률, 문화적 활동 참여현황, 청소년의 선거참가율을 알아보았다.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시 필요한 부모동의서를 회사나 고용주에게 제출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차년도에는 92.5%, 2차년도에는 84.3%, 3차년도에는 65.7%, 4차년도에는 65.8%, 5차년도에는 65.1%로 제출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부모동의서 제출 비율이 늘고는 있으나, 여전히 65%에 이르는 청소년들은 부모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 실업률은 2008년 14만 5천명, 실업률은 9.3%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15-19세 청소년의 실업률은 10.2%로 20-24세(9.2%)보다 약간 높게 나

타나고 있으며 15-19세 남자 청소년의 실업률은 12.2%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의 문화적 활동 참여 현황은 한국청소년진흥센터가 2009년에 실시한 청소년활동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단체수련활동, 청소년 축제 및 행사활동의 참여율이 50%를 넘고 있어 참여율이 가장 높고, 견학활동(47,6%), 스포츠 활동(41.5%)도 40%대로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를 보여주는 활동들이다. 30%대의 참여율을 보여주는 활동으로는 공연관람활동(39.4%), 자원봉사활동(35.2%), 동아리 활동(33.3%), 청소년 시설이용활동(30.5%)이다. 청소년 강좌 및 교육프로그램 참가활동(24.6%), 야외자연체험활동(21.0%), 단체활동(20.3%)의 참가율은 20%대로 낮은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청소년 자치활동은 10%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13.1%), 국제교류활동 참여율은 4.1%로 가장 낮다.

청소년 선겨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총람에 의하면, 2006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선거권이 부여된 19세의 투표율은 33.2%로 투표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인 20대 후반(24.2%)보다 9.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1.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참여관련 인식에서는 세부 개별지표로 참여의 효과에 관한 자료들을 살펴보았는데, 연구결과 청소년 참여는 사회를 보는 시각 확대, 공동체 의식 확대, 능력과 자질 향상, 문제해결과정에서의 자부심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창욱·조혜영, 2007). 김정주 외(1999)의 연구에서는 참여가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인식 증가, 지역사회 기여, 자아정체감 형성, 대인관계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성(2004b)의 연구에서는 참여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의 정치,사회 임파워먼트 수준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고, 적극적 참여정도가 강할수록 정치, 사회적으로 더욱 임파워먼트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또한 김경호·문지영(2005)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 조직에의 참여를 통해 청소년들이 임파워먼트를 경험하게 되고 김원태(2001)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참여가 정치적 효능감을 증진

시키며, 참여의무감과 같은 시민의식 형성에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밝혀졌다. 허인숙·이정현(2004)의 연구에서는 사회참여 활동 후에 느끼는 만족감이 시민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기범(200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참여가 민주시민 의식 향상 뿐 아니라, 학습과정에도 매우 큰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조혜영·최창욱(2008)의 심층면접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참여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 다른 의견을 들어봄으로써 사고의 폭을 넓히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자신과 관심분야를 공유하는 사람을 만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의사소통 기술을 익히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더욱 적극성을 기르게 되며, 자신이 주도하여 타인의 의견이나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기르게 된다. 또한 참여활동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주도성과 성취감을 경험하며 정의적, 사회적 영역 뿐 아니라 지적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사소통을 하고 의견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의사표현 능력을 기르며, 나름대로의 논리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배경지식을 충분히 쌓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연구의 향후 과제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의 5년차 연구로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연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010년도 연구주제인 발달권과 참여권 정량지표 검토결과 지표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발달권과 참여권에 대한 방대한 양의 정성지표와 정량지표들이 기존의 통계를 단순히 수집·가공하여 나열하는 조각보식(patchwork)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표체계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요구된다. 지표는 기본적으로 기존통계나 각종 추정치들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고, 광범위하면서도 비체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집약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체계적인 이론적 틀에 기초하여 개발되기보다는 여

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청소년관련 통계를 수집·정리하는 수준에서 그치게 되면 지표의 체계성은 물론이거니와 지표간의 상호 연계성 또한 부족해진다. 또한 성과의 측정과 개선방향의 도출이라는 사회지표로서의 본래적 기능 또한 상실하게 된다.

둘째,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발달권과 참여권에 대한 방대한 양의 지표들을 생산한 이후 고민해야할 내용은 발굴된 지표의 활용일 것이다. 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세부지표들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발달권 및 참여권에 대한 종합지수생산을 제안하였다. 지수를 생산하는 과정은 다소 자의적일 수 있으며 자료의 제한으로 인하여 내용적 완결성이 지금 당장은 떨어질 수도 있으나 지난 5년간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아동 및 청소년 인권 각 영역의 핵심적 지표들을 추출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설문조사결과의 '물화(reification)'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특히 그것이 부정적 심리상태에 대한 것일 경우 일종의 심리검사의 성격을 띠게 되며 이는 그 자체로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파급력을 가지게 된다. 설문에 의한 개인 정신상태의 측정은 그것의 윤리적,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넷째, 청소년 인권지표의 영역구분과 지표체계에 대한 전면적이고 비판적인 재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본 문에서는 참여권의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으나 국제기준 어디를 찾아보아도 청소년의 인권이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4가지 영역으로 수평적으로 구분되어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다섯째, 청소년 발달과 참여에 대한 정성지표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성격의 자료 제시 그 이상이 요구된다. 여기서 다시 제기되는 문제는 바로 이론 또는 모형의 부재이다. 영역별로 구분되고 각 영역 안에서 개발된 지표로서의 조사문항은 상호간에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이 질문은 지표의 측정속성을 검증함과 동시에 지표간의 체계적 연관의 존재유무를 동시에 묻고 있는 것이다. 조사결과의 보다 다면적 분석이 요구되는 지점이

다.

마지막으로, 5차년도 연구의 종료를 맞는 현 시점에서 살펴보면, 이 연구가 애초에 가졌던 국제비교 연구지향적 성격이 다소 사라진 면이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져 볼 수 있다. 첫째, 5년 동안의 연구가 종료된 지금, 현재 개발된 청소년 발달권 및 보호권 지표체계는 해외 주요국들 또는 국제기구의 그것과 얼마나 비교가능(comparable) 한가? 둘째, 만약 비교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현재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권 및 참여권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셋째, 만약 비교가 어렵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등이 될 것이다.

지표개발은 일정한 사회현상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수치의 제시를 통해 현상에 대한 가시적·축약적 이해를 돕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실증분석과 이론구성 모두를 포함하는 학술연구의 진흥은 물론이요 정책적·실용적 목적으로도 대단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 사회과학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수많은 연구자들은 앞 다투어 지표개발에 진력하고 있다. 또한 학문적 연구와 정책적 연구는 상호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 정책지향적 연구가 학문적 철저함을 갖지 못한다면 연구의 결과는 과학적이지 못하며 따라서 그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한 정책의 생산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문적 연구가 실제 현실에서 의미를 전혀 갖지 못한다면 이 또한 엘리트들의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06년부터 시작되어온 아동 및 청소년 인권지표개발연구는 5년이 지난 지금 주춧돌을 쌓는 단계를 넘어 도약을 해야 할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성과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통하여 보다 발전적인 이후 연구의 전망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차년도 후속연구에서는 지표체계에 대한 엄밀한 재논의가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순원·임현묵·이재분(2001). 인권교육과 평화교육 국가 정책 방안. 서울: 아우내 미래문화연구원.

강현아(2006). 청소년 참여권 현황과 지표개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강영혜(2008). 사교육의 실태와 대처방안. 한국교육개발원.

강지흔(2003). 남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곽금주·박영신·김의철(1998). 한국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스트레스 형성 요인 : 도시와 농촌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제3권 제1호, pp.79-101.

곽병선(2005). 창의성 교육의 지향점. 서울: 새교육, 3. 서울: 한국교육신문사.

구로건강복지센터 외(2002).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민간단체 보고서.

구정환(2005). 체력분석방법. 산업보건 제206권. pp.46-48.

구창모(2004). 청소년 체력 향상을 위한 인증제 운영 방안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43권 제1호, pp.175-185.

국가인권위원회(2004).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아동권 기초현황 조사 연구용역 사업보고서: 아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방안 보고 자료집.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2005). 2005년 국민인권의식조사 총괄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주)한국리서치.

국가인권위원회(2006). 학생인권 관련 및 전문가와 함께 하는 학생인권 증진 인권교육 토론마당(학생인권의 현주소와 과제).

국가인권위원회(2006). 중・고등학교 학생인권상황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무조정실(2002. 5).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계획. 서울: 관계부처합동.

국제아동복리연맹홍콩지부·한국지역사회복리회 역(1999). 유엔아동권리협약 훈련교재. 서울: 한국지역사회복리회.

국제인권봉사회·한국인권단체협의회(1994). 유엔과 인권-유엔인권제도 교육 자료집.

권병남(2002). 중등학교 교사와 학생간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연구.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길은배·이미리·임영식·이용교(2005). 청소년인권 실태 조사 연구. 서울: 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개발원.

길은배·이용교·김영지(2001). 청소년 인권지표 개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김경준(2004). 글로벌시대 청소년의 사회참여 실태와 지원방안. 서울: 한국청소년개

발원.
김경준·이춘화·최창욱·이용교(2005a). 청소년 인권정책 기본계획. 서울: 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개발원.
김경준·이춘화·최창욱·이용교(2005b). 청소년 인권정책 기본방향 연구. 서울: 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개발원.
김경호·문지영(2005). 청소년 참여 유형에 따른 임파워먼트 실천사례 연구 : 진주지역 청소년조직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제7권 제2호. pp.82-104.
김경화(2008).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아동의 진로성숙과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숙 외(2007). 사교육 실태조사 및 사교육비 경감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승보·방혜진(2010). 학교 진로교육의 주요 현안과 정책방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동향지, 제13권 제2호, pp.95-114.
김승권(2008). 국제적 시각에서 본 우리나라 아동권리 현황. 아동권리와 아동복지서비스. pp18-51.
김신영·임지연(2007). 한국 청소년발달 지표조사II – 발달지표 결과부문.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지·김경준·이혜연(2004). 청소년인권백서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김인숙·오선영·송수진·정필현(2004).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어린이보호재단.
김영지·이경자·김희진(2008). 국제기준대비 한국청소년 인권수준연구 II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지·이용교·김세진(2003). 청소년인권센터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한국청소년개발원.
김영지·이용교·안재희(2001). 청소년 권리신장 정책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김영지·이용교·임지연(2000). 청소년 권익증진을 위한 국내외 활동 동향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김원태(2001). 고등학교에서의 사회참여 체험교육과 시민성 형성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33집. pp.49-88.
김윤수(2004). 청소년의 지역 사회 참여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정래(2000). 아동권리협약의 정신과 그 발전적 이행을 위한 한 논의. 아동권리연구

제4권 제1호, pp.81-92.
김정래(2002). 아동권리향연. 서울: 교육과학사.
김정주·길은배·정화수(1999).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운동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김정희(2008). 대인관계향상 집단 상담이 고립아동의 사회성과 고립정도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종선(1986). 청소년의 여가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진흥회 편. 청소년과 사회체육.
김주훈(2005). 교과교육에서의 창의성 신장 방안. 새교육 3호. 서울: 한국교육신문사.
김지영(2006).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환경요인에 대한 탐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진호·김경화·한상철·임성택(2003). 청소년개발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진호·김경화·한상철·임성택·박정배(2004). 청소년개발지표 개발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김진호·김진화·송병국·오해섭·윤명희·이택선·임영식·정효진(2003). 청소년개발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서울: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김현철·김신영(2005). 청소년개발지표 연구I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혜경(2010).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연구.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선(2003). 초등학교 학생들의 고민실태와 학교사회사업의 개입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희성(2004a). 청소년의 정치사회 임파워먼트에 대한 참여의 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12권 제1호. pp.325-345.
김희성(2004b). 청소년 참여를 통한 정치 사회 임파워먼트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노태일(2003). 청소년단체의 프로그램 개발과 개선방안. 지역사회개발학회지, 제13권 제1호, pp.75-104.
대한민국 정부(1999).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2차 국가보고서.
대한민국(2003). 제2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CRC/C/70/Add.14)에 대한 UN 아동권리위원회의 문제제기(List of Issues- CRC/C/Q/REPKO /2)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서면답변.
대한변호사협회(2004). 인권보고서 - 2003년도 제18집. 서울: 대한변호사협회.

도종수·고성혜·전명기(2002). 청소년보호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류은숙(2003). 한국의 인권운동의 성과와 과제. 세계헌법연구, 제7호, pp.81-95.
모상현·김영지·김영인·이민희·황옥경(2010).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수준 연구Ⅴ: 발달권·참여권.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진경(2001).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문화체육관광부·한국출판연구소(2008). 2008년 국민독서 실태조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민동주(1996). 교수행위와 아동의 학습태도 및 학구적 학습시간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나미(2005). 유아의 창의성에 대한 관련 변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미혜(2008).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기능이 사회적 고립감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영균·최창욱(2006).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2009). 2009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배경내(1998).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배동인(1992). 시민사회의 개념: 사상사적 접근. 서울: 한울.
박소희(2008). 프로그램 평가 지표체계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지표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향아(200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유형화와 아동을 위한 내용의 재구성. 교육이론과 실천, 제12권 2호. pp. 103-120.
민동주(1996). 교수행위와 아동의 학습태도 및 학구적 학습시간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영순(1995). 가정환경 및 학교사회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나미(2005). 유아의 창의성에 대한 관련 변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미혜(2008).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기능이 사회적 고립감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상호(2005). 중고등학생의 체력검사 참여실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서진(2010). 체육교사의 의사소통에 따른 여자고등학생의 체육수업 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병부(2010).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수준별 하반 편성 및 특별보충수업의 교육적 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백희철(2004). 초등교사의 지도성 유형과 아도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전남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보건복지부(2010). 2009 아동청소년 백서. 서울: 보건복지부.
서근원(2009). 학습부진 학생과 학교교육의 현실 그리고 개선방향. 학교교육선진화를 위한 KICE 교육과정 평가 정책보럼 자료집.
서문희·안현애(2003). 아동권리지표의 생산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제83호, pp. 49-65.
서문희·안현애·이삼식(2003). 아동권리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문희·조애저·박세경·안현애(2004).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계획 평가 및 아동백서 발간에 관한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청소년활동진흥센터(2009). 2008-2009 요구조사에 기반한 청소년활동 개발의 전략적 접근. 서울: 서울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서윤주(2010). 낙관성 증진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낙관성과 심리적 안녕감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설경숙(2009). 초등학생의 교사에 대한 신뢰와 의사소통이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성낙일·홍성우(2009). 우리나라 사교육비 결정요인 및 경감대책에 대한 실증분석. 응용경제 제10권 제3호, pp.183-212.
성윤숙(2005).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중퇴과정과 적응에 관한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제2호, pp.295-343.
소경희(2009). 교사학습 이해을 위한 이론적 기초탐색. 교육과정연구, 제27권 제3호, pp.107-126.
송규운·윤호열·이순종(2001). 창의성과 부모교육. 서울: 창지사.
송창용·진미석·오호영(2009). 국가 인재지표개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송현옥·박아청·최성열(2010). 청소년의 가정환경,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과 자아정체성간의 관계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2호, pp.109-129.
심희옥·신유림(2009). 또래관계. 아동학회지, 제30권 제6호, pp.195-208.
양재희(2003). 초중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와 교사의 의사소통 수준 비교연구. 연세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위휘(2005). 청소년 스트레스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제14권 제2호, pp.129-138.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00). 아시아의 인권교육-호주・인도・홍콩 편. 서울: 사람생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역(2002). 세계아동현황보고서 2003.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윤수미(2005). 학교연계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 인권의식과 인권옹호태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유지연·박정윤(2005).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가정화교육학회지, 제17권 제1호, pp.69-84.
윤나리·김영란(2004). 우리나라 청소년의 소외감과 청소년 복지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6권 제2호, pp.101-113.
윤지원(2009). 초등학생의 정서지능,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철경·김성경·김현주·박병식·이봉주(2005). 청소년보호정책 실태와 발전방안.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이기범(1997).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의 원리와 이행방안. 아동권리연구 창간호, pp. 23-34.
이기범(1999).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정부 2차 보고서의 평가와 향후 과제 연구. 아동권리연구 제3권 제2호, pp. 69-83.
이기범(2005). 사회적 실천에 참여로서의 학습과 공동체. 교육철학, 제33집, pp.101-116.
이단순(2006). 초등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변인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덕준(2001). 집단 상담이 학습부진아의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및 학업성취도 향상에 미치는 효과.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이봉주·곽금주·구인회 외(2009).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이봉주 외(2006a). 2006 한국의 주요 아동지표.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보건복지부.
이봉주 외(2006b) 아동백서, 중장기 아동정책 및 국가행동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보건복지부.
이봉철(1991). 인권,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권. 한국청소년연구, 제2권 제4호. pp.5-29.
이수광(2000). 학생인권 신장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옥연(2010) OECD 국가 중등학생의 학습시간과 교실수업 활동 및 학업성취 관계 분석 : PISA 2006 결과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용교(2004). 청소년인권과 인권교육. 서울: 인간과 복지.
이용교·고성혜·이희길(1996). 청소년인권 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이용교·박창남·이중섭(2007). 국제기준 대비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연구II-청소년인권 영역별 실태분석.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용교·이명묵·안경순·정경은·정민기(2006).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 광주: 광주대학교 출판부.
이용교·천정웅·안경순(2006). 청소년 생존권 현황과 지표개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이용교·황옥경·김영지·김형욱·이중섭·박경희(2005). 한국의 아동·청소년권리. 서울: 인간과 복지.
이용화(2005). 청소년 인권의식과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이재연(1997). 각 나라의 아동권리협약 실천 상황. 아동권리연구 제1권 제2호, pp. 5-20.
이재연(2004). 아동권리모니터링의 방향.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아동권리 모니터링 자료집.
이재연·이용교·강현아·김덕순·김영지·노경주·손병덕·연흥숙·황혜원(2005). 한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서울: 보건복지부·한국아동단체협의회·한국아동권리학회.
이점순(2006). 담임교사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학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정은·조미영(2007). 남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제2호, pp.79-102.
이종원·장근영·김형주(2007). 국제기준 대비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연구II-청소년 인권실태 및 정책방안.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종희(2001). 아동의 의사표명권과 전문가 개입에 관한 문헌연구 : 부모 이혼시 양육자 지정과 관련하여. 연세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주연(2010). 청소년 동아리 활동의 지속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 수련시설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중섭·박해섭(2006). 청소년 발달권 현황과 지표개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이창수·윤영철·김영옥(2005). 인권관련 정부통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서울: 새사회연대·국가인권위원회.

이혜진(2004). 방과 후 학교 운동프로그램이 청소년의 건강관련체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제15권 제2호, pp.1265-1272.
이희영·천태복(2005). 학년 및 성별과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또래 갈등해결전략. 수산해양교육연구, 제17권 제2호, pp.228-239.
인권운동사랑방 역(200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 2차보고서 심사회의 녹취록.
임연진·이은경(2010). 남녀 초등학생의 정서조절 능력과 학교적응간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학회지, 제19권 제2호, pp.285-294.
임지연·김신영·김정주(2007). 한국 청소년발달 지표조사II - 발달지표 종합부문.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임희진·김현철(2010). 한국고등학생의 학업에 관한 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영주(2001). 우울증을 매개로 한 청소년의 자살구상에 관한 가족 및 학교환경의 경로분석 모델. 대한가정학회지, 제39권 제1호, pp.151-167.
정회욱·길은배·김정래(2000). 권리에 대한 청소년의식 조사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조규열(2004). 학습자의 실제학습시간 증진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금주(2010). 청소년 아르바이트 및 부당 노동 실태 추이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1호. pp.297-319.
조덕주·심상욱(2005). 제7차 중학교 도덕교과서에 나타난 진로교육 내용 분석. 진로교육연구, 제18권 제1호, pp. 32-44.
조아미(2006). 청소년 우대정책과 청소년증 활용방안.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청소년인권, pp. 29-52.
조윤희(2009). 교사학생의 의사소통과 학생의 진로정체감 및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혜영·최창욱(2008). 청소년 참여활동의 성과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탐색: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들과의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제5권 제1호. pp.111-140.
주현정(1998).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3). 제16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영실(1996). 아동의 지능개념의 발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차인순(2006).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변환적 지도력과 학생의 수업만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청소년보호위원회(2005). 2004 청소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최미희(2007).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시뮬레이션 웹 코스웨어의 설계 및 구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복경(2008). 청소년의 참여 실태와 참여권 향상 방안. 상지대학교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상미(2002).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교사문화와 학생의 학교생활만족에 대한 연구.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영자(2008).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원기 외(2000). 청소년 문화감수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원기·전명기·이주연(2003). 청소년의 시민권 증진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최윤진(2010). 21세기 사회와 시민청소년. 한국시민청소년학회 창립학술대회.
최윤진·이해주·이미리(2004). 청소년인권론. 서울: 교육과학사.
최인재 외(2009). 한국 청소년 지표조사Ⅳ: 청소년 진로직업지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정희(2004). 교사의 변환적 지도력과 학생의 수업 참여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창욱·박영균·김진호·임성택·전성민(2006). 국제기준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연구 Ⅰ :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최창욱·조혜영(2007). 청소년 정책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청소년 정책참여 기구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4권 제6호, pp.203-227.
한국교육개발원(1988). 교육지표의 체계화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지표개발팀(2001). 한국의 아동지표. 서울: 학지사.
한국아동권리학회(2002. 4). 아동권리 모니터링 -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청소년개발원(2006). 청소년 참여권 현황과 지표개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9a). 아동·청소년 권리지수개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9b). 2009 아동·청소년 활동문화 조사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상범(1991). 인권: 민중의 자유와 권리. 서울: 교육과학사.

한영희(2009).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등교거부 경향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은미(2009). 고등학생들이 지각한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쉽과 학생들의 자기 효능감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지영(2010). 레저, 스포츠 편: 운동 동아리 참여와 우울감, 사회적 및 정서적 고립감과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39권 제2호, pp.1227-1237.

황옥경(2002). 유럽 국가들의 아동권리 모니터링 체제. 한국아동권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황옥경(2003a).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옴부즈맨 수립방안. 아동권리연구, 제7권 1호, pp1-24.

황옥경·정준미(2006). 청소년 보호권 현황과 지표개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허남순·노충래(2005). 미혼모부자종합대책에 관한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허인숙·이정현(2004).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과 시민성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40호, pp.443-472.

호리오 테루히사(1999). 인권사상의 발전과 인권교육: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서울: 한신대학교 민중교육연구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Ainsworth, M. D. S., & Bowlby, J.(1991). An ethological approach to personality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Vol.4,* pp.333-341.

Angel, William D.(Ed.)(1995). *The international law of youth rights - source documents and commentary.* Lond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Bee, Helen L. et al.(1982). Prediction of IQ and language skill from perinatal status, child performance, family characteristics, and mother-infant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Vol.53*, pp.1134-1156.

Benson. P. L., and Saito, R. N.(2001). The scientific foundations of youth development. In P. L. Benson and K. J. Pittman(Eds.), *Trends in Youth Development: Visions, realities and challenges.*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Bradshaw, C. P. et al.(2006). Applying positive youth development and life-course research to the treatment of adolescents with serious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Addictions & Offender Counseling, Vol.27, No.1,* pp.2-16.

Breslow L. & Enstrom J. E.(1972).Persistence of health habits and their relationship to

mortality . *Preventive Medicine. Vol.1, No.3,* pp.469-483.

Brown Margot ed(1996). *Our World, Our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United Kingdom.

Connell J. P., et al.,(2000). Youth Development in Community Settings: Challenges to Our Field and Out Approach. In P.L. Benson & K. J. Pittmena(Eds.). *Trend in youth development.* dordrecht, Netherlands: Kluwer academic publicsher.

Council of Europe(1996). *The rights of the child - a European perspective.*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Council of Europe(2002). *Compass - A manual on human rights education with young people.*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Council of Europe(2003). *Electoral systems and voting procedures at local level. The Electoral Commission. 'How old is old enough?'.* Consultation paper.

Cynthia, P. C. (1996). Monitor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a Non-party state: The United States. *Monitoring Children's Rights,* pp. 475-490.

Diener, E., et al.(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 Personality Assessment, Vol.49,* pp.71-75.

Eccles, J. S., & Gottman, J. A.(Eds).(2002). *Community programs to promote youth development.*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Fache, W. (1996). How to Develop a anticipatory, Comprehensive and Coherent Youth Policy? *Monitoring Children's Rights,* pp. 263-279.

Franklin, Bob and Hammarberg, Thomas(Eds.)(1995). *The handbook of children's rights - comparative policy and practice.* New York: Routledge.

Freeman, Michael(Ed.)(1996). *Children's Rights : A comparative perspective.* Aldershot, Brookfiled USA, Singapore, Sydney: Dartmouth.

Hamilton. S. F., & Hamilton. M. A.(2003). *The youth development handbook: coming of age in American communities.* SAGE publication.

Hamilton. S. F., & Hamilton. M. A.(2004). *The Youth Development Handbook :Coming of Age in American Communities.* SAGE Publication.

Hart, R. A.(1997). *Children's participation :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volving young citizens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environment care.* London: Earthscan Publications Ltd.

Hodgkin, R., & Newell, P.(2002). *Implementation handbook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va: UNICEF.

Huston, A. C.(2002). Reforms and child development. *The future of children, Vol. 12, No. 1.* pp. 59-78.

Hughes, K. L., & Karp, M. M.(2004). *School-based career development: A synthesis of the literature.* New York: Institute on Education and the Economy.

Johnston, J. N.(1981). *Indicators of educational systems.* London: Kogan Page.

Kim-Xuan, N.(2006). *Youth in Asia: a brief overview.* 국가청소년위원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공동주최 국제심포지엄자료: 세계화시대의 청소년 참여정책.

Land et al(2001). *Child and youth well-being in the United states, 1975-1998:Some Finding From a news index.* Social indicators Research.

Land, K. C. et al.(2001). Child and youth well-being in the United states, 1975-1998: Some Finding From a news index.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56,* pp.241-320.

Lapan, R. T. et al.(1997). The impact of more fully implemented guidance programs on the school experience of High school students: A statewide evaluation study.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Vol.75,* pp.292-302.

Lerner, R. M., & Galambos, N.(1998). Adolescent development: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research, programs, and policies. In J. T. Spence (E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49, pp. 413-446).* Palo Alto, CA: Annual Reviews.

MacRae, D. J.(1985). *Policy indicators: Links between social science and public debate.* North Carolina:N.C. University Press.

Moore, K. A., Lippman, L. & Brown, B.(2004) Indications of Child Well-Being: The Promise for Positive Youth Development.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591*, pp.125-145.

Medley, M.L.(1976).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persons sixty-five years and older. *Journal of Gerontology. Vol.31, No.4,* pp.448-455.

Myers, R.(1995).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moving promises to action' Coordinator's Notebook.* No. 17.

National Research Council and Institute of Medicine(2002). Community Programs to Promote Youth development. J. Eccles & J. A. Gootman(Eds). *Borad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Divison of Behavioral and Social Sciences and Education.*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Ochaita. E., & Espinosa. A.(2001). Need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as a basis for the

justification of their right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9.*

O'donnell(1996). *Children's Ombudsmen and the Promotion of Children's Rights.* Radda Barenen: Stockholm.

Park, N.(2004). *The Role of Subjective Well-Being in Positive Youth Development.* ANNALS, AAPSS, 591.

Pittman, K.J., Irby, M., Tolman, J., Yohalem, N., & Ferber, T.(2003). *Preventing problems, promoting development, encouraging engagement: Competing priorities or inseperable goals?* Washington, DC: The Forum for Youth Investment, Impact Strategies, Inc.

Rayner, Moira(1995). Childrens' rights in Australia. In Bob Franklin(Eds.), *The handbook of childrens' rights*(pp. 188-199). New York: Routledge.

Rintoul, B. et al.(1998).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arental Behavior.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Public Health Servic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Rosalind Ekman ladd(1996). *Children's Rights Re-Visioned; Philosophical Readings.* Wadworth Publishing Company.

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Basic Books.* New York.

Sengupta, A.(2000). *The Rights to Development as a Human Right.*

Sherrod, L. R., Flanagan, C. A., Kassimir, R., & Syvertsen, A. K. (Eds.).(2006). *Youth activism: An international encyclopedia.* London: Greenwood Press.

The World Bank(2006). *World Development Report 2007 : Development And the Next Generation.*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The World Bank·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2006).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Tisdall, E. K. (1997). *The Children (Scotland) Act 1995*, Edinburgh : HMSO.

UN(1989).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New York: United Nations.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2003. 1).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Republic of Korea.* Unpublished report. www. unhchr. ch/html/menu2/6/crc/doc/session32.htm.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2006. 9.29). *Day of General discuss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o be heard(Unedited Version).*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2009. 7.20). *General Comment No. 12 - The right of the child to be heard(CRC/C/GC/12).*

UNICEF(1998). *A Human Rights Approach to UNICEF Programming for Children and Women.* New York: UNICEF.

UNICEF.(2005). *Young people health and development: National baseline evaluation of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s of young people.* Association Health for Youth.

UNICEF(2007).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02~2008 각년도.* New York: UNICEF.

United Nations(1995). *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to the Year 2000 and Beyond(A/RES/50/81).*

United Nations(2000).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New York: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2004a). *Making Commitments Matter: a Toolkit for young people to evaluate national youth policy.*

United Nations(2004b). *World youth report 2003 - The global situation of young people.* New York, NY: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ited Nations (2005). *World youth report 2005: Young people today, and in 2015.* New York: United Nations Publication.

United Nations(2005). *World youth report 2005 - Young people today, and in 2015.* New York: United Nations publication.

United Nations(2007). *World Youth Report 2007 - Young people's transition to adulthood : progress and challenges.* New York: United Nations publication.

Van Bueren, G.(1998). *The international law on the rights of the child.* Boston, MA: Martinus Nijhoff Publishers.

Walker, Nancy E.·Brooks, Catherine M. and Wrightsman, Lawrence S.(1999). *Children's rights in the United States - In search of a national policy.* California·London·New Delhi: SAGE Publications, Inc.

WHO(2004). *Child and Adolescent Health and Development.* Progress Report

Willinsky, J.(2002). Education and Democracy: The Missing Link May Be Ours. H*arvard Educational Review, Vol.72, No.3*, pp.367-392.

Winter, M.(1997). *Children as fellow citizens - participation and commitment.* New York: Radcliffe Medical Press.

세계일보. 2009. 11월 1일자 기사: 우울증 늪 쉽게 빠져, 청소년 정신건강 적신호.

연합뉴스. 2010. 7월 10일자 기사: '학생인권조례' 고교 학생회장 후보에 압력 논란, 학부모, 시민단체 "학생인권 훼손" 주장, 학교 "압력, 원고 검열 없었다"

서울가정법원, 1994. 12. 9, 92드38724

서울고등법원 판례. 94르545; 94르927; 94르2565
가사소송규칙 제99조, 100조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고용노동부 www.molab.go.kr
다음 카페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http://cafe.daum.net/ysial
대한출판문화협회 www.kpa21.or.k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식블로그 http://minbyun.org/blog/382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인터넷통계정보시스템 isis.nic.or.kr
정보통신부 www.mic.go.kr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cafe.naver.com/asunaro
통계청 www.nso.go.kr

부 록

부록 1.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2호 : 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권[1)]

Ⅰ. 서론
Ⅱ. 목적
Ⅲ. 의견표명권 : 아동 개인의 권리와 아동 집단의 권리
A. 법적 분석
1. 제12조의 문구 분석
(a) 제12조 1항
(b) 제12조 2항
2. 아동의 의견표명권 이행을 위한 단계
(a) 준비단계
(b) 의견 청취
(c) 아동 능력의 사정
(d) 아동의 의견에 주어진 비중에 대한 정보(피드백)
(e) 항소, 구제, 배상
3. 회원 국가의 의무
(a) 회원 국가의 핵심의무
(b)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관계된 구체적 의무
B. 의견표명권과 협약의 다른 조항과의 관계
1. 제12조와 제3조
2. 제12조, 제2조, 제6조
3. 제12조, 제13조, 제17조
4. 제12조와 제5조
5. 제12조와 총체적 아동권리의 이행
C.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서의 의견표명권 실행
1. 가족 내에서
2. 대리보호 내에서

1)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2009.7.20). General Comment No. 12 - The right of the child to be heard(CRC/C/GC/12).

3. 보건의료에서
4. 교육과 학교 내에서
5. 놀이,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문화활동 내에서
6. 직장에서
7. 폭력 상황에서
8. 예방 전략의 개발에서
9. 이민과 보호 요청 과정에서
10. 비상 상황에서
11. 국가적 상황과 국제적 상황

D. 아동 의견표명권 실행의 기본요건

E. 결론

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 따르면: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하한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상 절차규칙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Ⅰ. 서론

1. 아동권리협약 제12조는 인권조약에서는 독특한 규정이다. 제12조는 한편으론 성인의 완전한 자율성을 갖추지 못했으면서 다른 한편으론 권리의 주체인 아동의 법적, 사회적 지위를 다루고 있다. 제1항에서는 자신의 견해

를 구성할 능력이 있는 모든 아동에게 자신의 견해를 개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아동의 의견은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적절히 받아들여져야 한다. 제2항에서는 아동에게 관련된 모든 법적, 행정적 절차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아동에게 부여한다.

2. 모든 아동은 의견을 개진하고 존중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아동권리협약의 근본원칙 중 하나이다. 아동권리위원회는 비차별권, 생존과 발달권, 그리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와 더불어 제12조를 아동권리협약의 네 가지 일반 원칙 중 하나로 꼽았으며 이는 제12조를 아동의 권리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권리가 다른 모든 권리들의 해석과 이행에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3. 1989년 아동권리협약의 채택 이래 제12조의 이행을 촉진하는 법률, 정책, 방법의 개발이 지역, 국가, 대륙, 세계적 수준에서 상당한 진보를 이룩했다. 비록 제12조의 문구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일반적으로 “참여”라는 말로 개념화된 관행이 광범위하게 등장했다. 이 용어는 계속 발전해 와 현재 진행되는 과정(processes)들 - 이를테면 정보공유, 상호존중에 입각한 성인과 아동의 대화를 묘사하기 위해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런 과정 속에서 아동은 자신과 성인의 의견이 존중 받으며 이 과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4. 회원 국가들은 2002년 27회 아동특별총회에서 제12조의 실현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아동권리위원회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아동의견의 개진과 존중에 대한 아동의 권리가 여전히 오래된 관행과 태도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장벽으로 인해 방해를 받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많은 아동들이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위원회는 특히 보다 어린 아동들과 사회에서 소외되고 혜택 받지 못한 집단에 속한 아동들이 이 권리의 실현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한 현재 존재하고 있는 많은 관행들의 질에 대해서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12조가 의미하는 바와 이를 모든 아동에게로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가 필요하다.

5. 2006년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 제12조의 의미와 중요성, 12조와 다른 조항(articles)들의 관계, 조항과 현실의 차이(the gaps), 좋은 실천사례, 이 권리의 향유를 촉진하기 위해 다루어야 할 우선 이슈들 등을 연구하기 위해 아동의견표명권에 대한 일반토론의 날(day of general discussion)을 개최하였다. 본 일반논평은 이 날 토론회에서 이루어진 정보교환으로부터 얻어진 것으로 여기에는 아동들의 의견, 회원 국가의 보고서 검토에 대한 위원회의 축적된 경험, 그리고 정부, 비정부기구, 지역단체, 개발기관, 아동들이 제12조의 권리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얻은 매우 중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포함되어 있다.

6. 본 일반논평에서는 먼저 제12조의 두 항에 대한 법적 분석을 제시하고 이 권리를 실현하는데 따르는 요건들을 설명하며 구체적으로는 법적, 행정적 절차에 대해 다루고 있다(섹션 A). 섹션 B에서는 제12조와 아동권리협약의 다른 세 가지 일반 원칙들과의 관계와 제12조와 다른 조항들(articles)과의 관계를 논의한다. 섹션 C에서는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서의 아동의견표명권의 요건과 영향이 정리되어 있다. 섹션 D에서는 이 권리의 실행에 필요한 기본 요건을 설명하고 섹션 E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7. 아동권리위원회는 회원 국가가 본 일반논평을 정부 및 행정기관, 어린이와 시민단체로 보급할 것을 권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본 일반논평을 먼저 해당국가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과 아동이 볼 수 있는 버전으로 편집하는 일, 본 일반논평의 의미와 실행 방법에 대한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그리고 본 일반논평을 아동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교육에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Ⅱ. 목적

8. 일반논평의 전반적인 목표는 회원 국가가 제12조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 제12조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제12조가 정부, 이해관계자, 비정부기구 및 사회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를 돕는다.
- 제12조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률, 정책, 실천방안의 범위에 대해 설명한다.
- 아동권리위원회의 모니터링 경험을 통해 제12조를 이행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접근법을 강조한다.
-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의 의견에 적합한 비중을 둘 수 있는 적절한 방법에 필요한 기본 요건을 제안한다.

Ⅲ. 의견표명권 : 아동 개인의 권리와 아동 집단의 권리

9. 일반논평은 아동권리위원회의 구분에 따라 아동 개인의 의견표명권과 아동 집단의 의견표명권으로 구성되어 있다(아동집단이란 학급, 한 마을의 아동전체, 한 국가의 아동전체, 장애아동, 여자아이 등을 말한다.) 아동권리협약은 회원 국가들이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아동의견표명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구분이다(다음에 나오는 제12조 1, 2항에 대한 법적 분석을 참고).

10. 아동 개인이나 아동 집단이 의견을 개진할 때 이들의 나이와 성숙도를 사정할 수 있다.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를 사정하는 작업은 아동이 가족, 학급, 특정 마을과 같은 지속적 조직의 구성원일 때는 용이하나 아동이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때는 더욱 어려워진다. 그러나 나이와 성

숙도를 사정하는 일이 어렵다 하더라도 회원 국가들은 아동을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할 집단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아동권리위원회는 회원 국가들이 집단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아동들의 의견을 구하고 듣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11. 회원 국가는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아동을 격려하고 자신의 의견표명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12. 아동에 의해 표출된 의견은 적절한 관점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 정책입안, 법률 및 방법의 준비 및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

13. 이러한 과정을 보통 참여라 부른다. 아동 및 아동들의 의견표명권은 이러한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참여라는 개념은 이러한 과정에 아동을 포함시키는 것이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아동의 생활과 관련된 모든 환경에 관계된 정책, 프로그램, 방법의 개발에 대한 아동과 성인의 심도 깊은 의견교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14. 일반논평의 섹션 A(법적 분석)에서,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 개인의 의견표명권을 다루고 있다. 섹션 C(다양한 환경과 상황에서의 의견표명권 이행)에서는 아동 개인과 아동 집단의 의견표명권을 모두 논의한다.

A. 법적 분석

15. 아동권리협약 제12조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 권리는 회원 국가가 이 권리를 인정해야 할 명확한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함으로 이 권리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무로 인해 회원 국가는 고유한 법률 시스템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 권리를 보장하거나 법을 채택, 개정하여 아동이 이 권리를 최대한 향유하도록 해야 한다.

16. 아동은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아동의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다. 회원 국가는 아동이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내리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17. 일반적 원칙으로서 제12조는 회원 국가가 아동권리협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권리들의 해석 및 실행이 제12조의 원칙의 틀 안에서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한다.

18. 제12조는 아동은 취약성(보호)이나 성인 의존(제공)에서 파생된 권리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권리를 명시한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원 국가들이 이 국제규약을 거의 전반적으로 포용했다는 사실은 제12조에 명확하게 표현된 대로 아동의 이와 같은 지위를 강조하고 있다.

1. 제12조의 문구 분석

(a) 제 12조 1항

(ⅰ) “보장해야 한다”(Shall assure)

19. 제12조 1항은 회원 국가들이 아동의 자유로운 의견표명권을 “보장해야 한다(shall assure)”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장해야 한다”라는 표현은 특별한 힘을 갖고 있는 법률 용어로서 회원 국가에게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지 않다. 따라서 회원 국가는 모든 아동들이 이 권리를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엄격한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이 의무는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아동의 의사를 구하고 그와 같은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확보하기 위해 두 요소를 담고 있다.

(ii)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이 있는"(capable of forming his or her own views)

20. 회원 국가는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이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의견표명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 문구를 제약조건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회원 국가는 아동이 최대한 가능한 범위까지 자율적인 의견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사정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회원 국가는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가정을 갖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아동에겐 자기 의사를 구성할 능력이 있고 이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가정을 전제해야 한다. 아동이 먼저 의견표명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1. 아동권리위원회는 제12조가 아동의 의견표명권에 나이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회원 국가가 법으로나 관행으로 나이제한을 도입하여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동권리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을 강조하고 있다:

• 첫째, 2004년, '아동기 초기에 아동의 권리 이행에 관한 일반 토론의 날' 이후 내 놓은 권고안에서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은 권리 보유자라는 개념이 "매우 일찍부터 아동의 일생생활에 뿌리박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구에 따르면 아동은 비록 언어로 표현하지는 못하더라도 아주 일찍부터 자신의 의사를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제12조를 온전히 이행하려면 아동이 자

신의 이해, 선택, 기호를 표현하는데 사용하는 놀이, 몸짓(body language), 얼굴 표정, 낙서 및 그림과 같은 비언어 형태의 의사소통방법을 인식, 존중해야 한다.

• 둘째, 아동이 자신에게 관련된 사안의 모든 양상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사안에 대한 자기 의사를 적절히 형성할 수 있을 만큼의 이해력을 갖고 있으면 된다.

• 셋째, 회원 국가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아동도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장애 아동은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도구를 제공받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수인종, 원주민 및 이민자, 해당국가의 국어를 말할 수 없는 아동의 의견표명권도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끝으로, 회원 국가는 이 권리가 충분히 실천되지 못하는 상황, 특히 매우 어린 아동의 사례나 아동이 범죄, 성적 학대, 폭력, 기타 학대의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 인식해야 한다.

(iii)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The right to express those views freely)

22. 아동에게는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자유롭게”라는 말은 아동이 외압 없이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자기의사 표현권을 행사할지 말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유롭게”라는 말은 아동이 부적절한 영향이나 외압을 받거나 조종되어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자유롭게”라는 말은 내재적으로 아동 “자신의” 관점과 관련이 있다 아동에겐 남의 의사가 아닌 자기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23. 회원 국가는 아동의 개인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과 아동이 자기 의사를 표현할 때 존중 받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는 환경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24. 아동권리위원회는 필요 이상으로 자주 아동을 인터뷰해서는 안되며 특히 해로운 사건을 조사할 때 더욱 그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경우 아동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것은 아동에게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어려운 과정이다.

25. 아동의 자기 의사 표현권을 이행하려면 아동은 부모나 보호자와 같이 아동의 의사를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안, 선택사양, 가능한 선택 그리고 선택의 결과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또한 아동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자기 의사를 표현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아동이 명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선제조건으로 이 정보에 대한 권리가 필수적이다.

(iv)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In all matters affecting the child)

26. 회원 국가는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자기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 부분은 이 권리의 두 번째 조건이다. 논의 중인 사안이 아동과 관련이 있다면 아동은 그 사안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이 기본적 조건은 존중되어야 하며 널리 이해되어야 한다.

27. 인권위원회가 설립한 개방형 작업그룹(open-ended working group)은 아동권리협약의 초안을 작성했다. 이 작업그룹은 아동의 견해를 제한적인 목록으로 정의하려는 제안을 거절하고 대신 아동의 의견표명권은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다뤄야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아동권리위원회는 논의 중인 사안이 아동과 관련이 있고 아동은 이에 대해 자기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의사가 종종 무시되고 있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이슈들도 포함한 "모든 사안에 대한 폭 넓은 정의"를 지지하는 한편, 이 말로 포괄적인 정치적 권한을 의도한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하기 위해 덧붙여

진 “아동에 관련된”이란 구절 또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아동정상회의(the World Summit for Children)를 포함해, 아동과 관련된 사안을 폭 넓게 해석하는 관행은 아동을 지역공동체와 사회적 과정에 포함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회원 국가는 아동의 관점이 문제 해결의 질을 높이는 경우에는 어떤 분야에서라도 아동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할 것이다.

(ⅴ)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Being given due weight in accordance with the age and maturity of the child)

28. 아동의 의견은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한다. 이 구절은 아동의 의사를 적절히 존중하고 아동의 의사가 사안의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 주기 위해서 반드시 사정되어야 할 아동의 역량을 언급하고 있다. 제12조는 아동의 의견을 단순히 청취하는 것으로는 부족함을 밝힌다.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 있을 때 아동의 의사는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29.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적절히 존중해야 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제12조는 나이로만 아동 의견의 중요성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아동의 이해도는 생물학적 나이에 일률적으로 연계되어 있지는 않다. 연구에 따르면, 아동이 견해를 형성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는 정보, 경험, 환경, 사회문화적 기대치 및 아동이 지지 받는 수준이 모두 관여된다. 따라서 아동의 의사 형성 능력은 사례별로 사정되어야 한다.

30. 성숙도란 특정 사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고 사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 것이므로 아동의 능력을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성숙도란 정의하기 어려운데 제12조의 맥락에서 볼 때, 성숙도란 아동이 이성적, 독립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어떤 사안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사안의 결과가 아동의 생

활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아동의 성숙도를 정확히 사정해야 할 필요도 더 커진다.

31. 아동의 역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한다는 사실과 부모의 지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본 의견서 84항과 아래 섹션 C를 참고).

(b) 제12조 2항

(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권리 (The right "to be heard in any judicial and administrative proceedings affecting the child")

32. 제12조 2항에서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이 규정이 아동에게 관련된 모든 사법적 절차, 예를 들어, 부모의 이혼, 아동양육권, 아동보호와 입양, 법을 어긴 아동, 신체적 심리적 폭력, 성적 학대, 기타 범죄피해 아동, 보건의료(health care), 사회보장(social security), 동반자 없는 아동(unaccompanied children), 난민요청 및 피난민 아동, 무력충돌 및 기타 비상사태의 희생자 등에 대한 모든 사법적 절차에 제한 없이 적용된다고 강조한다. 전형적인 행정절차에는 아동의 교육, 건강, 환경, 생활환경, 보호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포함된다. 이 두 가지 형태의 절차 모두 중재와 같은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을 포함할 수 있다.

33. 의견표명권은 학대에 대한 아동의 고소나 학교 퇴학에 대한 아동의 호소 등과 같이 아동이 제기한 절차 뿐 아니라 부모의 이혼이나 입양과 같이 아동에게 관련되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제기된 절차에도 적용된다. 회원국가는 사법, 행정 절차의 의사결정자들이 아동에게 아동의 의사가 고려되는 수준과 그 것이 아동에게 미치는 결과에 대해 설명하도록 만들 법적 조

치를 도입하도록 권고 받는다.

34. 위협적이고 적대적이며 아동의 나이에 맞지 않거나 이를 고려하지 않는 환경에서 아동은 효과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없다. 사법, 행정 절차에 아동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아동에게 적합해야 한다. 아동에게는 아동에게 친근한 정보, 자기변호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 적절하게 훈련 받은 직원, 법정 디자인, 재판과 변호사들의 의복, 시야 가리개, 독립된 대기실 등을 제공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ii)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해"(either directly, or through a representative or an appropriate body)

35.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아동은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아동권리위원회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에 있어서도 아동이 자기 의사를 직접 표현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권하고 있다.

36. 대리인(representative)은 부모, 변호사, 혹은 다른 사람(특히 사회복지사)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민법, 형법, 혹은 행정 절차 - 아동과 아동의 가장 명확한 대리인(부모)간에 이해가 상충되는 위험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만일 아동의 대리인이 아동의 의사를 대신 표현할 경우 아동의 의사가 대리인을 통해 의사결정자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의견표명 방법은 아동이 처한 상황에 따라 아동에 의해(혹은 필요한 경우 적합한 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대리인은 의사결정과정의 다양한 양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하며 아동에 대한 경험도 많아야 한다.

37. 대리인은 반드시 아동의 이익만을 대변해야 하지 다른 사람들(부모,

보호시설 등 기관이나 단체, 행정부 및 사회)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아동의 의견표명 대리인을 위한 행동지침(codes of conduct)이 개발되어야 한다.

(iii) "국내법의 절차규칙 맞게"(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procedural rules of national law)

38. 의견표명의 기회는 반드시 "국내법의 절차규칙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구절은 이 기본권의 향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절차적 규정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회원 국가는 자기 방어권(the right to a defence)과 자기 정보열람권(the right to access one's own files)과 같은 공정한 절차에 대한 기본 규정을 지켜야 할 것이다.

39. 절차적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법정이나 행정부의 결정은 도전받을 수 있고 기각되거나 대체되거나 재검토될 수 있다.

2. 아동의 의견표명권 이행을 위한 단계

40. 어떤 사안이 아동과 관련이 있을 때나 어떤 공식적인 일이나 상황에서 아동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도록 요구되었을 때 아동의 의견표명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제12조의 두 개 항목을 이행하는 데는 다섯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이 단계들은 주어진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a) 준비단계

41. 아동의 의사를 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은 아동에게 자신에게 관련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자기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아동에게 있으며 특

히 사법적, 행정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견표명의 권리가 있으며 이렇게 표현된 의사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알려 주어야 한다. 또한 아동은 자기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명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표명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 받아야 한다. 아동은 이 선택이 가져다 줄 잠재적 결과를 인식해야 한다. 의사결정자는 아동의 의사를 듣기 전 아동에게 의견청취가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 수행될 것인지, 누가 참관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어야 하고 여기에 대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b) 의견 청취

42. 아동이 의견표명권을 행사하는 환경은 자신의 의사를 청취하는 성인들이 자신의 의사를 기꺼이 들으려 하고 진지하게 고려한다는 것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고무적인 환경이어야 한다. 아동의 의사를 청취할 사람은 아동과 관련된 사안에 연관된 성인(예, 선생님, 사회사업가, 돌보미)이거나 기관의 의사결정자이거나(예, 사무국장, 행정가, 혹은 재판관) 혹은 전문가(예, 심리학자나 의사)일 수 있다.

43. 경험에 의하면 아동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환경은 일방적인 조사보다는 대화의 형식이어야 한다. 아동을 법정에서 진술하게 하기보다는 비밀이 지켜지는 환경에서 진술하게 하는 것이 더 좋다.

(c) 아동 능력의 사정

44. 개별적 사례 분석을 통해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것이 나타나면 아동의 의사는 그에 따라 존중되어야 한다. 아동이 이성적이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형성할 수 있을 때 의사결정자는 아동의 의사를 사안의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야 한다. 아동의 능력을 사정하는 좋은 방법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d) 아동의 의견에 주어진 비중에 대한 정보(피드백)

45. 아동은 자기 의사가 존중 받는 것을 기뻐하므로 의사결정자는 아동에게 사안의 결과와 아동의 의사가 어떻게 반영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피드백은 아동의 의견이 형식적으로만 다루어진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반영된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피드백은 아동이 주장을 하거나 사실에 동의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게 해 주며 혹은 사법 및 행정 절차에서는 항소를 제기하게 할 수도 있다.

(e) 항소, 구제, 배상

46. 법은 아동이 자신의 의견표명권이나 의사를 존중 받아야 할 권리가 무시되거나 침해당할 때 항소를 제기하거나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아동은 학교와 어린이 집(daycare center)같은 모든 아동 관련 기관에서 옴부즈맨이나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아동은 누가 이런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아동의 의사를 고려하는 것에 대한 가족 갈등의 경우에, 아동은 지역사회 청소년 기관의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

47. 사법적 행정적 절차와 관련해 아동의 의견표명권이 침해당할 경우(제12조 2항) 아동은 권리침해에 대한 배상을 제공하는 항소나 항의 절차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항의절차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 아동이 이런 절차를 사용할 때 폭력이나 처벌의 위험이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3. 회원 국가의 의무

(a) 회원 국가의 핵심의무

48. 아동의 의견표명권은 회원 국가가 아동에게 적절한 정보, 지원, 그리고 필요하다면 아동의 의사가 미친 영향에 대한 피드백, 항소, 구제 및 배상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도입하기 위해 자국의 법령을 살피거나 수정할 의무를 부과한다.

49.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회원 국가는 다음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 제12조를 제한하는 법령이나 유보조항을 재검토하고 철회해야 한다
- 아동의 권리에 대한 폭 넓은 권한을 가진 아동 옴부즈맨이나 커미셔너 같은 독립적인 인권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 변호사, 판사, 경찰,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돌보미, 복지시설 종사자 및 교도관, 교사, 의사, 간호사, 기타 의료종사원, 시 공무원, 정부 공무원, 시설 담당자, 전통적 지도자 등 아동들을 위해 일하는 모든 전문가들에 대한 제12조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 아동의 자기 의견표명을 지지하고 권장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 아동의 의사가 법과 기관의 규정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규정과 여러 장치에 의해 존중 받도록 해야 하며 이 규정과 장치들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오피니언 리더와 미디어 등을 활용한 대중 캠페인을 통해 아동에 대해 널리 퍼져있는 통상적인 관념을 바꾸어 아동의 의견표명권의 완전한 실현에 장애가 되는 부정적 태도에 대항한다.

(b)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관계된 구체적 의무

(i) 민사법적 절차에서 아동의 의견표명권

50. 아동의 의견표명이 요구되는 주된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이혼과 별거

51. 이혼과 별거의 경우 아동이 법정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아동 양육(maintenance), 양육권(custody), 면접권(access) 등의 이슈들은 재판에서나 법정 중재에 의해 결정된다. 많은 사법 관할 구역들이 부부관계의 해체 시 판사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법에 포함시켰다.

52. 따라서 이혼과 별거에 관한 모든 법률에는 의사결정자가 그리고 중재 과정에 아동의 의견표명권을 포함되어야 한다. 어떤 사법 관할 구역들은 아동의 의사 표현 능력을 인정하는 특정 연령을 명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 모두를 언급하고 따라서 아동을 개별적으로 사정할 것을 요구하므로 이러한 판단이 사례별로 내려지길 기대한다.

부모로부터의 분리와 대리 보호

53. 아동이 가정의 학대나 유기의 피해자이므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려는 결정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아동의 의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이와 같은 개입은 아동의 호소나 가족 구성원 혹은 학대나 유기 사실을 의심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54. 아동권리위원회의 경험에 따르면 회원 국가들이 항상 아동의 의사를 고려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아동권리위원회는 회원 국가가 법률, 규정 및 정책을 통해 아동의 수양 보호, 아동보호 프로그램의 개발 및 검토, 부모 및 가족의 방문에 관한 의사결정과 같은 일에 아동의 의사를 구하고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입양과 이슬람 법의 카팔라

55. 아동의 입양이나 이슬람법의 카팔라 보호를 결정할 때 아동의 의사를 묻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부모나 수양가족이 아동을 입양할 때도 비록 양부모와 이미 함께 동거해 왔다 하더라도 아동의 의사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56. 아동권리협약 제21조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고 규정한다. 입양, 카팔라 및 기타 보호에 관한 결정에서 아동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논할 수 없다. 아동권리위원회는 회원 국가가 가능하다면 아동에게 입양, 카팔라, 기타 형태의 보호프로그램에 대해 그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로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ii) 형사법적 절차에서 아동의 의견표명권

57. 형사절차에서는 소년사법의 모든 과정에서 아동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가 충분히 존중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아동 범죄자

58. 아동권리협약 제12조 2항은 형사법을 범한 것으로 고발되거나 인정되는 아동에게도 의견표명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권리는 아동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판 전 과정부터 경찰, 검사, 판사에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에 이르기까지 사법 전 과정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는 판결 및 처리, 그리고 부과된 형량의 실행 단계에까지도 적용된다.

59. 중재를 포함한 다이버전(diversion)의 경우, 아동은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동의할 기회를 얻어야 하며 제안된 다이버전의 적절성을 결정하는데 있어 법적 및 기타 조언을 구할 기회를 얻어야 한다.

60. 사법적 절차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려면 모든 아동에게 아동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들에게 부과된 죄과가 무엇인지 즉각, 직접적으로 알려 주어야 하며 소년사법 절차와 법정이 취할 조치들에 대해서도 알려 주어야 한다. 사법절차는 아동이 절차에 참여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분위기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61. 법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아동의 재판이나 청문회는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규칙에 대한 예외는 매우 제한적이어야 하며 국가의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 피해자와 아동 증인

62. 아동 범죄 피해자와 아동 증인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 결의문 2005/20 "아동 범죄 피해자와 증인에 관한 사법 사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한다.

63. 다시 말해 아동 범죄 피해자와 증인이 조사 중인 사건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공하며 자신의 방법대로 사건에 대한 견해 및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64. 아동 범죄 피해자와 증인의 권리는 의료, 심리,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 아동 피해자와 증인의 역할, "심문"이 진행되는 방법, 아동이 고소장을 제출

하거나 조사와 법정에 참여할 때 아동을 지원하는 시스템, 청문회의 구체적 장소와 시간, 아동 보호 장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항소에 관한 규정 등과 같은 이슈들에 대해 알 권리와 연계되어 있다.

(iii) 행정적 절차에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아동의 권리

65. 모든 회원 국가들은 법률 속에 제12조의 조건들을 반영하며, 관련된 기록의 열람권, 표현권(notice of hearing) 부모나 다른 사람들에 의한 대리권과 같은 절차적 권리를 포함해 자기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보장해 줄 행정적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66. 아동은 법정 절차보다는 행정 절차에 관여되기가 더 쉽다. 이는 행정 절차가 법정 절차보다 덜 형식적이고 보다 유연하며 비교적 법과 규정을 통해 설립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행정 절차는 아동에게 우호적이어야 하며 아동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67. 아동에게 관련된 행정절차의 예로는 학교에서의 처벌(정학과 퇴학)을 다룰 시스템, 학위 수여 거절과 학업 성취에 관한 이슈들, 처벌 방법과 소년원에서 청소년 특권 부여 거절,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보호 요청, 운전면허 신청 등이 있다. 이 사안들에 대해 아동은 자기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져야 하며 “국내법의 절차에 맞는” 다른 권리들도 향유해야 한다.

B. 의견표명권과 협약의 다른 조항과의 연계

68. 일반적 원칙인 제12조는 아동권리협약의 다른 일반적 원칙인 제2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제6조(생명, 생존, 발달에의 권리)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제3조(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와는 상호의존적인 관계가 있다. 이 조항은 또한 시민권과 자유에 관한 조항들, 특히 제13조(표

현의 자유권)와 제17조(정보에의 권리)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더욱이 제12조는 협약의 다른 모든 협약들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아동이 협약에 있는 각 조항들에 담겨 있는 권리들과 이 권리들의 실행에 대한 자기 의사의 주체로서 존중 받지 못한다면 이 권리들은 온전히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69. 제12조와 제5조(성장하는 아동의 능력과 부모의 적절한 지도, 본 일반논평의 84항 참고)는 특별한 관련이 있는데 왜냐하면 부모가 아동을 지도할 때 성장하는 아동의 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1. 제12조와 제3조

70. 제3조의 목적은 공공 및 민간 사회복지 기관, 법정, 행정당국, 입법기관이 아동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아동을 위한 모든 활동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은 회원국으로 하여금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보장하는 활동 과정에 여러 단계를 도입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절차적 권리(procedural right)와 유사하다. 아동권리협약은 회원국이 이런 활동을 책임지는 자들이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대로 아동의 의견표명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 단계는 의무적이다.

71. 아동과의 상담을 통해 정립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모든 기관, 단체, 행정부의 활동에서 고려해야 할 유일한 요소는 아니지만 아동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72. 제3조는 아동 개개인에게 적용되지만 아동에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이라는 그룹 전체의 최선의 이익이 고려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회원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할 때 각 아동의 개별적 상황 뿐 아니라 아

동 그룹 전체의 최선의 이익도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 회원국은 공공 및 민간기관, 단체, 행정부, 입법부의 모든 활동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입법부” 또한 이 의무를 진다는 것은 아동에게 관련된 모든 법, 규정 혹은 규칙이 “최선의 이익”이라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73. 아동 그룹 전체의 최선의 이익도 아동 개인의 이익을 다루는 경우와 동일한 비중으로 다뤄야 함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상당수의 아동들의 최선의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 기관, 단체, 정부의 대표는 이렇게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그룹이라도 그 그룹에서 문제에 연관이 있는 아동들에게 그들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입법적 결정을 포함해 어떤 활동을 계획할 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74. 제3조와 12조 사이에는 어떤 갈등관계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서로 보충적인 일반원칙들이다 한 원칙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달성하는 목표를 설립하고 있고 다른 원칙은 아동의 의사경청 목표의 달성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사실상 제12조의 내용이 존중되지 않으면 제3조를 제대로 적용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제3조는 아동에게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서의 아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촉진하면서 제12조의 기능을 강화해 준다.

2. 제12조, 제2조, 제6조

75.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아동권리협약을 포함한 모든 인권법이 보장하는 내재적 권리이다. 아동권리협약의 제2조에 따르면 협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권리를 포함해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때 어떤 차별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회원국이 모든 아동에게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와 또 표현된 의사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인종적,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여부, 출생 및 기타 신분 등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회원국은 아동이 자기 의견표명권을 보장 받고 아동에게 관련된 사안에 참여함에 있어 다른 아동들과는 다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차별, 특히 사회적 약자 그룹 아동의 차별을 다루어야 한다.

76. 아동권리위원회는 몇몇 국가에서의 통상적인 태도와 관행이 아동의 이러한 권리 향유를 어렵게 하거나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에 우려를 갖고 있다. 회원국은 이를 일깨우고 이러한 태도와 관행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교육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모든 권리를 온전히 실행할 수 있도록 태도의 변화를 촉진하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

77. 아동권리위원회는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가부장적 가치관으로 인해 여자 아이들이 제12조에 제시된 권리를 향유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회원국이 특히 여자 아이들의 의견표명권과 그 의사를 존중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78. 아동권리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7조에서 제시한 장애 아동이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 의사가 존중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도구를 제공해야 할 회원국의 의무를 환영하는 바이다.

79. 아동권리협약 제6조는 모든 아동은 내재적 생존권(right to life)을 갖고 있으며 회원국은 최대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위원회는 아동의 참여는 제6조와 제29조의 교육 목표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아동의 인성과 능력의 개발을 촉진하는 도구이므로 아동이 의견표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진작하는 것의 중요성을 주목한다.

3. 제12조, 제13조, 제17조

80. 표현의 자유권에 대한 제13조와 정보에의 권리에 대한 제17조는 의견 표명권의 효과적인 행사에 중요한 선제조건이다. 이 조항들은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면서 제12조와 더불어 아동은 성장하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신을 위해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81. 제13조에 규명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종종 제12조와 혼동된다. 비록 이 두 조항들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지만 분명 서로 다른 권리를 규명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자기 생각을 가지거나 표현하고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정보를 찾거나 습득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되어 있다. 표현의 자유는 아동이 자신이 갖고 있거나 표현하는 견해에 대해 국가의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이 권리가 회원국에게 부여하는 의무는 아동의 견해 표출과 정보 습득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반면 의사소통 수단과 자유로운 토론을 누릴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12조는 구체적으로 아동이 아동에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한 자기 의사를 밝힐 권리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활동과 의사결정에 관여할 권리에 관련이 있다. 제12조는 회원국에게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과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데 필요한 법적 틀과 방법을 도입할 의무와 표출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할 의무를 지운다. 제13조의 표현의 자유는 회원국으로부터 그와 같은 의무나 반응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아동의 의사 표현을 존중하는 환경을 창출하는 것은 아동이 표현의 자유권을 행사하는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82. 제17조에 입각해 아동의 정보권을 이행하는 것은 상당 수준, 자기 의사 표현권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선제조건이다. 아동은 자신에게 관련된 모든 이슈들에 대해 자신의 나이와 역량에 적합한 형식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아동의 권리, 아동과 관련된 모든 행정, 사법적 절차, 입법, 규정 및 정책, 지역사회서비스, 항소 및 고소 절차에 관한 정보가 포함

된다. 제17조와 제42조에 입각해 회원국은 학교 교과과정에 아동의 권리를 포함해야 한다.

83. 아동권리위원회는 대중매체가 아동의 자기 의사 표현권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의 견해를 대중적으로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란 사실을 회원국에게 상기시킨다. 아동권리위원회는 다양한 매체들이 아동의 프로그램 개발 참여와 아동이 자기 권리에 대한 대중매체 활용을 개발하고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데 더 많은 자원을 활용할 것을 촉구한다.

4. 제12조와 제5조

84. 아동권리협약 제5조는 부모, 법적 보호자, 확대가족이나 지역공동체가 아동이 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방향과 지도를 제공할 책임, 권리,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회원국이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아동은 방향제시와 지도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것은 아동의 지식, 경험, 이해 부족을 보충해 주며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성장하는 아동의 역량에 따라 제한 받는다. 아동의 지식, 경험, 이해도가 증가할수록 아동을 법적으로 책임지는 보호자 등은 방향제시와 지도를 자문과 조언으로 전환해야 하며 나중에는 동등한 지위에서의 의견 교환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전환은 아동의 발달 시기 중 어떤 특정 시점에서 일어나기 보다는 서서히 아동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도록 격려를 받는 가운데 일어난다.

85. 이 요구조건은 아동권리협약의 제12조에 의해 촉구된다. 제12조는 아동이 자기 견해를 형성할 수 있을 때 그러한 아동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아동의 역량이 증가하는 만큼 아동은 자신과 관련된 문제의 규정에 더 큰 책임을 부여 받아야 한다.

5. 제12조와 총체적 아동권리의 이행

86. 위에서 논의된 조항들과 더불어 아동권리협약의 대부분의 조항들은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촉진한다. 이와 같이 다방면에서 아동이 관여하는 데는 '참여'라는 개념이 널리 활용된다. 의문의 여지없이 이러한 아동 개입의 핵심은 제12조이다. 그러나 계획, 작업, 개발에 아동의 의견을 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동권리협약 전체에 걸쳐 존재한다.

87. 아동이 관여하는 분야는 보건, 경제, 교육, 환경 등 폭이 넓으며 이런 분야들은 아동 개인 뿐 아니라 아동 그룹들과 아동 전체에 관계된 분야들이다. 결과적으로 아동권리위원회는 참여라는 개념을 폭 넓게 해석하여 아동 개인이나 특정 아동 그룹 뿐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적 생활조건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원주민 아동, 장애 아동, 혹은 아동 전체와 같은 아동 그룹들을 위해서도 절차(procedures)를 확립해야 한다.

88. 아동의 참여에 대한 이와 같은 폭 넓은 해석은 "아동에게 적합한 세상"(A World fit for children) - 제27회 특별총회에서 채택된 결과 문서 - 에 반영되어 있다. 회원국들은 "청소년을 포함한 아동의 가정, 학교, 지역 및 국가의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하겠다"(para. 32, subpara 1)고 약속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 실행에 관한 종합대책에 대한 일반논평 5번에서 "정부가 비정부기구나 인권기구 등의 중재를 통해서만 아니라 아동들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C.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서의 의견표명권 실행

89. 아동의 의견표명권은 아동이 성장하고 배우는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

서 행사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과 상황에서는 아동과 아동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개념이 존재하는데 이 중 어떤 개념들은 일상의 문제와 중요한 의사결정에 아동을 관여시키기도 하지만 어떤 개념들은 아동을 제한한다. 아동의 의견표명권 실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하며 회원국들은 아동의 참여를 촉진하는데 이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다.

1. 가족 내에서

90. 아동이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고 그 의사가 일찍부터 존중 받는 가족은 중요한 모델이며 이러한 가족은 아동이 보다 큰 사회에서 자기 의견표명권을 행사하는데 좋은 준비과정을 제공한다. 가족 내 이러한 양육방법은 아동 개인의 발전을 촉진하고 가족관계를 공고히 하며 아동의 사회화를 촉진하여 가족이나 가정 내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예방 역할을 하기도 한다.

91. 아동권리협약은 부모나 다른 법적 보호자가 아동에게 적절한 방향제시와 지도를 제공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위 84항 참고) 이 권리와 책임은 아동이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며 성장하는 아동의 능력에 맞추어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92. 회원국은 법과 정책을 통해 부모, 보호자 등이 아동을 경청하며 아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할 것을 장려해야 한다. 부모는 아동이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아동의 의사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존중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93. 아동의 의견표명권과 관련된 양육방법의 개발을 위해 아동권리위원회는 회원국이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권장한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의 긍정적인 행동과 태도에서 출발할 수 있다. 또한 아동권리위원회는 회

원국이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과 부모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부모들에게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94. 이러한 프로그램은 다음 사항들을 다룰 필요가 있다:
- 부모와 아동의 상호 존중 관계
- 아동의 의사결정 참여
- 모든 가족 구성원의 견해를 존중하게 될 때의 결과
- 성장하는 아동 능력 이해, 촉진 및 존중
- 가족 내 대립되는 견해를 다루는 방법

95. 이러한 프로그램은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는 동등한 자기 의사 표현권을 가지고 있다는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

96. 대중매체는 아동의 참여가 아동 자신과 가족, 사회에 매우 높은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2. 대리보호(alternative care) 내에서

97. 시설 보호를 포함해 대리 보호를 받는 아동이 자기 의사를 표명할 수 있고 아동의 보호 선정, 수양가족이나 가정의 보호 규정, 그들의 일상생활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아동의 의사를 존중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조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해야 한다:

- 아동에게 보호 지정, 보호 및 치료 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와 의사 결정과정에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또 그 의사를 존중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법률
- 아동의 의견표명권을 보장하고 아동 친화적 보호 서비스의 개발 및 설립에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보장하는 법률

- 아동 옴부즈퍼슨, 커미셔너, 조사관과 같이 아동의 보호, 치료 제공을 관장하는 법규가 아동권리협약 제3조의 의무사항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할 역량 있는 모니터링 기관의 설립. 모니터링 기구는 수용시설(법을 어긴 아동이 수용된 곳 포함)을 제약 없이 방문할 수 있어야 하며 아동의 의견과 관심사를 직접 들을 수 있어야 하며 아동 보호 기관이 아동의 의사를 청취하고 존중하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권한
- 보호 기관의 정책 및 규칙의 개발, 실행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 아동 대표회의(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모두)와 같은 효과적인 제도 설립

3. 보건의료에서

98. 아동권리협약의 조항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자기 의사 표현권과 건강한 성장과 복지(well-being)를 추구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여기에는 아동의 보건정책 및 서비스 개발 참여와 개인의 건강에 대한 의사결정이 포함된다.

99.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건강에 관련된 프로그램과 의사결정에 아동이 참여하는 것을 존중하기 위해 고려해야 몇 가지 구별되지만 서로 연계된 이슈들을 파악하고 있다.

100. 아동은 성장하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아동은 치료 방법과 효과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장애를 가진 아동은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101. 회원국은 아동의 안전과 복지에 필요할 경우 아동의 나이와 관계없이 그리고 부모의 동의 없이도 진료 상담이나 의사 소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이 가정에서 폭력이나 학대에 시달리고 있거나 성교육이나 서비스를 필요로 할 경

우나 의료 서비스에 대해 부모와 갈등 관계에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정보가 필요할 수 있다. 의료 상담과 의사 소견 정보에 대한 권리는 의료 행위에 대한 동의를 줄 수 있는 권리와는 다른 성격의 권리이며 나이에 따라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102. 아동권리위원회는 몇몇 국가에서 특정 나이가 되면 아동에게 의료 동의권을 이전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을 환영하며 회원 국가들이 이러한 법률을 도입할 것을 고려하도록 권장한다. 따라서 정해진 나이 이상의 아동은 개인적인 역량에 대한 전문가의 사정없이 의료 행위에 자신의 동의를 줄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이 자신의 치료 행위에 대해 이성적인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아동이 어리더라도 그 의사를 존중하도록 보장할 것을 권장한다.

103. 의사와 의료시설은 아동에게 의료적 연구와 임상 실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명확하고 쉬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동은 연구에 대한 정보에 근거해 이성적으로 동의를 내릴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104. 회원국은 아동이 자신의 건강과 개발을 위한 계획과 프로그램 개발에 자신의 견해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그 서비스가 어디에서 어떻게 최선으로 제공될 수 있는지, 서비스를 받는데 차별적 장벽은 있는지, 의료 전문가의 자질과 태도, 아동 자신의 건강과 발달에 대해 점점 증가하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동의 역량을 개발하는 방법 등 모든 양상의 건강관련 규정에서 아동의 견해를 구해야 한다. 아동의 이러한 견해는 무엇보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이나 연구나 자문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얻을 수 있고 지역 혹은 전국 아동의회나 회의에 전달되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의료서비스 기준이나 지표를 개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4. 교육과 학교 내에서

105. 아동의 교육에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있어서는 아동의 의견표명권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다. 아동권리위원회는 많은 학교와 교실에 여전히 권위주의, 차별, 무시 및 폭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또 그 의사를 존중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106. 아동권리위원회는 회원국이 다음 이슈들과 관련해 아동의 의사 표현과 그 의사를 존중 받을 기회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한다.

107. 아동기 초기의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교육 환경에서 참여를 통한 교육에서 아동의 능동적인 역할을 도모해야 한다. 가르침과 배움에 아동의 생활환경과 전망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 당국은 교과과정과 학교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아동과 부모의 견해를 구해야 한다.

108. 인권교육은 아동이 배우고 놀고 다른 아동 및 성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장소에서 인권이 실천될 때만 아동의 동기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동권리협약의 선언대로 아동의 의견 존중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조직들에서 아동의 의사 표현권이 실행되는지 아동에 의한 중요한 감시가 이루어진다.

109. 교실에서 사회적 분위기를 창출하는 데는 아동의 참여가 필수불가결하며 이러한 참여는 아동 중심의 쌍방향 교육에 필요한 협동심과 상호지지의 정신을 고양한다.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특히 차별을 없애고, 왕따 및 이에 따른 훈육적 조치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중요하다. 아동권리위원회는 또래교육 및 상담이 확대되는 것을 환영한다.

110. 아동의 지속적인 의사결정과정 참여는 무엇보다 아동이 학교 정책과 행동 지침의 개발 및 실행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학급회의(class councils), 학생회의(student councils), 학교 이사회나 위원회의 학생 대표직 등을 통해 성취되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교육당국, 학교 혹은 교장의 선의에 따라 실행되기 보다는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111. 학교 밖에서도 회원국은 아동 친화적인 교육 시스템, 아동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는 비공식적 혹은 무형식적 교육 시설, 학교 교과과정, 교육 방법, 학교 구조, 규범, 예산, 아동보호 시스템과 같은 교육정책의 전반에 대해 지역 및 국가적 수준에서 아동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112. 아동권리위원회는 회원국이 아동이 교육 시스템에서 자신의 참여적 역할을 역량 있게 실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독립적인 학생기구(student organizations)를 개발하도록 도울 것을 권장한다.

113. 다음 단계의 학교나 다음 과정의 선택과 같은 전환점에 대한 선택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매우 깊은 영향을 미치므로 이런 선택에서 아동의 의견표명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행정적 혹은 사법적 검토를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생에 대한 징계에서는 반드시 아동의 의견표명권이 완전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학생을 교육이나 학교에서 배제시키는 경우 이러한 결정은 아동의 교육권에 상충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법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

114. 아동권리위원회는 많은 나라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이 사회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고 지역공동체 내에서 책임 있는 시민이 되도록 준비시켜 주는 아동 친화적 학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아동에게 상호작용적 환경, 아동을 돌보는 환경,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참여를 권장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5. 놀이,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문화활동 내에서

115. 아동의 발달과 사회화를 위해서 아동에게는 놀이, 레크리에이션, 신체적, 문화적 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은 아동의 기호와 능력을 감안해 고안되어야 한다. 자기 의사를 표현할 역량이 있는 아동들로부터 놀이 및 레크리에이션의 접근성과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구해야 한다.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매우 어린 아동이나 장애 아동은 자신의 바람을 표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 받아야 한다.

6. 직장에서

116. 법률과 국제노동기구협약 138번(1973)과 182번(1999)에서 허용한 나이보다 더 어린 나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아동은 아동을 배려하는 환경에서 자신의 환경과 그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이 일을 하고 있는 경제, 사회구조적 제약들과 문화적 상황을 존중하는 해결책을 찾는데 이 아동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아동 노동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정책을 개발할 때도 아동들의 의견표명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특히 교육 분야에서 그리 되어야 한다.

117. 일하는 아동은 노동착취를 금하는 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노동법의 수행여부를 조사하는 조사원이 근무 장소와 환경을 조사할 때 아동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노동법의 초안을 작성할 때나 노동법의 시행이 고려되거나 평가될 때 아동노동자협회가 존재한다면 이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7. 폭력 상황에서

118.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설립하고 있으며 회원국이 이 권리를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보장해 줄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회원국이 모든 형태의 폭력을 다루는 법률, 정책, 교육 및 기타 조치들의 개발 및 수행에 아동의 의견을 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착취된 아동, 길거리 아동 및 난민 아동과 같이 소외되고 혜택 받지 못한 아동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관련 법률과 정책 과정에 아동의 의견을 구하도록 고안된 자문 과정에서 이 아동들이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119. 이와 관련해 아동권리위원회는 사무총장의 아동에 대한 폭력 연구 결과를 환영하며 회원국이 아동에 대한 폭력의 예방, 보고, 모니터링 등 모든 양상에 대해 아동에게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주고 그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는 권고를 포함해 이 연구 결과의 권고를 온전히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120. 아동에게 행해진 대부분의 폭력이 아동 자신이 그와 같은 형태의 학대 행위를 받아들여 질 수 있는 관행으로 생각하거나 아동친화적인 보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별 다른 도전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동에게는 자신이 경험한 체벌, 성기절제, 조혼과 같은 잘못된 처사에 대해 믿고 보고할 사람이 없으며 자신들이 관찰한 바를 자신들의 권리를 지켜줄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창구가 없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아동들을 보호하려면 아동에게 자신의 의견표명권과 모든 형태의 신체적·심리적 폭력에서 자유롭게 자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회원국은 모든 아동기관이 아동이나 단체들이 신뢰하고 안전하게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의무화해야 하며 - 도움의 전화 등을 포함하여 - 아동이 아동 폭력에 대항하는 자신들의 경험이나 견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해야 한다.

121. 아동권리위원회는 회원국이 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아동단체나 아동 주도적인 사업들을 지지하고 격려할 것을 권장하며 이러한 단체를 폭력예방 프로그램 및 조치의 구상, 설립, 평가에 참여시켜 아동이 자신의 보호에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무총장의 아동폭력에 대한 연구의 권고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권장한다.

8. 예방 전략의 개발에서

122.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의견이 아동권리 침해 예방에 점점 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좋은 실천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학교 폭력 예방, 위험하고 확장된 노동을 통한 아동 착취 저지, 길거리 아동 보건 및 교육 서비스 제공, 청소년 사법 시스템과 같은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문제 영역에서의 법률 및 정책 형성에 대해 아동들의 의견을 구해야 하며 관련된 계획과 프로그램의 디자인, 개발, 실행에도 아동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9. 이민과 보호 요청 과정에서

123. 일을 찾아 혹은 난민으로 다른 나라에 온 부모를 좇아 온 아동은 특히 어려운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이민과 보호 요청의 모든 양상에서 아동의 의사 표현권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민의 경우 아동을 이민국의 학교 및 보건 서비스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교육에 대한 기대 및 건강상태에 대해 아동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보호 요청의 경우, 아동은 보호 요청에 대한 아동 자신의 의견을 부모의 것에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한다.

124. 아동권리위원회는 이민 및 보호요청 절차 속에서 아동이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의사를 존중 받으려면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권리와 의사소통 수

단, 이민 및 보호 요청 절차를 포함한 관련 서비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아동에게는 무상으로 보호자 및 상담자가 지정되어야 한다. 보호를 요청하는 아동은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효과적인 가족 추적 방법이 필요하며 고국의 상황에 대한 관련 정보가 필요할지 모른다. 이전에 무력 충돌에 연루되었던 아동이 자신들의 필요를 표출하는 데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할지 모른다. 또한 국적이 없는 아동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영토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이 기울여져야 한다.

10. 비상 상황에서

125. 아동권리위원회는 제12조가 명시하는 권리는 위기 상황이나 그 결과로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갈등 상황이나 그 이후의 중재 및 응급 상황 후의 재건설 과정에서 아동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상당하다는 데 대한 증거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권리위원회는 2008년 일반토론의 날 이후 발표한 권고문에서 응급상황에 연루된 아동은 그 상황과 상황 후의 미래에 대한 분석 과정에 참여하도록 격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아동의 참여는 아동이 자신의 삶을 다시 통제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의 재활을 도우며 조직 기술을 개발하고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데 일조한다. 그러나 아동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거나 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아동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126. 따라서 아동권리위원회는 회원국이 아동이 응급 상황 후의 재건축과 갈등 상황 후의 중재 과정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프로그램의 사정, 디자인,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에서 아동의 견해를 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난민캠프에 있는 아동들은 스스로의 포럼을 만들어 자신들의 안전과 복지에 기여하도록 격려받을 수 있다. 포럼의 운영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고 해로운 경험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가운데 포럼을 설립할 수 있도록 아동

들에게 지원해야 한다.

11. 국가적 상황과 국제적 상황

127. 대부분의 아동 참여 기회는 지역공동체 수준에서 주어진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지역 청소년의회(local youth parliaments), 시 아동위원회(municipal children's councils), 그리고 아동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임시 자문 프로그램 등의 증가를 환영한다. 그러나 공식적인 대표로서 지역정부에 참여하는 이러한 구조는 제12조를 지역 수준에서 실행하는 많은 접근법 중에 하나여야 한다. 이는 이러한 방법은 비교적 소수의 아동들만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과 공무원의 아동과의 대화 시간, 학교 및 유치원의 오픈 하우스와 방문 프로그램 등은 의사소통에 추가적인 기회들을 창출한다.

128. 아동들은 아동 주도의 단체와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지지와 격려를 얻어야 하며 이는 아동들의 의미 있는 참여 공간이 될 것이다. 또한 아동들은 예를 들면 학교, 운동장, 공원, 레저 및 문화 시설, 공공 도서관, 건강 시설 및 지역 교통 시스템 등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기여하여 보다 적절한 서비스가 창출되도록 할 수 있다. 대중의 의견을 취합하는 지역사회개발계획에는 아동의 견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29. 많은 나라들에서 이러한 참여 기회가 지구(district), 지방(region), 연방정부 및 전국 수준에서 제공되어 아동들은 청소년의회, 위원회 및 컨퍼런스에서 제공하는 아동포럼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관련된 청중에게 그 의사를 알리고 있다. 비정부기구 및 시민단체들은 대의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조작이나 형식에 치우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아동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

130.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의견표명권과 아동의 참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 유니세프와 비정부기구들의 상당한 기여를 환영하며 그들이 계속해서 가장 기초 단위에서 시작해 지역사회, 국가, 국제적 수준에서 아동의 참여를 촉진하고 모범사례에 대한 정보 교환을 촉진할 것을 권장한다. 배움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와 집단적으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발판을 확대하기 위해 아동 주도 단체들의 네트워킹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131. 국제적 수준에서는 1990년과 2002년에 총회에 의해 소집된 세계아동정상회의에 아동이 참여한 것과 아동권리위원회의 보고 과정에 아동을 참여시킨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회원국의 아동권리이행 모니터링 과정에 참여한 아동 단체들과 아동 대표들이 제출한 서면 및 구두 보고서를 환영하며 회원국과 비정부기구들이 아동들이 아동권리위원회에 자신들의 의사를 제출하는데 지원하도록 권장하는 바이다.

D. 아동 의견표명권 실행의 기본요건

132. 아동권리위원회는 회원국이 형식적인 조치를 취하여 아동의 의사 표현을 제한하거나 표현된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형식적이기만 한 접근법을 피할 것을 촉구한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고는 하나 어른이 조작한 상황에 두거나 아동의 참여가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것은 도덕적이지 않으며 제12조를 실행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133.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참여를 위해서는 참여가 과정으로 이해되어야지 일회적 행사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1989년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이래의 경험을 통해 제12조의 효과적이고 도덕적이며 의미 있는 실행을 위해 필요한 기본 요건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회원국이 이 기본 요건을 법률과 기타 조치들에 통합시켜 제12조를 실행할

것을 권고한다.

134. 아동의 의견표명과 참여의 모든 과정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투명해야 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아동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에 대해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하며 연령에 적합한 모든 정보와 아동의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범위, 목적, 잠재적 영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b) 자발적이어야 한다 - 아동은 결코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견해를 표명하도록 강제되어서는 안되며 어떤 단계에서도 그들이 원한다면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c) 존중 받아야 한다 - 아동의 의사는 존중 받아야 하며 아동은 생각이나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아야 한다. 아동을 위해 일하는 성인들은 아동 참여의 좋은 사례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잘 활용해야 한다(예를 들어, 가족, 학교, 문화 및 직장 환경에서의 아동의 기여). 성인들은 아동 생활이 이루어지는 사회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상황을 잘 이해해야 한다. 아동들을 위해 혹은 아동과 함께 일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공공 행사의 참여에 관한 아동의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

(d) 관련이 있다 - 아동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이슈들은 아동의 생활에 실제적으로 연관된 것이어야 하며 아동의 지식, 기술,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아동 스스로가 이러한 이슈들의 관련성과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e) 아동 친화적이어야 한다 - 환경과 작업 방법은 아동의 역량에 맞춰져야 한다. 아동이 적절히 준비하고 자신감을 가지며 자신의 견해를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과 자원이 할당되어야 한다. 아동마다 필요로 하는 지원의 수준이 다르며 아동의 나이와 성장하는 역량에 따라 그들이 관여할 수 있는 참여 형태도 다르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f) 포괄적이어야 한다 - 참여는 반드시 포괄적이어야 하며 기존에 존재하

는 형태의 차별을 피해야 하며 남녀 차별 없이 소외된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도모되어야 한다(위 88항 참고). 아동은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며 참여는 차별 없이 모두를 위한 기회의 균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지역사회의 아동들의 다른 문화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g) 훈련을 통해 지원된다 - 성인들이 청취 기술, 아동과의 협력, 아동의 성장하는 역량에 따른 아동의 효과적 참여를 도모하려면 아동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촉진할 준비과정과 기술 및 지원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참여를 도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동 자신이 훈련가이자 촉진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은 효과적인 참여, 자기 권리에 대한 인지, 회의 조직, 기금 조성, 대중매체 활용, 공중 연설과 옹호 관련 기술을 강화할 역량 습득을 필요로 한다.

(h) 안전하고 위험에 민감해야 한다 - 어떤 상황에서는 자기 견해를 밝힌다는 것에는 위험이 따른다. 성인들은 아동이 아동폭력, 착취, 기타 참여에 따른 부정적 결과로부터 오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아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특정 그룹의 아동들이 직면하는 특정 유형의 위험과 아동이 도움을 구할 때 직면하는 기타 장벽들을 인지하는 명확한 아동보호 전략의 개발이 있다. 아동은 위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과 필요할 때 어디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참여의 가치와 결과를 이해하고 아동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i) 책무성 - 후속 조치와 평가를 반드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어떤 연구나 자문 프로그램에서 아동은 자신의 견해가 어떻게 해석되며 사용되는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연구결과의 분석을 도전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아야 한다. 아동은 자신의 참여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적절하다면 아동은 후속 과정과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 받아야 한다. 아동 참여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는 가능하다면 아동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 결론

135. 아동에게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아동이 의견을 표명하고 그 의사를 존중 받을 권리를 실행하는데 투자하는 것은 아동권리협약의 모든 회원국이 분명하고 즉각적으로 지켜야 할 법적 의무이다. 이는 차별 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권리이다. 제12조를 실행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때로 아동에게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아동의 의사 표현에의 기회와 아동의 참여를 방해하는 법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여기에는 아동의 역량에 대한 기존의 가정에 도전하고 아동이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개발하고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을 개발하는 것을 격려할 준비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자원을 활용하고 교육을 실행할 의지도 필요하다.

136. 이러한 의무를 실행하는 것은 회원국에게 분명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이 일반논평에 제시된 전략들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아동과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는 문화가 세워진다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다.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자문·협력진 ◈

강현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 전공 교수
구정화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권혜정 서울 상원초등학교 교사
길은배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부 교수
김남정 한국청소년진흥원 참여봉사부 팀장
김봉채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중섭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진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교수
박창남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형근 서울 등원초등학교 교사
신승배 삼육대학교 연구교수
양돈규 중앙대학교 학생생활 상담센터 교수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대성 고양 행신고등학교 교사
이봉철 한남대학교 정치언론·국제학과 교수
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정현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사무관
이지혜 서울 대림초등학교 교사
정혜민 서울 방산초등학교 교사
조아미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천정웅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세용 서울 동산초등학교 교사
최윤진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 집필진 ◈

김신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

201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10-R01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I / 김지경 · 백혜정 · 임희진 · 이계오

10-R02 지역사회중심 아동 · 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 서정아 · 조흥식

10-R02-1 아동 · 가족 공공지원서비스 편람 / 서정아 · 조흥식

10-R03 위기아동 · 청소년 긴급구호 체계개편 및 안전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 이춘화 · 윤옥경 · 진혜전 · 황의갑

10-R04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연구 I / 임지연 · 송병국 · 이교봉 · 김영석

10-R05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 변동 전망III / 이종원 · 오승근 · 김은정

10-R06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수용자중심 대응방안 연구 / 성윤숙 · 유홍식

10-R07 청소년시설 지도인력의 역량 강화 및 복지 개선 방안 연구 / 맹영임 · 길은배 · 전명기

10-R08 초 · 중 · 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 김현철 · 최창욱 · 민경석

10-R09 청소년의 글로벌 시티즌십 강화 방안 연구 : 관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윤철경 · 송민경 · 박선영

10-R10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건강 및 안전(보호)지표 -총괄보고서- / 최인재 · 이기봉 · 김현주 · 이명선 · 이은경 · 박경옥

10-R10-1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2010 한국 청소년 건강·안전(보호)지표 조사 자료집 / 최인재 · 이기봉

10-R10-2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2010 한국 청소년 건강·안전(보호)지표 활용 분석 보고서 /최인재 · 이기봉 · 김청송 · 김진호

10-R10-3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청소년 건강실태 국제비교 조사 -한 · 미 · 일 · 중 4개국 비교- / 최인재 · 이기봉

10-R11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 수준 연구V : 발달권 · 참여권 기본보고서 / 모상현 · 김영지 · 김영인 · 이민희 · 황옥경

10-R11-1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 · 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V : 2010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자료집 -발달권 · 참여권- / 모상현 · 김영지

10-R11-2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 · 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V : 발달권 · 참여권 정량지표 / 모상현 · 김영지 · 김윤나 · 이중섭

10-R12 다문화가족 아동 · 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 / 양계민 · 김승경

10-R13 조기유학청소년의 적응 연구II : 귀국청소년을 중심으로 / 문경숙 · 이현숙

10-R13-1 조기유학청소년의 적응 연구II :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 임재훈 · 최윤정 · 안소연 · 윤소윤

10-R14 취약가정 · 시설의 아동 · 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단연구 I / 이혜연 · 황진구 · 유성렬 · 이상균 · 정윤경

10-R15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 방안 연구 I : 청소년 멘토링활동을 중심으로 / 김경준 · 오해섭 · 김지연 · 정익중 · 정소연

10-R15-1 청소년 멘토링활동 운영 매뉴얼 / 김지연

10-R15-2 청소년 멘토링활동 효과 측정 / 김지연 · 정소연

■ 협동연구과제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1** 장애아동 ·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II / 박영균 · 이상훈 · 양숙미 (자체번호 10-R16)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2** 장애아동 · 청소년의 성문제 실태 및 대책연구 / 전영실 · 이승현 · 권수진 · 이현혜 (자체번호 10-R16-1)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3** 장애아동 · 청소년의 가족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백은령 · 유영준 · 이명희 · 최복천 (자체번호 10-R16-2)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1**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I : 총괄보고서 / 김기헌 · 장근영 · 조광수 · 박현준 (자체번호 10-R17)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2**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I : 지적도구활용 영역 / 최동선 · 최수정 · 이건남 (자체번호 10-R17-1)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3**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I :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 김태준 · 이영민 (자체번호 10-R17-2)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4**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I : 자율적 행동 영역 / 김기헌 · 장근영 · 조광수 (자체번호 10-R17-3)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5**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I : 학교연계 프로그램 시범사업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자체번호 10-R17-4)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6**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I : 수련시설기반 프로그램 시범사업-사고력 / 임영식 · 조아미 · 정경은 · 정재천 (자체번호 10-R17-5)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7**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I : 수련시설기반 프로그램 시범사업-사회적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율 · 김지수 · 김영희 (자체번호 10-R17-6)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1-0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 : 총괄보고서 / 안선영 · Hernan Cuervo · Johanna Wyn(자체번호 10-R18)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1-02**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 : 우리나라의 성인기 이행 실태 / 이병희 · 장지연 · 윤자영 · 성재민 · 안선영 (자체번호 10-R18-1)

■ 수시과제

10-R19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선도를 위한 스포츠활동 적용 연구 : 총괄보고서 / 김남수 · 이기봉 · 박일혁

10-R19-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 · 고등학생용) / 김남수 · 이기봉 · 박일혁

10-R20 청소년지도자의 현장지도력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 :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 한상철 · 길은배 · 김민 · 김진호 · 김혜원 · 문성호 · 박선영 · 설인자 · 오승근 · 윤은종 · 이명옥 · 이은경 · 최순종 · 김영지

10-R21 청소년쉼터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평가체계 연구 / 황진구 · 김성경 · 남미애 · 정경은

10-R22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 매뉴얼(교사용) / 구본용 · 박제일 · 이은경 · 문경숙

10-R23 취약계층 청소년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학교중단 청소년의 취업 자립을 중심으로 / 서정아 · 권해수

■ 용역과제

10-R24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방안 / 이춘화 · 김정환 · 조윤오
10-R25 201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양계민 · 김승경 · 조영희
10-R26 7~13세 아동 · 청소년을 위한 한국형 성취포상제 운영모형 개발 / 백혜정 · 장근영
10-R26-1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효과성 연구 : 패널조사계획 / 장근영 · 백혜정
10-R27 소년원생 재범방지를 위한 소년원 교육 효과성 및 개선방안 연구 / 안선영
10-R28 방과후 돌봄 서비스 실태조사 / 양계민 · 김지경 · 김승경
10-R29 비행청소년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시범사업 / 김지연(2011년 발간)
10-R30 졸업식 유형별 사례집 : 졸업식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 맹영임
10-R31 보편적 · 통합적 청소년정책 수립 연구 / 김현철 · 최창욱 · 김지연 · 이춘화 · 오해섭
10-R32 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참여확대 방안 연구 / 최창욱 · 김승경
10-R33 학업중단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 윤철경 · 류방란 · 김선아
10-R34 2010년 청소년 백서 발간 / 김기헌 · 김형주
10-R35 졸업식 및 입학식 개선을 위한 학교문화 선도학교 위탁운영사업 / 성윤숙 · 이창호
10-R36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최인재 · 김지경 · 임희진(2011년 발간)
10-R37 2010 청소년 디지털 이용문화 실태조사 연구 / 문경숙 · 장근영
10-R38-1 외국의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 김경준 · 모상현 · 서정아
10-R38-2 우수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례집 / 김경준 · 모상현 · 서정아(2011년 발간)
10-R38-3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컨설팅 및 평가사업 :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 김경준 · 모상현 · 서정아
10-R39-1 청소년 권리찾기로 청소년에게 행복을(청소년용 권리교재) / 김영지 · 이혜연
10-R39-2 청소년이 함께 행복한 세상(청소년용 핸드북) / 김영지 · 이혜연
10-R39-3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청소년지도자용 권리교재) / 김영지 · 이혜연
10-R40 2010 서울시 청소년프로그램 운영평가 / 이기봉 · 김형주(2011년 발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10-s01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방법론 세미나 I 자료집 (1/26)
10-s02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의 성과와 발전방안 (3/9)
10-s03 2010년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 I 자료집 (3/19)
10-s04 제2차 연구성과 발표회 (4/15)
10-s05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실태와 지원방안 (5/6)

10-s06 제1차 청소년미래포럼 (6/21)
10-s07 청소년수련원 평가모형의 시범적용을 위한 전문가워크숍 (6/29)
10-s08 아동 · 청소년 인권지표 개발현황과 개선과제 · 발달권 · 참여군 정량지표- (6/29)
10-s09 2010년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II 자료집 (7/2)
10-s10 글로벌 시티즌십 함양 활동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과제 (7/9)
10-s11 청소년멘토링 봉사활동의 세계적 동향과 전망 (7/8)
10-s12 2010년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III 자료집 (7/27)
10-s13 한국의 다문화주의: 현황과 쟁점 (8/18)
10-s14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방법론 세미나II 자료집 (8/19)
10-s15 학교문화선도 운영학교 워크숍 (8/24, 25)
10-s16 국제결혼가정의 생활 실태 및 정책 방안 (8/25)
10-s17 다문화관련 정책용어 개선과 제안을 위한 토론회 (8/26)
10-s18 청소년 또래멘토링 시범사업 평가 (8/27)
10-s19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자도자의 역량강화 및 복지개선 방안 (9/10)
10-s21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9/29)
10-s22 청소년 체험활동 개념정립을 위한 세미나 (9/30)
10-s23 청소년의 멘토링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 (9/28)
10-s24 장애아동 · 청소년의 성문제 실태 및 가족지원 서비스 (10/13)
10-s25 청소년 글로벌 시티즌십 프로그램의 성과와 발전방안 (10/8)
10-s26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연구 I 콜로키움 자료집 (10/8)
10-s27 2010년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IV 자료집 (10/14)
10-s28 청소년정책 모니터링단 토론회 (10/16)
10-s29 학업중단 청소년 유형별 현황 및 맞춤형 정책 개발 (10/19)
10-s30 미래시민으로서 청소년의 핵심역량 개발과 교육에 관한 국제회의 (10/26)
10-s31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수용자 중심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10/28)
10-s32 아동 · 청소년 인권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발달권 · 참여권- (11/5)
10-s33 정부부처 디지털 유해매체환경관련 청소년보호정책 현황과 대응방안 모색 워크숍 (11/5)
10-s34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정 · 보완(안) 공청회 (11/8)
10-s35 학교문화선도학교 우수사례 워크숍 (11/22, 23)

■ 학술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1호(통권 제5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2호(통권 제57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3호(통권 제5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4호(통권 제59호)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Ⅰ : 외국의 창의적 체험활동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Ⅱ : 1부 일본의 「종합적학습」 가이드 "요코하마의 시간"
2부 일본의 「청소년체험활동전국포럼」 보고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Ⅲ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Ⅳ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교육 매뉴얼 : 생활권수련시설 지도자용 / 한상철·길은배·김민·김진호·김혜원·문성호·박선영·설인자·오승근·윤은종·이명옥·이은경·최순종·김영지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Ⅴ : 청소년민주시민 교육 매뉴얼(중·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Ⅵ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Ⅰ: 핵심역량-창의적체험활동 연계 / 김기헌·장근영·권해수·김민성·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Ⅶ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Ⅱ : 핵심역량-교과(지리)수업연계 / 김기헌·장근영·권해수·김민성·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Ⅷ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Ⅰ : 핵심역량-사고력 / 김기헌·장근영·임영식·정경은·조아미·정재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Ⅸ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Ⅱ : 핵심역량-사회성 / 김기헌·장근영·권일남·김태균·김정율·김지수·김영희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Ⅹ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Ⅲ : 핵심역량-자율적행동 / 김기헌·장근영·권일남·김태균·김정율·김지수·김영희

■ 기타 발간물

NYPI YOUTH REPORT 7호 : 청소년들의 핵심역량(4월)

NYPI YOUTH REPORT 8호 :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직업(6월)

NYPI YOUTH REPORT 9호 : 청소년들의 활동 및 문화(8월)

NYPI YOUTH REPORT 10호 : 다문화가정 및 장애아동·청소년들의 역량강화(10월)

NYPI YOUTH REPORT 11호 : 멘토링과 청소년사회참여(11월호)

연구보고 10-R11-2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Ⅴ

: 발달권·참여권 정량지표

인 쇄 2010년 12월 22일

발 행 2010년 12월 27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명 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양동문화사 전화 02)2272-1767 대표 김방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학술정보아카이브팀)

ISBN 978-89-7816-889-2

ISBN 978-89-7816-886-1(세트)